

한국칼빈주의연구원 30년사 (1985-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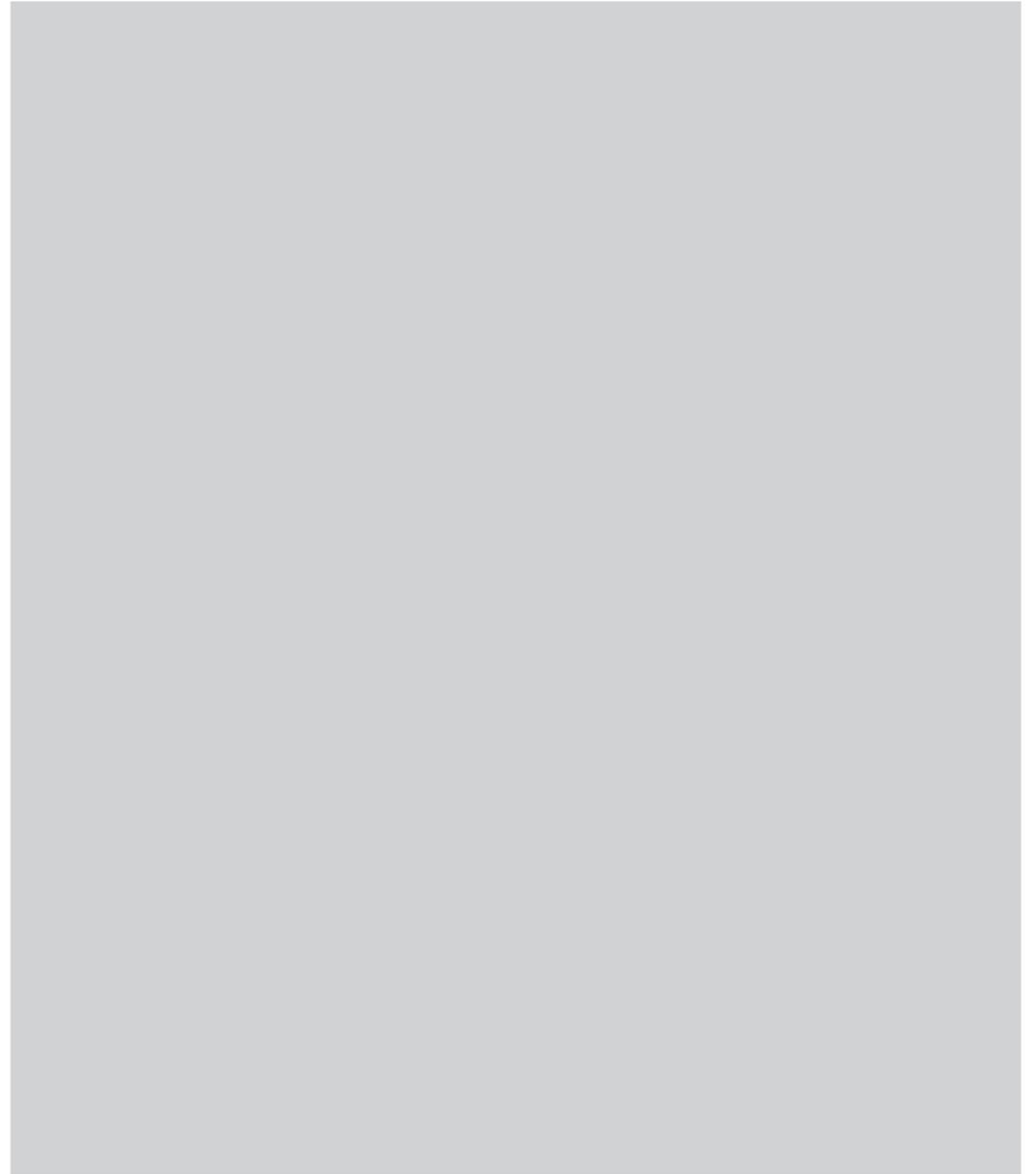


한국칼빈주의연구원

A History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30th Anniversary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John Calvin(1509-1564)

인사말

축하의 글 및 축서, 축화

제 I 부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제 1장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역사

1.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의 설립 배경
2.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발자취
3.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의 연표

제 2장 한국칼빈주의연구원 관련 자료 전시회들

1. 요한 칼빈 16세기 자료전시회
2.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자료전시회
3. 개혁주의 신학자 육필원고 전시회

제 3장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칼빈박물관

1. 칼빈박물관 소개하는 글
2.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외벽에 장식된 칼빈의 일생
3. 칼빈 박물관 전경
4. 교부들의 원전
5. 칼빈의 원전
6. 칼빈 관련 자료들
7.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원전
8.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기독교 강요
9. 아브라함 카이퍼의 자료들
10. 종교개혁 관련 자료들
11. 돌트 총회 관련 자료들

제 4장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사역들

1. 언론 속의 연구원
2. 칼빈주의 학교(School of Calvinism)
3. 칼빈주의 실천을 위한 C-Story 운동

제 2부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정성구 박사

정성구 박사 약력

제 1장 정성구 원장의 사상적 스승들

1. 정암 박윤선(正岩 朴允善 Y.S Park 1905-1988)
2. 죽산 박형룡(竹山 朴亨龍 1897-1978)
3. 요하네스 벨까일 (Johannes Verkuyl 1908-2001)
4. 헬만 도예베르트 (Herman Dooyeweerd : 1894-1977)

제 2장 정성구 박사의 칼빈 및 칼빈주의 관련 서책들 및 강연 팸플렛, 설교 CD 사진들

1. 정성구 박사의 칼빈 및 칼빈주의 관련 서책들 사진
2. 설교 CD 사진
3. 강연 팸플렛

제 3장 정성구 박사의 국제 활동 및 국제적인 신학자들과의 교류

1. 국제 활동 관련 글
2. 국제 활동 관련 사진들
3. 국제적인 신학자들과의 교류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방명록

인사말



금년 2015년은 「한국칼빈주의연구원」(ICSK)이 설립된 지 만 3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서울 서초동 시대가 11년, 분당으로 이전한지 19년이 되는 해입니다. 되돌아보면 지난 30년의 세월은 짧고도 긴 시간 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3년 전에 저는 박윤선 박사님과 함께 서울 동산교회를 섬기면서 그의 신학과 신앙과 삶을 접했고, 3년 후에는 김성환 목사님과 함께 섬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두 분 모두 철저한 칼빈주의 선봉자였고, 나도 별 수 없이 그 어른들의 감화와 영향으로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에 깊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총신대학교에서 평생을 배우며 가르치며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분위기에서 지냈습니다.

그 후 저는 칼빈주의 운동의 본산인 화란의 뿌라야 대학교에 유학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중에 헬만 도예베르트, 볼렌 호번, 벨까일, 리델보스, 베인호프, 로끄마커, 덴그링크, 반 리센 등 칼빈주의 학자들을 만나 칼빈주의 세계관에 자극을 받고, 칼빈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칼빈주의 세계관의 전도자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이미 총신 신대원 3학년 때 칼빈주의 5대 교리 강해라는 팸플릿을 내기도 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귀국한 후에 총신대학교 교수가 되어 10여 년 동안 가는 곳곳마다 칼빈주의 사상을 힘 있게 외치다가 1985년 7월 10일, 그동안 제가 소장하고 있던 모든 칼빈 및 칼빈주의 자료 일만 여점을 개방해서 서초동에 「한국칼빈주의연구원」과 『칼빈박물관』을 세웠습니다. 그동안 경제적 압박과 교단의 무관심 속에서도 많은 국제적인 행사와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칼빈주의 사상의 정착을 위해 미력이나마 노력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칼빈박물

관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기관이 되었고 특히 전 세계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신봉하는 많은 신학교와 대학으로부터 관심을 받았으며, 「한국칼빈주의연구원」과 「칼빈주의 박물관」에 수백 명의 학자들이 연구하러 왔고 또는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칼빈 전시회」와 「카이퍼 전시회」를 열고 1986년부터 국제칼빈학회에 공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30년 역사」를 펴내면서 많은 국제적인 학자들의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 주셨습니다. 즉 화란 뿌라야 대학교 부총장 겸 신대원장이신 Dr. Wim Janse 박사님, 그리고 전 미국칼빈신학대 총장 Dr. James De Jong 박사님, Refo500 국제회장 Herman Selderhuis 박사님 그리고 헝가리 테브레첸 리폼드 대학교 전 총장 Dr. Botand Gal 박사님, 그리고 일본의 칼빈학자 Dr. Watanabe Nobuo 박사, 전 트리니티 기독교대학 총장이며 현 CRC 교단의 CEO, Steven Timmermans 박사, 전 한기총회장 총신대학교 총장 길자연 목사, 통합측 장로교회 총회장 고방지일 목사님 등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희 연구원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과 교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내는데 제정 일체를 도와준 분당중앙교회와 협력을 해주신 칼빈주의연구원 대구 지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이 책의 영문 편집에 도움을 준 정신애 박사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연구원 설립 30년 뜻 깊은 해에 지난날을 돌아보는 조그마한 역사자료집을 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2015년 03월 01일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장 정 성 구 박사

President's Greetings

In 2015, it has been 30 years that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was established. The Institute has been located in Seocho, Seoul for 11 years and in Bundang for 19 years. Looking back the past, the span of 30 years seems long and at the same time short. From when I served Seoul Dongsan church under its senior pastor, Rev Yun Sun Park 53 years ago, and Rev Sunghwan Kim 50 years ago, I was blessed to be exposed to and to learn about Calvinistic theology and faith because both Rev. Park and Rev. Kim were influential Calvinists in Korea. After I was engaged in Chongshin University as a student and later as a professor, I have learned and taught Calvinistic theology and faith throughout my entire life. As a matter of fact, when I was a senior of Chonshin theological seminary, I already publicized a pamphlet titled "Exposition of Calvin's 5 doctrines."

After graduation of Chongshin, I went to Free University in Netherlands, the home of Calvinist movement, to study more about Calvinism. I was be able to research Calvin and Kuyper more deeply, there. I was also be able to meet and learn from many erudite Calvinist scholars there, such as Herman Dooyeweerd, D.H. Th. Vollenhoven, Johannes Verkuyl, Herman Ridderbos, C. Veenhof, Hans Rookmaaker, Jan D. Dengerink, Van Riessen etc. Through the profound research of Calvin and Kuyper, and the encounter with great scholars, I was deeply moved by the Calvinistic worldview and decided to be in the van of that.

It was after coming back to Korea from Netherlands and while teaching Calvinism everywhere as a professor of Chongshin University that I established the Institute and the Museum on July 10th, 1985, by making public over 10,000 pieces of my collection of Calvin and Calvinist materials. Despite of economic squeeze and denominational unconcern, for the past 30 years, I have made my efforts to root Calvinism in Korean

Church and society through abundant international events and educational programs. Now, the Institute with the Museum became a world-famous institution with far-reaching attentions from a huge number of Calvinistic colleges and seminaries from all over the world, bringing hundreds of passionate international scholars of Calvinism. The Institute also held the world first Calvin exhibition and Kuyper exhibition. Since 1986, the institute has contributed to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Calvin Research.

On publishing the volume of the 30 years of the history of the Institute in memory of its 30th anniversary, a large number of internationally renowned scholars sent their congratulatory messages. I give thanks to Dr. Wim Janse, vice president and dean of the seminary of Free University (Netherlands), Dr, James DeJong, former president of Calvin Theological Seminary (USA), Dr. Herman Selderhuis, chairman of Refo 500, Dr. Botand Gal, former president of Debrecen Reformed University(Hungary), Dr, Watanabe Nobuo, a great Calvinistic scholar (Japan), Dr. Steven Timmermans, chairman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and former president of Trinity Christian College(USA), Dr. R. Mouw, former president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USA), Dr. Woo Yeo Hwang, deputy prime minister & The Minister of Education(Korea), and Dr. Ja Yeon Kil, president of Chongsh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nd former chairman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Korea).

I want to give thanks to everyone who has supported the institutes both materially and spiritually. I give my special thanks to Dr. Sinai Chung, who served as an English editor of this volume. I believe that God our Lord, who has been with the Institute till now, will be present in its future. On publishing the volume of the 30 years of the history of the Institute in memory of its 30th anniversary, I attribute all the glories to God alone.

March 1, 2015

Director of the Institution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Rev. Dr. Sung Kuh Chung

축하의 글 및 축서, 축하

Van harte gefeliciteerd!

Prof. Dr. Herman Selderhuis
Director Refo500



Just as with human beings turning 30, this birthday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means it's a young institution. And it's as alive and productive as it's director! In Calvinist tradition we are not too keen on praising people and so we do give thanks to God for this wonderful institute. But we may praise the means God uses and so I want to thank my friend Dr. Samuel Chung for starting this unique place which is a library, a museum and a researchcenter as much as a home to many scholars from Korea and the rest of the world.

When I visited the Institute for the first time, now almost 15 years ago, I was right away impressed by this fine collection of works and objects related to the history of Calvinism. I wondered if there would be one other place in Asia where so much Dutch materials was brought together. And I was fascinated by the man behind this project, who in many ways resembles the father of neo-calvinism, Dr. Abraham Kuyper. Kuyper and Chung, they are look-a-likes in stature, in status and in endless energy.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has in its 30 year history managed to not only collect sources but also make this sources accessible to all those interested in Calvin and Calvinism. We can therefore only wish that the Institute may continue to grow and may welcome many more scholars and other guests.

What I like most about this institute is that as soon as one enters, one experiences it as an institution that wants to be of service to the church and to scholarship. These are the institutions we need and therefore I wish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many more anniversaries so that it can remain to be a blessing to many.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헤르만 셀더하이스 박사
Refo 500 회장
아펠톤신학대학 역사신학교수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이 30주년을 맞이한다는 것은, 마치 사람이 서른 살 생일을 맞이한 것으로,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은 젊고, 생기가 있고, 또한 생산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칼빈주의 전통에서는 사람을 칭송하는 것에 그다지 관심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한국칼빈주의연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 드립니다. 하지만 이 연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신 것을 칭송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도서관이자 박물관이자 또한 연구센터로서 한국과 세계 각국의 많은 학자들을 섬겨 온 이 독보적인 연구를 시작하고 이끌어 온 장본인인, 저의 친구 정성구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약 15년 전, 제가 처음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방문했을 때, 저는 이곳에 소장된 질 높은 칼빈주의 관련 자료들과 사료들에 대번에 감명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시아 어느 나라에도 이렇듯 방대한 화란의 자료들이 소장되어 있는 곳이 없었다는 생각을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있는 여러 측면에서 신 칼빈주의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카이퍼를 닮은, 이 연구원의 원장 정박사님에게 매료되었습니다. 카이퍼와 정박사님은 그 영향력 면에서, 그 위치적 중요성 면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분출되는 에너지 면에서 매우 닮아 있습니다.

그 30년의 세월동안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은 이미 귀중한 자료들을 잘 수집했을 뿐 아니라 그 수집한 자료들을 칼빈과 칼빈주의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해 왔습니다. 이에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은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이 계속해서 성장하여 더욱 많은 학자들과 더욱 많은 다양한 방문자들을 맞이하게 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 연구원에 대해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누구든지 이 연구원에 가면 그곳이 교회와 학문을 모두 섬기고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연구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이 앞으로 더욱 더 많은 생일을 맞이하여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끼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축하의 글

Steven Timmermans, Ph.D.
Executive Director



Dear Dr. Chung:

Congratulations to you up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Your vision for an institute for the study and furtherance of Calvinism in Korea and around the world is laudatory.

I know of many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leaders and professors who have benefited from the Institute. Moreover, the CRCNA is just one branch of the Calvinistic family tree that benefits from the Institute.

I also am grateful to have visited the Institute, both as a place to find hospitality and welcome and as a place to more fully appreciate the wide range of archival matters the Institute has assembled. The collection of historical documents is impressive and certainly one of the world's leading depositories of Calvin materials.

In this 30th anniversary year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please accept my congratulations on behalf of the Christian Reformed Church in North America and my appreciation for the friendship we have shared these many years.

Blessings, July, 2014

스티븐 팀멀만스 박사
미국개혁파 교회 총괄회장(CEO)
전 트리니티기독교대학교 총장

친애하는 정성구 박사님, 한국칼빈주의연구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한국과 모든 세계에 칼빈주의를 촉진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귀하의 비전 제시를 칭송하고 있습니다.

저는 미국의 많은 기독교 개혁교회 지도자들과 교수님들도 칼빈주의 연구원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미국 기독교개혁파 교회는 연구원과 함께 칼빈주의적 가족으로 연결되어 함께 유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방문할 때 마다, 다양한 분야의 많은 자료를 모으신 것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연구원의 역사적 문헌들의 수집은 펍 인상적이었고,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은 확실히 칼빈의 자료 수집과 보관에 앞장선 기관이라고 봅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 30주년에 즈음하여 미국개혁파교회의 축하를 드리며, 여러 해 동안 저와 함께한 우정에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A wonder in Korea

Prof. Dr. BotondGaal
Systematic Department of the
Debrecen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y
Doctor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First time I met Professor Dr. Samuel S.K. Chung at Broekelen, The Netherlands in 1984. He talked me about a prospectiv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and six years later he showed me a real institute with many books, pictures, documents, showcases in a building. I remember he was enthusiastic very much full of plans and aims towards its future. When I visited again the ICSK and its museum department in 2005 I admired the great development of it. I could see several books, handwritings, photos that I was not able to watch in Europe. It seemed to me that Professor Chung produced fantastic values from the history of Reformation by magic and he made possible to feel the atmosphere of the Calvinism in Seoul, Korea. I am convinced that ICSK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spiritual and intellectual center of the Calvinist trend of Reformation in Asia.

Now I wholeheartedly congratulate to the 30th anniversary of establishing and running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Thanks be to our gracious God for his rich blessings upon the life of my friend Samuel Chung who was and is a strong device in the hand of the Lord Jesus Christ. He earned a good name not only in his native country Korea but became an internationally renowned scholar of Calvinism. He has published many articles in prestigious journals, and books well-respected publishing houses. As an outstanding researcher he contributed greatly to the understanding of Calvin's theology. To promote the study of Calvin's writing Professor Chung created a wonderful place for doing research in Protestant theology and deepened the biblically based Reformed theological understanding in Korean Reformed Churches and also abroad.² That is why the Debrecen Reformed Theological University in Hungary was pleased to reward him with an honorary doctorate in 2002 expressing its appreciation of his fine work as an excellent scholar of Reformed Theology.

I am so happy to send our warm brotherly greetings to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on its 30th anniversary wishing to it to continue its ministry with the power of grace of Jesus Christ.

May 2014

한국에서 일어난 놀라운 사실 하나

보톤드 가알 박사
데브레첸 리폼드신학대학교 교의학 교수
헝가리 학술원 박사

저는 1984년 화란의 브룩크렌에서 정성구 박사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 때 그는 나에게 <한국 칼빈주의연구원>의 설립계획과 진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6년 후 나는 그가 계획했던 연구원을 직접 가서 보면서 칼빈에 관한 많은 서책들과 그림들과 자료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나는 다시 한국칼빈주의연구원과 칼빈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그간에 놀라운 발전이 있었음을 보고 탄복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에서도 볼 수 없는 칼빈에 관한 여러 서책들과 그림들과 육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 정교수님은 종교개혁사의 놀라운 가치를 그만의 비법으로 생산했습니다. 그는 한국, 서울에서 칼빈주의 연구 방법을 느끼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확신하는 것은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이 아시아에서 종교개혁의 핵심인 칼빈주의자들의 가장 중요한 영적이고 지성적인 센터의 하나라고 봅니다.

이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설립 3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내 친구 사무엘 정의 생애에 우리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강력히 이끌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의 조국 한국에서도 명성을 얻었지만 국제적으로도 칼빈주의 학자로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권위 있는 잡지에 논문을 기고하거나, 명성 있는 출판사에서 많은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걸출한 연구가로서 칼빈신학 이해에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정교수님은 칼빈의 작품 연구를 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신학연구에 놀라운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한국개혁교회를 전 세계에 성경적 개혁주의 신학을 깊이 있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헝가리 데브레첸 리폼드대학교는 2002년에 그에게 개혁신학의 최고의 학자에게 주는 명예신학박사학위를 수여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었습니다.

저는 <한국칼빈주의연구원> 30주년을 맞아, 형제의 우의로 따뜻한 축하를 보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귀한 사역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2014. 5.

Congratulations and Endorsement

Dr. James A. De Jong
President emeritus, Calvin Theological Seminary
Grand Rapids, Michigan, USA



With a sense of great privilege and deep appreciation, I congratulate Dr. Sung kuh Chung and his supporter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This remarkable institute has assembled an enviable collection of primary and secondary resources for understanding more deeply and promoting more effectively the Reformed branch of the Protestant faith. Those who have used its resources will appreciate its importance not just for Korea, but globally.

In an era that shows little appreciation for the importance of doctrinal truth or historical perspective, this remarkable organization is to be commended for its effective endeavors on both counts.

May God in his goodness continue to bless it, Dr. Chung, and those who make use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for the extension of his church and kingdom.

March 25, 2014

축하와 지지를 보냅니다!

제임스 드용 박사
전 칼빈신학교 총장
미국 미시간 그랜드 래피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창립30주년을 맞이하는 정성구 박사님과 그의 동역자들에게 깊은 감탄과 영광스러운 마음을 담아 축하하는 바입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은 정말로 부러울 만큼 개혁신앙의 원자료 및 이차 자료들을 수집, 소장하고 있으며, 이는 개혁신앙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더욱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대하고 연구에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자료들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 볼 것입니다. 교리적 진리와 역사적 통찰의 중요성을 저평가하는 이 시대에, 참으로 놀랄만한 기관인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은 교리적 진리와 역사적 통찰을 바로 세우기 위한 효과적인 노력들로 인해 칭송 받아 마땅합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과 정성구 박사님, 그리고 연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의 그의 나라를 확장시키고자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월 25일

축하의 글

Prof. Dr. Wim Janse
Vice President of Free University, Amsterdam Netherlands
Dean of Theological Faculty



My congratulations to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on its 30th anniversary!

When I visited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and its museum, in 1998 and 2011, I truly appreciated its collection of a variety of rare items and its huge amount of resources on Calvin and (Neo-)Calvinism.

Dr. Samuel S.K. Chung, President of the Institute, is one of the noted alumni of the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in the Netherlands. Dr. Chung graduated 40 years ago and has served Korean churches as well as churches worldwide as a sincere Reformed theologian and church leader. He did a wonderful job in organizing and hosting the “John Calvin Resources Exhibition” in 1986 and the “Abraham Kuyper Exhibition” in 1988. With these two exhibitions he put the Institute on the map. As President of Chongsh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nd of Taesh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Dr. Chung has diligently published books and articles on Calvin, Calvinism, Kuyper, and Reformed theology. As such, Dr. Chung and his Institute have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academia, church, and society within the Asian Reformed world.

I congratulate Dr. Chung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and strongly believe that this institute will continue to contribute to the knowledge of Kuyper and (Neo-)Calvinism in Korean and world wide churches.

April 2014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30주년을 축하합니다

빔 안세 박사사
화란 뿌라야 대학교 부총장
신학부 학장

저는 몇 해 전에 한국칼빈주의연구원과 칼빈 박물관을 방문하면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일세기가 조금 넘는 한국교회에 이처럼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에 크나큰 관심을 가지고 희귀한 많은 칼빈과 칼빈주의 자료를 수집했는지 감탄했습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정성구 박사는 지금부터 40여 년 전에 저희 학교 뿌라야 대학(Vrije Universiteit) 박사원을 졸업한 잘 알려진 동문으로서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교회지도자입니다. 그는 1985년에 한국칼빈주의연구원과 칼빈 박물관을 설립한 후에 1987년에 세계 최초로 「16세기 요한 칼빈 자료 전시회」를 열었고, 이듬해인 1988년에도 세계 최초로 「아브라함 카이퍼 자료전시회」를 열어 개혁주의 신학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후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개혁주의 신학계에 잘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정 박사는 총신대 및 대신대의 교수와 총장을 역임하면서도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의 원장으로서 즐기차게 칼빈주의 사상 전파에 전력했고,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책과 논문들을 발표했고, 세계 칼빈주의 운동에 크게 공헌을 했습니다.

저는 한국칼빈주의연구원 30주년을 축하하고, 이 기관이 앞으로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국과 세계 신학계에 크게 공헌 하시리라 믿고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2014년 4월

축하의 글

Richard J. Mouw
Fuller Theological Seminary



사진 이미지에 있는 글씨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주셔야 해요^^

축하의 글

리차드 마우 박사
명예총장, 신앙과 공공생활 교수
풀러신학교

정성구 박사님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설립 30주년에 즈음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칼빈주의연구원에 초대되어 강의할 수 있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때 연구원에 있는 놀라운 역사적 자료들을 살펴보는 중에 받은 감명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박사님께서 과거 우리 칼빈주의자들이 일구어 놓은 많은 중요한 자료들과 기념될만한 물건들을 수집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특별히 감사한 것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에 대한 원 자료를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는 정박사님이 칼빈주의자와 신칼빈주의자 연구에 깊이 있는 놀라운 공헌에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더욱이 정박사님 자신이 중요한 저술을 통해서 대학에서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운동의 대사로써 위대한 학문공동체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국제적으로 크게 공헌 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박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통한 구속사역의 역동적인 봉사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겸손히 증거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정박사님의 놀라운 성취를 이해할 뿐 아니라, 주의 왕국건설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친구들과 함께 정박사님의 사역을 기뻐합니다. 정박사님이 지난 30년 동안 이끌어 오시고 성취하신 일들에 대해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안의 형제로써 따뜻한 안부를 드리며...

2014년 9월 3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황우여 박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칼빈주의 C-Story 운동 이사장



먼저 「한국칼빈주의연구원 3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또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30주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경하를 드립니다.

그동안 정성구 박사께서 척박한 한국 땅에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 연구에 몰두 하셔서, 지난 30년 동안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일깨우는 일에 노심초사 하였습니다. 그는 자료 모으기에 온갖 열정을 다 했을 뿐 아니라 큰 소리로 한국교회와 사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일하도록 외쳤습니다. 사실 저는 1988년 10월에 제주 지방법원 판사로 재직 시 한국칼빈주의연구원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전시회」를 개최하였을 때 불원천리 하고 서울에 와서 자료를 둘러보았고, 그 때 정성구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 후로 주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며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방문하기도 하고 특강도 했습니다.

저는 정치가로 5선 국회의원과 부총리와 교육부 장관을 지내면서 저의 정치철학은 칼빈주의 대 정치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정치가 제 소신입니다.

아무쪼록 칼빈주의 사상인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려는 이 운동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 번 「한국칼빈주의연구원 30주년」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For God's Glory

Dr. Woo Yeo Hwang
The Deputy Prime Minister & The Minister of Education
Chairman of Calvinism C-Story Movement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I also give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publishing the volume of the 30 years of the history of the Institute.

Rev. Dr. Sung Kuh Chung has spent for the last three decades being immersed in researching Calvin and Calvinistic thoughts and theology in this tough land and awakening Korean church and society. He has been so passionate in collecting resources and materials. He has also loudly proclaimed that Korean church and society must work for God's glory and sovereignty and encouraged them to practically work. In October, 1988, the Institute held "the exhibition of Abraham Kuyper." Even though I was serving as a judge of Jeju district court, I went to the exhibition all the way from Jeju to Seoul to look around the precious resources and materials. There, I first met Dr. Chung. From that time until today, Dr. Chung and I have had a beautiful fellowship in the Lord. I visited the Institute several times and gave some special lectures there.

As a politician, a 5 time-elected lawmaker, and the deputy Prime Minister and the Minister of Education, my political philosophy has been always based on Calvinism. Especially, my political conviction is to practice politics for God's glory according to the great politician Abraham Kuyper's thought and theology.

For goodness' sake, I hope that the Calvinist C-Story movement would continue, which is for lifting God's glory and sovereignty on high in all areas of our lives.

Once again, I give my congratulation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and I wish tremendous success and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Institute in the future.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만이...

길자연 박사
총신대학교 총장
전 한기총 회장, 증경총회장



한국의 위대한 칼빈, 칼빈주의 학자이신 정성구 박사님은 오랜 세월 동안 저와는 가까이 지내왔을 뿐 아니라,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초기부터 피차 협력해 온 것을 늘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30주년을 기념하며 또한 「연구원 30년사」를 발간하여 연구원이 소장한 귀중한 자료와 30여 년 동안 국, 내외적으로 활동한 그의 족적을 만날 수 있어서 참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연구원 30년사」는 그 자체가 또 다른 한국교회사이자 정성구 박사의 회고록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이버 종교가 넘쳐나고 무질서, 무교리가 판치는 세상에 정성구 박사는 한 평생을 오직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 연구에 매달렸습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누구나 꿈꾸는 일도 아니었지만, 그는 오늘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바로 칼빈과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만을 확실히 붙잡아야 할 것을 언제나 힘 있게 외쳤습니다. 그는 행정가로서 총신대 학장과 부총장, 총장(대) 그리고 대신대 총장을 역임하면서도 크고 작은 책 80여종을 집필한 학자로, 한국교회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으로 돌아갈 것을 힘 있게 설교했습니다.

다시 한 번 「한국칼빈주의연구원 30주년」을 축하하고 「30주년사」출간을 경하 드립니다.

Only Calvinist Theology and Faith

Rev. Dr. Ja Yeon Kil
President of Chongsh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Former Chairman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Former Chairma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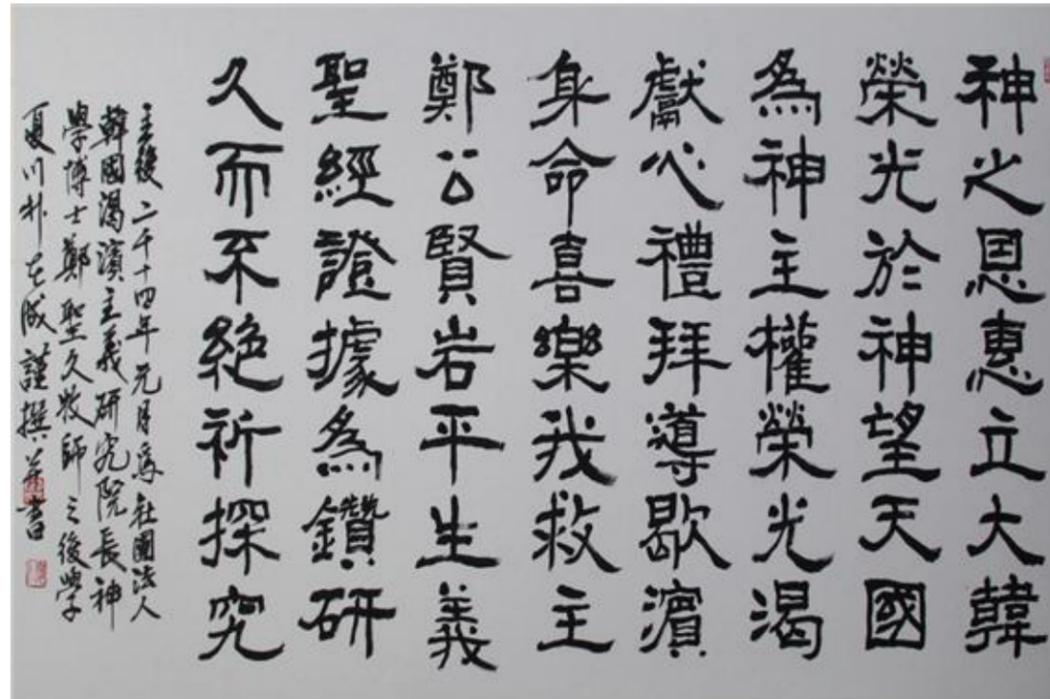
I am always pleased that Rev. Dr. Sung Kuh Chung, a great scholar on Calvin and Calvinism, and I have had a wonderful fellowship for a long time. I am also happy that I could engage in the development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from its beginning. Now, I give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publishing the volume of the 30 years of the history of the Institute in memory of its 30th anniversary. I would like to celebrate that through the volume we can meet Dr. Chung's footsteps of 30 year old academic works and collections. The volume of the 30 years of the history of the Institute is itself a new version of Korean church history as well as Dr. Chung's memoirs.

While pseudo religion is overwhelming in today's Korean church, and disorder is predominating in today's Korean society, Dr. Chung has devoted himself to the study of Calvin and Calvinism. Even though it is not what anyone can do nor what everyone dreams of, Dr. Chung has always proclaimed with power and enthusiasm that the only alternative to restore Korean church is to firmly hold Calvinist theology and faith. While he has served as president, vice president, and interim president of Chongsh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as well as president of Taesh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Dr. Chung, as a scholar, wrote many books and articles and as a preacher, preached that Korean church should go back to Calvinist theology and faith.

Once again, congratulations on the 30th anniversary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I also give my sincere congratulations on publishing the volume of the 30 years of the history of the Institute.

축서1

박재성 교수



[해설] 賢岩 鄭公聖久 博士님을 위한 獻詩

Rev. Dr. Ja Yeon Kil
 President of Chongshi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Former Chairman of the Christian Council of Korea
 Former Chairman of the General Assembly of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 神之恩惠立大韓 하나님은 은혜로 대한을 세우셨으니
- 榮光於神望天國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네¹
- 為神主權榮光渴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하여 목말라하며²
- 獻心禮拜導歇濱 마음을 바쳐 예배드리니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³
- 身命喜樂我救主 몸과 마음을 다해 내 구주를 기뻐하며⁴
- 鄭公賢岩平生義 정공 현암 선생님은 평생을 의롭게 살아오셨네
- 聖經證據為鑽研 성경의 증거를 위하여 찬연하시니⁵
- 久而不絕祈探究 오래되어도 끊어지지 아니하게⁶ 탐구하시길 기도합니다.⁷

主後二千十四年元月 爲社團法人韓國渴濱主義研究院院長 神學博士

鄭聖久 牧師之後學 夏川 朴在成 謹撰并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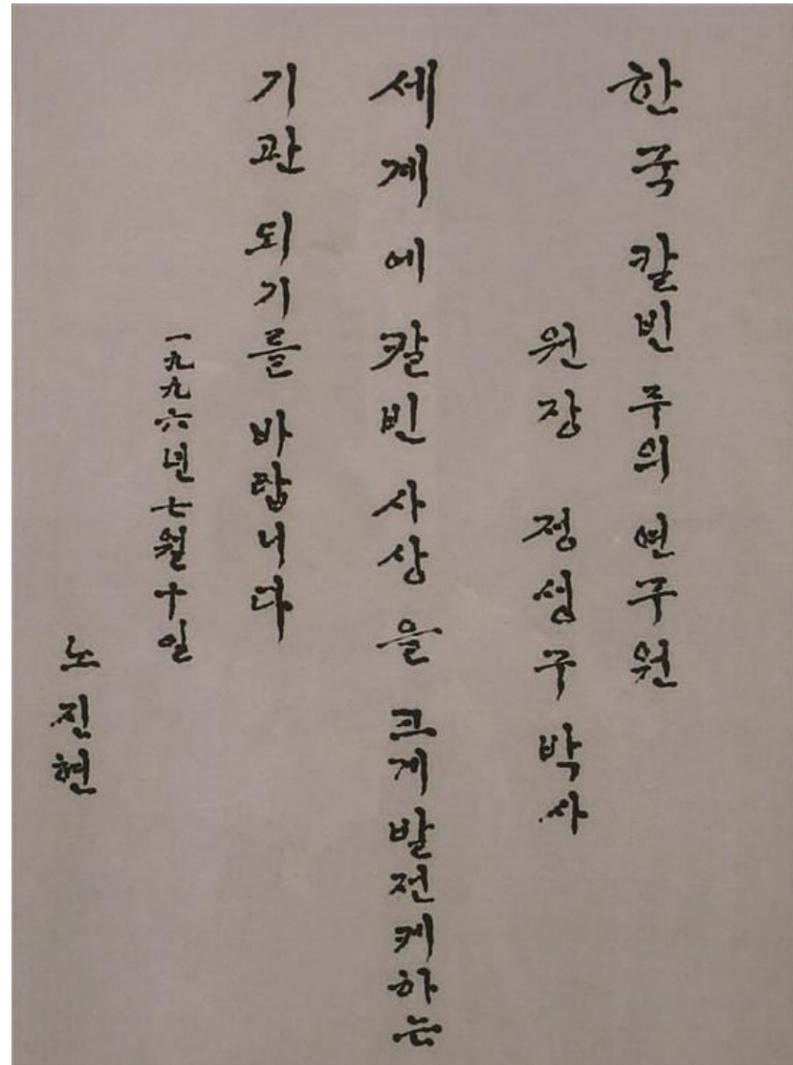
주후이천십사년 원월 사단법인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신학박사 정성구 목사님을 위하여 후학 하천 박재성 삼가 짓고 쓰다.

- 神榮為獻身鄭聖久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한 정성구
- 韓國渴濱主義研究 한국칼빈주의연구

1 S: Soli Deo Gloria - 오직 하나님께 영광
 2 O: Obey to God's Sovereignty - 하나님의 주권의 인정과 순종
 3 (시 23:2)
 4 (눅 1:47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5 T: Testimony of the Bible - 성경의 증거
 6 <出典>『素問』중국 최고(最古)의 의서(醫書). 진(秦)나라, 한나라 때에 편찬된 것으로 전해진다.
 7 Y: Youth Education & God's Calling to the World - 참된 청소년 교육과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소명 감당
 8 渴濱: John Calvin의 음역으로 가차법에 의거 의미를 부여하여 작명한 것입니다.(목마른 자 물가로 인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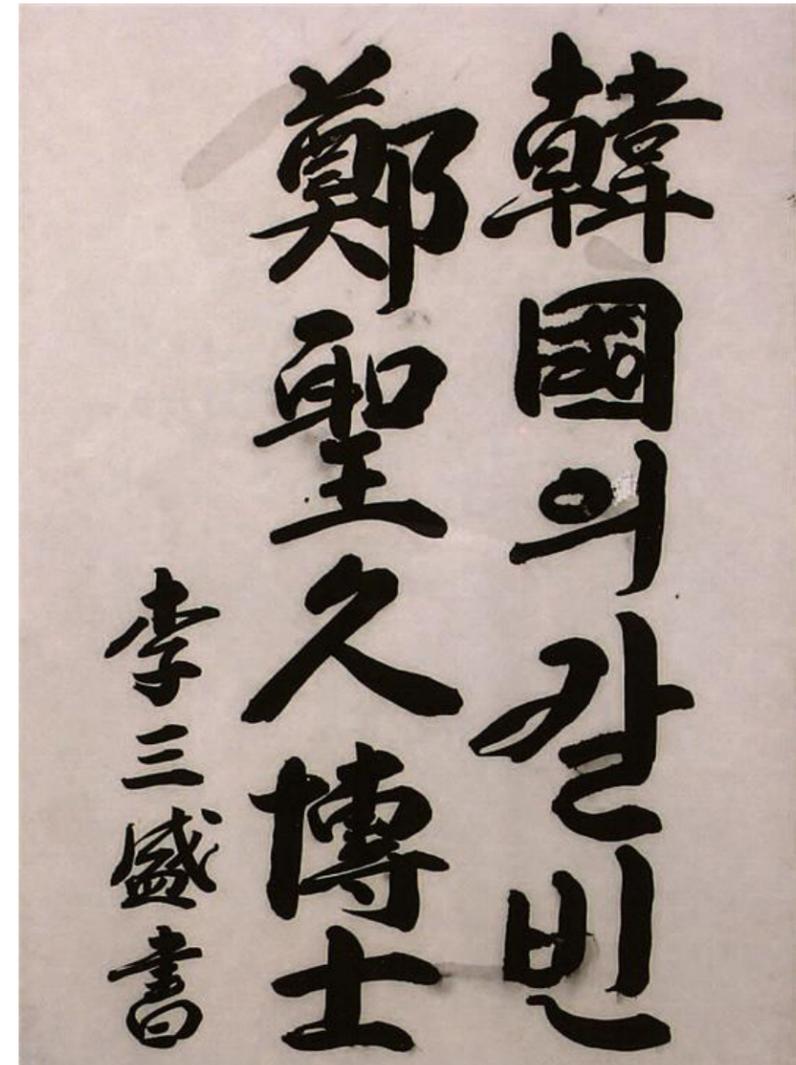
축서2

노진현 목사



축서3

이삼성 목사



축화

황학만 화백



제 I 부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1 9 8 5 - 2 0 1 5

제1장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역사

1.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의 설립 배경

1984년 어느 토요일 오후에 낯선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왔다. 그 손님은 한국 신학대학의 대학원생이었다. 그는 대학원에서 칼빈에 대한 논문을 쓰고 있는데 주임교수인 이장석 교수가 논문지도를 하는 중에 ‘칼빈의 원전과 이에 관련된 자료는 총신대학교의 정성구 교수에게 가면 구할 수 있을 테니 그리로 가서 의논하라’고 했기에 찾아왔다는 것이다. 나는 내심 놀랐다. 그를 2층 서재로 안내했고 내가 아는 모든 내용을 총동원해서 그에게 오리엔테이션을 했다. 그러나 그 학생은 자리를 뜰 줄 모르고 몇 시간 동안 이것저것 자료를 찾으려 애썼다. 그 때 내 마음을 스쳐가는 몇 가지 생각이 있었다. 첫째, 칼빈연구는 어느 개인이나 어느 학교나 어느 교단이 독점할 것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이 함께 연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는 과연 내 제자에게 ‘한국 신학대학의 교수에게 찾아가서 의논하고 자료를 찾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자문자답해 보았다. 일순간 지금까지 지녀온 나의 학문의 폐쇄성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둘째, 칼빈과 칼빈주의 학자들의 자료는 비록 내가 많이 갖고 있다 해도 그것은 역사적 유산이므로 ‘내 개인이 소장하는 것보다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해서 함께 연구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했다. 여기까지 생각이 떠오른 나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허락된다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세상에 내어놓고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만들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했다.

이듬해인 1985년 7월 10일에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세웠다. 그리고 마침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에 있던 야산 21만평을 매각했다. 불과 2천만 원 정도의 헐값으로 매각했다. 이 야산은 옥천의 누이가 소개해서 앞으로 큰일을 하려면 야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여러 해 전에 구입해 두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설립을 위해서 생각 없이 결단을 내리고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서초동 서울고등학교 앞에 있는 2층 30여 평의 건물에 전세를 얻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서초동 시대가 열렸다. 연구를 세우려고 팔아버린 영동의 야산 21만평은 다른 사람의 손에 넘어가는 순간 값이 여러 배로 뛰었고 오늘날은 기가 막힌 위치에 비싼 땅이 되었다. 나는 재물과 거리가 먼 사람인데다, 칼빈주의 연구를 위해서 전부를 드렸으므로 후회는 없었다. 그렇지만 아내에게는 언제나 미안한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자료 구입을 위해서 많은 돈을 지출했지만 아내는 걸로 내색하지 않았다. 그동안 많은 부흥회, 특강 등의 사례금은

100% 칼빈과 칼빈주의 자료 구입에 소비했다. 만약 아내의 동의와 후원이 없었다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운영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설립은 나 혼자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절반은 아내의 몫이라 할 수 있다.

2.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발자취

나는 나의 일생 중에 한국 교회 앞에 감히 내어놓을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내가 천신만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세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다. 지금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약칭 ICSK)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개혁주의 교회에도 아주 잘 알려진 연구기관이 되었다. 내가 평생 동안 총신대학교에서 설교학과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교수로 일했다면, 내 자신의 학문적 관심과 눈물과 땀을 바쳐 일군 개인적인 업적이 바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설립한 일이다. 가끔 연구원을 찾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연구원을 일구기까지, 나는 칼빈주의 연구를 위해서 맛이 간 사람이었다고 말해 왔다. 즉 일생 동안 칼빈주의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미쳐 지내왔다는 말이다. 이것은 누가 시켜서 한 일도 아니었고 재정적인 도움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었다. 그냥 내가 좋아서, 모든 정열과 모든 물질을 다 바치고 온 몸을 다 던져서 칼빈주의 연구원을 만들기 위해서 무려 40여 년의 세월을 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칼빈과 칼빈주의 자료를 찾아 줄잡아 지구를 열 바퀴는 더 돌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칼빈과 칼빈주의 자료는 일만 종이 넘는 것 같다. 특히 교부신학의 원전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즉 폴리갑에서 아다니시우스, 암부로스, 저스틴 마터, 크리스소스톰, 어거스틴 등 초대교부들의 원전이 16세기 구텐베르그 활자체로 찍어진 책들로 보관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16세기의 칼빈의 작품을 비롯해서 아브라함 카이퍼까지 칼빈주의 학자들의 서책들과 그림들, 문헌자료들이 칼빈 박물관에 잘 소장되어 있다.

세계적으로 보면 칼빈주의 연구원은 미국의 헨리미터 센터(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와 남아공화국의 칼빈 연구원(Institute for Calvin Studies in South Africa)이 있는데 한국

의 칼빈주의 연구원은 세계 3대 칼빈주의 연구원 중 하나이다. 특히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는 세계 유일의 「칼빈 박물관」이 있고 거기에는 앞서 언급했던 16, 17세기의 칼빈, 칼빈주의 연구 문헌들이 잘 보관되어 있다. 한국에 칼빈 박물관이 있다고 말하면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그럴 리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나는 일평생 동안 관심과 정성, 물질을 다 들여서 자료를 모으고 정리했다. 이것이 후일 한국 교회의 신학과 신앙의 뿌리가 되어 한국 교회가 철저히 칼빈주의적이며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기초 위에서 계속 부흥되고 성장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것이다. 칼빈이 탄생했던 프랑스의 노이욘(Noyon)에는 그의 생가를 복원해서 만든 칼빈 박물관 건물이 있다. 그러나 명칭만 붙여 있을 뿐 노이욘시에서 관람객을 모으기 위해 칼빈의 몇 가지 서책을 갖다 놓은 정도이다. 그 운영은 시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카톨릭 신자가 책임자로 있는 등 진정한 의미의 칼빈 박물관이라 할 수 없다. 또 제네바 대학 안에 있는 조그마한 방에 칼빈 시대의 그림 몇 점과 16세기 고서 등을 전시한 것이 있긴 해도 그 전시실 역시 칼빈 박물관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세계에서 기독교 역사가 가장 짧은 한국 교회에 칼빈 박물관이 있다는 것은 놀랍고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전 세계 수백 명의 칼빈주의 학자들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단기로 연구하러 오고 있다. 흔히 서양의 학자들이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격려하지만, 속 마음으로는 아직도 한국 교회의 학문적 수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연구원을 둘러보는 순간, 고요히 침묵을 지키며 놀라워한다. 한국 교회의 성장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같은 학문적인 뒷받침이 있었음을 눈여겨보고 있다. 어쩌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은 바로 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로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한 사람의 고집스런 집념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연구원은 바로 나의 삶 그 자체였다. 이 세상에 나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축복이고, 목사가 된 것은 더욱 큰 축복이며, 그 중에도 평생 총신에서 가르치는 교수가 된 것은 축복의 축복이고, 더구나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설립하고 수 십 년 동안 이 운동을 진두지휘한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축복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일생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나는 참으로 행복했다.

3.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의 연표(1985-2015)

(1980년대)

| 년도 | 내용 |
|-----------------|---------------------------------------------------------------------------------------------------------------------------------------------------------------------------------------------------------------------------|
| 1985.07.10 |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정성구 박사에 의해서 창립되다. 정성구 박사가 그가 가진 칼빈 및 칼빈주의 자료를 개방하고, 서울 동작구 사당동 181-339에서 개원하여 원장에 취임하다. 정성구 박사가 “미국 칼빈 연구 협회”(Calvin Studies Society in America)의 회원이 되다 |
| 1986.06-1987.01 | 정성구 박사가 “H. 헨리 미터 칼빈 연구 센터”(H. Meeter Center for Calvinistic Study)의 객원 연구원이 되다. 미국 그랜드 레피드의 칼빈신학교 연구 교수가 되다. |
| 1986.07 | 화란의 위트레흐트 대학교의 J. D. 덴그링크(J. D. Dengerink) 박사와 칼빈 대학의 에반 러너(Evan Runner) 박사가 본 연구원의 고문으로 취임하다. 국제 칼빈주의 철학회 50주년 기념대회에 정성구 원장이 참여하다. |
| 1986.08 | 정성구 박사가 헝가리 데브레첸에서 열린 “제 4회 국제 칼빈 대회”(The International Calvin Congress)에서 「Listen to Him」이란 제목으로 설교하다. 박윤선 박사가 고문으로, 한병기 목사가 명예 원장으로, 고베 개혁파 신학교의 학장인 하시모토(Hashimoto) 목사가 국제 이사로 위임되다.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사당동에서 서초동으로 이전하다. |
| 1987.10.17-31 | “국제 칼빈 대회”의 사무총장이자 윈스터 대학교 교수인 노이저(Neuser) 박사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방문하다. |
| 1987.10.17-31 | 종교 개혁 제470주년 기념에 맞추어 요한 칼빈에 대한 자료 전시회를 개최하다. 양화진 한국 기독교 선교회기념관에 세계 최초, 국내최초 전시회로 성황을 이루다 |
| 1988.01.10 | 정성구 원장이 일본을 방문하다. 고베 개혁파 신학교에서 특별 강연을 하고, 두 기관의 상호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다. |
| 1988.03.07 | 화란의 자유 대학교의 칼빈주의 철학 교수인 헝크 게츠마(H. Geertsema) 박사가 특별 강연을 하다. |
| 1988.03.19 | 「칼빈주의 성경 연구 모임」을 개설하다(매주 토요일 오후). |
| 1988.08 | 정성구 원장이 Asia Calvin Congress의 서울 대회강사로 일하다. 일본의 칼빈 연구의 대가 와타나베 노부오 박사가 연구원을 방문하다. |
| 1988.10.10 | 정성구 박사가 “일본 칼빈 협회”(Japan Calvin Association)와의 상호 협력을 위하여 일본을 방문하다. JCA 초청으로 Sangali에서 일본인들을 위해 칼빈 특강을 하다. |
| 1988.10.17-28 | 종교 개혁 제471주년 기념식에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다(장소: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 |

| | |
|------------|--------------------------------------------------------------|
| 1989 | 김은수 목사와 함께 일본에 칼빈 연구원 지부를 개원하다. |
| 1989.10.07 |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서적 목록을 출판하다. |
| 1989.10.10 | 미국 칼빈 대학과 신학교의 "H. 헨리 미터 칼빈 연구 센터"의 원장인 갬블(Gamble) 박사가 방문하다. |
| 1989.10 | "국제 칼빈 대회"의 총무인 노이저 박사가 칼빈주의 연구원을 두 번째로 방문하다. |
| 1989.10.28 | 종교개혁 472주년 기념 초찬기도회를 갖다.(강사 : 손두환 교수) |

[1990년대]

| 년도 | 내용 |
|------------|----------------------------------------------------------------------------------------------------------------------------------------------------------------------------------------------------------------|
| 1990.01.30 | (7개의 교회들로부터) "헝가리 선교 협회"(Organization of Hungary Mission)가 조직되다. |
| 1990.03.10 | 헝가리 개혁교회 신학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다. (초청 강사: Debrecen Reformed University의 총장 보톤드 가알(Botond Gaal))가 특별 강연을 하다. |
| 1990.05.09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이 미국 칼빈 대학과 신학교의 "H. 헨리 미터 칼빈 연구 센터"와 자매 결연을 맺다. |
| 1990.05 | 개혁주의 성경 연구를 위한 E.B.S.를 개설하다. |
| 1990.06 | 알타프 칸(Altaf Kahn) 목사의 지도하에 파키스탄에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지부가 개원되다. |
| 1990.06.09 | 칼빈 탄생 481주년 기념식 겸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창설 5주년 기념식을 거행하다. 헨리 미터 센터와의 자매 결연을 위한 축하 행사를 거행하다.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Institute of Christian Religion)의 초판의 영인본 판을 수령하는 기념 행사를 갖다. |
| 1990.08.23 | 정성구 박사가 미국 Grand Rapids의 Calvin Theological Seminary에서 열린 제 5차 국제 칼빈대회에서 강사로 설교하다. 정성구 박사 한국칼빈학회 총무가 되다. |
| 1990.09 |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라는 출판사를 등록하다. |
| 1990.10.27 | 종교 개혁 473주년 기념식에 해외 석학을 초청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다. 헝가리의 사로스파탁 신학 아카데미(Sarospatak Theological Academy)의 원장이자 교수인 리차드 홀시크(Richard Horsick) 박사 초청 강사: 간사이 각구엔 대학교(Gansai Gakkuen University)의 교수인 하루나 수미토(Haruna Sumito). |
| 1990.10.31 |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화란 자유 대학교 내의 Document Centrum Voor na 18 eeuw Protestantisme와 자매 결연을 맺다. |
| 1990.11.03 | 종교개혁 473주년 기념 예배 및 해외 석학 초청 강연, 강사 Rchard Hrsick 박사 헝가리 사로스 팍탁 신학대 교수, 국회의원 |

| | |
|---------------|--------------------------------------------------------------------------------------------------------------------------------|
| 1991.06 | 정성구 박사가 Asia Calvin Congress 대만대회 강사로 활동하다. |
| 1991.10.24 | 종교 개혁 474주년 기념식 행사와 강좌를 개최하다. 초청 강사: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인 로버트 D. 누슨(Robert D. Knudsen) 박사. |
| 1993.12.14~16 | 정성구 박사가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modernization of Korea(ROK)-historical background and present problem」국제대회에서 개최연설을 하다. |
| 1994.01.18-28 |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의해서 수집된 여러 나라들의 성경들에 대한 전시회를 개최하다. |
| 1994.07 | 정성구 박사의 설교 및 소논문이 「한국교회와 칼빈주의」란 제목으로 일본어로 출판되다.(일본 고베 성혜수산소 출판부) |
| 1994.09 | 정성구 원장이 제 6차 에든버러에서 개최된 국제 칼빈대회 한국대표로 참가하다. |
| 1994.10.14 | 종교 개혁 477주년 기념 특별 강좌를 개최하다. 초청 강사: 아리조나 주립 대학교의 교수인 하이코 A. 오버만(Heiko A. Oberman) 박사. |
| 1994.12.25 | 칼빈주의 연구원의 총무인 김경천 목사가 사임하고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되다. |
| 1995.03 |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Edinbergh)의 루더포드 하우스(Rutherford House)와 자매 결연을 맺다. |
| 1995.03.20 | 정성구 박사의 저서인 「칼빈주의 사상대계」(A Study on Calvinism) 출판 기념식이 팔레스 호텔에서 개최되다. |
| 1995.03.27 |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필리핀에 지부를 개원하다. (지부장: 김경천목사) |
| 1995.04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Christian High Education의 정회원이 되다. |
| 1995.04.27 |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대구에 지부를 개원하다.(지부장: 남태섭 목사) |
| 1995.10.15 | 종교 개혁 478주년 기념 특별 강좌를 개최하다. 초청 강사: I. 존 헤셀링크(I. John Hesselink) 박사 (Western Theological Seminary 총장) |
| 1996.07.10 |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1483-3에서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21-9 로 신축 이전하다(연건평 150평). |
| 1996.09.10 | 정성구 원장이 평생 칼빈 및 칼빈주의 사상운동에 헌신한 것이 인정되어 제네바 대학(Geneva College) 으로부터 명예 문학 박사(D. Litt) 학위를 수여받다. |
| 1996.11.20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이 장로교 각 교단의 총무 간담회를 열고 예배와 한국칼빈주의연구원과 박물관을 소개함. |
| 1997.03 | 미국에서 유학 온 베리 모어헤드(Berry Morehead)가 2년간 연구하고 영문 뉴스레터인 "Calvinistic Viewpoint"를 발행하다. |
| 1997.10.31 |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필리핀 지부에서 「기념예배 및 가톨릭을 향한 선교전략 토의」를 개최함.(장소 : Danauva Hotel, Yakal Room) |

| | |
|---------------|----------------------------------------------------------------------------------------------------------------------------------------------|
| 1997.10.31 | 종교개혁 480주년을 맞이하여 화란 암스텔담 뿌라야 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Prof. Dr. J. De Bruine을 초청하고 기독교와 정치개혁 - A. Kuyper의 칼빈주의적 정치 모델이란 주제로 특강함.(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 |
| 1998.03 |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목요 세미나를 개강하다. 제3세계 학생들을 위한 통신 연구 과정을 신설하다 정성구 원장이 한국칼빈학회 회장이 되다. |
| 1998.07.31 | 각교단장과 신학대학 학장에게 「칼빈주의 연구생 추천의뢰」를 공식적으로 보내다 |
| 1998.08.25-29 | 제 7회 국제 칼빈 학회가 서울에서 개최되고, 전 세계에서 온 130여 학자들이 본 연구원을 방문하다. 정성구 원장이 설교하다. 서울교육문화회관 대연회장에서 국제칼빈학회회원들을 위한 환영 리셉션을 열다. |
| 1998.10.31 | 본 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16세기 칼빈의 자료를 중심으로 “국제 칼빈 박물관”(International Calvin Museum)을 개관하다. |
| 1998.12 | 디온 목사(Rev. Dion)와 베리 모어헤드 그리고 김 J. J. 목사(Rev. Kim J. J.)가 M.A in Calvinistic Study 과정을 졸업하다. |
| 1999.12 | 로렌스 가타와(Laurence Gatawa, 필리핀)와 로널드 M. 무나이타이아(Ronald M. Munyithya, 케냐) 그리고 카를로스(Carlos, 필리핀) 등이 졸업하다. |

[2000년대]

| 년도 | 내용 |
|-------------------|----------------------------------------------------------------------------------------------------------------------------------------|
| 2000.06 | 엠마누엘 소수 오포리(Emmanuel Sosu Ofori, 가나)가 졸업하다. |
| 2001.07.23 | 정성구 박사 저, 「개혁주의 인명사전」출판기념 및 60회 생신 감사예배 |
| 2002.05 | 정성구 박사가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에서 「Korean Church and Reformed Faith」란 논문으로 Ph. D 학위를 받다. |
| 2002.07 | 정성구 박사가 한국에서 칼빈주의 학문운동과 칼빈주의 연구원 설립의 공로를 인정받아, 1538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개혁주의 대학인 Debrecen Reformed University로부터 Doctor of Divinity 학위를 취득하다. |
| 2002.08 | 정성구 원장이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열린 「제 8차 국제칼빈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다. |
| 2002.09.04 | 정성구 원장이 대신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하다. |
| 2002.10.21-11.02 |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자료 중 일부를 대신대학교에 대여하고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문헌전시회>를 열다. |
| 2003.10.22.-11.29 |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자료 중 일부를 대신대학교에 대여하고 <한국근대사 사료전>을 열다. |
| 2004.11 | 필리핀의 Rev. Angelito M. Carillo가 졸업하다. |

| | |
|------------|------------------------------------------------------------------------------------------------------------------------|
| 2005.07.20 |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20년사>를 발행하다. |
| 2005.09 | 필리핀의 Rev. Noel N. Cruz 와 Rev. Nicodemus B. Paguaia가 졸업하다. |
| 2005.10.29 | 헝가리 데브레첸 대학교 Botond Gaal 박사 초청 특강 |
| 2006.03.27 | 정성구 총장이 <賢岩鄭聖久博士著作全集30卷> 발행 그리고 <회고록> 출판축하모임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갖다. |
| 2006.09.12 | 정성구 박사가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장 겸 대학원장으로 취임하다. |
| 2006.12 | 스리랑카, Rev. Malinda Reginold Kahandawita가 졸업하다. |
| 2008.08 | 정성구 원장이 대신대학교 총장 퇴임 |
| 2008.09 | 정성구 원장 칼빈대학교 석좌교수 취임 |
| 2009.02 |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을 출판하다. |
| 2009.03 | CBS,T.V, CTS.T.V, 예장 T.V등에서 칼빈 탄생 500주년 맞아 칼빈박물관 소개 |
| 2009.06 |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아 정성구 원장이 「한국의 위대한 칼빈학자」로 선발되고 표창을 받다. |
| 2009.06 | 고신대학교 주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강좌, 「목회자와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특강하다. |
| 2009.07 | 정성구 박사가 파리에서 특강, 미국의 시애틀, 시카고, 애틀랜타 등에서 칼빈사상 특강,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칼빈신학 특강,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에서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강좌 |
| 2009.11 | 러시아, Rev. Tsyupak M. Igor가 졸업하다. |
| 2010 | 칼빈주의 연구원이 Refo500의 Partner가 되다. |
| 2010.06 | 인도 Rev. Issac Verghese가 졸업하다. |
| 2010.06 | 정성구 원장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출판 기념 및 서평회 개최 |
| 2010.12.21 |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의 후원으로 한국농아칼빈학회가 조직되다.(장소 : 서울교회 예배다부) |
| 2011.04 | 정성구 원장이 「내가 만났던 100명의 개혁주의 학자들」 출판 기념 및 서평회 개최 |
| 2011.04.30 | 정성구 원장이 칼빈주의 실천모임인 칼빈주의C-STORY 운동 발기 총회를 열고 총재로, 황우여 국회의원이 이사장으로 취임하다. |
| 2011.11 | 정성구 원장이 「복음에서 복음으로」출판 기념 및 서평회 개최 |
| 2011.12.01 | 칼빈대학교 길자연 총장 주관 하에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후원 이사회 발기총회」를 열고 이사장에 수원 시은소 교회 김성길 목사가 이사장에 취임하다. |
| 2012.05 | School of Calvinism 한국어부를 개강하다. 엘지 시카르츠(Rev.Jerzy Siczarz Ph.Cand) 목사를 초청하여 <잊혀진 종교개혁자 폴란드의 존 라스키 1499-1560> 특강을 갖다 |
| 2012.12 | 한국칼빈주의연구원과 C-Story 운동이 베트남에 임성호 선교사를 파송하다. |

| | |
|----------------------|---------------------------------------------------------------------------------|
| 2013.02.28 | 칼빈주의 연구원 내에, 제10회 칼빈주의 학교 졸업식을 하고 김보원, 손덕기, 신명선, 오정신, 윤혜원, 이수영, 최옥석 등이 디플로마를 받다 |
| 2013.03 | 정성구 원장이 동아일보 주최 「미래를 여는 인물 대상」을 수상하다. |
| 2013.05.15 | 정성구 원장이 총신대학교 「자랑스런 총신 동문상」을 수상하다. |
| 2013.05.23 | 칼빈주의 연구원에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의원의 초청 특강이 진행된다. |
| 2013.06.27 | 칼빈주의 연구원에 이필섭 예비역 육군대장의 초청 특강이 진행된다. |
| 2013.11.12 | 정성구 원장이 헤랄드 그룹이 선정한 2013년 「기독교 교육대상」을 수상하다. |
| 2013.11.29 -12.19 | 정성구 원장이 남아공을 방문하고 개혁주의 대학인 프로테리아, 포체스룸, 스톨렌보쉬 대학을 방문하고, 아프리카 선교지를 돌아보다. |
| 2015.6.30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을 총신대학교에 기증하기로 하다. |

1 9 8 5 - 2 0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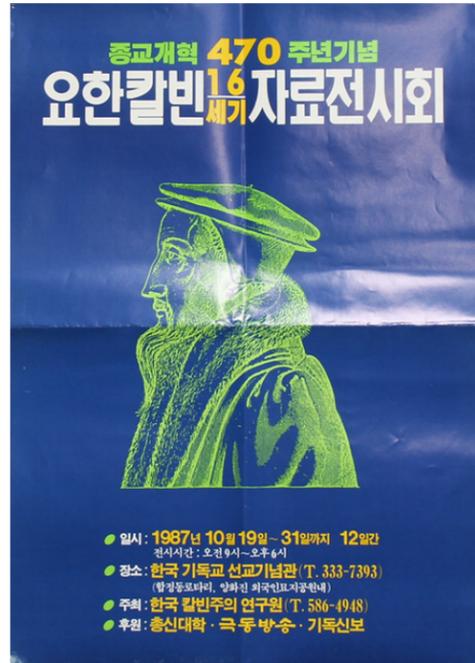
제2장



한국칼빈주의연구원
관련 자료 전시회

1. 요한 칼빈 16세기 자료전시회(87년)

1987년 10월 마지막 주간에 한국 교회 역사상 최초로 장로교의 창시자 요한 칼빈의 자료가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를 시도했을 때만 해도 나는 이전에 이런 행사를 한 번도 주도한 적이 없거니와 엄청난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연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러하듯 몇 퍼센트의 가능성만 보이면 기어이 그것을 밀어붙여 성공하도록 하는 스타일이었다. 우선 임시로 직원을 두 명 채용하고 자료 정리를 시도했다. 우선 장소가 문제였다. 세종문화회관 전시실을 비롯해서 제대로 된 전시실을 빌리려고 하니 하루에 적어도 100만원이 든다고 했다. 나로서는 어림없는 일이었다. 그런데 당시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사업 협의회 사무국장인 김경래 장로님을 만났다. 김 장로님은 원로 언론인이면서 한국 교회의 연합과 한국 교회 100주년 사업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던 분이며 고려파의 신실한 장로였다. 김 장로님은 내 속마음을 훤히 꿰뚫고는 가장 의미 깊으면서도 좋은 장소에 무료로 대관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한국 기독교 선교기념관을 추천했다. 기념관은 합정동 로터리의 양화진 외국인 묘지공원 내에 있었다. 본당은 서울 유니온 교회(Seoul Union Church)로서 미국교회이고 그 아래 지하 공간이 100여 평쯤 되었다. 조명과 분위기 등이 만점이었다. 그리고 주차장도 주변 경관도 그만이었다. 더구나 본당에서 기념예배를 드리고 바로 전시실로 내려갈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였다. 하나님께서는 김경래 장로님을 통해서 이 복된 자리를 두 주간 무료로 얻게 하셨다. 나는 유니온 교회 미국 목사를 찾아가서 내 뜻을 전했고 흔쾌히 허락을 받았다.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고 감사했다. 특히 이 장소는 1세기 전에 이 땅에 선교사로 와서 일하다가 이 땅에 묻힌 외국인 묘지와 함께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장소였다. 장소가

결정된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포스터를 제작했다. 당시 여흥윤 장로가 그것을 맡았고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칼빈의 초상을 형상화한 멋진 포스터였다. 문제는 16세기의 중요한 자료들을 전시하는 데 필요한 대형 유리관이었다. 적어도 스무 개는



있어야 했다. 그것을 제작하려면 수천만 원이 들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 때 나는 종로에서 한국 출판 무역주식회사를 경영하면서 고서 동호회 회장으로 있던 여승구 사장을 만나 내 뜻을 전하고 대형유리관을 대여해 줄 수 있는지 물었다. 그는 기꺼이 승낙했다. 파손 시에는 배상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나는 여승구 사장과의 이 만남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애서가 클럽의 임원도 하고 나중에 회장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였다. 그 때 나의 아이디어로는 순서지를 겸해서 팸플릿을 제작하면서 여기 저기 광고 스폰서를 받고 또 친구 목사님들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 정도였다. 이른바 라보도 신학교, 크로스웨이 성경연구, 월간목회, 성광문화사, 기독교 문화협회, 기독교 문화사 등에서 광고 스폰서를 받고 50여 교회의 후원을 받았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몇 날 밤을 새워서 전시실을 꾸미고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오후 2시 역사적인 개관예배를 드렸다. 사회는 한병기 목사, 설교는 박윤선 목사, 기도는 김득룡 목사, 특송은 박정순 교수, 축사에 김희보 목사, 격려사에 박영희 목사, 광고는 김경래 장로가 맡았다. 축도는 한경직 목사가 맡았으나 참석하지 못했다. 이 행사는 한국 교회의 역사적 행사로서 TV, 라디오, 신문, 주간지 등이 대서특필했다. 특히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국경제신문 등이 박스기사로 크게 다루었다. 감격적인 개관예배에 이어 전시관 개관 테이프를 끊을 때 모인 사람들은 눈을 의심케 했다. 수백 명의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참석했고, 주한 스위스 대사를 비롯한 여러 외국 학자들도 참석했다. 16세기의 칼빈의 자료와 문헌들, 그리고 그림과 각종 종교개혁의 자료들은 이제 막 선교 100주년을 넘긴 한국 교회에 커다란 이정표가 되었다. 서울의 각 신학대학의 교수들과 학생들이

대거 몰려오기 시작했다. 장신대학 이종성 학장을 비롯해서 당시 수산청장 신태영 장로, 그리고 마침 한국을 방문했던 케터베리 대주교까지 참석했고 김영삼 당시 통일민주당 총재의 화환을 비롯해서 연세대학교와 여러 교회 지도자들이 보낸 축하 화환이 즐비했다. 그 날 나는 초청 메시지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시는 말씀

대표 정성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전시회에 초대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종교개혁 47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서는 요한 칼빈(John Calvin : 1509-1564)의 자료 전시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요한 칼빈은 16세기 마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기수이자, 종교개혁의 이론적 체계를 세운 분입니다. 결국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요한 칼빈이 세운 신학과 신앙의 체계를 바탕으로 세워진 것입니다. 칼빈의 사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런 사상들은 그의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와 그의 성경주석, 신학논문, 설교, 편지 등 방대한 저작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의 사상은 단순히 신학과 신앙생활에만 그친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어떤 분야에서든지 영향을 끼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결국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을 알지 못하면 프로테스탄트 신학과 교회를 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근대 서구문화의 바닥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의 신학과 칼빈주의 사상은 17세기에 찬란하게 꽃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18세기와 19세기에는 합리주의, 계몽주의, 자유주의 사상 등으로 한 때 빛을 잃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19세기 말 흐룬 반 프린스터(Groen Van Prinsterer)와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에 의해서 칼빈의 신학과 칼빈주의 사상이 부흥되고 그 운동은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지난 100년 동안 물량적으로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국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임을 자랑하고 최대의 교회들이 있지만 그 뿌리인 칼빈신학과 칼빈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16세기의 자료들 30여점, 기타 19세기의 자료 20여점, 그리고 칼빈에 대한 그림 및 기타 종교개혁자료 50여점을 내어 놓습니다. 이 자료들 중에는 세계적 희귀본으로서 몇 권 남지 않은 귀중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번에 요한 칼빈의 자료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의 모든 신학자들과 교역자, 신학생 평신도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져서 이 땅에 선교 제 2세기를 맞는 한국교회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속적이고 다원화된 시대에 살면서 사상적으로 혼탁한 이때에,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는 신본주의 신앙을 되찾고,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의 뿌리와 맥과 삶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한국교회의 또 다른 100년을 향해서 이 전시회는 매우 뜻 깊은 행사가 되리라고 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적 전시회

한병기 목사

증경총회장, 본회 명예원장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이신 정성구 박사님께서 이번에 자기가 소장하고 있는 고귀하고 진기한 문헌들을 모아서 <16세기 요한 칼빈의 자료 전시회>를 개최하신다는 말을 듣고 놀라움과 기쁨과 감사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놀랐다는 것은 16세기라고 하면 400년 전인데 어떻게 그 당시의 고귀한 자료들을 수집하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 칼빈 선생의 직접 손때 묻은 자료들도 있을런지 모르겠고 또 세계에서든 그리 없는 진귀한 자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기쁘다는 것은 이렇게 진귀한 자료들을 한국의 정 박사님께서 애쓰고 수고하고 막대

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수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자료들을 한국의 학자가 소장하고 있다는 것은 정 박사님 자신의 기쁨일 뿐 아니고 한국학계 전체의 자랑이요, 기쁨입니다. 다시 감사하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자료들을 정 박사님이 소장하시고 자신의 연구에만 이용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 칼빈주의를 연구하고 또 관심을 가지는 분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많은 방법과 원리를 제공하여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는 전시회를 개최하여 주시는 정 박사님과 이 일을 협조하여 추진하시는 분들에게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역사적이고 뜻 깊은 전시 자료들을 통하여서 한국 교회는 칼빈주의의 그림자만 보지 말고 그 본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또 그 외곽만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 핵심적인 부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여 마지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시회에 역사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또 칼빈주의 연구에 획기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축사를 드립니다. (1987. 9. 20. 부산 남천동에서)

한병기 목사님은 내게는 아버님 같은 친근함이 있는 분이였다. 한 목사님은 평생을 개혁주의 교리 연구에 몰두했고 그래서 나는 그를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의 명예원장으로 추대했었다. 특히 전시회를 위해서 일금 50만원을 헌금해 주셨다. 당시로는 적잖은 돈이었다. 한병기 목사님은 그때 전시관을 둘러보며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른다. 그리고 후일 분당의 칼빈주의연구원에서 하룻밤을 쉬시면서 연구원의 16세기 자료들을 일일이 점검하시기도 했다.



세계적 칼빈 연구의 센터가 되기를...

하시모도 목사

고베 개혁파 신학교장, 일본 Calvinist 협회 전회장

한국칼빈주의연구원(ICSK) 회장 정성구 박사님께,

금번에 한국칼빈주의연구원(ICSK) 전시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기쁨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정성구 박사님의 자료들은 칼빈과 칼빈주의에 관한 역사적인 문서에 치중된 것이 아니라, 현재의 칼빈 연구, 칼빈주의에 관한 연구서, 연구논문에 이르기까지 빈틈없는 수집에 이르는 것으로, 명실 공히 아시아에 있어서 칼빈 연구의 센터로서 참으로 귀중한 존재입니다. 본인은 정 박사님의 자료들을 볼 때마다 잘 준비되고 정돈된 자료에 놀라움을 금치 못함과 동시에, 언제나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칼빈주의연구원(ICSK)과 같은 주장을 내세우고, 같은 신앙과 같은 확신 위에 서서, 일본에서의 칼빈주의 계몽과 육성에 종사하여 온 사람으로서, 또한 일본 칼빈협회(JCA)를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온 사람으로서, 이웃나라 한국에 이와 같은 연구기관을 가진다는 것은 커다란 힘이 됨과 동시에 격려가 됩니다. 일본에도 장래 한국칼빈주의연구원(ICSK)과 같은 자료관을 설립하기를 소원합니다만, 한국칼빈주의연구원(ICSK)의 자료 수집과 운영을 위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력하여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께서 한국칼빈주의연구원(ICSK)의 금후의 활동에 축복하시, 전 아시아 뿐 아니라 전 세계의 칼빈 연구와 칼빈주의의 진전을 위하여, 보다 풍성하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는 참석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만, 전시회의 성공을 바라마지 않으며,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목회하는 교회의 장로이자 현재의 일본 칼빈주의자 협회의 회장인 관서학원대학의 하루나 교수로부터의 감사와 축하,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함께 보내드립니다. (1987. 9. 27)

하시모도 고베 개혁파 신학교 교장은 비록 일본인이지만 나와는 형제처럼 지냈다. 우선 그와 나는 화란 암스텔담 뿌라야 대학 출신인데다가 둘 다 화란의 기업인이요, 신앙가였던 켈크포흐(Kerkhof)씨의 재정후원으로 공부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화란의 교회 지도자 얀 메이스터(Jan Meester) 목사님은 Kerkbode라는 신문잡지에 기고하기를 나는 세 명의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는 코벨리우스 반틸(C. Van Til) 박사요, 일본에는 하시모도 목사요, 한국에는 정성구 박사라고 썼다.



칼빈 연구의 새로운 전기를...

김희보 박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교수

우리 장로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백년을 지난 지금 비로소 <칼빈 연구소>가 작게나마 문을 열게 된 것을 우선 축하한다. 칼빈 선생에 관한 문헌과 또 지금까지 연구해 온 그에 관한 자료들은 다 모은다는 것은 아마도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연구된 자료들을 그 한 부분만 모아도 큰 도서관을 이루게 될 것이다. 사실 미국의 어떤 신학교에서는 오래 전부터 그러한 자료들을 모아 지금은 작지 않은 도서관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자료들이 벌써 오래 전부터 한 개인 교수인 정성구 목사님을 통해서 추진되어 온 것은 참으로 치하해야 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 교수께서 큰 뜻을 품고 시작된 이것이, 앞으로 더욱 큰 열매가 있기를 우선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칼빈은 종교개혁가일 뿐만 아니라 위대한 신학자요, 주경학자이다. 그는 벌써 20대의 청년 시절에 저 훌륭한 「기독교 강요」를 저술했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보아서도 우리는 그의 천재적 소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의 성경주석만 해도 우리 평범한 사람들로서는 거의 일평생을 투자해야 완독할 만한 방대한 분량에 이른다. 어거스틴 이후 십 수세기를 지나면서도 아직 우리는 그만한 종교적 천재를 만나지 못하고 있다. 그의 학문과 사상은 신학이라는 범주를 뛰어넘어서 모든 방면에 걸쳐 현대 기독교 국가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쳐 오고 있는 것도 역사가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아마도 한 개인의 영향이 수세기를 걸쳐서 그만큼 크게 미친 것도 그 유례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는 이제 칼빈에게 뿌리를 둔 한국장로교 역사의 백년의 고비를 넘기면서 처음 작게나마 「칼빈 연구소」라는 간판의 이름을 보게 된 것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참으로 경탄해야 할 일이다. 특별히 한 교수의 개인의 힘으로 묵묵히 이 일이 추진되어 온 것은 참으로 미안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저의 동역자, 정성구 교수께서는 일찍이 칼빈 사상의 신

학적 혹은 실천적 적용을 연구하기 위하여 칼빈사상 연구의 본거지 중 하나인 암스테르담 뿌리아 대학에 유학하면서부터 생활비를 절약하여 이 일을 시작했던 줄 안다. 이제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되어 이것을 일반 연구자들에게 공개하게 된, 그 뜻은 참으로 귀하다고 생각하여 마지않는다. 앞으로 정 교수께서 시작한 이 일을 통하여 학자로서의 그 업적을 크게 남기기를 바라며 또 많은 칼빈 학도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어지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 일이 더욱 확장되어 우리 한국 교계에도 큰 공헌이 있기를 바란다. 시작된 이 일이 끝까지 크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만 몇 자 적는다.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자(딤후 3:14-17)

박윤선 박사

합동신학원 명예회장, 본회 고문

한국 교회에 장점이 있다. 그것은 양적으로 잘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반면에 질적 허약이 수반되고 있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질적 허약이란 것은 신자들의 성경지식이 깊지 못함으로 인해 그들이 확신을 결여한 점이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확신에 거하라”고 한다.

1. 확신의 원천은 성경임

“너는 배우고”란 말씀은 성경을 배웠다는 뜻이다. 누구든지 성경을 배우지 않고는 확신에 이르는 지식을 얻을 수 없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 함축(영적 蓄)을 깊이 지니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쉬운 말씀도 그 뿌리가 깊으니, 그것은 신학적으로 배워야 바로 알고 거기서 확신도 얻는다. 그리고 성경의 어려운 말씀에는 물론 우리의 연구가 요구된다. 우리가 연구와 기도로 이 말씀의 뜻을 사모하면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듯한 깨달음을 얻는다. 벵겔(Bengel)은 성경해석의 노력을 가리켜 “꿀을 짜는 작업”이라고 하였

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며 또 그것을 확신하게 된다.

2. 성경연구에 필요한 지도자

성경은 지습으로 깨닫기 어렵다. 지습하려는 신자들에게 그 장점은 성경을 알아보려는 자 원심과 노력이다. 이 두 가지는 성경을 깨닫는 데 있어서 언제나 필수 요건(要件)들이다. 그러나 지습에는 위험성도 따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지습자는 재래의 무수한 선배들의 옳은 깨달음을 무시하기 쉽고, 또한 성경을 잘못 깨닫고도 그 주장을 버리지 않으려는 폐단에 빠지기 쉽다. 잘못된 주장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이단으로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 우리는 근 2천년 교회사에서 성경을 바로 깨닫도록 지도한 신학자들을 알고 있다. 그들 중에도 우리는 칼빈 선생을 잊을 수 없다. 칼빈의 성경관에서 우리는 특별히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배워야 한다. 그것은 성경말씀이 곧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성경말씀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늘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취급하지 아니하면 성경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칼빈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 칼빈을 알기 위함보다 우리의 성경연구에 있어서 그 말씀을 바로 깨닫는 데 도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만일 이런 목적 없이 칼빈을 위하여 칼빈을 연구하는 데 그친다면 그것은 칼빈이 원치 않는 악을 행함이 될 것이다.

2.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자료전시회(88년)

1988년은 세계인의 축 제인 88 올림픽이 한국에 서 열리던 해였다. 일 년 전에 16세기 요한 칼빈 전 시회로 한국교회와 사회 에 칼빈과 칼빈주의 연구 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 던 나는 내친 김에 19세기 칼빈주의 운동의 부흥가



이며,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칼빈주의 정치가이며 언론인이던 아브라함 카이퍼의 자료를 전시하고 싶었다. 이미 칼빈 전시회 개최에 대한 노후우도 있고 어떻게 하면 큰 행사를 깔끔하게 치를 수 있는지의 요령도 어느 정도 터득하고 있었기에 또 다시 겁 없이 일을 벌이려고 작정했다. 이미 내가 갖고 있는 카이퍼의 자료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다. 카이퍼 박사는 그의 생전 233권의 책을 저술한 다작가인데다 아브라함 카이퍼에 관해서 쓴 책이나 논문도 엄청나게 많았다. 그러나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기록 사진, 문건 등이 부족했다. 그래서 이 미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자매관계를 갖고 있는 나의 모교 암스테르담 뿌라야 대학교의 18세 기 이후 프로테스탄트 자료 센터의 소장인 더 브라인(Dr. De Brijne) 박사에게 편지를 보내어 자 료 요청을 했다. 이미 화란에서는 카이퍼에 대한 인기가 시들해지는 상황에 한국에서 카이퍼 전 시회를 연다고 하니 오히려 그 쪽에서 더욱 적극적이었다. 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삶의 모든 영 역에 칼빈주의적인 세계관과 인생관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뿌라야 대학의 선배인 서울대학교의 손봉호 박사를 만나 내 뜻을 전달하고 협력을 구했다. 우선 카이퍼 전시기간에 특별강연을 요청했고 팸플릿에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 손 박사는 나의 계획을 기꺼이 동의해 주었고 협력을 다짐했다.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 첫째는 장소 문제이고, 둘째는 재정 문제였다. 한 해 전에는 하

나님의 은혜로 양화진의 한국 선교기념관에서 역사적 전시회를 했지만 아브라함 카이퍼 전시회는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렇다고 미술화관을 빌릴 수도 없었다. 값도 엄청나게 비싸지만 위대한 칼빈주의자의 자료 전시회는 아무래도 장로교의



신학과 신앙과 관련이 있는 장소, 교회와 사회에 관심을 끌 수 있는 장소여야 했다. 거기다가 교통이 편리해야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을 것 같았다. 생각하던 중에 종로 5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을 떠올렸다. 우선 한국 기독교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잘 알려진 곳이고 교통도 편리했다. 하지만 이곳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기관이므로 나 같은 합동측 총신대학교 교수에게 장소를 허락할지 의문이었고, 더구나 내가 원하는 장소는 1층 로비였다. 그러나 1층 로비에서 전시회를 한 일도 없거니와 불가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러 루트를 통해서 부탁을 했다. 우선 당시의 통합측 지도자인 립인식 목사를 찾아 내 뜻을 말하고 또 여러분들을 만난 결과 아브라함 카이퍼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에 관한 전시회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리는 것은 의미도 있고 또 에큐메니컬 운동을 한다는 교단에서 나의 간곡한 부탁을 아주 외면할 수 없었던지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다. 100주년 기념관이 생긴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고 가격도 아주 저렴했다. 나는 날아갈 듯이 기뻐했다.

그러나 재정문제가 남아있었다.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은 누가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나 혼자 발로 뛰어서 이어가는 일이었다. 아무도 선뜻 재정후원에 나서는 이가 없었다. 우선 약 50페이지 정도의 카탈로그를 만들어야 하고 개관식 때에 필요한 각종 비용이 만만치 않았다. 또 세미나에 드는 비용도 엄청났다. 방법은 카탈로그를 만들면서 광고 협찬을 받는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대신 광고자들을 모집해 주었으면 좋으련만 아무도 내 손발이 되는 사람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내가 개인적으로 접촉을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던 중 어느 조찬 기도회에서 석원태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다. 나는 석 목사님과 1960년대에 전국 SFC 운동을 하면서 만난 일

이 있지만 가까이는 하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석 목사님이 철저한 칼빈주의자이며 신학과 신앙의 입장이 나와 꼭 같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내 말을 들은 석원태 목사님은 서초동의 칼빈주의 연구원에 한 번 가 보자고 했다. 석 목사님은 연구원을 둘러보고 함께 기도하면서 울었다. 기도하면서 자기가 평생 하고 싶었던 칼빈주의 운동을 정성구 교수가 하니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감격했다. 기도를 마친 석 목사님은 이번 전시회를 위해서 150만원을 광고 스폰서로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는 내가 울었다. 내가 시작한 칼빈주의 운동을 내가 속한 교단에서도 돕지 않는데 고려파의 석 목사님이 돕는 것에 대한 감사도 있었지만 동시에 서럽기도 했다. 한 해 전 칼빈 전시회에도 본 교단의 사람들은 무관심했으나 고려파 김경래 장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통합측 장로님인 기독교 문화사의 김용덕 회장이 후원을 해 주었다. 어쨌거나 석원태 목사님의 도움 때문에 일이 추진되었고 그 후 60여 교회의 목사님들이 5만 원 정도로 도와주었다. 그래도 고마운 것은 나와 총신 신대원을 동문수학한 동창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준 것이다.

아브라함 카이퍼 전시회를 한다는 소문은 화란,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에 퍼져나갔다. 각국의 칼빈주의자들이 이 전시회의 의미와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나의 활동을 극찬하면서 메시지를 보내왔다. 놀라운 것은 현직 화란의 수상인 루버스(R.F.M Lubbers) 각하가 축하의 전문을 보내고 주한 화란 대사인 텡 베르겐(Tengbergen) 씨가 축사를 보내온 것이다. 51페이지에 달하는 자료집 「종교개혁 471주년,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자료 전시회」는 우선 한국어와 영어를 동시에 나란히 썼기에 이것은 완전히 국제적인 행사와 국제적인 이벤트였다. 또 이 자료는 전 세계 모든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전 세계 모든 개혁주의 신학교와 대학들의 도서관에 보내어져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은 일약 세계적인 기구로 발돋움했다. 특히 미국의 CRC의 대표적 신학자이며 대 지도자인 더 용(P. Y. De Jong) 박사는 내게 편지를 보내기를 자기들은 이른바 개혁신학의 보루요, 칼빈주의 운동의 증가로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해 아무것도 못했는데 한국에서 카이퍼 전시회를 하고 칼빈주의 연구에 박차를 가한다니 부끄러운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전시회를 일주일 앞두고 나는 코리아나 호텔 2층 일식집에 일간지 신문 문화부장들을 모두 초대했다.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코리아 헤럴드, 코리아 타임즈 등을 초청하고 이번 전시회의 개요와 의미를 설명했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는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일 뿐 아니라 화란의 수상을 지냈던 분이고 평생 국회의원을 지냈던 위대한 정치가이자 50

년 동안을 일간지와 주간지에 편집장을 지냈던 대 언론인이었음을 상기시켰다. 일간지는 모두 대서특필했고 모두가 박스기사로 다루었다. 카이퍼 서거 68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부활한 셈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종로2가 YMCA 호텔에 모든 교계신문의 편집부장들을 소집하고 카이퍼 전시회의 개요와 의미를 설명했다. 교계신문은 당연히 뜨거웠다. 그리고 KBS, MBC 등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보도요청을 했다. 신문과 방송이 나가자 화란의 전직 수상이요, 정치가요, 언론인 아브라함 카이퍼 자료 전시회로 현직 화란 수상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는 판이니 한국의 정치인들도 가만있을 수 없었다. 당시의 이른바 3김인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등의 정치인들이 모두 축하 화환을 보내왔다.

드디어 개관 날이 되었다. 몇 날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어 개관예배를 드리게 되고 테이프 절단 순서가 있었다. 1988년 10월 17일 오후2시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의 대표인 내가 사회를 하고 중경총회장 최훈 목사가 설교를 맡았다. 당시 내 동창이며 총회회록 부서기인 이은익 목사가 기도 순서를, 늘 내 일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도와 준 한국 교회 100주년 기념사업협의회 사무국장인 곽경래 장로가 성경봉독을 했고, 내 제자인 정인준 선생이 내가 1966년에 작사하고 김의작 선생이 작곡한 「牧羊一心」을 특송으로 불렀다. 그리고 축사는 주한 화란대사인 텡베르건씨가 맡았다. 축도는 중경총회장이며 명예원장인 한병기 목사님이 했다. 예배 후 테이프 절단식에 참여한 교단의 지도자들은 20여명이 넘었다. 고맙게도 그 때 내가 설교 목사로 일해 온 성복중앙교회 여전도회 회원 30여명이 고운 한복을 입고 행사를 도와 주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전시장을 둘러 본 하객들은 감격했고 11일간 계속된 전시회는 참석자는 수천 명에 달했다. 그 중에서도 특이한 일이 있었다. 통합 측의 지도자인 성갑석 목사는 내게 말했다. '정 박사의 칼빈주의 연구원 자료와 카이퍼의 자료를 보고 놀랐다. 만약 당신이 통합 측으로 오기만 한다면 그에 상응한 예우는 물론 원하는 것도 무엇이든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농담이 아니었다. 실제로 통합측은 장로교이지만 칼빈주의 사상과 신학에 대해서는 늘 부족하게 생각하던 차에 이번에 바로 통합 측 본부 자리에서 내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대가인 카이퍼 전시회를 했기에 그런 제안을 해 온 것으로 알았다. 물론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카이퍼 전시회가 끝난 다음날 10월 29일 토요일 서초동 연구원에서 기념예배와 특별강연회를 열었다. 기념예배는 언제나 칼빈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진 한제호 목사님이 맡았고 2부 특강에는 손봉호 박사가 「카이퍼의 영역 주권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의했다. 이 행사들로 인해 한

국 칼빈주의 연구원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었으며 한국의 칼빈주의 연구의 견인차임을 드러내게 되었다. 나는 전시회의 인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초청합니다. 저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은 이 땅에

진정한 칼빈주의적 신학과 신앙의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 요한 칼빈과 그의 후학들의 자료를 보존, 분석, 연구, 발전시킴으로 이 땅에 성경적인 개혁주의 신앙을 건설하려는 목적으로 세워졌습니다. 작년에는 「요한 칼빈의 16세기 자료 전시회」를 개최하여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에 지난 세기 칼빈주의 운동의 거목인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 1837 - 1920) 박사의 자료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와 입장을 달리한 사람들로부터도 「열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을 가진 인물」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확실히 카이퍼의 생애는 하나님의 왕권을 위해서(Pro Rege) 뜨겁게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카이퍼는 제2의 칼빈으로서 칼빈의 사상을 그대로 수용하면서도 하나님의 일반은총(Gemeene Gratie)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주권은 삶의 모든 분야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주장하고, 이른바 1880년 뿌라야 대학 창설 기념 강연 때 그 유명한 영역주권 사상(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을 제창했습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칼빈주의적 신학을 세우고 칼빈주의적 교회 운동 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분야에서도 칼빈주의적인 사상을 가져야 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카이퍼는 대 신학자요, 국회의원, 정당의 총재와 수상을 지낸 대 정치가요, 대 목회자요, 대 교육가였고, 반세기 동안 필봉을 휘두른 언론인이었습니다. 그는 열정적인 설교가일 뿐 아니라, 미술 애호가였고, 대학 교수였는가 하면 사상가였습니다.

이번에 카이퍼의 자료 전시회를 여는 것은, 이제 한국 교회가 1천만의 기독교인을 자랑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삶의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이퍼적인 삶의 모습을 한국 교회가 배워야 하겠기에 감히 이 전시회를 개최합니



다. 이 전시회에는 150여점의 카이퍼의 책들과 70여 점의 카이퍼에 대한 사진, 만화, 글 등이 전시되어집니다. 이번 전시회를 배후에서 도와주신 화란 뿌라야 대학의 더 브라인(De Bruijn) 박사, 주한 화란대사 텡베르건(Amb. Tenbergen)씨에게와 후원해 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형제자매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화란 수상이신 루버스(R.F.M.Lubbers) 박사의 축하 메시지를 비롯해서 각국의 학자들의 축하에 감사드립니다. 바라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이 원론적인 신앙의 구조에서 벗어나서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1988. 10. 17)

특히 화란의 수상 루버스 박사(R.F.M. Lubbers)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축사를 보내왔다. 이 내용은 그 축사의 전문이다.

칼빈주의 연구원의 계획으로 화란의 정치가요, 신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를 기리는 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크게 경하할 일이며 주목할 일입니다.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복미의 선교사로부터 복음이 들어왔음을 알고 있습니다. 미국 칼빈주의 운동은 차라리 유럽보다 더 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서울에서 카이퍼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은, 유럽에서의 칼빈주의 전통적 뿌리에 대해서 한국의 관심이 날로 더해간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한국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지난 수십년 동안 엄청나게 성장을 함으로써 새로운 도약을 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 한국 교회의 성장은 세상에 대해서 보다 깊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함을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카이퍼의 생애와 삶을 연구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공헌을 하리라고 봅니다.

카이퍼라는 인물은 참으로 여러 분야에 종사하였습니다. 그는 국가의 정치 지도자로서, 정당의 지도자로서, 신학자로서, 교회개혁자로서, 언론인으로서, 출판사업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그의 사역은 괄목할 만 했습니다. 화란 출신의 신님의 칼빈주의자인 카이퍼는 다른 민족과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카이퍼는 오늘날도 한국과 화란 사이에 다리를 놓음으로 여전히 일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양국의 유대가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큰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1988. 9. 29)

또한 주한 화란 대사인 텡베르건(Tengbergen)은 다음과 같이 축사했다.

금번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생애와 작품에 관한 전시회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특별히 이 전시회가 있기까지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정성구 교수님께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카이퍼 박사(1937-1920)는 매우 중요한 정치가요,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1901년부터 1905년까지 네덜란드의 수상을 지냈으며, 19세기 후반의 가장 권위 있는 화란 개혁신학자들 중의 한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카이퍼는 신학자들에게는 여전히 「신학백과사전학」과 특히 「일반은총론」의 저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 저술들에서 그는 세속주의자와 현대주의에 대항하여 정통 개혁 신앙을 변호했습니다. 일반 대중은 카이퍼를 하층 및 중산층의 사람들을 자유롭게 살 수 있게 만들려고 애썼던 정치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는 1880년 암스텔담에서 칼빈주의적 자유대학을 설립하였으며 기존의 칼빈주의적 기독교 정당(A.R.P. 프랑스 혁명의 원리들에 대항하여 19c 초에 구성됨)을 영향력 있는 대중 정당으로 만듦으로 정치적 역할을 크게 강화시켰습니다.

본인은 금번 전시회가 한국에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생애와 작품들에 대해 잘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오늘날 네덜란드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저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바, 본 전시회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도 카이퍼 박사의 신학적 정치적 유산들에 대해 그와 같은 자극을 발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손봉호 박사는 「가장 위대한 정치가」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생애와 업적이 이와 같은 전시회를 통하여 생생하게 우리나라에 소개된다는 사실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의 사상은 부분적으로 우리나라 개혁주의 신학자들에게 알려졌으나, 그것은 다만 신학자로서의 그의 면모일 뿐, 정치가로서, 언론인으로서, 교육자로서, 그리고 사상가로서의 그의 다양한 모습은 충분히 알려지지 않았었다. 그는 19세기 화란이 낳은 가장 위대한 기독교 정치가였고, 능력 있는 지도자로 다양한 방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의 공헌은 화란의 교육계, 정치계, 종교계에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있고, 화란 뿐 아니라 미국, 캐나다, 남아연방 등 여러 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지

금 종교와 정치와의 관계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정당 당수로서, 그리고 수상으로서의 그의 정치철학과 업적은 하나의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와 같은 전시회는 화란 바깥에서는 처음이 아닌가 싶다. 정성구 박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없이는 이와 같은 행사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정 목사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많은 분들에게 감명을 주는 전시회가 되기를 기도한다.

또한 화란 뿌라야 대학의 더 브라인 박사도 축사를 보내왔다. 더 브라인 박사는 특히 칼빈주의 정치가로서의 카이퍼를 깊이 연구한 학자일 뿐 아니라, 역사자료센터의 소장으로 재임하고 있었다.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주최하는 카이퍼 전시회에 심심한 축하말씀을 전합니다. 카이퍼가 아직도 중요한 인물임은 1987년 10월 네덜란드에서 있었던 카이퍼 탄생 150주년 기념회를 보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 관한 출판물들이 발행되었고 다양한 전시회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같은 네덜란드 바깥의 나라에서 아브라함 카이퍼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암스텔담의 자유대학의 화란 개혁주의 역사자료센터에서는 금번 서울에서의 카이퍼 전시회에 기쁘게 지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협력으로 양 기관 사이의 유대 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금번 전시회가 성공적이고 또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저희 역사자료센터가 노력하는 바, 기독교 전통을 환기시키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서 화란 우트레흐트 대학의 칼빈주의 철학의 명예교수이며 전 국제개혁주의 신행협회(IARFA) 회장인 뎅그링크 박사(Dr. J.D.Dengerink)는 「개혁신앙은 모든 생활의 실제적 영적인 힘」이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그의 위대한 사상적 스승인 흐룬 판 프린스터(1801-1876) 이래로 네덜란드에서 가장 뛰어난 지도자이자 개혁주의 신앙생활의 건설자였다. 그는 바빙크, 험스 크, 루트거스, 사보닌 로호만, 볼티에르 등 풍부한 재능을 지닌 많은 사람들과 뜻을 같이 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의 활동만 중요시한 게 아니라, 정치, 사회, 학술분야, 일반 문화에 더욱 많은 관심을 쏟았다. 이런 식으로 개혁신앙은 나라 전반 모든 생활에 실제적으

로 영적인 힘이 되었다. 카이퍼는 저술 뿐만 아니라 교수 생활을 통해서도 실제로 많은 개혁주의 신앙 정신을 구축해왔다. 더구나 그의 활동은 네덜란드 외에 세계의 많은 분야에도 영향을 끼쳤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항상 우리의 관심을 끄는 현대의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예언자적 발언을 했었다. 그러므로 본인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심혈을 기울여 카이퍼 박사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 칼빈신학교 학장인 제임스 더 용(Dr. James De Jong) 박사는 「카이퍼는 개혁주의적 건설자」라는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칼빈신학교는 귀 원이 개최하는 카이퍼 자료 전시회를 충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한국에서 1985년 7월 10일에 칼빈주의 연구원을 설립한 것을 알고 깊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그 곳에서 지난 3년 동안의 활동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고 확신하고 앞으로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달에 있을 아브라함 카이퍼 전시회를 통해서 그가 크리스찬 사회 질서에 대한 개혁주의적 건설자로 한국에서 널리 알려지기를 기원합니다. 귀하의 성경 중심의 크리스찬적인 사고를 일으키려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국내의 전반적인 모든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올림픽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카이퍼의 공헌에 대해 주시할 충분한 시간은 없겠지만 이 중요한 전시회에 대한 관심이 흐트러지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귀하와 귀하의 하시는 일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인 간하배 박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소명의 실천화」라는 제목으로 카이퍼 전시회의 의미를 밝혔다.

본인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오는 10월 카이퍼 박사의 자료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교회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의 작품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더욱이 금번 전시회가 한국의 기독교인 학자들, 예술인, 정치인들 및 언론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과 한국 사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침묵의 장벽을 허물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을 단지 이론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의 일을 하도록 자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이 세상은 갈보리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아래 있음'을 알았고 또한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국의 보수교회는 이 메시지를 귀기울여 듣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가 세상에 관해 단지 아는데 그치지 않고 주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번 전시회를 통해 우리의 교회들로 하여금 박물관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 진정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변화시키는 도구의 하나로 사용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한편, 전 세계 R.E.S. 사무총장 폴 슈로텐보어 박사(Dr. Poul G. Schrotenboer)는 「카이퍼의 영향력을 증거하는 전시회가 되기를」이라는 제목으로 축사를 보내왔다.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경축 행사로서 아브라함 카이퍼에 관한 발표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본인이 참석할 수 있다면 큰 영광이겠으나 그것이 불가능한 관계로 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나간 세기에 아브라함 카이퍼만큼 개혁신학의 유산을 크게 발전시키고 영향을 미친 인물은 거의 없습니다. 그는 화란에 삶의 족적을 남겼으며, 그 흔적은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 다. 뿐만 아니라 카이퍼의 사상은 국제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칼빈주의 연구원의 활동 자체가 대양과 문화적 장벽을 건너간 카이퍼의 영향력을 증거합니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향은 그가 항상 즐겨 사용한 Pro Rege(왕을 위하여) 라는 말로써 가장 잘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 Pro Rege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적, 나아가 우주적 통치를 드높이자는 것입니다. 이 주제는 환란 중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방언이 그의 왕권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하의 발표회 결과와 소식을 듣기 원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그 행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영속적인 감화를 경험하시기 기원합니다.

그리고 일본 칼빈협회(J.C.A.)의 회장이며 관서학원 대학교 철학부 교수인 하루나 수미토(春名 純人; Sumito Haruna)는 「개혁주의자들을 연구하는 계기가 되기를」바라며 축사했다.

아브라함 카이퍼 전시회에 심심한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는 위대한 교회 개혁자였습니다. 흐른 반 프린스터와 여러 사람들의 부흥운동을 이어, 그는 갱신교회(Hervormde Kerk)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던 현대 자유주의신학과 맞서 싸웠으며, 화란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과 개혁신앙에 충실한 참된 개혁교회로 되돌리려고 애썼습니다. 그와 그의 동료들은 네덜란드에서 개혁교회(Gereformeerde Kerken)를 설립했습니다. 카이퍼 박사는 또한 교육과 과학 분야에서도 위대한 개혁자였습니다. 그는 모든 종류의 혼합주의 원칙-토미즘이든 현대 혼합주의든-과 싸웠으며 Antithesis의 원칙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한 과학 분야에 있어서 2개의 체계를 지지하였는바, 중생한 사람들에 의해 세워지는 체계와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에 의한 체계의 두 가지 였습니다. 그는 중생한 기독교인들의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칼빈주의적 과학 체계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암스테르담에 자유 대학을 설립했습니다. 그는 전체로서의 기독교와 삶의 전 영역을 포함하는 사상체계, 즉 세계관으로서의 칼빈주의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그는 신학과 과학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매일 매일의 삶도 하나님 중심으로 개혁하기를 원했습니다. 기독교인은 자신의 생애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조그마한 한 부분까지도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은 내 것이다>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은 위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사상들이 세속화의 한가운데 처해 있는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 더욱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은 한국에서 한국 교회와 후학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요한 칼빈과 그의 후계자들이 생애와 사상을 연구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개원하신 정성구 박사님을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또한 작년의 칼빈 전시회가 대단히 성공적으로 끝났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본인은 금번 전시회 역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생애와 그의 사상, 다양한 활동들을 한국 교회와 후학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을 바라며, 성공적인 전시회가 될 것을 중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끝으로 나 자신은 아브라함 카이퍼(A.Kuyper, 1837-1920)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개요 했다. 이것은 한국 교회에 19세기의 위대한 칼빈주의자인 카이퍼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해설한 첫 번

재 아티클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개요했다.

카이퍼 박사는 19세기 화란이 낳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다. 아마 그가 영어권이나 불어권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의 명성과 사상은 훨씬 더 한국에 잘 알려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조국 화란은 조그마한 나라였고, 강대국인 영국, 독일, 불란서 사이에 끼어서 상대적으로 약소국가인데다가 제한된 화란어 사용으로 해외에서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1920년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가 서거했을 때 전 세계 120여개 신문들은 아브라함 카이퍼의 서거를 애도하고 제2의 칼빈이 잠들었다고 논평했으며,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왕권을 위해서(Pro Rege) 일했던 위대한 신학자요, 교회개혁자요, 정치가요, 언론인이었음을 격찬했다.

카이퍼는 1837년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라이덴 대학에서 문학과 신학을 공부했으며 25세 나이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6세에 목사가 되어 우트레흐트와 암스테르담의 큰 교회의 담임목사로 일했다. 카이퍼는 너무나도 다재다능한 인물이었기에 그와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카이퍼를 가리켜「열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을 가진 인물」이라고 격찬했다. 그는 이 세상에 있어서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확신했다. 그래서 그는 168cm의 작달막한 키에 지칠 줄 모르는 정열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분야에서 혼신의 힘을 쏟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카이퍼는 불을 튀기는 대설교가였을 뿐 아니라 자유주의 노선에 선 국교에서 교회를 개혁하여 화란 개혁교회를 세운 교회행정가였다. 카이퍼는 불란서 혁명이 인본주의 사상에서 이루어진 것을 공격하고, 그의 스승인 흐룬 판 프린스터(Groen Van Princetere)의 뒤를 이어 A.R.P. 정당의 당총재가 되었다. 그는 하원 의원과 중신 상원 의원을 지냈으며 수상으로서 재직하면서 칼빈주의적 정치를 실현했다.

카이퍼는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 학문운동의 국립대학에 대항해서 성경적이고 신본주의적인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뿌라야 대학을 설립하고 조직신학교수 및 총장에 취임했다. 1880년 뿌라야 대학을 개교하면서 영역주권(領域主權, souveriniteit in eigen King) 사상을 제창함으로써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 얻은 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위해 살아야 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역설했다. 그리고 1898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 가서 그 유명한「칼

빈주의」라는 특별강연을 함으로 갈채를 받았고 미국 장로교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일간지인「스텐다드」지를 창간하여 편집인이 되었고 주간지「헤라우트」지를 창간하여 45년간 편집장으로 일했다. 카이퍼의 생애는 50여 년 간을 기독교 언론인으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이었다. 카이퍼는 1862년부터 그의 서거 때까지 한평생을 저술가로서 일하면서 223권의 크고 작은 책을 저술하였다. 그 중에는 신학,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등 손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카이퍼의 생각은 복음이 인간의 전 생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능동적인 교회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삶이 그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명백히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앞에서(Coram Deo) 우리의 삶 전체를 드러야 할 것을 요구했다.

이제 한국 교회는 복음을 받은 지 100년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1천만 명의 기독교인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위한 삶이 부족한 이때,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삶의 원리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충격을 주리라고 믿는다.

3. 개혁주의 신학자 육필원고 전시회(2007.10.24.)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에 철두철미한 개혁주의자들의 육필(肉筆)을 모아 전시함으로써 개혁주의 학자들을 가까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한 한국장로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의 정체성 확립을 자극하려는 시도로 이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는 또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의 학문적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전시회에 출품한 자료들은 모두 제 개인의 소장품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들을 갖게 된 이유는 제 자신이 총신대와 대신대의 교수와 총장으로서는 지난 40여년 일하는 동안 여러 개혁주의 국제기구에 참여함으로 많은 세계적인 개혁주의 학자들과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국제개혁주의 신행협회><칼빈주의 철학회><라브리 펠로우쉽><세계 칼빈학회><미국 칼빈협회><국제 복음주의 연합회><개혁주의 기독교 대학 연맹> 등 여러 기구에 가담함으로 많은 자료를 얻었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만나고 누구와 교제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세계적 대학들과의 교류는 세계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해 전에 저는 <개혁주의 인명사전>을 편집하면서 전세계 현역 학자들과 많은 교류를 했습니다. 여기 전시된 개혁주의자들의 서신은 모두가 그 때 얻어진 것입니다. 또 제가 22년 전에 세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방문했던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이 연구원 방문 후에 글을 남기고 간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약 300여명의 학자들의 글과 편지가 있었으나 그 중에 약 150여 명을 골라 약간의 소개와 해설을 곁들여 이번 전시회에 내어 놓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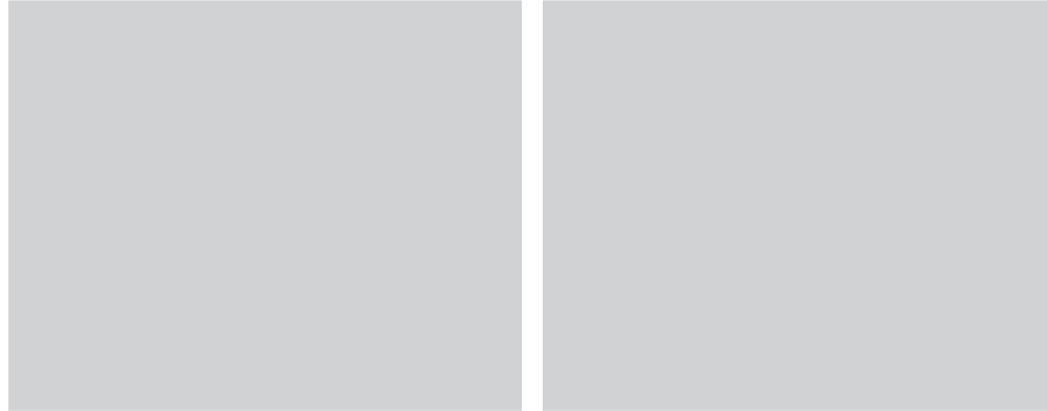
여기 전시된 학자들은 모두가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지만, 어떤 이는 신학자는 아니지만 자기 분야에서 철저한 칼빈주의 세계관을 갖고 일하는 세계적 학자들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정확히 우리의 입장과 같지는 않지만 광범위한 의미에서 개혁주의 학자로 보고 여기 실었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많은 개혁주의 학자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만 내어 놓습니다.

글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기 전시된 현대 개혁주의 학자들의 생생한 글과 그들의 편지와 서명(싸인)등을 봄으로 개혁주의 사상가들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그들의 철학과 세계관을 보다 가까이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모든 신학자, 목회자, 신학생들이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

앙노선의 흐름을 이해하고 한국 장로교 신학과 신앙의 방향 설정에 커다란 자극제와 근거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전시회를 통해서 자료의 소중함을 깨달을 뿐 아니라 역사적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간직하는 의식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1 9 8 5 - 2 0 1 5

제3장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칼빈박물관

1. 칼빈 박물관 소개의 글

나는 가끔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이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방문할 때 직접 나가서 오리엔테이션과 자료해설을 하곤 했다. 실제로 내가 작품을 해설하고 종교개혁의 의미를 설명하면 모두 가슴이 뜨거워지고 깊은 감명을 받고 했다. 방문객들이 1층 세미나실에 들어오면 기본적으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대해서 개요를 듣는다. 우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은 칼빈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칼빈 해석자들의 자료를 갖고 있을 뿐 아니라 칼빈주의 사상체계에 대한 모든 자료들을 모아둔 곳이다. 영어, 독일어, 화란어, 라틴어, 불어, 헝가리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일본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세계 각국의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자료가 있다. 그리고 1800년대 이후 각종 영미, 화란, 독일 등의 신학 잡지에 실린 약 3000종의 아티클이 정리되어 있고,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자들의 거의 모든 자료가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 카이퍼, 헬만 바빙크, 끌라스 스킨더, 헬만 도예베르트, 볼렌 호번 등 화란 칼빈주의자들의 저서가 잘 정리되어 있다. 특히 아브라함 카이퍼에 대한 자료는 화란 뿌라야 대학 못지않게 다양한 자료들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전 세계 칼빈주의 학자들의 육성 강의나 설교가 테이프에 잘 보관되어 있는데 이것도 약 2000여종이 된다. 해외에서 온 연구생들은 테이프를 통해서 개혁주의자들의 육성 강의를 듣고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층 칼빈 박물관에 이르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선 거기에는 양가죽으로 만들어진 15세기의 토라가 있다. 그것이 바그다드에서 나왔다고 해서 그냥 바그다드 사본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리고 4세기 때의 파피루스 다섯 점이 유리관 속에 보관되어 있다. 여기에는 헬라이어와 아람어가 함께 쓰여 있고 양각 나팔이며 예수 그리스도 당시의 토기가 몇 점 있다. 대형 유리관에 보관된 이것들은 칼빈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기독교가 말씀의 종교인 한에 있어서 모든 기독교 신앙은 성경에 근거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다. 그리고 박물관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 16세기에 출판된 교부들의 저서들이다. 폴리갑에서 어거스틴까지의 이 자료들이 귀한 이유는 칼빈의 신학이 교부신학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이다. 방문객들은 교부들의 작품 앞에서 겸손해진다. 진리를 지키기 위한 교부들의 깊은 연구, 특히 변증가들로 알려진 그들의 위대한 저작들 앞에서는 말문이 막힌다. 또한 칼빈의 일대기 판화 역시 일품이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95개조 사본을 볼 수 있는데 루터의 95개조는 그냥 비텐백 교회 정문에 붙여졌을 뿐 아니라 라틴어로 인쇄해서 서양에 뿌려짐으로 종교개혁의 불을 붙인 역할을 했다. 그리고 화란 칼빈주의 운동의 계보를 보여주는 앨범은 1973년에 헤그의 카이퍼 박물관에서 얻은 것이었다. 칼빈의 사상을 이어받은 돌트 총회 의장인 요하네스 보겔만에서 흐른 반 프린스터, 아브라함 카이퍼와 그의 후학들에 대한 사진첩은 19세기 칼빈주의 운동의 계보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한다.

교부들의 원전 중에는 저스틴 마터의 글, 폴리갑, 아다나시우스, 크리소스톰, 어거스틴, 암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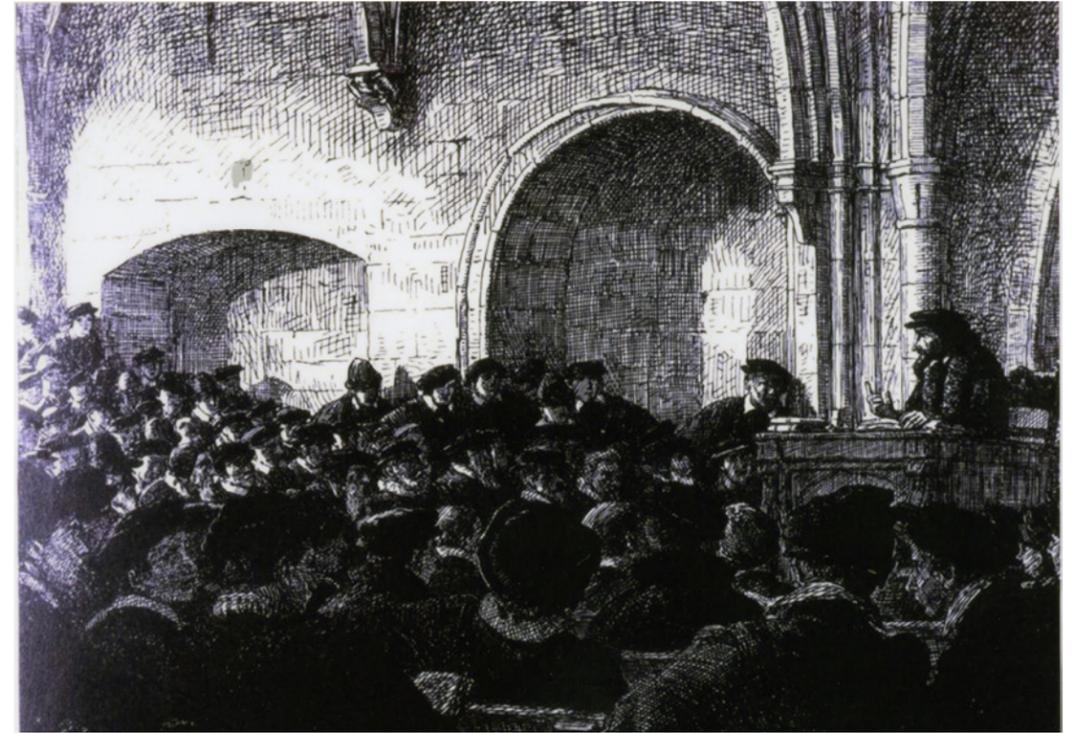


스 등의 책들을 볼 수 있도록 전시되어 있다. 그리고 종교개혁은 곧 성경번역과 그 책을 같이 한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구텐베르그판 루터역 성경과 기타 사본들이 있고 특히 제네바 성경이 있다. 그리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비롯한 칼빈의 원전들이 모두 전시되어 있다. 특히 칼빈의 수제자였던 테오도르베자가 번역한 성경이 1611년판 그대로 전시되었고, 특히 칼빈의 읍기, 신명기, 시편 설교가 영어로 번역된 중요자료들이 있다. 또한 칼빈이 목사 안수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역사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여기 자료에는 「제네바의 하나님의 교회 목회자 신학박사 요한 칼빈 목사」라고 정확한 기록도 있다. 이 책은 1578년에 출판된 것이다. 1650년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볼 수 있고 카이퍼의 학위논문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림 중에는 제일 오래된 동판화 칼빈의 모습도 있다. 이들은 모두가 보물들이다. 그리고 칼빈의 석고상, 카이퍼상, 존 후스상 등등, 여러 진귀한 자료들이 많다. 특히 돌트 총회 회의록은 1620년에 출판된 것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완성할 때까지 6개월간의 논쟁을 기록으로 남긴 자료이다. 또 유리관 맨 끝에는 아브라함 카이퍼, 헬만 바빙크의 육필원고, 박형룡, 박윤선, 명신홍 박사들의 육필원고도 잘 보관되어 있다. 한마디로 개혁주의 교회의 역사적 뿌리를 한 분에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자료 서고에는 한국 교회 1세기 동안의 3000여종의 자료가 보관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가 교회 역사 연구의 귀중한 자료들이다. 나는 이런 자료들을 한국 교회에 정리하여 남기기 위해서 내 생애의 모든 것을 다 드린 셈이다.



2.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외벽에 장식된 칼빈의 일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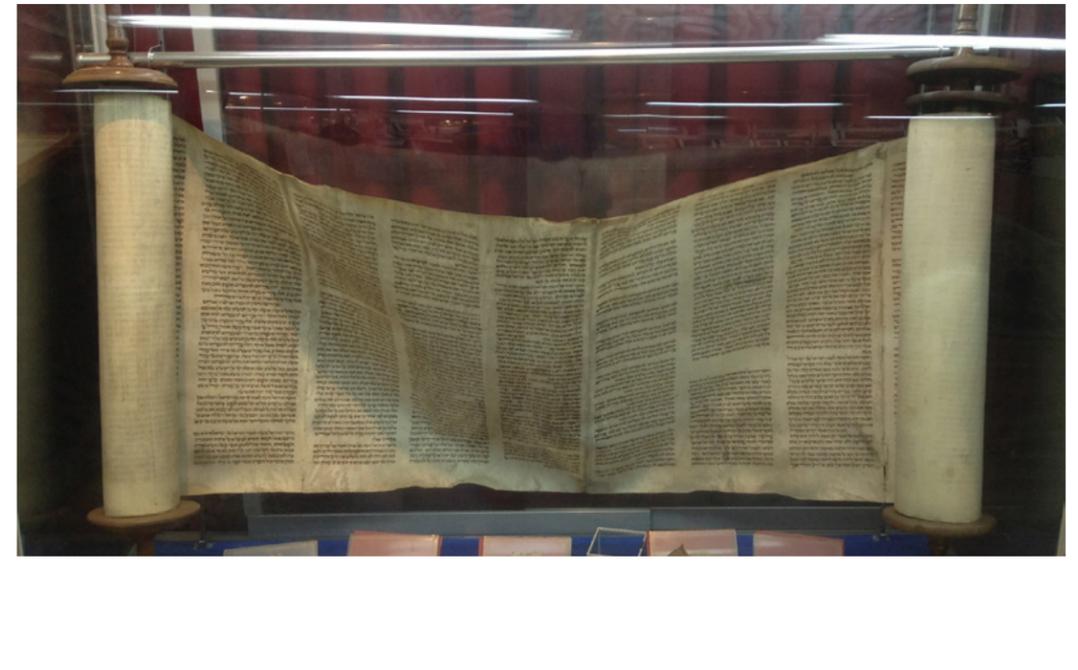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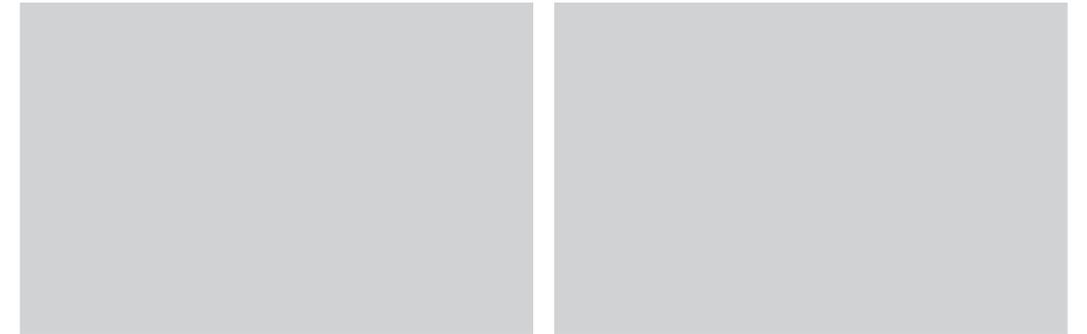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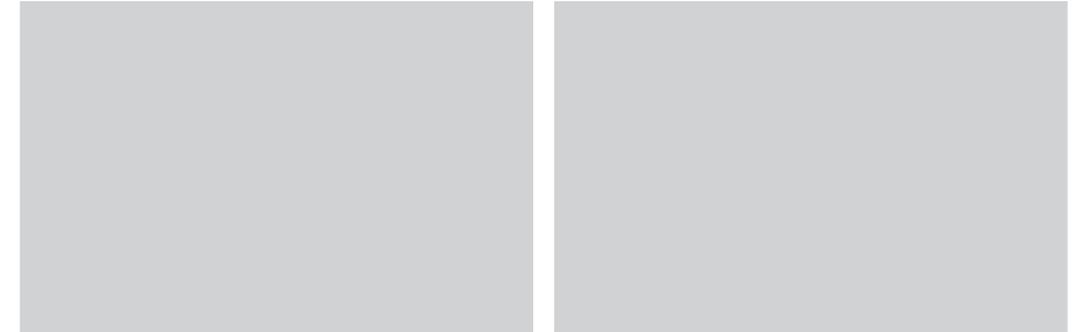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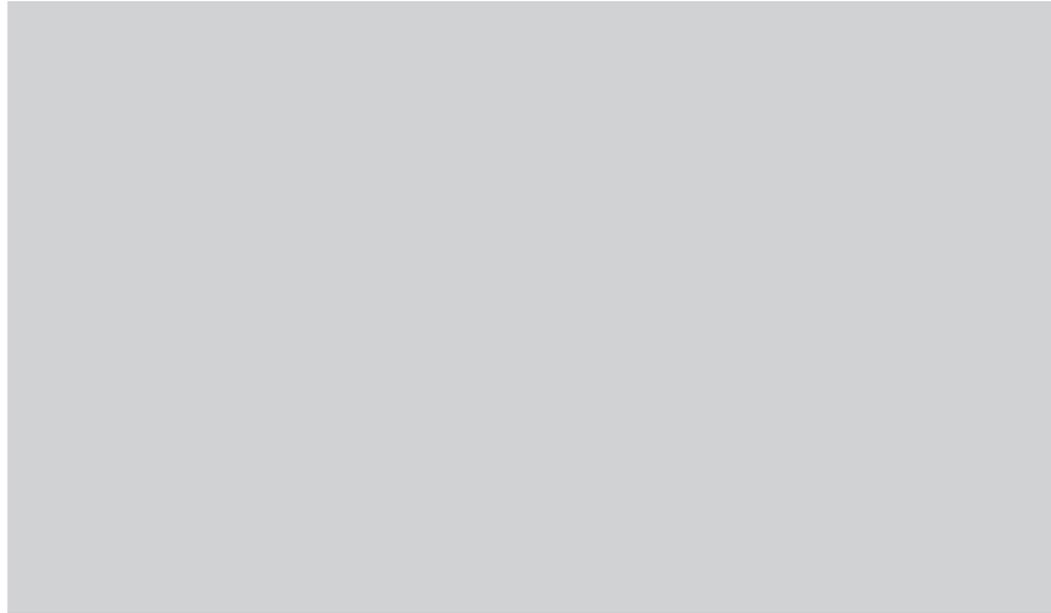
81 페이지 사진 해상도 낮습니다. 다른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3. 칼빈 박물관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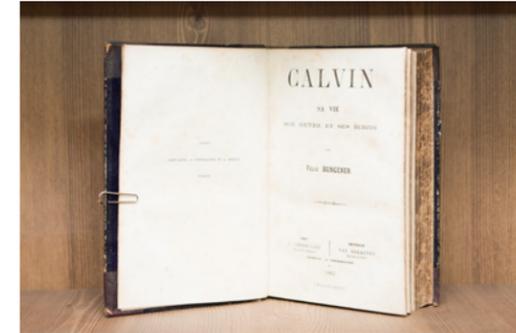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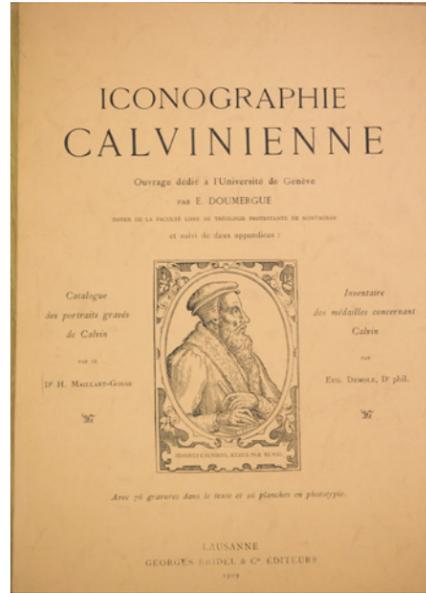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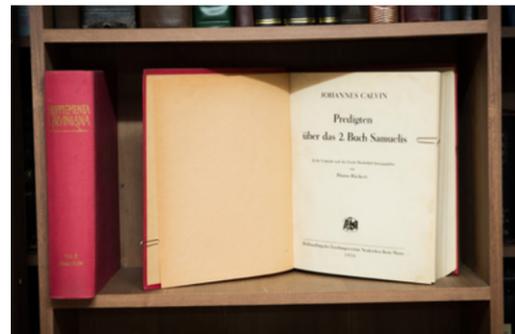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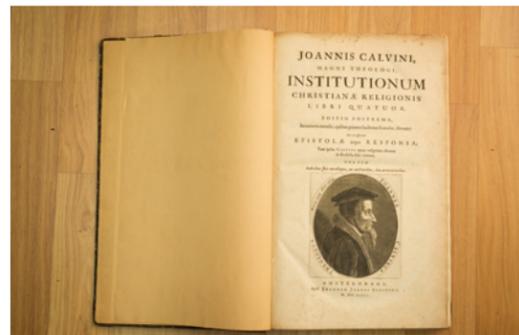
4. 교부들의 원전



5. 칼빈의 원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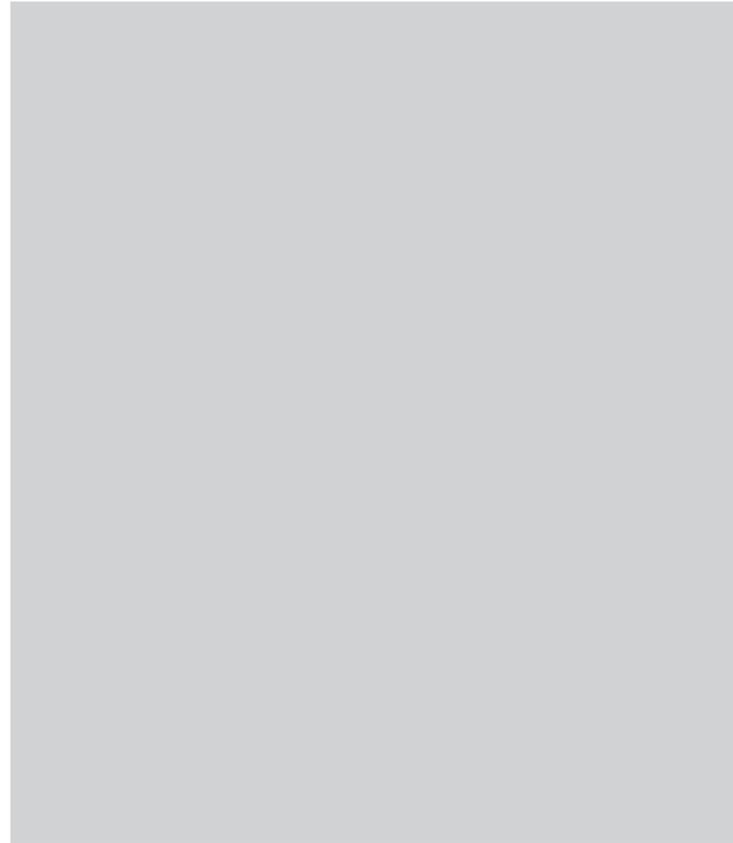
칼빈의 옮기 설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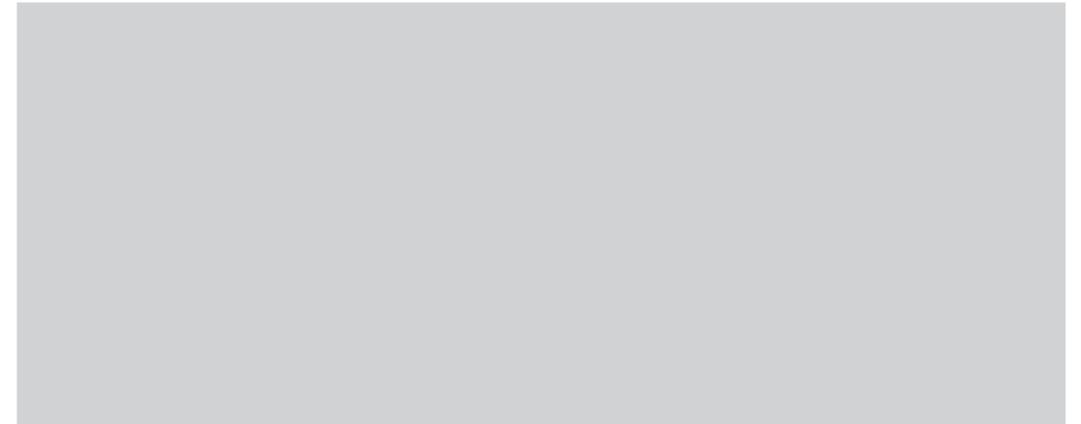
칼빈의 신학논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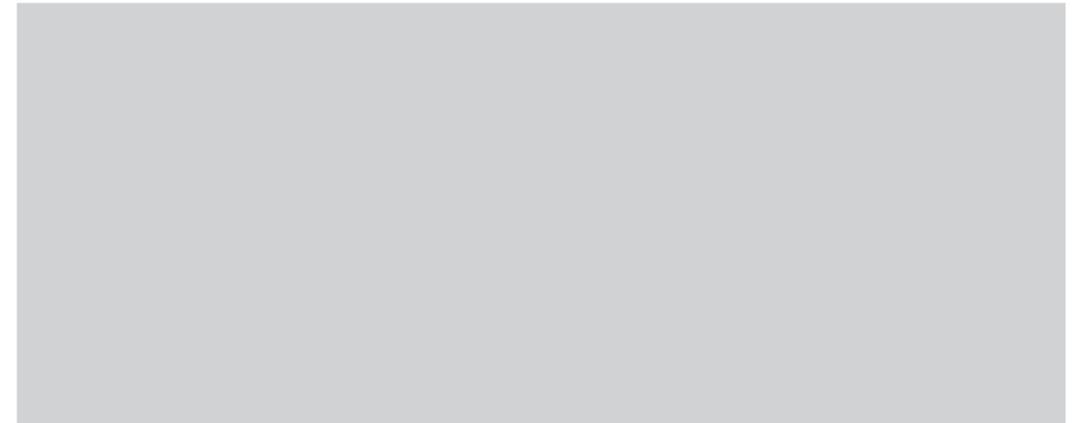
6. 칼빈 관련 자료들



칼빈의 전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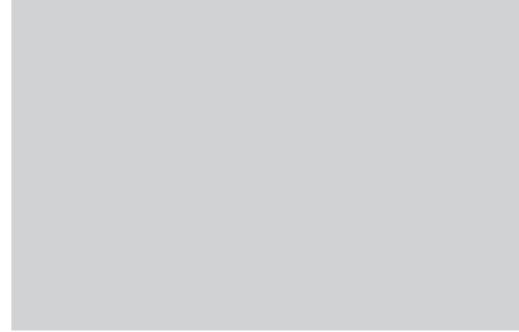
칼빈의 콘사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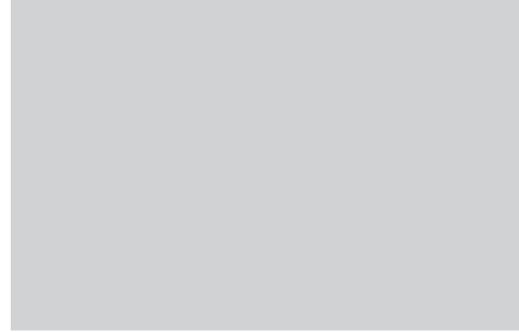
칼빈과 돌트 총회



칼빈과 개혁자들



칼빈의 요리문답 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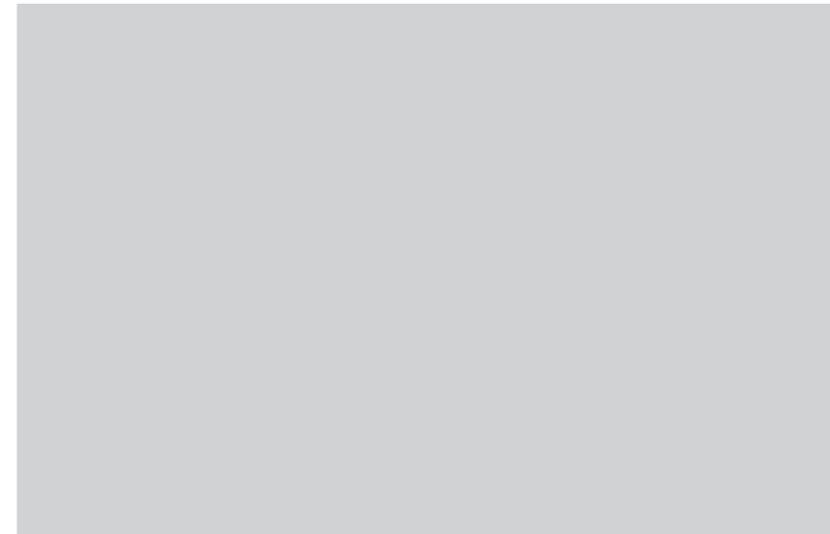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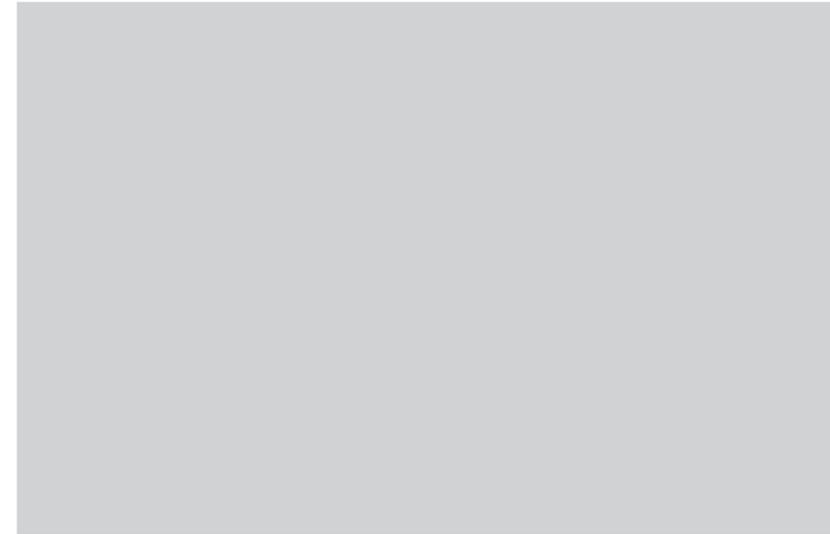


제네바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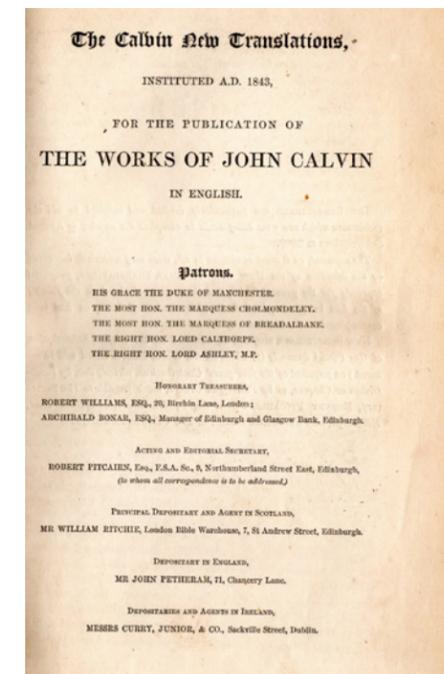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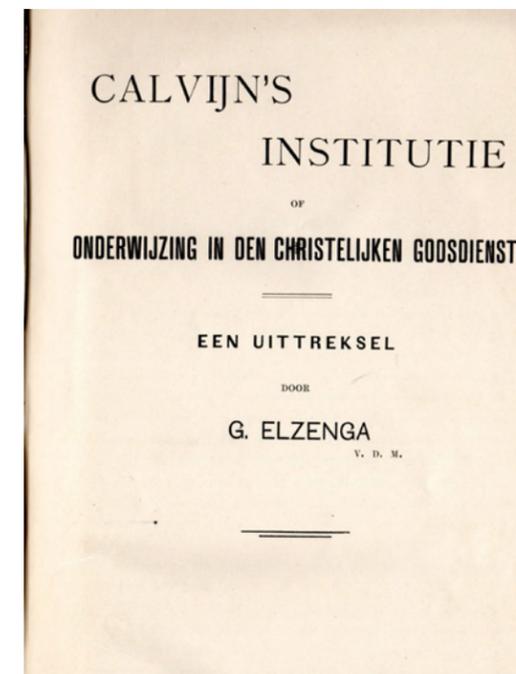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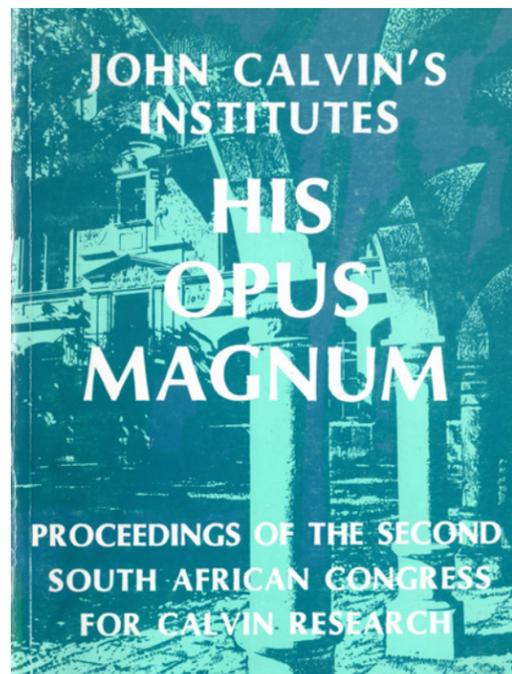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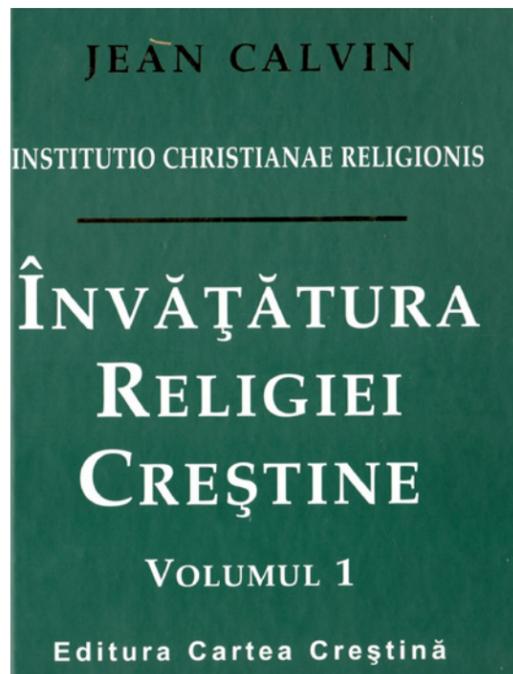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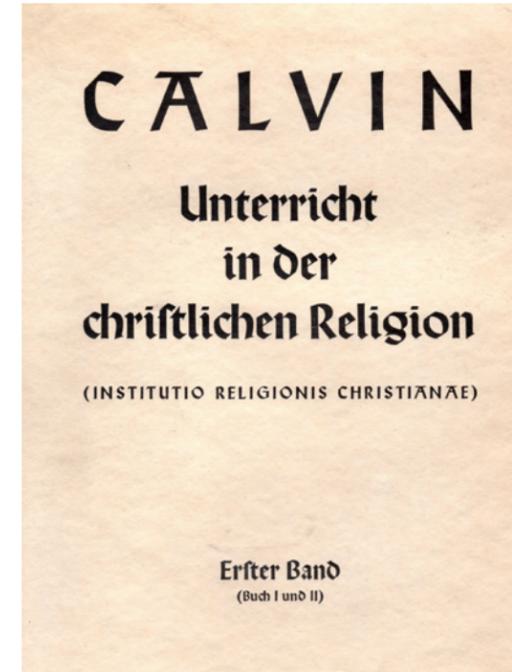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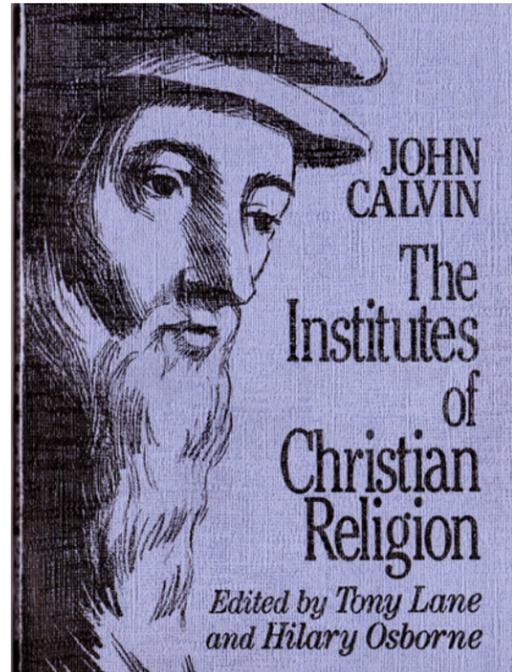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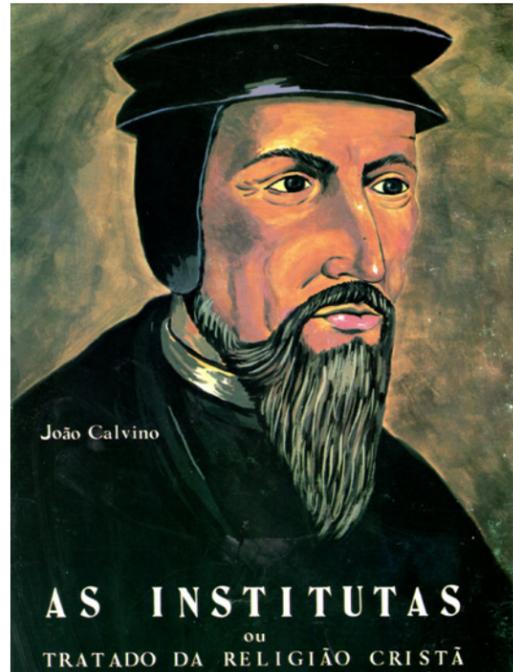


베자 사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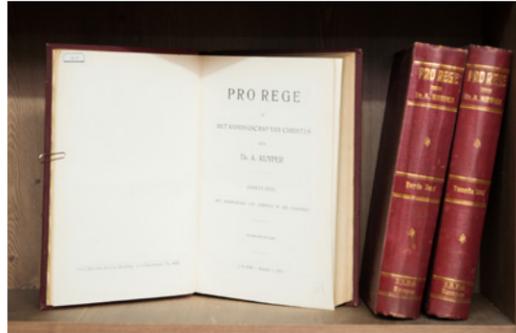
7. 칼빈의 기독교 강요 원전



8.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칼빈의 기독교 강요



9. 아브라함 카이퍼 관련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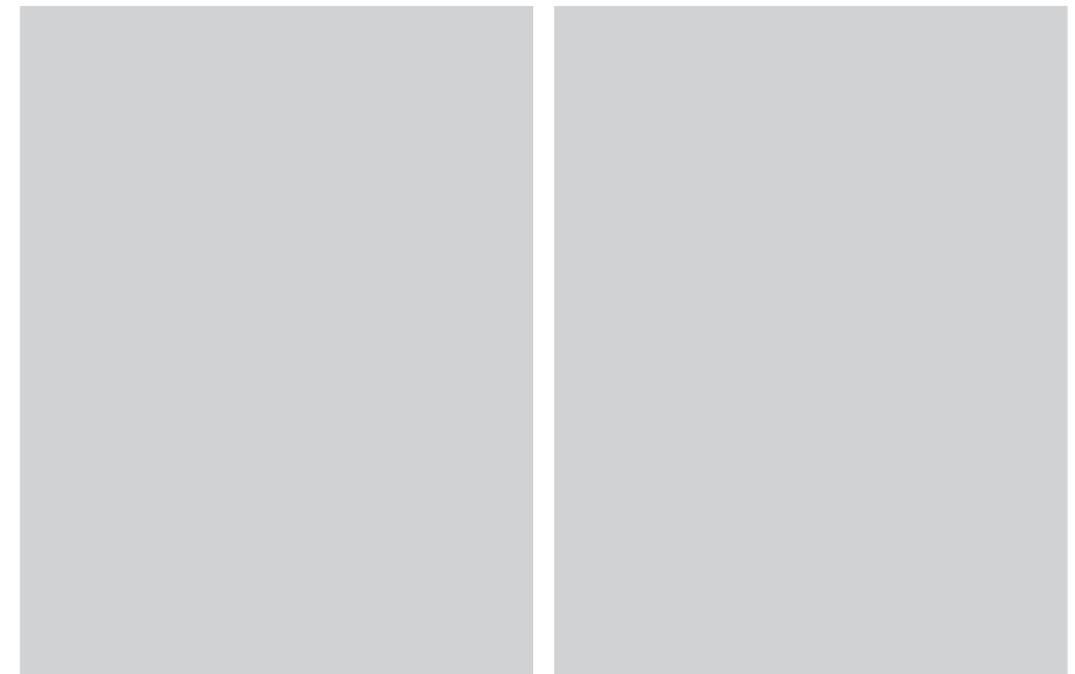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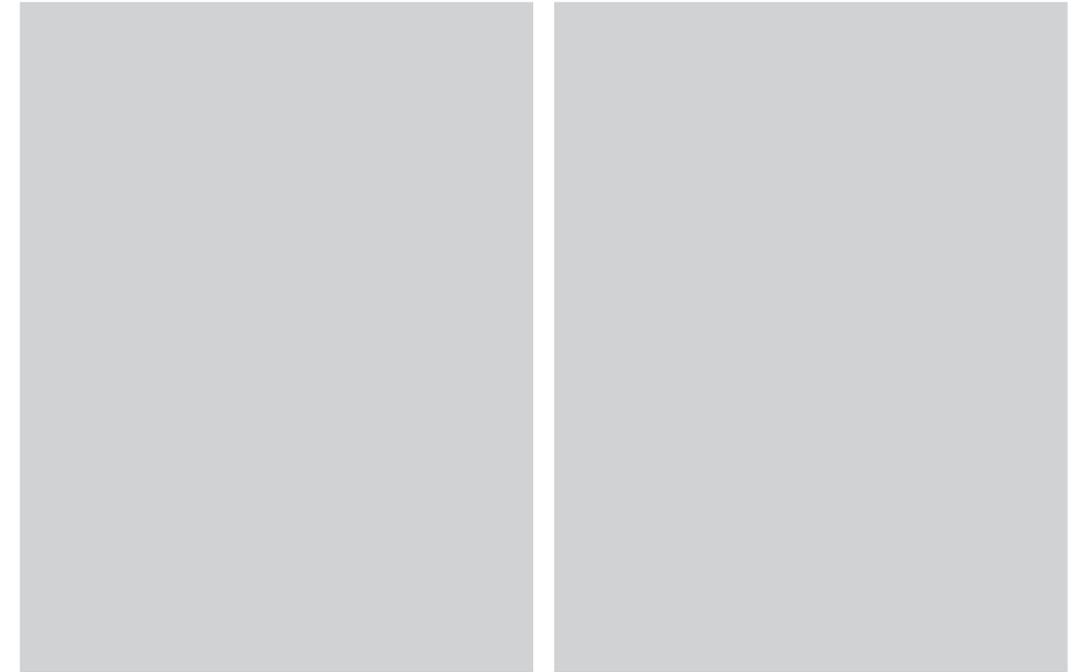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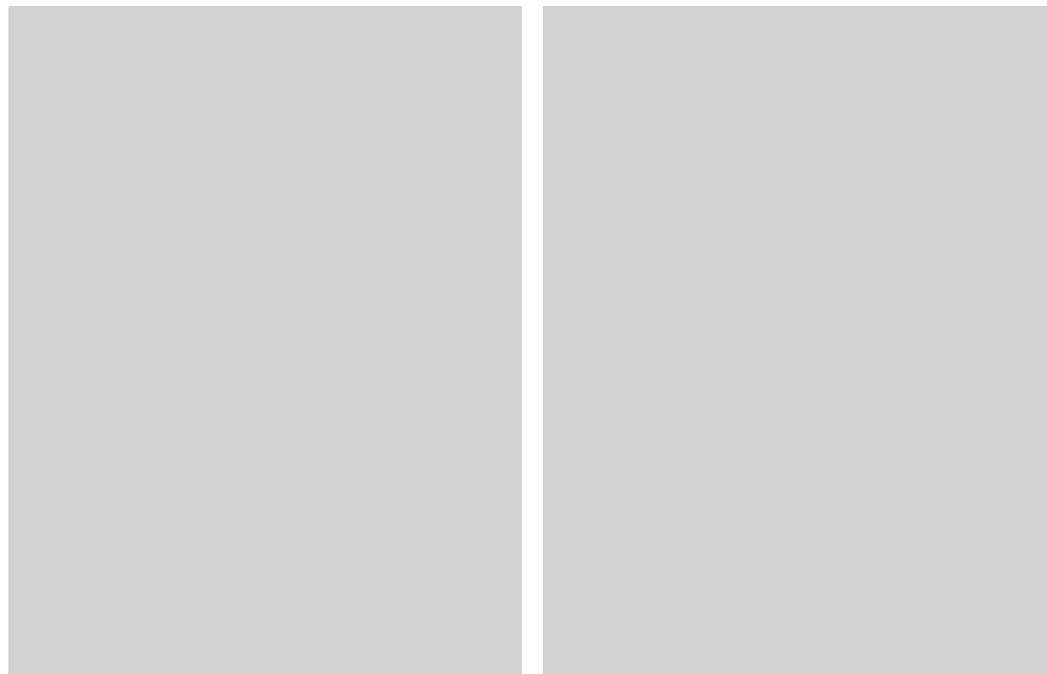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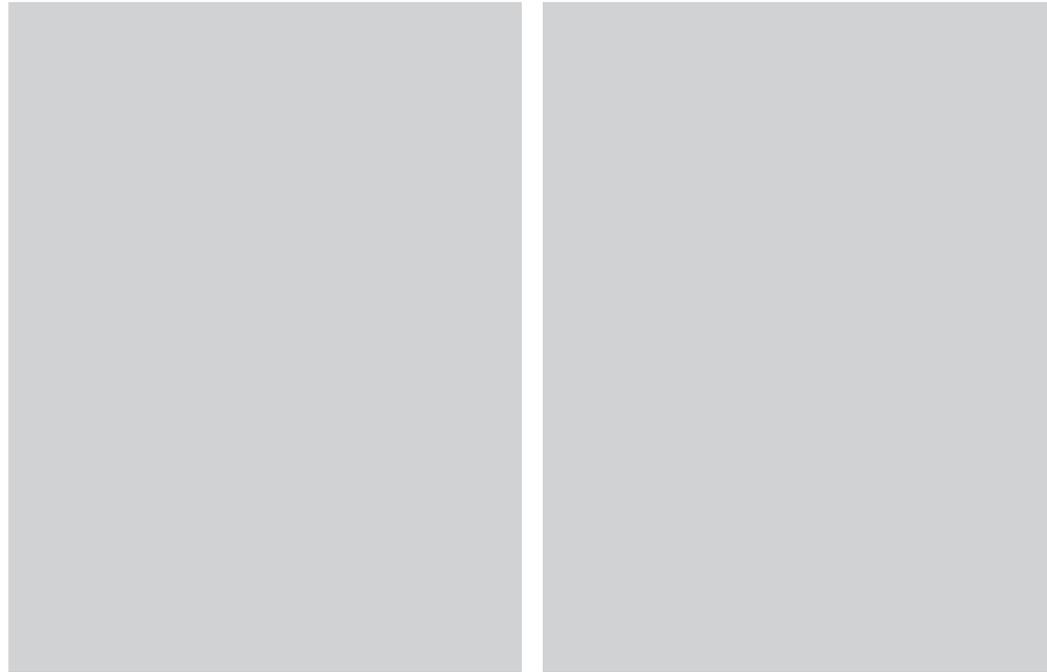
카이퍼가 발행한 일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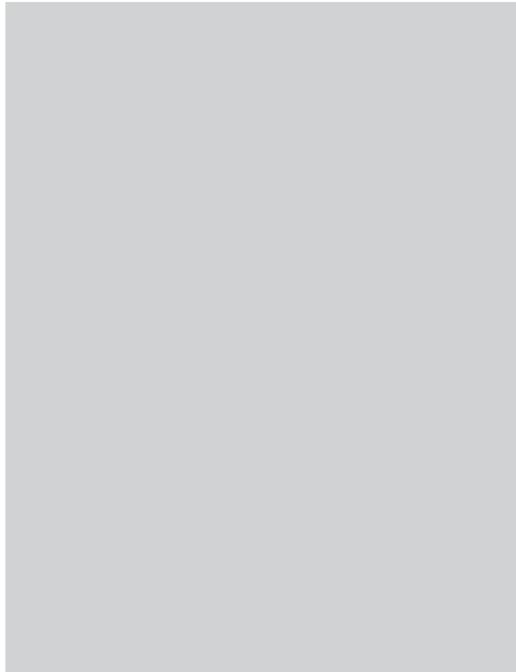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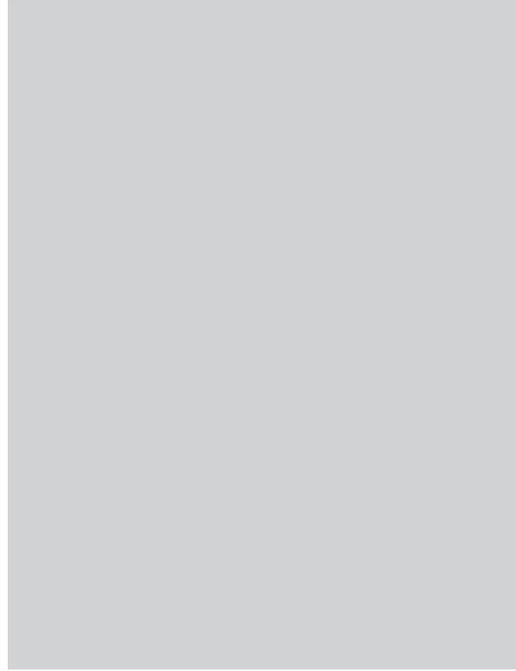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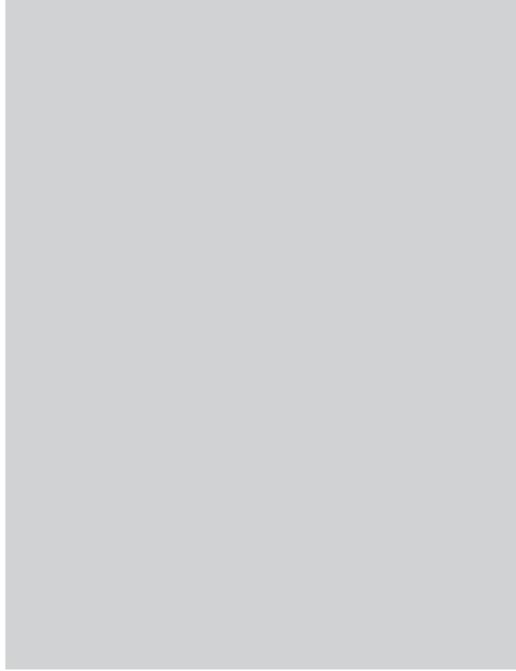


아브라함 카이퍼가 발행한 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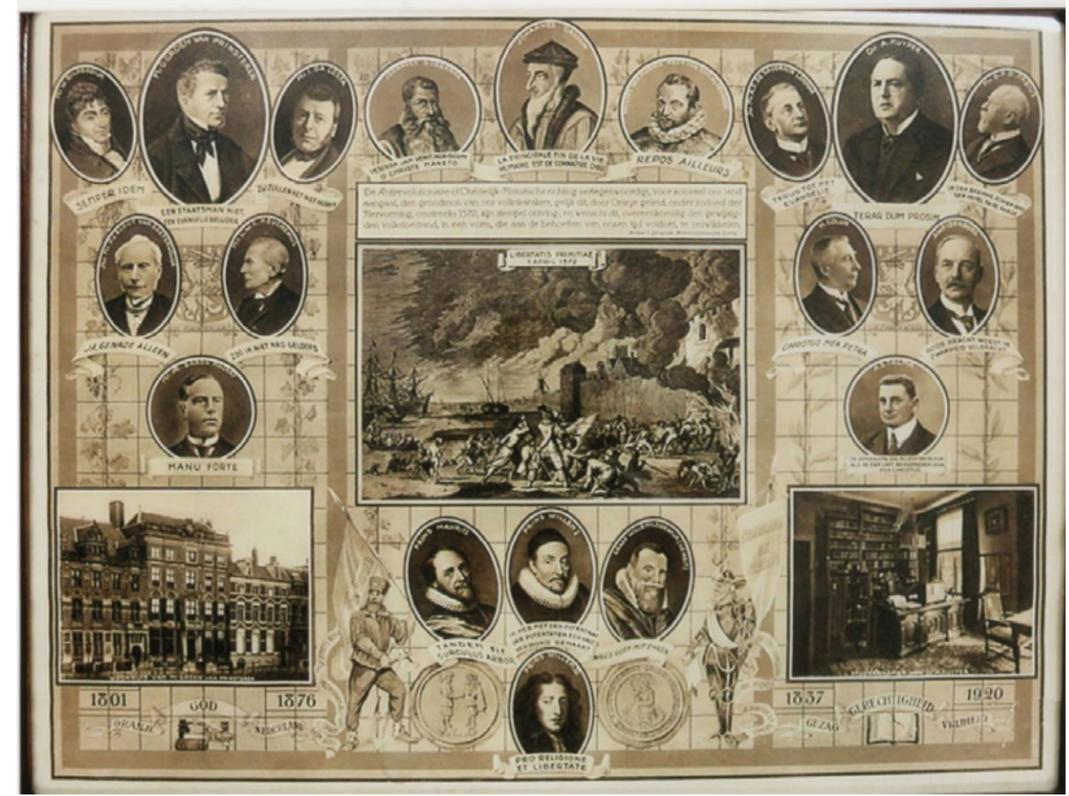


10. 종교개혁 관련 자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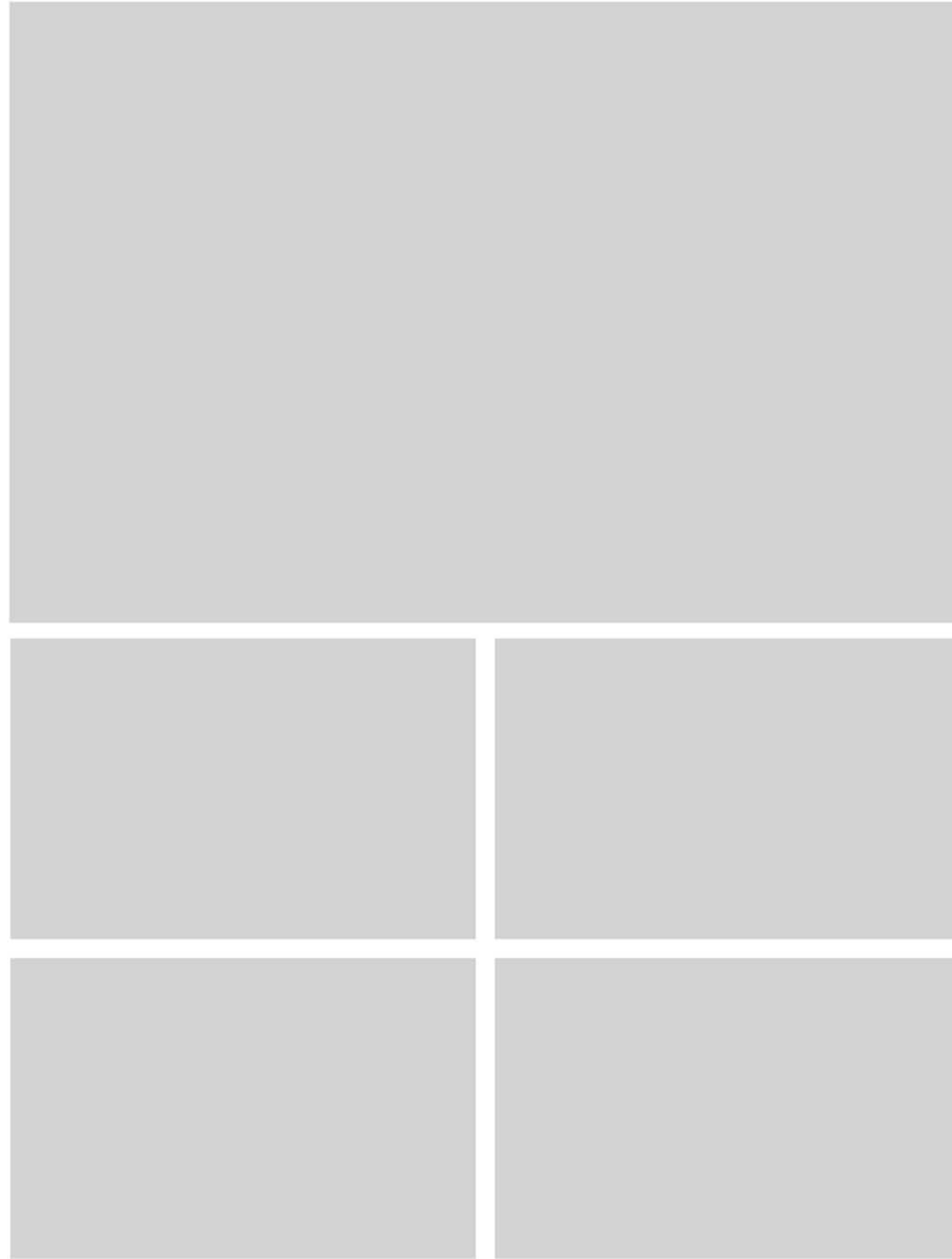


종교 개혁자 후스상



유그노파의 상징

11. 돌트 총회 관련 자료들



1 9 8 5 - 2 0 1 5

제4장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의
사역

1. 언론속의 한국칼빈주의연구원

Dat is pas echt Kuypertiaans

Van een onzer verslaggeefsters:
AMSTERDAM – Wat maakt Abraham Kuypers zo interessant voor Korea? Als antwoord op die vraag begint dr. Sung-Kuh Chung zijn tas uit te pakken. De ene na de andere folder spreidt hij op de tafel uit. „Allemaal gratis, neem maar mee.”

Dr. Chung, directeur van het Instituut voor calvinistische studies in Korea, is een van de Aziatische deelnemers aan de Kuypersconferentie die deze week aan de Vrije Universiteit wordt gehouden. Met gulde hand deelt hij folders uit en posters die zijn overgeleverd van een Kuypertoonstelling tien jaar geleden in zijn land.

Maar voor een antwoord op de herhaalde vraag naar de betekenis van Kuypers in Korea moet uiteindelijk een van de folders uitkomst geven. Daarin formuleert Chung het helder: „De moderne samenleving en zelfs de kerk heeft te maken met een invasie van humanisme en new age. Deze bewegingen zijn erop uit de waarheid te vernietigen zoals kanker zijn slachtoffers opeet. Calvinisme belangrijk, we moeten terug naar de bijbel en naar de reformatie.”

Zo stevig formuleerde prof. Nicholas Wolterstorff het niet in zijn congresbijdrage, maar de filosoof van Yale (VS) meent wel dat het tijd is om Kuypers ideeën te vertalen in een bruikbare visie op de inrichting van de samenleving. Overigens met de relativering dat Kuypers weliswaar een genie was, maar geen groot systematicus. Zijn navolgers, van gisteren tot en met morgen uit alle streken vergaard aan de VU, zullen dat moeten doen.

Wolterstorff ging uitvoerig in op de volgens hem onhoudbare stelling van het liberalisme, dat het publieke debat over grondrechten van burgers gevoerd moet worden met principes die onafhankelijk zijn van welke filosofische of religieuze overtuiging dan ook. Grondwetgeving moet in die visie tot stand komen op basis van argumenten die iedereen kunnen overtuigen. Argumenten die bijvoorbeeld door een geloof zijn ingegeven mogen wel meedoen, maar ze blijven bijkomend. Uiteindelijk is het geloof iets van de privé sfeer.

Tegenover het recht van elke burger op zijn eigen overtuiging en levensdoel, zolang hij de ander maar geen schade doet – een notie waarmee rechters in Amerika veelal werken – stelde hij dat met schade in de praktijk alleen fysiek meetbare schade wordt bedoeld. Als voorbeeld vertelde hij dat een demonstratie van neonazi's door een buurt waar veel holocaust-slachtoffers woonden, aanvankelijk door de gemeente werd verboden, maar door de rechter met een beroep op de vrijheid van meningsuiting werd toegestaan. Er werd de mensen immers geen kwaad berokkend.

Wolterstorff verwierp deze stelling van het liberale denken met een beroep op Kuypers die stelde dat wij allereerst God moeten eren en onze ouders en verder onze naaste moeten liefhebben. En dat is veel meer dan de naaste geen kwaad doen. Bij Kuypers kleurde zijn religieuze overtuiging juist alles. Kuypers beleed de vrijheid van het

strict neutraal moet opstellen. In de plurale samenleving waarin we leven kom je met Kuypers – ont-daan van allerlei onbruikbare elementen – verder dan met het liberalisme, zei Wolterstorff. Kuypers was immers voor de krachtige ontwikkeling van de eigen kring en verdedigde evenzeer de zogeheten 'sovereiniteit' van de verschillende kringen.

Zijn bruikbaarheid in een plurale samenleving waar je religieus gesproken de kleinste mogelijke minderheid bent. Dat is ook wat prof. Hisakazu Inagaki en prof. Y. Ichikawa zo in Kuypers aantrekt. Beiden horen zij bij de *Reformed Church in Japan* die maar 9000 leden heeft. Op een totale bevolking van ruim 125 miljoen, waarvan 1 miljoen christenen. Hun kerk bestaat pas sinds 1946 en de stichter werd sterk door Kuypers beïnvloed; vandaar hun belangstelling voor de neocalvinistische leidsman. Waarschijnlijk koesteren de gereformeerde Japanners Kuypers eerder als een stevig voorbeeld om zich aan op te trekken dan vanwege zijn praktische toepasbaarheid in de dialoog met het Zen-boeddhis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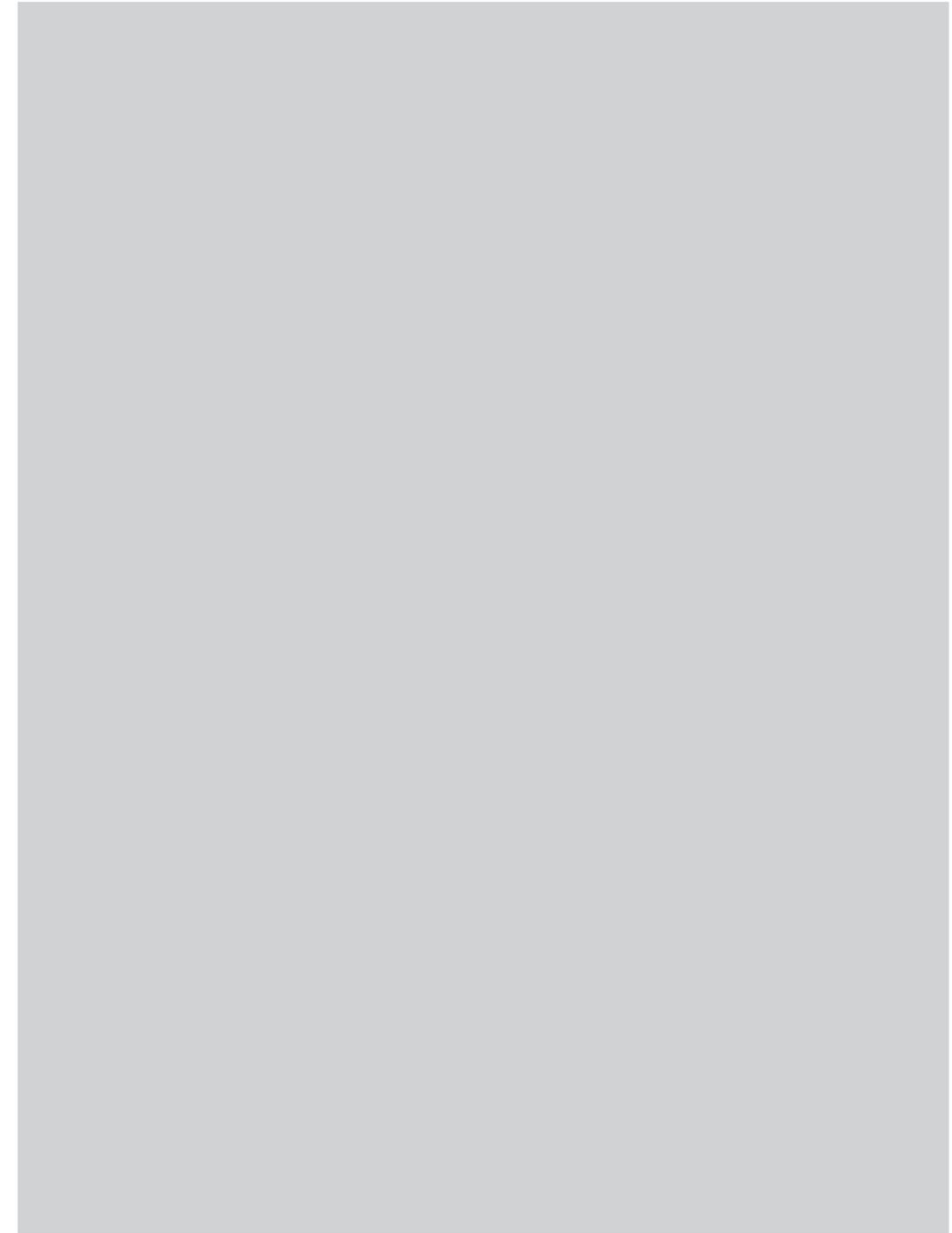
En van de deelnemers wilde na de speech van Wolterstorff liefst met een de mouwen opstropen. Al dat academische gepraat en geschrijf: „We moeten iets doen.” Dagvoorzitter dr. Kees van der Kooij: „Dat is pas echt Kuypertiaa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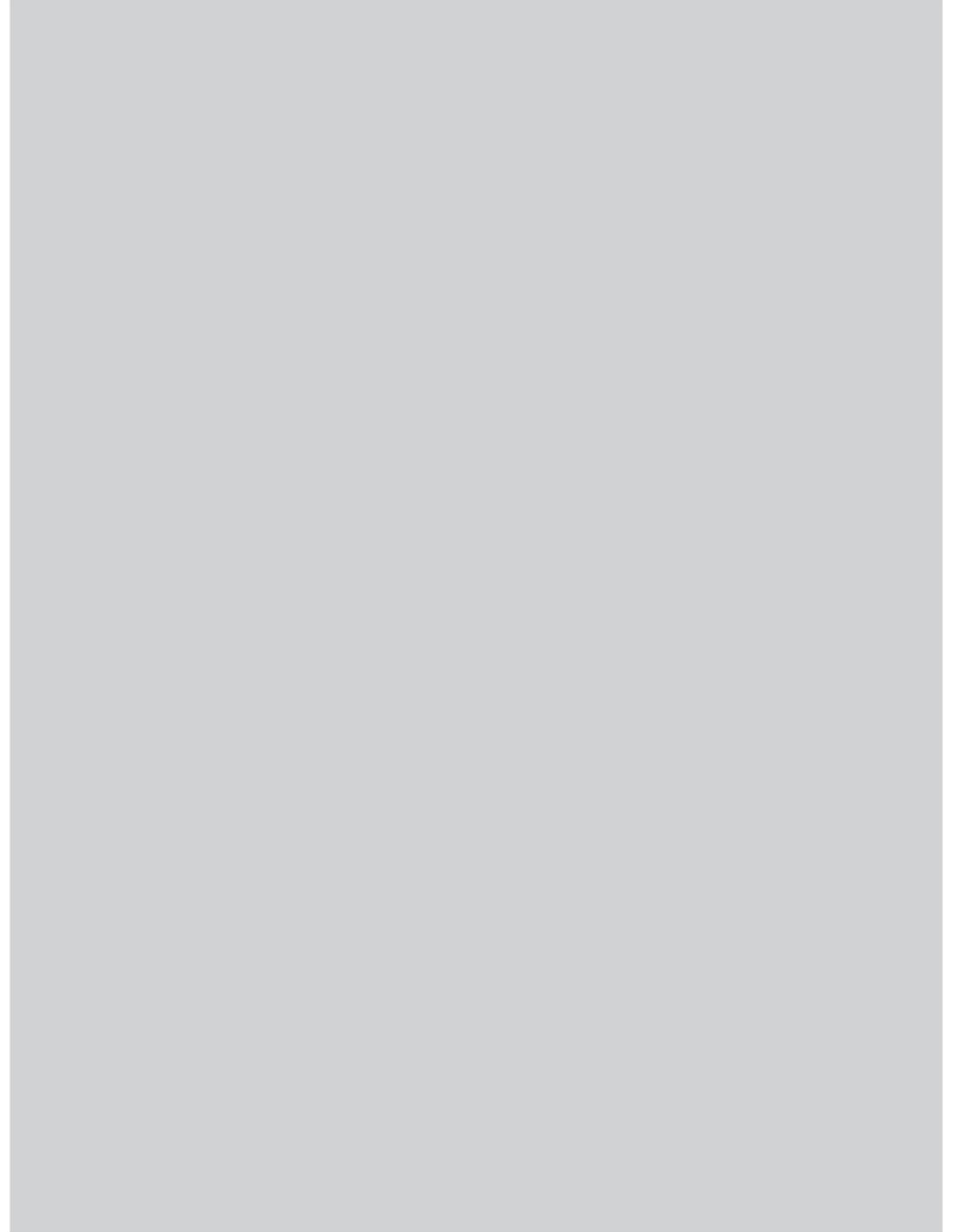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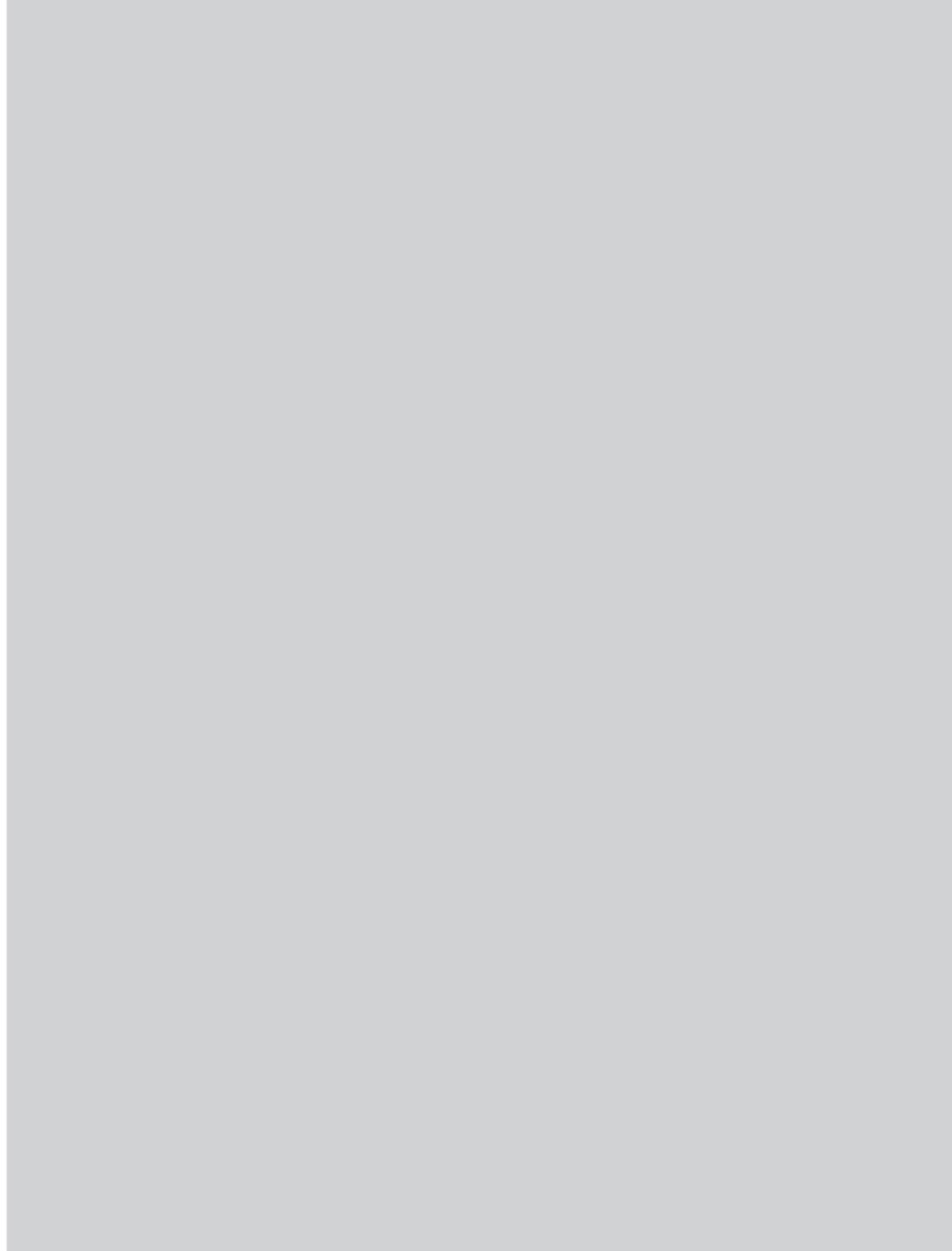


Kuypers: bruikbaar tot in Japan en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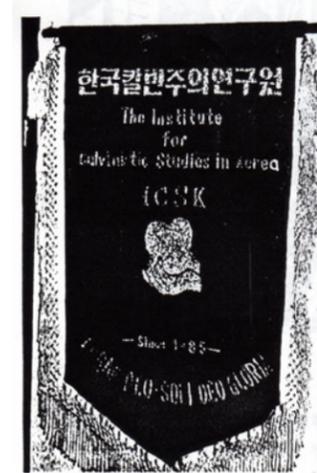
네덜란드에서 발행한 신문에 실린 정성구 원장관련 기사

1) 파워코리아(2013.4)





2) 크리스찬라이프(1993.9)



■ 기독교기관 탐방 / 한국칼빈주의연구원 ■

정성구 원장 강조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 중심 세계관을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칼빈주의적 세계관, 칼빈주의적 인생관을 확대 적용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우리 연구원이 모든 초석이 되어야겠다는 점 등이 우리 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주의는 칼빈 자신의 창작물이나 기타 개혁자들의 유산이 아닌, 철저히 성경에 기초한 성경적인 계시관이며 성경적인 세계관이고 성경적인 인생관이며 성경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칼빈주의 사상은 어거스틴을 비롯한 교부들의 사상에 철저했으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의 사상을 많이 인용했다.

오늘날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어느 곳에 서나 찾아볼 수 있는 장로교회는 말할 것도 없이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에 입각하여 세워진 교회임에 틀림없다. 사실상 한국교회의 양대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장감 교회 가운데 전세계를 통틀어 그 성장에 있어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장로교회의 급성장은 우리들로 하여금 칼빈주의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일한 칼빈연구기관인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을 찾아 원장 정성구박사를 만나 보았다.

“우리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은 1985년 7월 10일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동기는 1960년대부터 약 30년간 칼빈과 칼빈주의 자료를 개인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모았습니다. 그런데 꽤 방대한 분량을 모으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역사적인 유산이 아닌가 생각되어 혼자 가지고 있으면서 연구하는 것보다 이 모든 자료들을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정성구 원장

어 같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여 나의 개인 재산을 들여서 현재의 이 자리를 마련하고 모든 자료를 전 시해 놓고 있습니다.”

동 연구원의 설립 동기와 설립 목적을 묻는 질문에 정성구 원장은 숙연한 자세로 계속해서 대답한다.

“사실 한국교회의 성장 발전은 20세기에 들어서서 전세계의 모델 케이스가 되어 있고 가장 성경적인 교회, 기도 많이 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공중에서 불쑥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발전상은 2천년 기독교역사의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교회의 뿌리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종교개혁, 칼빈의 신학사상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는 사실상 말로만

그렇지 실제로 그 내용들을 깊이 연구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비롯, 개혁주의 사상가들의 사상을 좀더 뿌리깊게 연구하고 한국교회가 공부할 수 있도록 「센터」의 역할을 해야 하겠다는 점과, 두번째로 칼빈주의 사상은 신학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되,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 혹은 저널리즘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칼빈주의적 세계관, 칼빈주의적 인생관을 확대 적용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 우리 연구원이 모든 초석이 되어야겠다는 점 등이 우리 연구원을 설립하게 된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칼빈탄생 484주년과 겸하여 동 연구원 설립 8주년 기념 감사예배를 지난 7월 10일 드린 이 기관은 세계4대 칼빈연구기관 가운데 하나로 세계적인 기관과 겨루어도 그 내실면에 있어서 전혀 손색이 없는 칼빈 및 칼빈주의 연구소이다.

동 연구원의 사방 벽에는 정성구 원장이 지난 30여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 수집한 자료들이 질서정연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이 자료들 가운데는 16세기 칼빈의 오리지널 회귀본을 비롯하여 근래에 나온 자료를 포함 1천 종 이상의 서적, 4천여 종의 논문 그리고 전세계 칼빈주의 학자들의 육성강의 녹음테이프도 2천여점 소장되어



요한 칼빈

있으며 특히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의 초상화 그림 글씨 등이 수백점 전시되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세계적인 기구들과 연관을 가지면서 상호 자료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7년 10월19일~31일에는 종교개혁 470주년을 기념하여 「요한 칼빈(16세기) 자료전시회」를 한국기독교선교기념관에서 가졌습니다. 이 행사를 계기로 한국교회는 칼빈연구의 새로운 방향제시를 한 셈이며, 원본 자료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전시회는 3천명 이상의 관람객을 동원함으로써 한국교회와 일반 대중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칼빈전시회와 아울러 1988년 10월27일~28일에는 칼빈의 최대해석가이자 가장 위대한 칼빈주의 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박사 자료전시회」를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했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신학계뿐만 아니라 정치계와 문화계에 있어서도 칼빈주의 사상을 심는데 큰 역할을 했으며 이 전시회는 전세계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행사들을 통하여 한국교회와 한국칼빈연구기관의 바람이 이루어지고 그 위상이 점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들과 관련하여 근래에는 동 연구원에 대한 방문과 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연구원은 소위 말하는 교육연구기관이 아니고 그야말로 순수한 연구기관으로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여기서 자유롭게 자료를 열람하고 또 카세트를 들으며 연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칼빈에 관한 서적, 자료들이 6천종 이상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헝가리어, 라틴어 등으로 되어 있는 전세계의 모든 칼빈 관련 자료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16세기의 칼빈시대의 작품과 자료가 모두 모여 있으므로 칼빈의 원전을 보기 원하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바입니다.”

동 연구원은 네덜란드의 브리예대학



칼빈의 최대해석가이자 가장 위대한 칼빈주의 학자인 아브라함 카이퍼(A. Kuyper)박사

(Vrije Universiteit)의 부속기관인 「프로테스탄트 자료센터」와 남아연방의 「칼빈주의 연구원」 그리고 일본의 「칼빈주의 연구회」와 세계적 칼빈주의 연구기관인 미국 칼빈대학 부설 「헨리 미터 센터」(Henry Meeter Center)와 자매결연을 맺고 연구를 위한 상호 교류 관계를 갖고 자료를 교환하고 있다고 정성구원장은 말했다. 이러한 막중한 일을 해나가면서 가장 큰 보람이라면 동 연구원을 출입하는 사람들 가운데 신학분야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 인본주의적이지 아닌,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성경말씀 중심의 세계관 내지 인생관을 가지고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이를 적용해 나가려는 사람들이 점점증하고 있는 점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또한 관심을 갖고 있는 신학생, 일반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 그리고 특히 목회자 평신도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후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많은 회원의 돌싱양면의 성원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크리스찬 타임즈 '93. 9.)

◀ 1987년 10월에 있었던 요한 칼빈 16세기 자료전시회에서 설교하는 고 박윤선 박사



3) 기독교연합신문(2010. 7. 4)

기독교연합신문 제1069호 · 2010년 7월 4일(일)

“신앙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야 한다”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장 정성구 박사의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별 개의 머리와 백 개의 손을 가진 자”라는 칭송을 받으며 칼빈 이후 정통 기독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인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삶과 신학, 신앙을 자세이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 나왔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정성구 저, 김일복스)은 위대한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기독교 정치가, 교회 및 교육 개혁자, 사회 개혁자, 저술가 겸 천재적 저널리스트로 활동했던 카이퍼의 삶을 비롯해 그의 전방적인 신학사상을 집중 조명한다.

저자 정성구 박사는 그동안 총신대, 대신대, 칼빈대에서 43년간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을 강의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 25년 동안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장으로서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에 몰두해왔다.

때문에 이 책은 신학자, 목회자, 평신도, 대학생 등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담 없이 읽어 가며 카이퍼의 삶과 신학을 접하며 영적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한 저자의 노력이 엿보인다.

정성구 박사는 “인본주의와 유희주의 세계관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 곧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제시한 카이퍼의 삶과 사상을 통해 21세기 한국 교회의 새로운 진보를 찾을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특히 “주의 나라와 주의 영원 교회를 위해 한 생을 바친 카이퍼의 사상과 삶이 한국교회 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영적 도전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망하고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는 19세기 말 화란의 위대한 신학자이자, 기독교 정치가로서 ARP 정당의 총재와 하원위원과 총신 상원의원을 지냈다. 또한 인본주의적이고 무신론적 학문 운동의 국립대학에 대해 성경적이고 신본주의적인 칼빈주의 사상을 가진 ‘쿠리아 대외’를 설립하고 조직신학 교수 및 총장을 취임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언론인으로서는 일간지 스탠다드(Standard)와 주간지 헤라우트(Heraut)지의 발행인 겸 편집인으로 약 50년 간 필봉을 휘둘렀다. 평생 233권의 저서를 남기면서 웅장하고 카리스마적인 설교와 연설로써 교회와 세상, 정치사를 바꾸어 나간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카이퍼는 신학,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과학, 교육 등 손재지 않은 곳이 없었다. 카이퍼는 복음이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강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즉, 이 책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능동적인 교회생활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신앙의 삶이 구체적인 삶 속에서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카이퍼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야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이퍼는 칼빈의 신학과 신앙에 기초한 칼빈주의자였다. 때문에 저자는 책의 백 장마다 칼빈의 사상과 카이퍼의 사상을 비교해 논술하고 있다. 결국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카이퍼가 3세기 전의 칼빈의 신학과 신앙의 기반 위에 확고히 서 있는 학자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즉, 칼빈의 신학과 신앙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세분화하고, 적용하는 일에 전 생애를 건 카이퍼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책은 카이퍼가 제정함 칼빈주의 사상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으며, 칼빈의 신학적, 교리적 체계를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다가가게 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카이퍼의 생애를 다루고 있는 전방면에서는 달리 후반부에서는 그의 중심적인 사상에 대해 자세이 설명한다. 설교론, 교회론, 성령론, 구원론 등을 비롯해 영예주권과 일만은 총론, 특별은총론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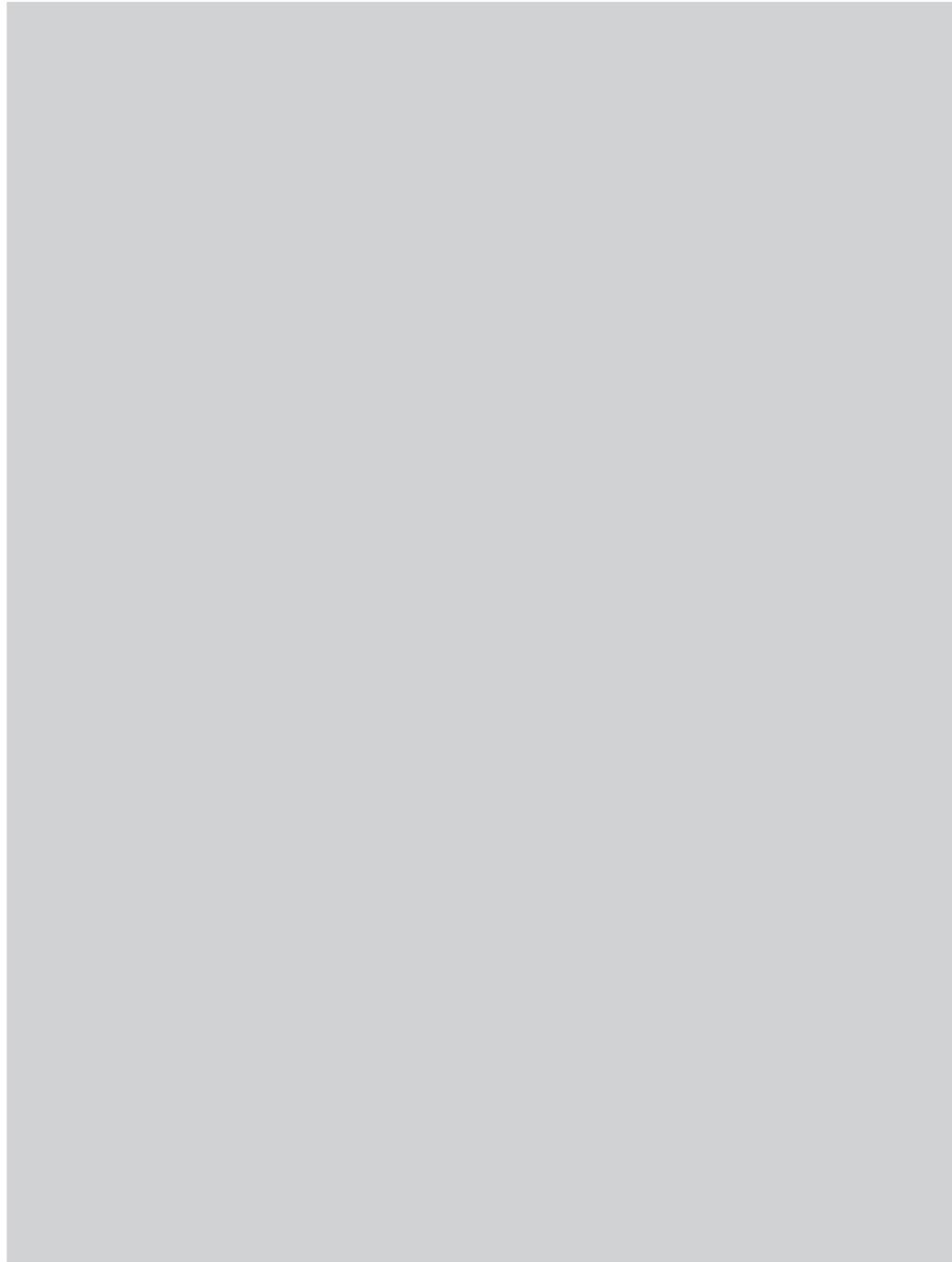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책은 카이퍼의 영예주권은 하나님이 인간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이 될 뿐만 아니라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의 주권으로 다스린다는 것으로 각 영역은 고유의 주권이 있고, 그 주권은 다른 주권을 침범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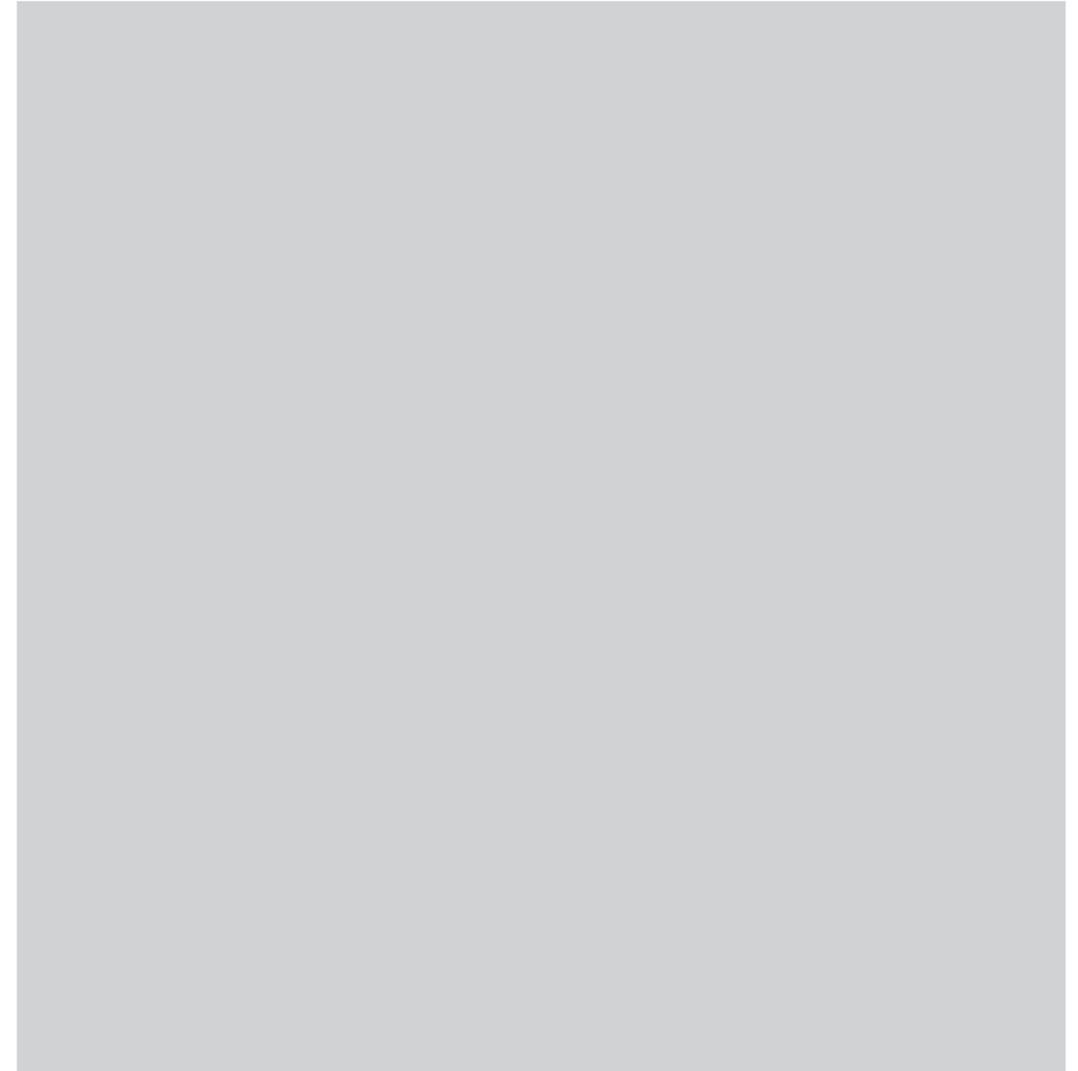
카이퍼는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위대한 칼빈주의 학자였다고 강조한 저자는 “오늘의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신앙이 내면화되고 자기 자신의 안락과 행복만을 추구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빠져 있다”며 “한국 교회는 이러한 것으로부터 벗어나 전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건설과 하나님의 왕권을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1세기 전 아브라함 카이퍼가 던진 영예주권 사상과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높이고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삶에 실천하고자 헌신했던 그를 본받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표성종 기자)

4) 동아닷컴(2009.2.6.)



2. 칼빈주의 학교(School of Calvinism)



1996년 7월 10일,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은 설립된 지 11년 만에 서울 강남구 서초3동 1488-3호의 30여평 남짓한 좁은 사무실에서 새로 지은 분당으로 이전했다. 분당 신도시 중에도 분당동 121-9번지였다. 지하층을 비롯해서 3층 양옥 150평의 건물이었다. 만족하지는 않았지만 서울 서초동에 비하면 대궐 같은 기분이었다. 힘들어서 이 건물을 지었고 힘들어서 이사를 했다. 지하 1층은 전시실로, 1층은 서고 및 세미나실로 3,4층은 연구생들을 위한 숙소로 사용하기

로 했다. 그러나 3층은 내가 사용하고 특히 VIP실, 게스트룸으로 만들고 4층은 해외에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온 유학생을 받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분당시대가 열리고 국제적인 유학생을 받기로 했다. 이미 그 당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은 국제 기독교 고등교육 연합회(IAPCHE)의 정회원이 되었다. 특히 연합회 회장이며 미국 돌트대학교(Dordt College)의 총장인 존 홀스트(John Hulst) 박사와 사무총장인 그 학교의 철학과 성경교수인 반텔 스텔트(John Van der Stelt) 박사 등이 연구원을 방문하고 우리 연구원이야말로 개혁주의 세계관 연구에 가장 적절하고 권위있는 기관으로 인정하고 정회원으로 받아들였다. 이 기관의 주요 회원교는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카브난트신학교, 칼빈신학교와 칼빈대학, 제네바대학, 돌트대학, 리딩어대학, 그리고 화란의 뿌라야 대학교, 캄펜신학대학 등 세계적 개혁주의적 대학과 신학교들이 가담해 있었다. 당시 한국에서는 고신대학과 우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ICSK)이 전부였다. 한국에서는 인스티튜트(Institute)라고 하면 학원이나 연구소 쯤으로 이해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학(College, University)으로 간주하고 있다. 즉, 비유컨대 대학을 백화점이라고 한다면 인스티튜트는 카메라 전문점이나 보석 전문점처럼 한 가지 연구에 전문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이처럼 국제 기구에 가담한 것은 그들이 연구원의 권위와 위상을 미국의 대학으로 인가한 것이다. 그래서 외국 학자에 한해서, 특히 대학에서 B.A. 학위 이상을 하고 M.Div.를 받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연구원에 와서 집중적으로 열 단계의 책을 독파하고, 책 한 권을 독파할 때마다 오랄테스트 즉, 구두 시험을 치고 마지막에 연구한 모든 자료를 200페이지 이상의 연구논문으로 제출하면 M.A. in Calvin Studies를 주기로 했다. 과목은 다음과 같았다.

- ① John Calvin, Institute for Christian Religion
- ② H.H.Meeter, The Basic Ideas of Calvinism
- ③ B.B.Warfield, Calvin and Calvinism
- ④ R.S.Wallace, Calvin's Doctrine of Christian Life
- ⑤ A.Kuyper, Lectures on Calvinism
- ⑥ H.Bavink, Our Reasonable Faith
- ⑦ J.T.Mcneil, The History and Character of Calvinism
- ⑧ H.Van Til, The Calvinistic Concept of Culture

- ⑨ L.Berkhof, Manual of Reformed Doctrine
- ⑩ S.K.Chung, Korean Church and Reformed Fa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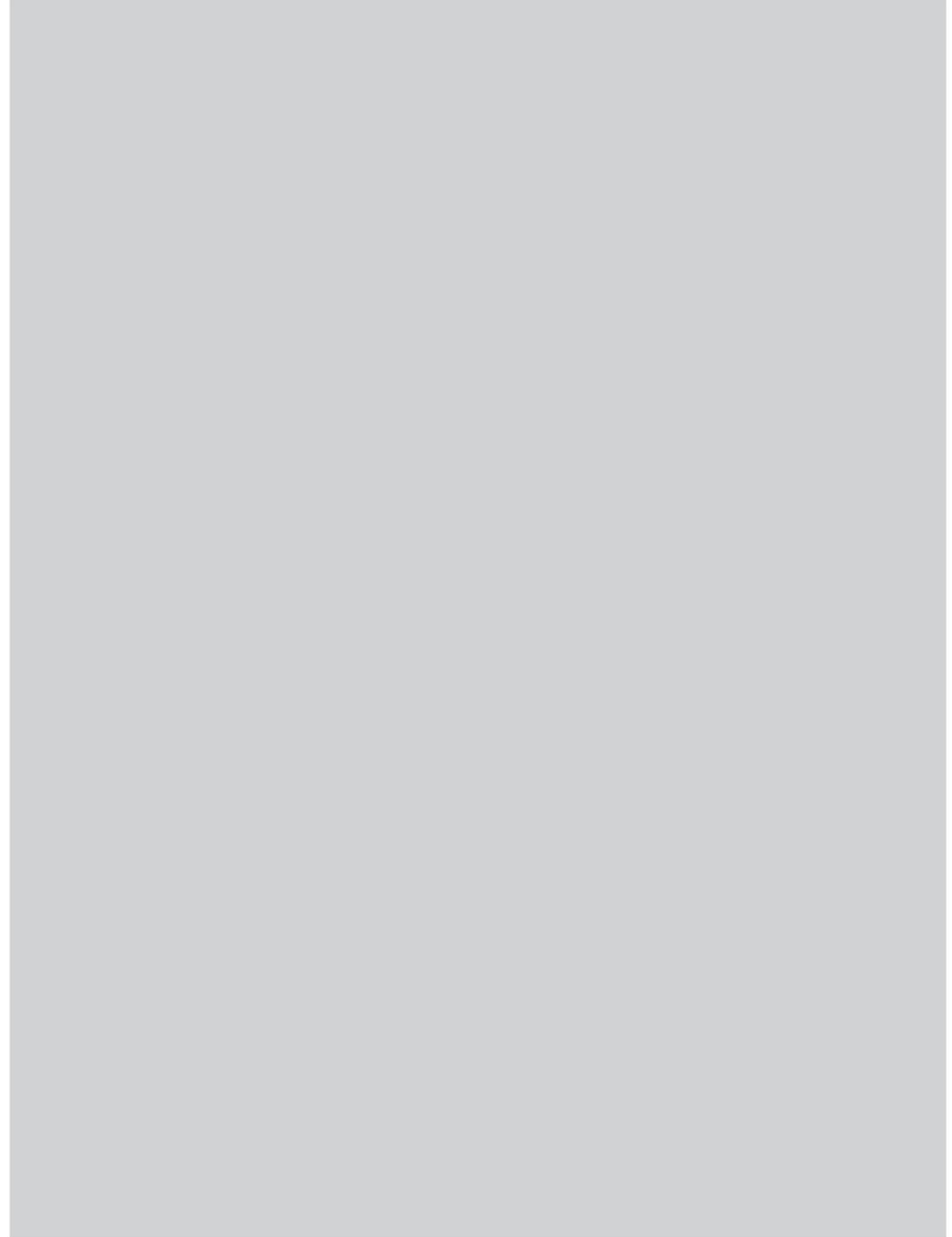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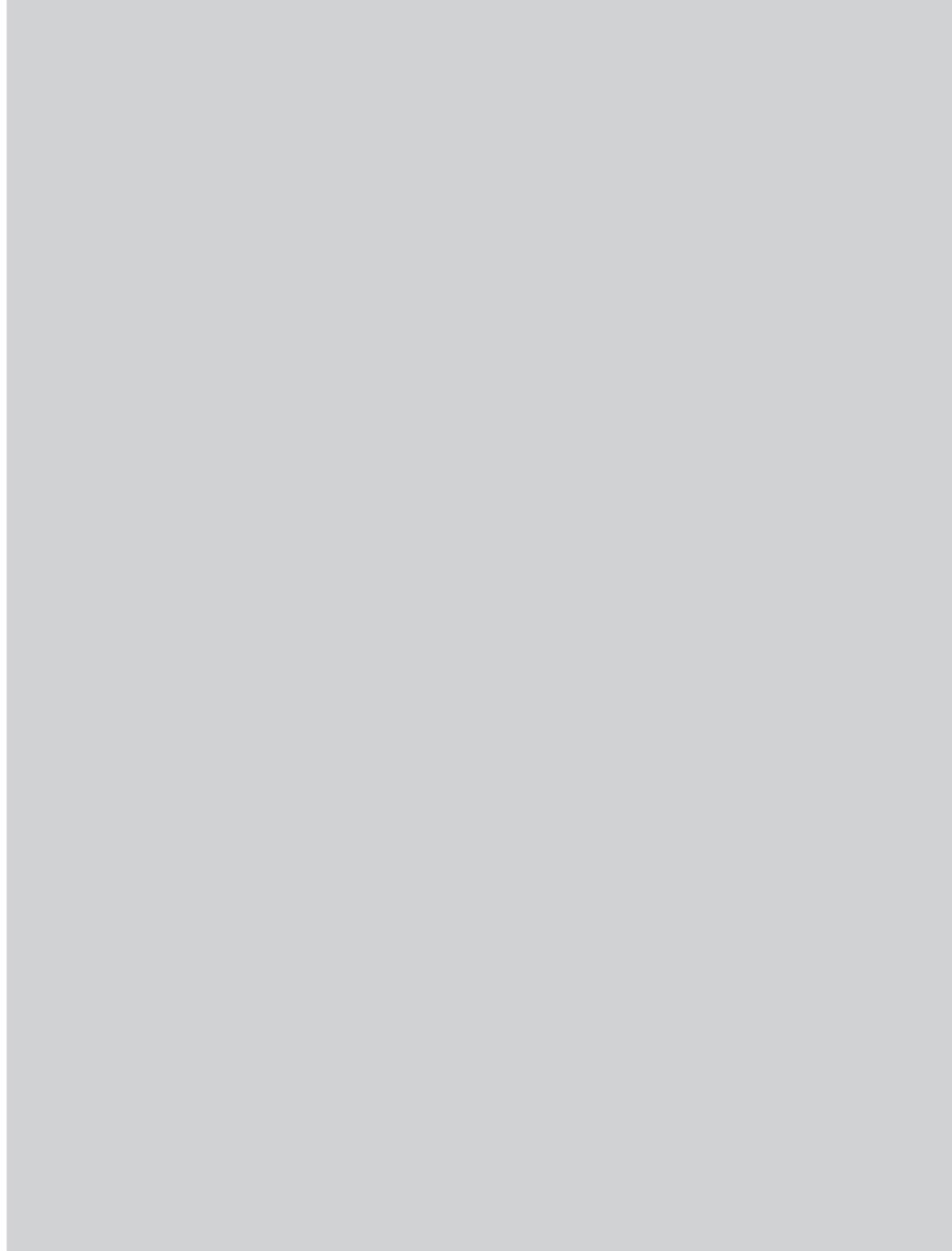
등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실력과 지식여부에 따라서 책의 내용은 다소 변동을 줄 수 있었다.

첫 번째 유학생은 미국에서 온 베리 모어헤드(Berry Morehead)씨였다. 그의 부인 폴라(Paula)와 함께 두 자녀들을 데리고 2년 기한으로 유학을 온 것이다. 베리는 본래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하고 버밍햄의 은행에서 일하던 뱅커였다. 그런데 브라이언드 교회 안수집사로서 평신도 선교사로 이미 1년을 봉사한 경험이 있고, 버밍햄 신학교에서 약간의 신학훈련을 했다. 김은수 선교사의 추천으로 연구원에 온 것이다. 사실 나는 그동안 영어를 쓰는 원어민이 필요했고 칼빈주의 연구원에서 연구도 하면서 국제관계를 돕는 간사가 필요했고 그를 위해 기도했다. 그 응답으로 베리 모어헤드와 그의 가족들이 온 것이다. 조건은 숙소는 연구원에서 제공하고 생활비는 영어교습을 통해서 번 돈으로 충당하는 조건이었다. 그래서 칼빈주의 연구원에서 바이블 스터디라는 명목으로 주부 영어교실이 개설되어 일주일제 두 세 번 베리가 강의를 했다. 베리는 미남에다 매너가 좋고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신사였다. 10여 명의 주부들은 너무 좋아하고 영어모임은 잘 진행되었다. 부인 폴라는 수원의 한 교회에서 주일마다 봉사하고 베리는 주일이면 총신대학교회에서 영어성경 공부반을 인도하고 성가대에도 참석하여 함께 찬양을 했다. 베리가 한국에 머무르는 2년 동안 다양한 활동을 했는데 연구원의 간사로 있는 이준욱 선생이 그들을 도왔다. 이 선생은 일찍이 웨일즈 복음주의 신학대학에서 유학을 해서 영어회화와 영작에도 능통했다. 나에게도 아주 좋은 비서였고 천품이 착하여 모범적이었다. 그는 베리 가정을 잘 보살펴 주었다. 이때는 칼빈주의 연구원의 체계가 잡혀가는 시기였다.

또한 베리는 연구원을 위해 영문계간지 「Calvinistic Viewpoint」라는 8페이지짜리 타블렛 판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장력도 대단했지만 컴퓨터 기술과 편집기술도 뛰어났다. 첫 번째 나온 잡지는 원장의 인사, 일본의 선교사로 있다가 카브난트에 교수로 간 넬스 제닝스(Nelson Jennings) 박사의 연구원 체류기, 베리 모어헤드가 칼빈연구원에서 연구한 체험기를 실었고, 국제뉴스로는 나와 칼빈신학교 더 용 학장과의 만남, 그리고 필리핀 지부의 김경천 목사 소식, 1996년에 내가 제네바 대학으로부터 문학박사(D.Litt.)를 받을 때의 특별강연 내용인 「교회와 세

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게재했다. 또 1997년 10월의 아시아 칼빈학회에서 내가 했던 설교를 실었고, 당시 나이제리아 출신의 아육 박사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의 서평이 실렸다. 서평은 나의 영문 책 「Korean Church and Reformed Faith」을 읽고 소감을 밝힌 것이었다. 그 외의 뉴스로는 아시아 칼빈학회 소식, 1998년 서울에서 있을 세계 칼빈학회 소식, 화관 뿌라야 대학의 카이퍼 연구가 더 브라인(De Bruijn) 박사 특강 소식 등이었다. 이 조그마한 잡지는 전 세계에 1000여부가 발송되어 개혁주의 학자들과 신학교에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알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 후 이 잡지는 4회에 걸쳐 발행되다가 베리가 떠난 후에 중단되고 말았다.

앞서 잠시 언급한 아육 박사(Dr. Ayuk Asauji Ayuk)는 필리핀에서 교육학 박사를 받고 우리 연구원에서 3개월간 집중교육과 훈련을 받고 지금은 필리핀의 기독교대학교의 교수로 있다. 그는 연구원에서 공부하는 동안 철저한 칼빈주의자가 되었고 나는 그에게 약간의 도움을 주기도 했다. 또 그 당시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의 조직신학교수였던 디온(Rev. Dion) 목사도 우수한 성적으로 공부를 했다. 그래서 1998년 12월에 앞서 베리 모어헤드, 디온, 그리고 고려신학교 조직신학교수인 김장진 목사가 함께 칼빈연구를 하고 M.A. 학위를 받았다. 그 이듬해인 1999년 12월에는 필리핀 장로회 신학교 교수인 로렌스 가타와(Laurence Gatawa), 케냐신학교 학장인 로날드 M. 무나이타이야(Ronald M. Munyiya), 그리고 후일 필리핀 장로회신학교 교장이 된 칼로스(Carlos) 목사 등이 모든 학과를 성실히 이수하고 졸업했다. 2000년 6월에는 가나 출신 영국 목사 임마누엘 소수 오포리(Emmanuel Sosu Ofori)가 졸업했다. 그 후에도 제3세계의 학자들이 1년에 한 두 명씩 와서 공부했다. 주로 장학금은 개 교회에서 지원했다.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은 비록 적은 수의 연구생이지만 그 나라의 지도급 학자들을 단시간에 훈련시켜 철저한 칼빈주의자로 만들어 보내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한 것이다. 마치 1559년에 칼빈이 제네바 아카데미를 만들어 유럽 각국의 개혁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을 불러 모아 교육시킨 후에 본국에 돌아가서 위대한 개혁자로 일하게 한 것과 같은 원리였다.



Calvinistic Viewpoint

October 1997 • Issue One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FROM THE PRESIDENT

Greetings from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ICSK). I am pleased to produce the first *Calvinistic Viewpoint*, a newsletter that we at ICSK hope to use to share the Calvinistic worldview and to spread the news of Calvinistic events to our readers throughout the world.

The Calvinistic Movement in the world is significant bu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in these times. Some people ask, "Why is Calvinism important?" The answer is very simple.

Modern society and even the church is being invaded by Secular Humanism and the New Age Movement. These movements seek to destroy the truth like a cancer eating away at its victim. Calvin sought to teach the true standard of our life, the Bible.

That is why Calvinism is important. We must get back to the Bible and to the reformation. We especially need to get back to the teaching of the reformers. We must adopt the one worldview that is based on truth. The only way we can do that is to have a Biblical perspective. The Bible is the standard of our whole life.

It is my hope that as you read the articles and events in this, the first *Calvinistic Viewpoint*, you will be influenced by its Biblical perspective and you will seek to spread this worldview also.



Dr. Sung-Kuh Chung

Contributed By:

Dr. Sung-Kuh Chung,
President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ICSK)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IMPRESSIONS
OF A VISITOR:**

It was my privilege to stay in one of the Institute's very comfortable visiting scholars' suites for five nights at the end of July, 1997. During my stay, Dr. Sung-Kuh Chung, the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ICSK), introduced me to the facilities and allowed me to use them freely. He also invited me to present a lecture in the second-floor library & seminar room.

The ICSK facility is--in a good sense--most impressive. The ground floor houses many valuable Reformed documents and artifacts. The library & seminar room can comfortably seat a sizeable group. Moreover, the books, journals, and micro-fiche available for use cover a wide-range of Reformed (and other) studies, and in a variety of languages. I was able to spend a little time going through some early twentieth-century American

(continued on page 2)

3. C-Story 운동을 통한 칼빈주의 실천

2010년 11월, 나는 어느 조그마한 신학교에서 칼빈주의 강의를 하고 있었다. 강의를 거의 마쳐 갈 즈음에서 나는 탄식과 후회스런 내 속마음 하나를 털어놓았다. 나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근 45년 동안 칼빈과 칼빈주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왔다. 그래서 일생동안 나는 학교에서 「칼빈주의」와「구속사적 강해설교」를 가르쳐 왔다. 뿐만 아니라 1985년에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칼빈 박물관]을 세워서, 칼빈신학 전파와 칼빈주의 사상을 확장 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고 했다.

우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과 칼빈 박물관에는 국내외에 수많은 학자들이 몰려왔다. 그리고 나는 <한국 칼빈학회>의 창립 멤버가 되어 20여 년 동안 임원으로 지냈다. 4년 동안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금은 명예회장으로 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칼빈 연구니 칼빈주의 연구가 너무 학문적인 것에만 치우쳤다. 칼빈주의가 구체적인 우리의 삶속에 역동적이고 살아있는 운동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사실, 약 20년 전에 나는 일본 칼빈협회에 초청으로 특강했다. 그런데 당시에 일본 칼빈주의 연구생들은 신학자는 말할 것도 없고 목회자들, 문학가들, 물리학자, 철학자, 의사, 법률 정치가, 예술가, 사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200여명이 참석했다.

일본의 고베(神戸)가까이 있는 [생가리수양관]에서 강의 할 때, 그 모습을 보았던 나는 왜 한국에서는 칼빈 또 칼빈주의 운동이 몇몇 신학자들의 현학적 연구에만 그쳤는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운동이 없는 것인가를 생각했다.

신앙 인구의 비례로 따진다면 일본이 200명의 칼빈주의 운동가들이 있다면, 우리는 2만 명 또는 20만 명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미 나는 그 좋은 날을 다 보내고, 이제 은퇴 했으니 때가 늦었다고 한탄했다.

그때, 어느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더니만 대뜸 하는 말이 “교수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했다. 나는 그분의 말에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했다. 그래서

몇몇 신앙의 동지들과 의논 하면서 4개월의 연구 끝에 2011년 4월30일에 C-STORY운동을 창설하게 되었다.

즉 칼빈주의 사상이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의 주장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그리고 그의 영역주권을 인정한다면, 교역자이던, 정치가이던, 법조인이던지, 예술가이던, 과학자이던, 교육자이던, 실업가이던 간에, 그가 있는 삶터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위해서 소명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 일에 같은 생각과 같은 소명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구체적으로 칼빈주의 사상을 펼치기 위한 일을 하고 싶었다.



황우여 의원 특별강연



정근모 박사 특별강연



정장식 박사 특별강연



선교사 파송 및 감사운동 발대식

제 II부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정성구 박사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설립자: 정성구 박사
Founder, Ther Rev. S.K. Chung, Drs. Th., PHD., D.D., D.Litt.

1 9 8 5 - 2 0 1 5

제1장
정성구 원장
약력 및 저서 목록

1. 약력

- 건국대학교 영문과 졸(B.A.)
- 총신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M.Div.)
- 총신대학교 대학원 졸(Th.M.)
- Vrije Universiteit(Drs.Theol.)
- Geneva 대학교(D.Litt.)
-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Ph.D.)
- Debrecen University(D.D.)
-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임대우 교수 역임
- 총신대학교 학(총)장 역임
- 총신대학교 교목실장/처장 역임,
- 총신대학교 대학원장/신학대학원장 역임
- 총신대학교 총장직무대행 역임
- 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 전 대신대학교 총장
- 전 칼빈대학교 석좌교수
- 미주대회 신학대학장 역임
- 문교부 정책자문위원 역임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역임
- 한국 칼빈학회 회장 2회 역임
-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장
- 건국대학교 목회자 동문회 회장
- 한국 애서가 클럽 회장 역임
- 중부 산업대학교 이사 역임
- 국제 칼빈학회 회원
- AFC 이사 및 대륙선교회 총재
- 기독교신문, 기독교보 논설위원
- 미국 Calvin Theological Seminary Research Fellow
- 일본 고베신학교 방문교수

2. 저서 목록

- 韓國教會 說教史
- 改革主義 說教學
- 實踐神學概論
- 아침이 오리라
- 하나님께 더 가까이
- 總神과 朴亨龍
- 칼빈주의 사상과 삶
- 칼빈의 생애와 사상(편저)
- 칼빈주의 역사적 소고
- 칼빈주의 思想大系
- 칼빈의 신학사전
- 개혁주의 인명사전
- 朴允善 博士의 神學과 說教
- 사막에 물이 솟는다(개혁주의 설교집1)
- 하나님은 할 수 있다(개혁주의 설교집2)
- 기도는 전쟁이다(개혁주의 설교집3)
- 믿음으로 산다(개혁주의 설교집4)
- 영원한 생수가 흐른다(개혁주의 설교집5)
- 이제야 알겠다(개혁주의 설교집6)
- 날마다 죽는다(개혁주의 설교집7)
- 천국이 오고 있다(개혁주의 설교집8)
- 종교냐 기독교냐(개혁주의 설교집9)
- 어부를 낚으신 예수님(개혁주의 설교집10)
- 새롭게 하소서(부흥설교집)
- 아랫물 맑기는 누가 하나
- Korean Church and Reformed Faith
- 韓國教會
- 忠心官家(중화민국판)
- 忠心官家(중화인민공화국판)
- Segredo do Crescimento da Igreja Coreana(포르투갈어판)
- Pastorii Bisericii Protestante Coreana(루마니아어판)
- 칼빈주의 도서목록(편)
- 기독교와 문화(공저)
- 코람데오
- 현장의 목회학(편)
- 명신홍 박사 전기 「신학교육과 목회」(편)
- 21세기 개혁교회는 살아남을 것인가?

1 9 8 5 - 2 0 1 5

제2장



정성구 원장의 사상적 스승들

1. 정암 박윤선(正岩 朴允善, 1905-1988)



1961년 내가 총신대에 입학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교회 서복조 집사님이 내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했다. 그분은 말하기를 “정 선생! 앞으로 서울에 올라가면 반드시 박윤선 목사님을 만나세요. 박윤선 목사님의 신앙의 지도를 받으면 정 선생의 생애는 놀랍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무슨 말인지는 몰라도 나는 서울로 올라가자마자 박윤선 목사님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내가 출석하고 있었던 포항 대흥교회는 고신 측 교회로서 내가 주일학교 2학년 때부터 다니던 교회였다. 나는 이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고 학생회 회장과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자라난 내 모 교회였다. 나는 고려파 교회 특유의 보수적이고 칼빈주의적인 세계관의 분위기에 젖어 있었을 뿐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로 헌신되었고, 교회에서는 나를 그냥 작은 목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래서인가 학생시절부터 한상동, 한명동, 한부선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많았고,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도 익히 듣던 이름이었다. 물론 내가 총신에 오게 된 것은 1961년에 고신 측과 합동측이 합동이 되었기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1962년 2월말 총신에 입학하는 첫 주간 나는 서복조 집사님이 일러준 대로 서대문 월남 대사관 옆에 있는 가건물인 동산교회를 찾았다. 박윤선 목사님이 고려신학교 교장으로서 한부선 목사님의 귀국 환송예배를 주일날 가서 인도했다는 죄명으로 치리되고 모든 공직에서 물러났다.

박 목사님은 정치적 희생양이 되어 고통을 받으면서 부산 금정산에 올라가 기도 중에 있었다. 때마침 새문안 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을 반대해서 순수한 복음적 신앙을 지키려는 고웅진, 김지호, 김익보 장로 등이 중심이 되어 따로 나와 교회를 세우고자 했다. 그때 고웅진 장로부인 이능전 권사(당시는 집사)가 금정산에 기도하고 있는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동산교회가 개척되었다.

내가 동산교회를 갔을 때는 개척 후에 그리 오래지 않아있지만 교회가 점차 부흥하고 있었다. 부속 건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150여명 정도의 수용공간과 아주 조그마한 사무실이 전부였다. 당시의 박윤선 목사님은 50대 중반이 못되었다. 그 당시 목사님은 성경주석 쓰시는 일과 주일 낮, 주일 밤, 수요일 저녁 세 번 설교하는 것 외에는 교회의 모든 행정은 고웅보 목사님이 책임을 지고 목회를 했다.

나는 얼마 후 동산교회 교육전도사가 되어 유초등부 전도사와 중고등부 전도사를 겸하였다. 나는 중고등부 전도사이면서 한반을 맡아 주일공과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 반에는 박윤선 목사님의 아들 다니엘이 있었는데, 중학교 1학년으로 보통 개구쟁이가 아니었다. 다니엘은 똑똑하고 영리했으나 산만했다. 박 목사님은 아들 다니엘의 팔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꼼짝 못하게 하고 성경을 배우도록 했다. 박 목사님은 눈을 지그시 감고 기도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다. 나는 그해 겨울 중고등부 학생을 데리고 부산의 부전교회 S.F.C 전국대회에 참석했다. 그때 다니엘이 갑자기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당황해서 교회당 주변을 샅샅이 뒤져보니 만화가게에 가 있었다. 그래서 성경 공부시간에 대려다 놓았던지, 다니엘은 깜짝 놀랄 질문을 했다. 다니엘은 아버지 박윤선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는지라 그 담당자 앞에서 말하기를 구약성경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져갔는가라고 했다. 중학교 일학년 학생의 입에서 갑자기 난해한 질문이 나오자 그 선생은 찢찢매고 있었다.

어쨌든 박윤선 목사님은 나의 은사요 나의 목사님이었지만 또한 나는 박윤선 목사님의 아들 다니엘의 선생이기도 했다. 한번은 박윤선 목사님은 나를 부르더니 “정조사!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이 찬송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장년 찬송가를 많이 가르치라우, 그래야 장성한 후에 신앙을 잘 유지하며 낙심했을 때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라고 했다. 나는 지금도 그 말씀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

내가 박윤선 목사님을 모시고 있을 때, 예배 시작 전에 손목시계를 풀어서 꼭 내게 시간을 맞

추어 달라고 하셨다. 박 목사님은 그때 50대였지만, 오직 성경주석 쓰시는 일에 정신을 집중하셨기에 다른 세상의 일상적인 일은 잘 처리할 수 없으셨다. 우산도 가지고 와서는 어디에 두신지도 모르고, 모자도 어느 것이 앞인지 뒤인지 구별을 안 하시고 그냥 머리에 얹는 수준이었다. 누가 옆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물건을 어디두신지도 모르는 건망증이 많은 어른이었다. 목사님의 택이 북아현동 이었을 때, 교통이라고는 미군 지프 자동차 엔진에다 드럼통을 두들겨 만든 승합차가 있었는데 그때 용산에 있는 작은 건물의 총신까지 왕래 하셨다. 그러나 박 목사님은 차중에서도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성경 주석을 구상하시다가 이사야 주석 원고가 든 가방을 통째로 두고 내리신 것이다. 참으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쓰신 원고인데 가방채로 다 잃어버렸으니 참으로 당황했다.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셨는데 마침 그 가방 안에 그 성경 찬송이 있었고 그 성경 찬송 안에 박 목사님에게 보내온 편지 봉투가 있었다. 그래서 그 버스 회사에서 원고를 우편으로 보내주어서 참으로 잃은 양을 다시 찾은 듯이 기뻐하셨다.

박 목사님과 건망증과 얽힌 이야기는 여럿 있다. 한번은 예배 후에 박 목사님은 나를 불렀다. “정조사! 대구 제일교회 목사 이름을 아는가?”라고 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예 이상근 목사님이 아니십니까?”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다. 알고 봤더니 박 목사님의 사돈 이상근 목사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사돈 이상근 목사님과 대구 제일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똑 같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그래서 물어본 것이었다고 한다. 박 목사님은 자기와 함께 평생 같이 일한 교려신학교 교수요 사돈인 이상근 목사님의 이름까지 잊어버리신 분이다.

나는 박윤선 목사님의 사랑을 받아 자주 겸상을 할 기회가 있었다. 박 목사님은 식사 중에도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 주석을 계속 구상하고 있었다. 앞에 사람이 있는지 옆에서 사람이 밥을 먹는지 개의치 않고 혼자 중얼거리며 기도하고 묵상한다. 그러니 밥만 계속 드시든지 아니면 김치만 계속 드시든지 했다. 식사 때도 사모님의 지시와 지적이 없으면 제대로 된 식사가 안 되었다. 박 목사님은 내가 동산 교회 전도사였지만 동시에 목사님의 심부름을 전담하는 일꾼처럼 여기셨다. 박 목사님이 시키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는 순종했다. 강의할 때 강의를 필기해서 정리해 주면 그것이 주석 보완작업에 넣기도 하고, 특히 나는 화란어 교정을 맡아서 일하기도 했다. 그래서 나의 결혼식에 박 목사님이 주례를 서시고, 박 목사님이 사주신 구두를 신고 예식장에 들어갔다.

나는 박 목사님의 추천으로 화란 뿌라야 대학의 유학을 떠났다. 대문 밖까지 나와 눈물을 머금

고 “정 목사 절대 비굴하지 말아라, 가난하면 비굴하기 쉽다”고 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친구 블라우(Blauw)박사에게 찾아가보라”고 했다. 그러면서 블라우 박사에게 추천의 편지를 써주었다. 그 후 내가 화란 유학을 떠난 후 박 목사님도 주석을 위해서 미국 LA에 머물고 계셨다. 박 목사님은 내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어 화란어 주석 참고서를 찾아서 보내라고 했다. 나는 열일을 제쳐놓고도 목사님의 말씀은 순종했다. 박 목사님이 그때 내게 보낸 편지만 해도 40통이 넘는다. 이 40여 통의 편지는 지금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칼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 내가 공부할 거의 마쳐질 즈음에 박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주셨다. “정 목사님! 지금은 학문을 해도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합니다. 어서 공부하고 와서 내가 하던 과목을 맡아 주십시오.”라고 했다. 나는 박 목사님의 과목의 바통을 받지 못했지만 21세 때부터 박윤선 목사님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을 본받아 왔기에 그의 칼빈주의 사상은 그대로 받았다.

박 목사님과 나는 참으로 애석하게도 내가 총신의 학장이 되고 박 목사님이 대학원이던 때 학교가 나누어져서 합동신학교로 떠났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나누어지지 않았다. 나는 박 목사님이 임종하던 그 전해까지 결혼기념일 때는 꼭 우리 집에 모셔다가 식사를 대접하곤 했다. 세상 뜨기 전해인 11월25일 우리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고 축복을 받았다. 나는 목사님께 지 필 목을 준비하고 “제게 남길 말씀이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무엇을 예견했는지 목사님이 살아 생전에 그의 마지막 글을 받고 싶었다. 그때 목사님은 〈祈禱—貫기도일관〉이란 문구를 써 주셨다. 박 목사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 그는 밤이 세도록 기도하시고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셨다. 박 목사님은 내게 일생동안 기도로 일관하라고 하시면서, 기도하면 나보다 큰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박 목사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기도일관의 삶을 살지 못한 것을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박 목사님이 병 들어서 임종이 곧 가까워오는 시간에 박 목사님은 내 손을 힘 있게 잡고 기도해 주셨다. “하나님이여 우리 정 목사를 힘 있게 붙드시고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 더 큰일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장부되고 하시고 바른 신학 바른 신앙을 지키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자자손손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주었다.

나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1960년대 초 박 목사님의 그 힘 있고 능력 있는 이사야, 예레미야, 요한복음 등을 강해하실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마치 세례요한, 이사야, 예레미야가 다시 나타난 듯 한 착각을 일으켰다. 위대한 칼빈주의 신학자요 신앙가요 설교가이고 주석가이

신 박 목사님을 30년을 가장 가까이 모시게 된 것은 크나큰 축복이었다. 내가 지난 40년간 교수 생활을 하고 칼빈주의 운동을 한 것도 따지고 보면 박 목사님의 후광 때문이었다. 한국교회에 있어서 신학을 논하려 한다면, 칼빈주의 사상을 말하려고 할 때 박윤선 박사를 제외하고 언급할 수 없다. 더구나 그의 진실한 하나님 중심의 삶과 뜨거운 진리에의 열정 그리고 그의 겸손과 깊은 감화력은 그 누구도 흉내조차 낼 수 없다.

박 목사님의 일생은 한국교회의 축소판이며 한국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의 축소판이며 신학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노진현 목사님의 말처럼, 칼빈을 주석의 왕이라고 표현한다면 박윤선 목사는 칼빈 이후 한국의 낡은 성경주석의 왕이요 세계에서 신구약 66권의 주석을 완벽하게 주석한 유일한 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주석은 기도로 쓰였고, 그의 설교도 말씀과 기도가 어우러진 대 코러스였다. 박윤선 목사님의 장례식 날 필자가 쓴 시 한수를 여기 싣는다.

고 박윤선 박사님을 愛慕함

철산에 솟은 태양 오산에서 빛나더니
신성한 승실전문 기도제단 불사르고
술막골 평양신학 한권의 사람 되더니만
진리따라 반세기 한국의 일곱별 되고
그 별 홀로 지시니 어두움이어! 적막이어!

오가황, 경화동, 동산, 한성
어지신 목자되어 양떼를 품으시고
땀방울이 피되어 가삼에 적시웁고
눈물이 비되어 마른땅에 샘이어라

무릎으로 쓰신 주석 울부짖어 폐매시고
코람테오 코람테오 아버지께 영광찬송
말씀만 붙드시니 속사람은 천국이나

저러히도 홀로 걷는 사람이었어라

선지학교 선지생 반세기의 열정 강의
바른바위 속에서 샘물이 터지고
오직말씀 오직 믿음 가슴마다 불지르고
바른진리 칼빈주의 정통신앙 진리운동
한세기의 한국교회 반석 위에 세우시디.

경건이 날줄되고 학문이 씨줄되니
사랑으로 노래하고 겸손으로 덕을 쌓아
가슴에서 가슴으로 뜨겁게 달구어도
순진한 아해마냥 해맑은 미소이고
저토록 선한목자 어디서 찾아볼고

이기고 이기고 또이긴 사람이여
두고가신 말씀들은 옥비에 새겨두고
가라치신 교훈들은 옥도에 뿌려두어
삼십육십 백배하며 꽃피우고 열매맺어
하나님께 영광찬송 뜨겁게 드리오리

1988년 7월 2일

사랑하는 박 목사님을 보내면서

2. 죽산 박형룡(竹山朴亨龍, 1897-1978)

나는 박형룡 박사 아래서 7년을 공부했다. 즉 학부와 신학대학원과 대학원까지 장장 7년 동안 나는 그의 학문과 신앙과 덕을 배웠다. 박형룡 박사는 위대한 보수주의 학자이면서 대칼빈주의 학자였다. 나는 20대 초반에 박형룡 박사의 문하생이 되어 그의 임종과 장례식까지 그 어른을 지켜보았다. 박형룡 박사는 박윤선 박사의 뜨거운 열정과는 대조적으로 참으로 조용한 성자형이며 그의 삶 자체가 경건의 모델이었다. 설교나 강의에는 높낮이가 거의 없으며, 잘 준비된 원고를 그냥 읽어 가는 수준이었다. 특별히 강조될 부분이 있으면, 몸을 약간 앞



으로 꾸부리는 수준이었고, 설교의 클라이맥스에는 양팔을 수평으로 올리는 정도가 고작이었다. 그러다가 영적으로 뜨거움이 있을 때는 잠시 감정을 억제하면서 침묵을 하곤 했다. 박형룡 박사가 침묵할 때는 성령의 충만으로 가슴이 뜨거울 때였다. 박형룡 박사는 일생동안 아무리 작은 집회의 설교나 강의에도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쓰는 양면 패지에 정갈하고 아름다운 명필로 완전 원고를 만들어서 설교했다. 참으로 학자다운 기품이 넘쳤다. 그런데 그러한 글들이 모여져서 논문이 되고 설교가 되고 책이 되어 나왔다. 그리고 후일 그 원고에 더 부삽할 것이 있든지 참고서적을 읽는 중에 새로운 것이 발견되면 보완할 내용을 정갈하게 써서 마치 아카디온을 연상 하듯이 계속 중보해 나갔다.

나는 키도 작은 탓도 있지만 신학교에 다닐 때는 꼭 앞자리에 앉아서 교수들의 강의를 경청했다. 곧잘 질문도 하곤 했다. 한번은 나는 박형룡 박사의 강의를 마칠 때쯤 되어서 질문을 던졌다. 박형룡 박사는 학생들의 질문을 거의 받지 않는다. 질문하면, “다음 단으로 넘어 갑니다”라든지 “차차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정도로 넘어갔다. 그런데 내 질문의 내용은 “그런 논리를 밝혀주는 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라는 것이었는데, 다음 단으로 넘어가자고 할 수도 없고, 차차 배우

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할 수도 없었다. 그럭저럭 시간이 지나고 나도 잊어버렸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후에 나는 노량진에 있던 박형룡 박사님 댁을 방문하게 되었다. 그런데 박 박사님은 그의 서재에 나를 안내하고는 흰 봉투를 하나 주셨다. 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박사님!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더니 3개월 전에 정 진도사가 질문했던 학자들의 이름과 저서들을 발견했다면 서 정갈하게 써 주셨다. 나는 지금도 박형룡 박사의 신학자로서의 기풍과 섬세함을 잊을 수가 없다. 수업시간에 한 학생의 질문에 그렇게 성실히 자료를 찾아 주신 것이다. 나도 세월이 흘러 40년 이상 교수 노릇을 했지만 아직도 은사의 학문과 인격과 덕에 미치지 못함을 늘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

박형룡 박사는 채플 시간에도 나에게 대표기도를 가끔 시켰다. 아마도 박 박사님의 늘 기억에 남아있는 학생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대학원(Th. M)시절에는 내 논문의 부심으로 알뜰한 지도를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1968년 나는 나의 일생의 중요한 일이 세 가지 있었다. 즉 목사안수 받는 것과, 결혼 하는 것, 그리고 석사학위논문을 쓰고 석사학위(Th. M)를 받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는 성격이 좀 특별해서, 다른 사람이 아는 것처럼 얌전하듯 보이지만 굉장히 저돌적이고 한번 마음먹으면 기어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전부를 거는 승부근성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나는 보통 세 가지 네 가지를 한꺼번에 해치운다. 어떤 이들은 한 가지도 힘든 데 어떻게 한꺼번에 둘 셋을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하느냐라는 사람도 있다. 사실 일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 안수 받는 것이요, 현실적으로 발 앞에 떨어진 것은 신학석사 학위를 받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인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를 한 주일 단위로 다 처리했다. 일 주일에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결혼하고 목사 되고 학위 받고 한 것이 참으로 숨 가쁜 것이었다. 그때 박형룡 박사는 내게 말하기를 “열매가 주렁 주렁하되다. 축하하되다” 했다. 나는 그 말씀을 지금까지 잊지 않고 있다. 실은 내가 총신대학에 강사로 시작하게 된 것은 당시 대학원장으로 계시던 박형룡 박사의 도움이 컸다. 1967년 2월내가 「화란어 문법의 연구」란 책을 내고 박 박사님께 드렸더니 “이제는 가르치시오”라고 했다. 그 후에 나는 헬라어와 화란어를 가르치는 강사로 시작해서 오늘에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나는 박 박사님의 사랑을 잊지 못해서, 박 박사님의 댁이 다시 봉천동으로 이사 왔을 때 자주 찾아뵈었다. 그때는 이미 연로해서 모든 것을 다 그만 두고 고요히 쉬시는 때였다. 그러나 나는 한번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므로 자주 집으로 찾아뵈었다. 1978년 10월25일 박 박사님은 고요히

주무시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빈소에 도착해서 여러 일을 돕고 있는데 상주인 박아론 박사는 지방에 강의 갔다가 오후에야 도착했다. 나는 장례의원으로서 장례식, 하관식 까지 참여했다.

그로부터 3년 후인 1981년에 박형룡 박사의 전집 20권이 출판되었다. 당시에는 정문호 목사님과 임승원 목사님의 숨은 공이 컸었다. 박 박사님의 전집 광고에 추천사로는 그 당시에 총신의 학장인 나와, 고신대학 학장인 오병세 박사, 감리교 신학대학 윤성범 박사, 장신대학 이종성 박사, 전 서울신대학장 조종남 박사가 추천했다. 그때 나는 추천자로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한국교회의 교부이시고 정통신학의 기수이신 박형룡 박사의 저작 전집 20권이 완간된 것은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박 박사는 신학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신학으로 세상을 마치고서 어른이다. 나는 학문은 그 사람의 인격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박 박사께서 그야말로 신학과 신앙, 학문과 경건의 조화를 이루었던 어른이시다. 나는 박 박사의 문하에서 7년간 공부하는 중에 그의 학문과 인격에 많은 감화를 받았다. 그는 진실한 신학자이며 늘 잔잔한 미소를 잃지 않는 선한 목자이며, 위대한 감화력을 가진 설교자이며,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고결한 인격의 사람이었다. 그의 신학은 언제나 역사적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위에 굳게 서 있었다. 그의 신학 방법은 언제나 무오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역사적으로는 어거스틴, 칼빈, 카이퍼, 바빙크, 핫지, 윌펠드 등의 개혁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평소 박 박사님의 말씀과 같이 그는 역사적 정통 보수 신학을 한국교회 소개하고 지켜 나아가는 것을 그의 필생의 사업으로 생각하셨다. 1935년 박 박사의 걸작인 「신학난제선평」이 출판 되었을 때 마포삼열 박사는 말하기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신학교 교수 박형룡 박사는 본서로서 교회일반과 특별히 목사 선생 재위에게 위대한 봉사를 하시는 것이다’라고 했다고 평했다. 이제 50년이 지난 오늘 박 박사님의 저작전집이 한국교회와 후학들에게 위대한 봉사가 되기를 소원하는 바이다.

1981년 총신대 학장 정성구 박사”

라고 썼다. 나는 위의 추천서에서 박 박사님께 대한 거의 모든 것을 핵심적으로 지적한 듯하다. 나는 박 박사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사모님을 찾아뵈었다. 나는 그것이 제자

의 도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인가 사모님이 세상 뜨시고 얼마 후 박형룡 박사의 아들 모세씨가 세상을 떠나자 내가 장례식을 인도했다.

나는 박형룡 박사에 대한 바른 평가를 하기 위해서 1987년부터 그에 관한 자료를 모으고 작은 책이라도 내고 싶었다. 그래서 쓴 것이 1989년에 총신대 출판부에서 나온 「총신의 맥과 뿌리-총신과 박형룡」이란 170페이지의 책을 내었다. 그 과정에서 나는 박 박사님께 대한 여러 자료를 찾는 중에 1988년으로 생각되는데, 김정걸 집사에게 물기를 “혹시 박형룡 박사에 대한 무슨 자료가 없을까요”했다. 그때 김정걸 집사는 박형룡 박사님의 남은 책들과 유품은 모두 박아론 박사께서 가져갔고, 이것은 쓰레기로 버린 것인데 혹시 이런 것도 도움이 될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사과박스 한 상자 분량이다. 그리고 그것은 한갓 쓰레기처럼 보였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것은 박 박사님께서 만주 봉천(지금의 심양)신학교 교수 시절(1940년께)에 작성하고 장신과 총신에서 가르치시던 육필로 된 조직신학 교안이었다. 나는 박형룡 박사의 육필원고가 하마터면 쓰레기 소각장으로 갈 뻔했지만 나는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게 된 것이다. 박 박사의 손때 묻은 개혁신학의 원형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그에게서 7년을 배웠기에 그 눈이 띄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잊지 못할 것은 내가 세계 장로교회 선교사 신내리 목사님 집에 출입할 때였다. 그는 1960년대부터 박형룡 박사의 육성 녹음된 교의신학 강의를 모두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부탁해서 비싼 값을 주고 구입했다. 그러므로 한국 칼빈연구원 과 박물관에는 한국의 개혁주의 신학의 산과역을 했던 박형룡 박사의 원자료가 있는 셈이다.

내가 이런 부족한 글이나마 남기려는 것은 한국 보수주의 신학의 원조, 즉 칼빈주의 신학의 원조의 흐름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가를 밝히기 위함이다. 나는 일생동안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은 이처럼 위대한 주의 종 박형룡 박사의 문하생이 되어 감히 그의 그림자라도 따라 보려고 노력해온 점이다.

나는 박형룡 박사가 서거하던 날 다음과 같은 시를 써서 총신대보에 게재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사랑의 시였다.

큰 스승 박형룡 박사를 애도하면서

“가시고 난 후에사
못나서 못난 제자들이
이러히도 虛虛한 뜨락에 모였습니다.

校庭의 뒷동산에 불타는 丹楓은
主를 사랑하는 님의 忠節이
저러히도 불게 불들게 했습니까?
돌아선 바위는
八旬을 眞理守護에 바친
님의 情熱이 속으로 굳어버린 것입니까?

아가페는
모두의 가슴마다에 심어두고
님은 저만치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그 손길,
그 눈빛,
어머님 품처럼 따스하더니만...
하여서,
이 空虛는 메울 길 없습니다.

크고도 크신 스승님.
잔잔한 가라치심.
애절한 십자가의 證據들
두고 가신 따사한 말씀들은

아린 가슴들에 밀물처럼 지미어 오고...

苦難의 半世紀
에클레시아의 아픔을 일흔 번에 일곱을 더 참으시더니.
못나서 못난 제자들로 인하여
벤엘의 이끼 낀 돌 사이로
목자의 땀방울이 촉촉이 베어들면

그 제사
열린 하늘을 향하여
목놓아 울었겠지요
歷史의 오메가는 主님의 것
그날을 기다리는 강단에 서서
오늘의 디모데가 되어야 할텐데...

〈총신대보 1978년 10월 25일〉

3. 요하네스 벨까일 (Johannes Verkuyl, 1908-2001)



요하네스 벨까일 박사는 나의 신학의 멘토이다.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의 여정을 그대로 쪽 빼어 닮은 선교사, 신학자, 그리고 설교자, 목회자, 저술가, 평론가 등 실제로 삶의 전 영역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

1972년 내가 처음 그를 만났을 때, 벨까일 박사는 지금까지 어느 학자들과는 달리 참으로 따뜻하고 인간적이었다. 아마 그가 선천적으로 따뜻하면서도 역동적인 성격을 가졌지만 특히 인도네시아의 선교사로서의 삶을 보냈기 때문에 아시아권 학생들에게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졌던 때문일 것이다.

처음 나는 화란으로 유학 갈 때 신약학을 하고 싶었으나 박윤선 박사의 충고가 있었는데, 박박사님의 걱정은 내가 뿌라야 대학에서 신약학을 공부해서 학업을 마치기도 어렵고 또 성공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 이유는 스킵퍼(Schipper)교수는 박윤선 박사의 멘토였는데 전형적인 화란 귀족 출신이어서 인간미가 없고 동양 사람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박윤선 목사님의 뼈저린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다. 또 하나는 바르다(Baarda) 교수는 본문 비평을 수용하는 학자이니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출국 전에 신약을 포기하고 실천 신학으로 전공을 바꾸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커피숍에서 미국 출신의 전임강사 제리 고르트

(Jerry Gort)교수가 다가와서 벨까일 박사 아래서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자기도 그분 아래서 공부했는데 열린 마음으로 학생들을 보살피는 오늘의 화란 교계와 학계에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라고 했다. 나는 선뜻 그의 말을 따르기로 하고 벨까일 박사를 면담했다. 그는 거구였다. 그리고 이미 나이가 60대 후반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그는 보청기를 귀에 꽂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 같은 해맑은 웃음 그리고 친절함이 내게 마음에 평안이 왔다. 그때부터 나는 과제물을 받고 공부에 들어갔는데, 한 과목씩 끝날 때마다 구두시험(Teneamen)을 치러갔다. 그리고 질문사항이나 힘이 들 때도 그를 면담할 수 있었다. 보통 화란의 교수들은 학생과의 면담시간이 불과 2,3분이면 족했다. 그러나 나는 목사여서 그런지 내게는 비교적 충분한 대화의 시간을 할애해 주었다.

그 후 우리는 사제관계이기도 했지만 그는 나에게 이름을 부르지 않고 반드시 도미네 정(정 목사님)이라고 불렀다. 나는 유학 가기 전에 군목으로 또는 개척교회 목사로 그리고 총신에서 강사로 일했기 때문이었는지, 나에게 깃듯이 예를 갖추었다.

아마 19세기 말에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걸출한 대인이 교회와 신학과 정치를 이끄는 견인차이었다면 20세기 말에는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그대로 본떠서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들어내고 복음의 세계화를 위해서 그토록 열정적이고 부지런히 행동하는 칼빈주의자로, 행동하는 양심으로 살았던 분은 아마도 요하네스 벨까일 박사일 것으로 본다. 나는 그에게서 단 한순간도 집필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1970년대이니 컴퓨터도 발전되지 않았을 때였다. 설령 컴퓨터가 있다 해도 이미 나이가 60대 후반인지라 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벨까일 박사는 연구팀들이 제공해준 자료를 통해서 끊임없이 글을 써 나갔다. 그래서인가 그는 일생동안 120권이 넘는 저서를 남겼다. 그는 신학자이기도 하지만 설득력 있는 대 설교자였다. 그의 설교에서 아직도 내가 기억하는 단어는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민족 모든 국가」 「삶의 전 영역에」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등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삶의 전 영역에 오대양 육대주에 미치고 결국은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자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카이퍼의 이상대로 신학, 교회,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예술, 교육 등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작용해야 하고, 복음이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누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5년의 세월동안 그의 집에 여러 번 초대되기도 하고, 그를 우리 집에 초대하기도 하면서 그의 삶을 배울 수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서 화란 개혁주의 신학의 이론과 실천을 배울 수가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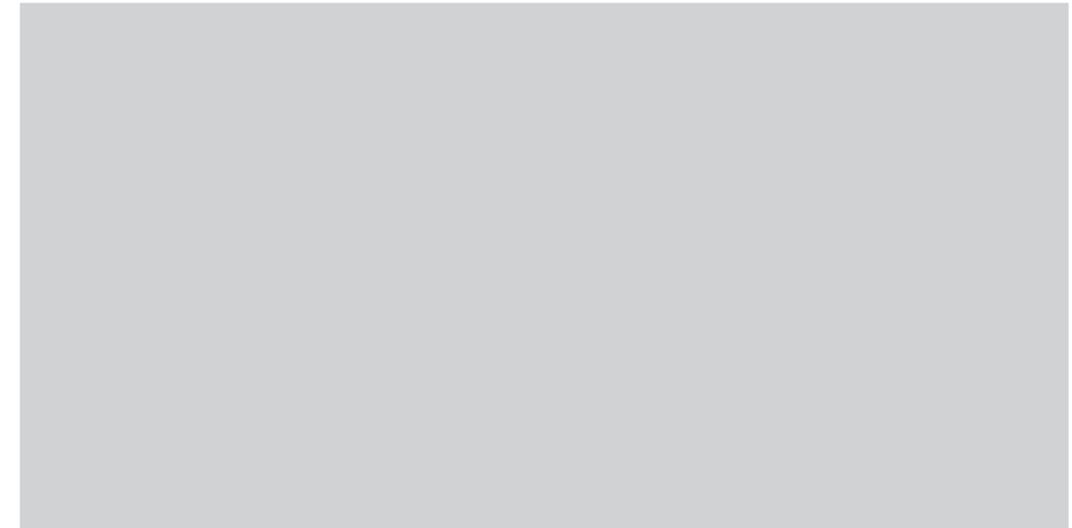
고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을 벨카일 박사를 통해서 체득했다고 볼 수 있다. 귀국 후에 나는 화란을 방문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은사를 방문하는 일은 빼놓지 않았다. 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노쇠해가고 있었으나 그 정신만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했다.

벨카일 박사는 1908년 철저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을 가진 쿤라드 마르텐 벨카일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서 벨카일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카이퍼의 칼빈주의적 세계관과 인생관을 철저히 배움으로서 그것이 일생동안 지배하게 되었다. 벨카일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고전어를 철저히 배웠고 교리문답과 성경연구에 주력했기 때문에 주위로부터 기대를 모았다. 김나지움에 공부할 때 화란의 대 신학자와 대 지도자들과 사귀었다. 즉 후일 위대한 교의학자 헨드릭 벌코프, 후일 W.C.C의 초대 총무 비셀호프트와 사귀고, 당대 최고의 칼빈주의 교의학자 헬만 바빙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1927년에 암스테르담 뿌라야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여러 해 동안 명설교가이며 대 설교가로 자리매김 했다. 1940년에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서 1962년까지 22년을 선교지에서 교회를 세우고 신학을 발전시키고 저술을 하면서도 인도네시아 독립을 위해서 투쟁했고 그래서 인도네시아와 화란 사이 화해의 사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다.

1965년에는 뿌라야 대학교에서 신학박사(Dr. Theol)학위를 받고 J. H. Bavinck의 뒤를 이어 실천신학 선교학 교수로 초빙되었다. 그는 실로 57세에 교수로 부름을 받은 셈이다. 벨카일 박사는 교수로 은퇴한 후에도 도리어 더욱 왕성하게 개혁교회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칼빈주의적 세계관 정립을 위해 앞장섰다. 벨카일은 헨드릭 크렘머, J. H. 바빙크와 함께 세계 3대 선교신학자이지만, 그는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전 생애를 드렸다.

그의 작품은 화란어로 인도네시아어로 영어로 120여종이 있으나 방대한 책 「전도학 개론」(1979), 「선교학 개론」(1972) 등이 있다.

4. 헬만 도예베르트 (Herman Dooyeweerd, 1894-1977)



1972년 늦가을 이었다. 네덜란드 뿌라야 대학으로 유학 와서, 아직도 말도 글도 잘 모르고 동서남북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다. 총신에서 공부할 때 간하배 교수로부터 헬만 도예베르트 박사에게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다. 그 당시 우리는 영어도 해석이 안 되고 더구나 기독교 철학을 잘 모르면서 그의 영문 책 A New Critique of Theoretic Thought, (1953-1958) 「이론적 사유의 신비관」을 옆에 끼고 다녔던 기억이 있다. 어린 우리들은 학문의 허영과 시건방이 들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품만 내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필자가 유학 가서 암스테르담 초기의 생활은 누구하나 반기는 사람도 없고 정붙일 사람이 없었다. 더구나 가족을 서울 도봉동의 남의 집 문간방에 남겨둔 채로 훌쩍 암스테르담으로 왔다. 말도 글도 모르고 참으로 무모하게 달랑 100불을 들고 암스테르담으로 왔다.

1970년대 초에 암스테르담은 히피족들의 천국이어서 전 세계 장발족 히피족들이 다 모일뿐 아니라, 당시 6000명을 수용하는 뿌라야 대학교 기숙사촌은 한국의 목사가 있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던지, 나는 암스테르담 전철 2번 선에 있는 여왕가(Konninginneweg) 56번지 3층에 방을 주었다. 이 집은 전에 헬만 도예베르트 박사와 함께 기독교 철학운동의 쌍벽을 이루었던 볼렌호번 박사의 집이었다. 유학을 시작하면서 좌우 분별을 못하고 외로움을 타던 나는 생각하기

를 기왕에 유학을 온 김에 칼빈주의 철학의 창시자인 헬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박사를 만나고 싶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듯이, 나는 집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해서 서투른 콩글리시로 내 소개를 하고, 한번 방문해도 좋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런데 생각 밖에 그는 쾌히 승낙하고 만날 시간과 장소를 정해 주었다. 그런데 장소는 내가 묵고 있던 숙소에서 불과 5분 거리도 안 되는 다음 블록이었다.

처음 도예베르트 박사를 만났을 때의 인상은 참으로 무게 있는 인자한 학자였다. 서재에 나를 안내한 그는 매우 정중하면서도 친절했다. 그의 서재는 천정 꼭대기까지 완전히 책으로 둘러 싸여 있었다. 그래서 높은 사다리를 놓고 책을 뽑아보고 있었다. 그런데 하나 놀란 것은 도예베르트 박사의 키가 나와 거의 같았다는 점이다. 나는 한국 사람으로서 비교적 키가 작은 사람인데 화란 사람으로 나와 비슷하다는 것은 아주 작은 사람이란 뜻이다. 이 지구상에서 화란 사람이 가장 키가 큰 것을 감안하면 아주 작은 축에 속한다. 그러나 나는 도예베르트 박사 앞에서 도리어 큰 위로를 얻었다. 세계적인 대 학자이며 칼빈주의 철학의 창시자인 석학이 나와 비슷하다는데 위로를 얻었다. 그때 당시 나는 화란어와 영어가 모두 짧아서 그저 내 자신을 소개하고 나의 멘토인 박윤선 박사에게 소개로 시작했다. 왜냐하면 박 박사님의 주석 책에는 상당 부분이 도예베르트의 사상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내가 도예베르트 박사를 만났을 때 그의 나이는 80을 넘겼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에 비하면 박윤선 박사는 아직도 젊다고 했다.

그날 나는 도예베르트 박사에게 참으로 순진한 질문을 했다. 선생님! 선생님은 칼빈주의 철학 곧 기독교 철학의 창시자로 알고 있는데, 선생님의 칼빈주의 철학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출발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도예베르트 박사는 씩 웃으면서, “철학은 무슨 철학? 나는 철학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라”는 말씀을 알키미디안 포인트(Archimedean Point)로 해서 즉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내 사상을 발전시킨 것뿐입니다. 모든 사고와 사유와 삶의 법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과 삶, 그리고 만유와 만사의 원리가 된다는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경 중심의 세계관이 신학과 신앙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등 삶의 전 영역을 지배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중립이란 것이 없습니다. 결국 세계관이 핵심인데, 내가 말하는 칼빈주의적 세계관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가슴이 뛰기 시작했고 이미 나

는 화란 신학과 화란 칼빈주의 사상을 다 이해할 듯 했다. 사실 도예베르트 박사는 철저한 카이퍼 리안 칼빈주의자로서 아주 독특한 칼빈주의 철학을 개발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데칼트 이후에 나타난 가장 위대한 학자라고 말했다.

솔직히 나는 그날 도예베르트 박사가 들려준 말에 감전되어 오늘까지 칼빈주의 신학과 신앙의 원리를 지켜온 셈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인생은 누구를 만나는가에 결정된다고 한다. 나는 한국에서는 박윤선 박사님을 멘토로 해서 4반세기동안 모신 것이었고 화란에 건너가자마자 도예베르트 박사의 성경적인 세계관, 칼빈주의적 세계관을 듣고 내 삶의 방향과 중심을 잡은 셈이다. 필자가 칼빈과 아브라함 카이퍼를 연구하고, 1985년부터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칼빈 박물관」을 세운 것도 거슬러 올라가면 도예베르트 박사의 말에 불꽃이 점화된 셈이다. 도예베르트 박사는 철저하게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의 사상체계를 더욱 확고하게 철학화하고 조직화하고 사상적으로 정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아브라함 카이퍼 이후에 카이퍼의 사상을 따르던 클라스 스킨더(Klaas Schilder)박사는 카이퍼 사상의 비판자로 돌아섰고, 후일 자유개혁과 교회(Vrijgemaking Kerk)세우고 캄펜신학교(Kampen Theologische Hoogeschool-후일 Universiteit로 바뀌었다)를 세웠다. 그러나 도예베르트 박사는 그의 동역자 볼렌호벤(D.H. Th. Vollenhoven)과 함께 기독교 철학회 (De Vereniging Voor Calvinistische Wijsbegeerte)를 조직하여 개혁주의 철학(Philosophia Reformata)잡지를 내면서 오늘까지 개혁주의 사상을 이끌고 있다.

그는 1894년 10월 7일 화란의 암스테르담에서 출생하여 1977년에 타계했다. 그의 부모들은 칼빈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었는데, 특히 그의 부친은 당시의 칼빈주의 운동의 지도자요, 교육가요, 국회의원이며, 언론인이며, 개혁교회의 복음운동의 대표인 아브라함 카이퍼와 친교를 갖고 그를 추종하였다. 한편 그의 모친은 당시 교계의 지도자인 콜부르흐(Kohlbrugge)를 추종하는 집안이었다.

아무튼 도예베르트는 그의 양친을 통해서 벌써 개혁주의 사상의 틀을 배운 셈이었다. 그의 학생활은 모범적이었으며, 그의 총명은 뛰어났을 뿐 아니라 예능방면에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하여 1912년 청년 도예베르트는 뿌라야 대학 법학부에서 공부하게 되었다. 특히 그는 칼빈주의 운동가들과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이미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이 가까워 오던 시기였다. 필자가 도예베르트 박사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그는 몇 번 카이퍼를 만난 중에 특히 카이퍼의 병상에서 만났었다고 술회하였다. 그는 특히 그의 박사 학위 프로모터인 파비우스

(Fabius)를 위시하여 아네마(Anema), 바빙크(H. Bavinck)등과도 관계를 갖게 되었다. 청년 도예베르트는 흐룬 반 프린스터 연구에 주력하였으며, 그것은 그의 철학적 배경이 되었다. 청년 도예베르트는 5년간에 걸쳐서 완전히 그의 연구를 마치고 1917년 7월2일 파비우스(Prof. Mr. D.P.D. Fabius) 교수 아래서 “화란 헌법에 있어서 각료회의(De Ministerraad in het Nederlandsche Staatsrecht)”란 논문으로서 약관 23세의 나이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뿌라야 대학의 교수로 취임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실제적인 경험을 쌓기도 하였다. 1916년에 화란 북부지방인 프리슬랜드의 조그마한 도시 할링겐이란 곳에서 세무 관리의 일을 보았다. 일 년 후에는 라이덴 시청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1918년에는 헤이그의 중앙행정부인 노동부로 옮겨 앉았다. 거기서 그는 산업과 노동에 대한 법안을 기초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후 1922년에 헤이그에 있는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임명되었다. 여기는 흐룬과 카이퍼에 의해서 계승해 온 개혁파 정당인 ARP의 정책 연구도 겸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실 이와 같은 도예베르트의 위치가 그로 하여금 기독교 정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아주 좋은 기회였던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그는 여전히 법철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는 한편 그 해 4월 8일 헤이그에서 있었던 법철학회 대회에서 27세의 나이로 당시의 법철학계의 원로인 스킨(Gerhert Scholten)박사와 격렬한 논쟁을 벌임으로 주목을 끌었다. 특히 그는 앞서 말한 「아브라함 카이퍼 연구원」에서 정기간행물로 나오고 있는 기독교 정치학(Staatkunde)의 편집인 책임을 맡아 정계와 언론계에 발돋움하게 되었으며, 이 잡지는 월간지로 정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론적이고 매우 실제적인 것을 다양하게 취급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그는 영향력 있는 필봉을 휘두르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당시에 카이퍼의 후계자인 콜라인(Colijn)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졌으며, 당시의 국방장관인 반 다익은 1922년 5월22일자로 도예베르트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의 능력과 영향력을 격찬하였다. 그리하여 1926년 10월15일 약관 32세의 나이로 뿌라야 대학의 법철학 및 법분류학과 중세 화란법을 담당하는 교수로 취임하였다. 그의 교수 취임 연설의 제목은 “법학 및 법철학에 있어서의 우주론적 개념의 의미”(De Beteekenis der Wetsidee voor Rechtswetenschap Rechtsphilosophie)였다.

그가 뿌라야 대학 교수로 취임한 후 1965년 정년으로 은퇴하기까지 한결같이 40년 동안을 같은 자리에서 일하였다. 그가 마지막 임종을 한 암스테르담의 오란게 나사울란 13번지는 근 40년간 살던 정든 집이다. 그의 집 앞에는 화란의 음유시인 본델(Vondel)의 이름을 딴 본델 공원

을 앞에 두고 있다. 이 집은 사실에 있어서 그가 태어난 곳에서 1마일도 채 못 되는 곳이었다. 그는 9남매의 자녀를 가졌으며 많은 손자와 손녀들이 있다. 그의 아내 안티나 펜하우트 도예베르트(Jantiena Fernhout Dooyeweerd)는 1963년에 사별하였다.

부인 안티나는 그의 평생의 친구요 동역자인, 칼빈주의 철학의 쌍벽을 이룬 볼렌호벤(Vollenhoven) 박사의 여동생이었다. 그 후 그는 자녀들의 방문을 자주 받기는 했지만 말년에는 한 늙은 가정부가 그를 도와주는 것 외에는 혼자 있었다. 그는 끝까지 펜을 놓지 않고, 원고 정리 및 저술 활동에 주력하였던 것이다. 그는 1917년 23세부터 최근까지 책과 논문들을 썼으니 꼭 60년간을 글 쓴 셈이다. 그가 쓴 저서와 논문들은 줄잡아 200개는 훨씬 넘을 것이다. 그 중에도 세계적인 공헌을 한 책은 1935년에 쓴 “법 개념의 철학”(De Wijsbegeerte der Wetsidee)인데 이것을 20년 후인 1954년에 영어로 A New Critique of Theoretical Thought(4 Vol)로 번역 출판되었다.

특히 1936년부터 지금까지 출판되고 있는 칼빈주의 철학회의 기관지인 「개혁주의 철학」(Philosophia Reformata)은 세계 각국에 칼빈주의 철학을 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헬만 도예베르트!

수년전 화란 국영 텔레비전에서 한 소개자는 도예베르트를 가리켜 데칼트 이후에 가장 큰 거목의 철학자라고 극구 찬양하였다.(주 : 데칼트는 불란서 철학자이지만 화란에서 살았다). 아무튼 도예베르트는 반세기 동안 개혁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다. 1970년대 들어와서 코넬리우스 반틸 박사를 위시해서 같은 노선을 걷던 개혁파 교회내의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도전을 받기까지 거의 그는 기독교 철학에 있어서 왕적 존재로 군림했다. 이제 인간 도예베르트는 역사에 긴 포물선을 긋고 잠들었다. 그에게 대한 공과를 논하며 비평하는 일은 앞으로 본격화 될 줄 안다. 필자는 그의 사상적인 측면보다도 내가 만나고 교제하여 본 인간 도예베르트의 일면을 생각해 보기도 한다.

나는 앞서 도예베르트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났을 때 첫인상은 아주 다정하고 친절할 한국의 한 노인을 만나는 것 같았다. 그의 얼굴에 풍기는 인상은 서구적이라기보다 동양적이었다. 우선 짙은 키에 은발을 다정히 벗어 넘긴, 거기에도

잔잔한 미소와 확신에 넘치는 눈길은 참으로 아무 부담 없이 접근할 수가 있었다. 그때만 해도 팔순 노인에 걸맞지 않게 정력적이었다. 서재로 나를 안내한 도예베르트 박사는 가정부가 출타중이라면서 부엌에 내려가서 손수 커피를 끓여서 가져왔다. 고마우면서도 송구스러웠다. 넓은 서재에는 고서들로 가득차 있었으며, 책꽂이 옆에는 사닥다리가 놓여 있었다. 키의 두 배나 넘는 책꽂이에서 책을 뽑아서 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다. 책상과 의자 그리고 응접세트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지난 세기의 것이 틀림이 없다.

그는 그 책상과 그 의자에서 한 평생을 쓰고 읽고 사색했던 것이다. 그는 우선 집안을 두루두루 소개도 해주었다. 서재 옆방에는 피아노 한 대가 있었다. 딸들의 피아노 실력도 빼지 않고 귀땀해 주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우리는 서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였다. 대뜸 나는 문기를 교수님의 기독교 철학의 바탕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그는 서슴없이, 나의 철학은 성경에서 나온 성경 철학이라고 해야만 한다고 대답하였다. 인생과 우주에 대한 진리의 판단 기준은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표준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자기 자신은 신학자가 아님을 강조하면서 세계의 신학과 철학, 사회, 역사, 문명에 대해서 여지없이 비평을 가했다. 그 중에도 그가 한평생 몸담아 오고 있던 뿌라야 대학에 대해서도 신랄한 비판을 가하였다. 그는 기독교의 세속화를 걱정하면서 참된 기독교 철학의 정립을 외쳤다.

특히 그는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 스콜라주의를 특별히 공격하였으며, 자기의 한 평생을 스콜라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점철되었다고 덧붙였다. 노석학의 열변의 끝날 줄 몰랐다. 나는 그분과 이야기하는 동안 나의 작은 그릇을 통감하기도 하였다. 이야기 하고 싶을 때는 언제라도 방문해도 좋다는 허락까지 받고 그 날은 헤어지게 되었다. 도예베르트 박사께서는 서재를 더듬거리다가 “Verenieuwing en bezinning”란 자신의 저서인 책 한권을 꺼내어 친필로 사인을 한 후에 내게 선물로 주었다. 그로부터 나는 도예베르트 교수와 인간적인 교제를 자주 갖게 되었다. 2년 후에 나는 암스테르담에서 암스텔벤이란 곳으로 이사하였다.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차로 20분 정도의 거리였다. 그때 새로 이사 간 곳은 트를스트라란 13번지였는데 공교롭게도 두 집 건너에는 볼렌호벤(Vollenhoven)박사가 살고 있었다. 그도 역시 늙은 가정부의 도움으로 그의 황혼기를 보내고 있었다. 이내 우리 가정은 친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라 부르고 따랐다. 외로운 노인의 한 면을 볼 수가 있었다. 그의 응접실에는 그의 누이동생, 즉 도예베르트 박사의 부인의 초상화가 크게 걸려 있다. 우리가 도예베르트를 생각할 때 볼렌호벤을 빼놓을 수 없다. 나이는 도예

베르트보다 두 살 위이지만 그를 끔찍이 생각했다. 말끝마다 “나의 형제와 나”란 말을 빼놓지 않았다. 그 후 도예베르트와 볼렌호벤을 좀 더 가까이 보게 됐다. 그러나 그때 이미 볼렌호벤도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어서 대화중에 가끔 줄거리를 잊어버리고 있었다.

그 후에 내가 가장 마지막으로 도예베르트를 본 것은 필자가 귀국하기 얼마 전이었다. 기독교신보사에서 도예베르트 교수에게 부탁하여 논문 한편을 쓰도록 하여 번역해 달라는 전갈이 왔다. 허겁지겁 찾아갔더니, 말씀은 고마우나 자기는 이미 너무 늙어 또 다시 새로운 논문을 쓰는 것은 쉽지 않고 한국의 실정을 모르기에 무엇을 써야할지 어렵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중히 사양하였다. 그러나 나는 때를 쓰듯 말하다가 갑자기 묘안이 하나 떠올라 제의를 하였다. 허락해 주었다. 그것은 중요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다가 인터뷰로 하기로 함이 어떠냐고 제의 하였다. 캐히 승낙하여 주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가지고 뿌라야 대학 철학부의 존 크라이 박사와 함께 방문하였다. 그를 대동하게 된 것은 혹시 어려운 말이 나오면 도움말을 구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오후 늦게 까지 인터뷰하여 녹음을 하였다. 그리고 사진촬영도 기꺼이 허락하였다. 정원에서 도예베르트 박사와 담화를 나누는 동안 손녀가 무비 카메라를 돌려준다. 참으로 즐거운 시간들이었다. 그 후로 다시 도예베르트 박사를 만나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와의 인터뷰를 담은 녹음테이프와 사진 몇 장과 무비 필름 이 생전의 그의 따스한 정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물론 그 인터뷰 내용은 지금까지 필자의 원고 정리가 되지 않아 기사화 되어 활자로 나오지는 못하였다). 당시에 인터뷰한 내용을 간단히 몇 가지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교수님! 기독교 철학에 대하여 교수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펍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교수님은 기독교 철학의 개척자이고 그 영향은 화란의 국경을 초월하여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미치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기독교 철학이 가능한가 하는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는 교수님께서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암스테르담 뿌라야 대학에서 수학하였습니다. 그 당시 우리 대학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니다. 그 창설자이신 신학자이며, 정치가, 교회 개혁자이

신 아브라함 카이퍼가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카이퍼의 사상에는 두 가지 조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개혁주의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콜라주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신학자로서의 카이퍼는 그의 거대한 신학 업적을 전통적인 스콜라주의 조류와 연결시켰습니다. 스콜라주의는 두 영역, 은혜의 영역과 자연의 영역 사이에 구별을 둡니다. 이런 것은 저 위대한 스콜라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하여 인도된 것들입니다.

아퀴나스에 의하면 교회의 임무(당시 로마 가톨릭교회)는 계시의 “초자연적” 진리들을 지키고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영역으로서의 국가와 학문들은 교회와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자율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로마가톨릭 견해를 신교가 인계 받았습니다. 16세기에는 화란 사람들이 신교 측에서 강한 스콜라주의 사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대표자가 부티우스(Voetius)란 학자입니다. 이중적인 자연과 은혜(초자연)의 아퀴나스적 견해가 인정되고 신교사상의 전체 체계를 이루는 동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개혁주의자들 특히 요한 칼빈은 기독교의 진리는 이러한 이중적인 성질을 인정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중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로 완전합니다(중략).” 그러나 카이퍼에게서 또한 개혁주의 사상을 발견합니다. 카이퍼는 계시의 완전성과 삶의 전체성을 인식하였습니다. 그의 유명한 다음의 말은 확실히 개혁적인 것입니다.

“만물의 주권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인간존재의 전영역에서 이것이 내 것이라라고 주장하지 않는 땅은 한 치도 없다”

고 한 말입니다. “여기서 출발해서 그는 많은 사상을 발전시킬 수 있었습니다(중략). 카이퍼는 국가 절대주의(전체주의와 같음)에 반대하고 영역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사상을 확립하였다(중략). 카이퍼의 영역 주권사상은 스콜라주의에서 발견할 수 없는 사상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권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중략). 내 철학을 위해서 나는 카이퍼의 사상을 취사선택하는 일입니다. 나는 카이퍼사상에 있어서 스콜라적인 경향을 반대하고, 개혁주의적인 것은 받아들여 그 정신을 계속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중략) “나는 신학자가 아니고 법률가이며 법학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중요성은 내가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개혁주의적인 원리를 추구함으로써 개혁적이고 성경적인 방법을 발견하고자 하는 것

입니다.”(중략)

나는 그에게 다시 묻기를 “그러면 교수님의 기독교 철학의 발전의 의미와 중요성은 오늘날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신학적인 방법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 교수님께서 우주론적인 입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선생님의 대답은 더욱 명백할 것입니다.” 도예베르트 교수는 말하기를 “성경적인 창조의 근본 동기는 인간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중단되는 듯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교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학사상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의견입니다(중략). 나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과학적인 사상에 관하여 말할 위치에 서 있지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세상의 어떤 과학이론도 제시하지 않습니다(중략). 창조는 모든 문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내 철학의 중심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논리적인 방법으로 다른 견론들을 유도해야만 하는 과학 원리의 그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과학의 위험스런 영역을 밟을 때 환히 비쳐주는 “발의 빛”입니다. 과학은 언제나 모험과 위험이 가득차 있습니다. 이 오솔길을 따라 모험을 할 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동행을 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 사실을 언제나 확신 있게 믿어야 합니다(시 119:105) (중략). 카이퍼의 개혁사상 중에 가장 큰 공적중의 하나는 인간의 마음을 인생의 전체 문제의 출발점이요, 종교적 중심점으로 보는 성경적 견해를 재발견한 것입니다. 이것은 진실로 커다란 개혁주의 원리 중의 하나였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했을 때 스콜라주의 신학자는 반문하기를 “우리는 당신이 인간의 마음이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중략). 이러한 심령 속에 우리의 모든 사상과 행동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창조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중략) 이것이야말로 스콜라주의적인 미신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나의 사상이 아니고 성경 전체의 중심사상입니다. 예수님, 바울, 베드로가 가장 강조하는 말씀입니다(중략). 옛 헬라 철학자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중심이 인간과 동물을 구별시키는 유일한 방법인 이성(理性)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새로운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심령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중략). 나의 전 인생은 이원론적인 인생관을 반대하며 싸웠고 스콜라주의를 반대해서 투쟁했습니다. 심지어 지금도 나는 개혁주의 신앙에서 벗어난 탈선운동을 비난합니다(중략).

나는 처음 저서에서 종교적인 근본 동기를 발견할 수 없었지만 나의 잠재의식 속에는 있으며

로 나를 한 방향으로 인도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비난이 개혁자들에게 들어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니다. 나는 그들이 문제의 근본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다. 도예베르트는 신학자가 아니면서도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과 개혁주의 신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대석학이었다. 나는 그와의 만남이 내 생애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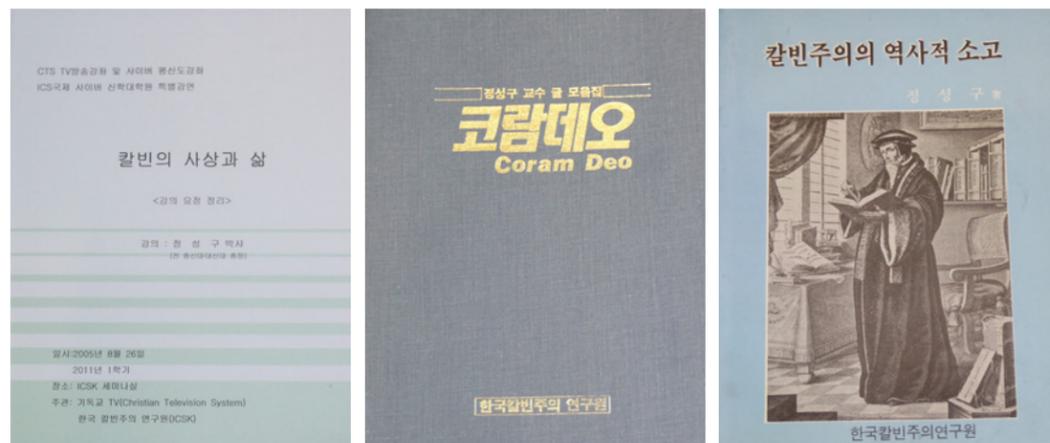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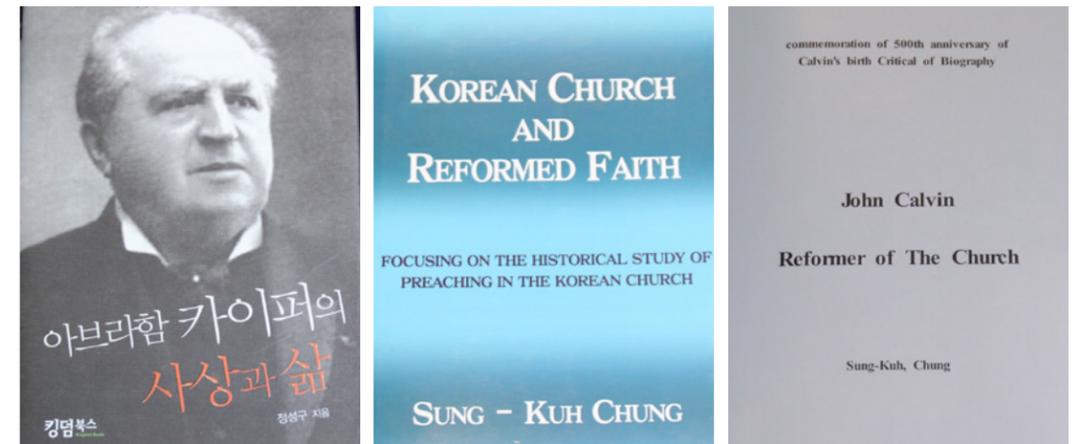
1 9 8 5 - 2 0 1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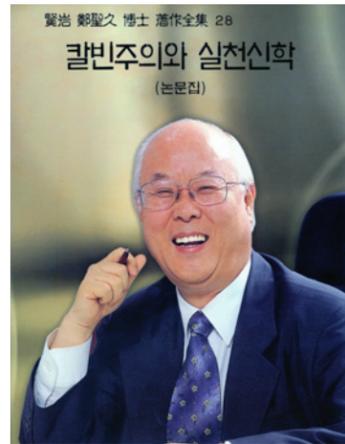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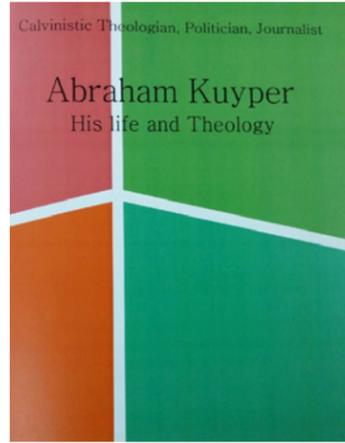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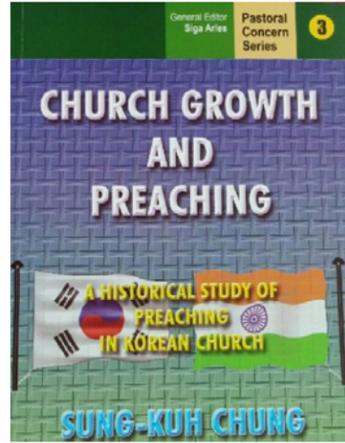
제3장

정성구 박사의 칼빈 및 칼빈주의 관련 서책 및 설교 CD, 강연 팜플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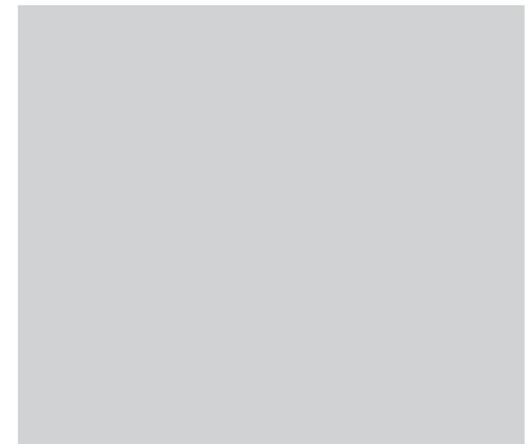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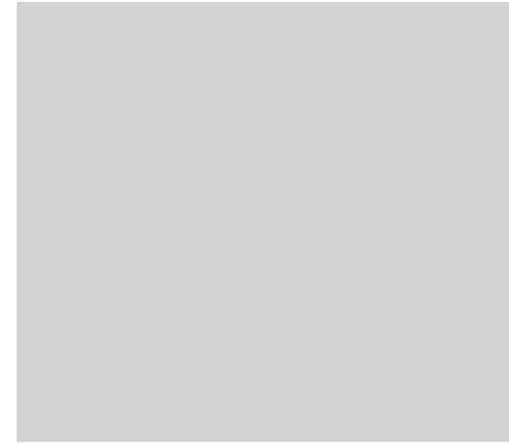
1. 정성구 박사의 칼빈 및 칼빈주의 관련 서책들







2. 설교 CD



3. 정성구 박사의 강연 및 팸플릿

종교개혁 470주년 (해설집)

요한칼빈 16세기 자료전시회

Reformation 470th Anniversary, An Exhibition on John Calvin (1509-1564)



● 일시: 1987년 10월 19일 ~ 31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장소: 한국기독교 선교기념관(TEL: 333-7393)
 ● 주최: 한국칼빈주의연구원(TEL: 586-4948)
 ● 후원: 총신대역·극동방송·기독신문

"위기에 처한 유럽을 향한 선교의 문을 열자"

유럽 선교 컨퍼런스와 함께 배낭여행

유럽은 지금 날로 모습 변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강의내용 및 강사

- ▶주제강좌1) 주교좌에서 대한 미션과 선교전략에 대한 연구서
- ▶주제강좌2) 유럽의 선교의 역사와 선교의 전략에 대한 연구서
- ▶주제강좌3) 유럽의 선교의 역사와 선교의 전략에 대한 연구서
- ▶주제강좌4) 유럽의 선교의 역사와 선교의 전략에 대한 연구서

유합신교 컨퍼런스 일정

- 일시: 2009년 10월 24일(토) ~ 27일(화) / 3일간
- 장소: 프랑스 제주의 마을
- 주소: 4 rue de la République, Marolles, 1050 Brussels, France
- 주최: 유합신교 컨퍼런스 한국위원회
- 후원: 100여개교, 50여개 선교단체
- 후원: 100여개 교회의 후원회

문의 및 연락처

주최: 프랑스 예수님의 마을(유합신교센터) / 후원: 재불기독교협의회(미리지성, 한위클리)

잊혀진 종교개혁자

폴란드의 존 라스키 (John Laski) 특강

(1499-1560)

강사: Jerzy Siczak (Rev. Jerzy Siczak)

주제: 존 라스키의 생애, 신앙, 그리고 그의 개혁주의 사상

일시: 2012. 5. 3. 오후 6시

장소: 한국칼빈주의연구원 (강기도 신시도원 121-9) (831-709-3601)

주최: (사)한국칼빈주의연구원 (AIC-STORY) 운영본부
 후원: Refo500asia(총신대학교), (사)한국칼빈주의연구원 이사회 (사)한국RC-STORY 운영 이사회, (사)세계기독교총연합회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

칼빈 박물관에 초대합니다

대상: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특기: 그룹(20-30명) 예약 시는 현장의 직접 안내와 설명이 있습니다.

일시: 2009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한국칼빈주의연구원 (강기도 신시도원 121-9)
 Tel: 031-709-3601, 011-9384-0777

주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후원: 칼빈대학교, CBS, 기독교신문, 기독교공보, 칼빈신문, 한국칼빈주의연구원 500주년 기념사업회

한국칼빈주의연구원 및 칼빈 박물관

종교개혁 474주년 Special Lecture

주년기념 해외석학 초·청·강·연

T·H·E·R·E·F·O·R·M·A·T·I·O·N

Calvinism Today and Calvinistic World View
오늘의 칼빈주의와 칼빈주의세계관

일시: 1991년 10월 24일(토) 오후 7:00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총로 5가)
 주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서울시 중구 동대문로 1가 586-4948)
 후원: 총신대역, 총신대학원, 한국칼빈주의연구원후원회, 기독교방송, 기독교방송, 기독교신문, 복희와신학

종교개혁 480주년 해외석학초청 기념강연회

기독교와 정치개혁

<A. Kuyper의 칼빈주의적 정치모형을 중심으로>

Prof. Dr. J. De Bruijn

- 네덜란드, 호르니츠 대학교(호르니츠)
- 한스 테르스트라프 대학교
- 암스테르담 정치학과 교수
- 암스테르담 대학교 부설 18세기 화관로테르담 역사자료연구소 소장

일시: 1997년 10월 31일(금) P.M. 7시
 장소: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소강당 T.(02)741-4370

주최: 한국칼빈주의연구원 T. 0342-709-3601 02-824-7986
 후원: 화관로테르담, 국회조찬기도회, 국민일보, 기독교 CATV, 기독교신문, 기독교방송센터

종교개혁 490주년, 한국 장로교회(독노회)출범 100주년 기념

개혁주의 신학자들의 속필 전시회

An Exhibition on Autographs of Reformed Scholars in World

세계명필로, 요한 칼빈, 아브라함 카이퍼, 개혁자들의 서명, 핸드 스키테이, 벨만 피밍크, 벨만 리델로스, 찰스 찰지, 비.비. 워렌, 찰스 조지, (중략) 벨만 도예베르트

일시: 2007. 10. 22 ~ 11. 22 (일요일) 매일 오전 9:00 ~ 오후 5:00
 장소: 대신대학교 글로리아 홀 712-713 경북 경산시 백천동 137번지 T: 053) 810-0757

주최: 대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주관: 대신대학교 총학생회(주이), 신대학원 원우회
 자료제공: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후원: 대신대학교 재단, 운영이사회, 대신대학교 총동문회, 기독교신문, CBS, CTS, 매일신문, 국민일보

대신대학교 개교 50주년 종교개혁 485주년

16세기 종교개혁자 칼빈 문헌전시회

Reformation 485th Anniversary, An Exhibition on John Calvin (1509-1564)

일시: 2002년 10월 24일(토) ~ 11월 7일(토) 오전 10시 ~ 오후 5시
 장소: 대신대학교 글로리아 전시홀 6033810-0723, 0712-3, 0701-6
 주최: 대신대학교 (영역 전시실 백전동 137번지)
 주관: 대신대학교 총학생회, 신학대학원 원우회
 자료제공: 한국칼빈주의연구원
 후원: 대신대학교 재단, 운영이사회, 대신대학교 총동문회, 기독교신문, CBS, CTS, 매일신문, 국민일보

"루터가 단단한 바위산을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킨 사람이라면 칼뱅은 루터가 깬 바위에 글자를 새긴 사람이다."
- 영국 교회사학자 필립 슐 -



John Calvin(1509.7.10 - 1564.5.27)

- 마르틴 루터와 함께 종교개혁의 대표적인 인물
- 장로교 신학과 교리의 근간을 이룸
- 개신교신학을 집대성한 <기독교강요> 저술
- 교회일치운동(에큐메니칼)의 선구자

칼빈주의의 5대 강령

1.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2. 무조건적 선택 (Unconditional Election)
3. 제한 속죄 (Limited Atonement)
4. 불가항력적 은혜 (Irresistible Grace)
5. 성도의 견인 (Perseverance of Saints)

칼빈탄생 축 500주년

올해는 공교롭게도 찰스다윈의 종의기원(1859)술간 150주년, 장로교회의 통합과 합동 분열(1959) 50주년 그리고 칼빈탄생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동안 사본오열의 아픔이 있었던 장로교 교단 교회들이 칼빈탄생 500주년을 맞아 한 하나님 앞에서 한 뿌리임을 확인하며 하나 되고 연합하기를 바라며, 장로교 뿐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카고의 모든 교회들이 밖으로부터 거세게 밀려오는 진화론과 과학자상주의 그리고 세속주의와 배금사상의 물결로 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진리를 사수할 뿐 아니라 부단히 자신들을 개혁하고 경신하면서 복음의 연합전선을 힘차게 펼쳐 나가시디.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행사 안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1-6)

| | |
|-------------------------------|-----------------------------------------------------------------------------------------------------------------------------------------------------------------------------------------------------------------------------------------------------------------------------------------------------------------|
|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 학술강좌 (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교회의 개혁자 요한 칼빈 - 목회자와 설교자로서의 칼빈을 중심으로 - (성경 : 딤후 3:14-17) · 일시 : 2009년 6월 5일(금) 오전 11시 - 오후4시 (점심 제공: 시카고한인교회) · 장소 : 시카고한인교회 (서창권 목사 사무) / 1500 W. Algonquin Rd., Hoffman Estates, IL 60195 / T. 847-359-1522 · 강사 : 정성구 박사 |
| 칼빈탄생 500주년 새벽기도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목 : 칼빈주의적 세계관 (성경 : 로마서 11:26) · 일시 : 2009년 6월 6일(토) 오전 6시 · 장소 : 시카고한인교회 (서창권 목사 사무) / 1500 W. Algonquin Rd., Hoffman Estates, IL 60195 / T. 847-359-1522 · 설교 : 정성구 박사 |
|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 예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 여호와의 영광 (성경 : 히박국 2:1-4) · 일시 : 2009년 6월 7일(주일) 오후6시 30분 · 장소 : 그레이스교회 (원종훈 목사 사무) / 4000 Capitol Dr., Wheeling, IL 60090 / T. 847-243-2511~3 · 설교 : 정성구 박사 · 찬양 : 한미교회성가대 · 찬교 : 예배 후 디과 (그레이스교회 제공) |

강사 : 정 성 구 박사

- 숭신대학교신학원, 대학원
- 워안 Vrije Universiteit(Drs.Theol.)
- Geneva College(D. Min.)
- 할기위 (미시간) 개혁 신학 대학교 영예신학박사
- Whitefield Theological Seminary(Ph. D.)
- 숭신대학교 총장, 대학원장
- 대신대학교 총장, 대학원장
- 현 숭신대학교 영예교수, 칼빈대 석좌교수
- 한국칼빈학회 회장
- 한국칼빈주의 연구원장
- 앞선 역동한 설립 운영

※ 후 원 : 칼빈탄생 500주년 기념행사 및 시카고지역 한인교역자회 사역을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념물후원 : 최문선 목사(교역자회 회장 847-208-2004), 한윤천 목사(에버그린장로교회 630-988-4511), 서창권 목사(시카고한인교회 847-322-1000)
 ※ 현 금 후 원 : Pay to the order of : KCMCC 혹은 Korea Christian Minister's Conference of Chicago
 ※ 보내실주소 : Rev. Esther Min (민동진 목사 : 교역자회 회계) 29 W. 359 Crabtree Ln., Warrenville, IL 60555

주관 : 시카고지역 한인교역자회

제4장

정성구 박사의
국제 활동 및 개혁주의
신학자들과의 교류

1. 국제 활동 소개의 글

1985년 7월 10일 한국칼빈주의연구원이 출범하자마자 나는 미국칼빈연구협회(Calvin Studies Society in America)의 회원이 되었다. 이 협회는 미국의 칼빈신학교, 웨스트민스터신학교, 카브난트신학교, 개혁신학교 등 주로 개혁주의 신학을 유지하는 학교의 교의학 또는 역사신학 교수들이 주축이 되고 기타 미국 각 대학의 칼빈 연구 교수들로 조직되었고 유럽의 몇몇 학자들도 가입되었다. 나는 칼빈신학교의 더 용 박사의 추천으로 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듬해인 1986년 6월에서 1987년 1월까지 6개월 동안 나는 헨리 미터 칼빈연구센터(H. Meeter Center for Calvinistic Studies)의 객원 연구원이 되었다. 거기서 나는 상당한 분량의 칼빈 연구 논문들을 영인하게 되었는데, 현재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는 3000여종의 아티클들은 그 시기에 모은 것이 대부분이다. 내가 칼빈신학교의 연구교수로 있는 동안 함께 와 있던 칼빈 연구의 대가인 겐블(R.Gamble) 박사, 그리고 칼빈 연구 사서로 있던 피터 더 클릭(Peter de Klerk)씨와 긴밀한 관계를 맺었다. 특히 미터 센터의 간사였던 베틀즈(Ms. Battles) 부인은 미국의 대 칼빈 연구가이며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영문으로 번역해 낸 베틀즈 박사의 부인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유지를 따라서 비록 연로했지만 칼빈자료 정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특별히 베틀즈 부인은 남편의 연구자료 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내게 넘겨주었다. 1986년에는 박윤선 박사가 연구원의 고문으로, 그리고 명예원장에는 한병기 목사가 취임했고, 국제적으로는 화란의 우트레흐트 대학교의 칼빈주의 철학 교수인 뎅그링크(J.D.Dengerink)와 칼빈대학의 철학 교수인 에번 라너(Evan Runner) 박사가 연구원의 고문으로, 그리고 일본의 고베신학교 교장이던 하시모도(Hashimoto) 목사가 국제이사로 위임되었다.

그리고 그 해 8월 나는 헝가리 데브레첸(Debrecen)에서 열리는 국제 칼빈대회(The International Calvin Congress)에 참석해서 전 세계 칼빈 학자들 앞에서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메시지로 설교했다. 그 때는 사회, 기도, 찬송 인도, 설교, 축도까지 전부 나 한사람이 감당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영어설교를 힘 있게 할 수 있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나는 국제 칼빈학회 회원들과 헝가리 개혁교회 지도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기도 했다.

제 4차 국제칼빈대회(헝가리, 데브레첸) 설교문 (4th International Congress for Calvin Research, Debrecen)

강사: 정성구 박사(총신대학교 총장)

〈제목〉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마 17:1~13)

1986년 8월 20일 10시

제 4차 국제칼빈대회에 참여하신 세계적 칼빈학자 여러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대회로 모인 이곳 데브레첸 신학대학교는 1538년에 세워진 세계 최초의 개혁주의 대학으로서, 이 강당은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이 강당은 과거 헝가리 독립운동 당시 국회로 사용되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가적,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곳곳이 칼빈주의 신앙을 지켜온 헝가리 개혁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경의와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의 총신대학교 총장으로서, 또는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으로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메시지를 드리게 된 것을 크나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총신대학교의 직원들과 한국교회 성도들의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의 세상은 다원화 되었고, 세속주의적이고, 인본주의 사상이 신학뿐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예술 분야에 가지 깊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양한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어느 특정의 원리나 진리가 통하지 않고 다양한 사상들이 우후죽순처럼 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신학적 입장과 학파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16세기 요한 칼빈이 우리에게 물려준 개혁주의 신앙의 유산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 이 유는 칼빈은 그의 기독교강요나 설교나 주석, 그의 편지, 논문 등에서 말 한데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충실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가라는 곳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곳 에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의 교리를 힘 있게 붙잡았습니다. 뿐만 아니 라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칼빈을 따르는 것은 칼빈의 인격 에 기초했다기보다는, 칼빈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실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중 세 시대에 루터와 칼빈을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한 번 성경으로 돌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칼빈은 종교개혁시대의 친구들과 더불어 오직 성경(Sola Scriptura), 오직 믿음(Sola Fide), 오직 은혜(Sola Gratia)를 정확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칼빈 연구가들로서 칼빈의 위대함을 찬양하기보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 병약 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칼빈을 도구로 사용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칼빈은 참으로 연약한 육체를 가졌습니다. 두통과 위장병, 기관지 천식, 신경통 등 수십 가지 합병증을 앓았고, 이단

과 가톨릭 세력과 야당 반대파들 그리고 회색분자들의 공격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참으로 불행해서 칼빈보다 더 병약했던 부인과는 9년 밖에 살지 못했고, 아들 하나를 두었으나 이를 만에 세상을 떠났고, 칼빈은 혈혈단신으로 병마와 고독과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위대한 불 후의 명작 기독교강요를 위시해서 주석과 편지와 논문을 발표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복음, 이 성경, 이 신앙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은 칼빈의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과 삶을 함께 연구하고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에 앞서, 우리는 오늘 읽은 성경의 진리를 먼저 생각코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변화산 에서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핵심적 제자인 베드로, 요한, 야 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희어졌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놀란 베드로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여기 있는 것이 좋으니 만일 주 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자”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할 때 홀연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는 내 사

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드로는 이상하고 기이한 사건에 놀랐고 거기서 희한한 환경에 안주하고 싶었지만, 위에서 들리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세계는 참으로 다양한 소리가 많습니다. 논리적으로 명쾌한 학자들의 음성도 많고, 희 한하고 놀라움을 주는 음성도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선입니 다. 16세기 어두운 교회시대에 칼빈은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결국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는 진리가 옳다면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그 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칼빈이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말 씀을 들었듯이, 우리도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전 세계에서 오 신 칼빈학자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제 4차 국제칼빈학회에 모인 우리들에게 주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칼빈의 신학을 연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 면 칼빈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했듯이,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른 손에 일곱별을 잡으시고 일곱금촛대 사이에 운행하시는 주님이시여!

헝가리 개혁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이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용기를 주시 읍소서.

어서 속히 이 헝가리 개혁교회에 자유를 주시며, 이 교회가 칼빈주의 신앙을 잘 파수할 수 있 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므로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한 전 세계에 오신 모든 칼빈학자들에게 은혜를 배푸소서. 제 4차 국제 칼빈학회에 오신 학

자들이 칼빈의 말을 들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도 칼빈처럼 이 시대에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Date: August 20, 1986

Place: Debrecen Theological College (Debrecen, Hungary)

Speaker: Dr. Samuel S.K. Chung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Title: Listen to Him

Text: Matthew 17:1-13

1 After six days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2 There he was trans figured before them. His faces hone like the sun,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3 Just then the reappeared before them Moses and Elijah,talking with Jesus.

4 Peter said to Jesus,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If you wish, I will put up three shelters—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5 While he was still speaking, a bright cloud covered them, and a voice from the cloud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6 When the disciples heard this, they fell facedown to the ground, terrified. 7 But Jesus came and touched them."Get up," he said. "Don't be afraid." 8 When they looked up, they saw no one except Jesus.

9 As they were coming down the mountain, Jesus instructed them, "Don't tell anyone what you have seen, until the Son of Man has been raised from the dead."

10 The disciples asked him, "Why then do the teachers of the law say that Elijah must

come first?"

11 Jesus replied, "To be sure, Elijah comes and will restore all things.

12 But I tell you, Elijah has already come, and they did not recognize him, but have done to him everything they wished. In the same way the Son of Man is going to suffer at their hands."

13 Then the disciples under stood that he was talking to them about John the Baptist.

Grace and Peace from our Lord Jesus Christ to you all who are participating in the 4th International Congress for Calvin Research as renowned Calvin scholars. For the 4th congress, we gathered here at Debrecen Theological College. This school, founded in 1538, is the first reformed college in the world. This auditorium where we are now is a historic place. It was used as the gathering place for the National Assembly of Hungary in the period of Hungarian Independence Movement.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respect, consolation, and encouragement to the Hungarian Reformed Church leaders and members who kept their Calvinistic faith despite of their national and social agonies.

It is a great honor and joy for me to give a sermon to you as president of Chongshin University and as president of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And I want to deliver to you greetings from Chongshin staffs and Korean church congregations.

Our world in these days is pluralized and secularized. Humanism has been deeply smeared into politics, economy, society, culture, and art as well as theology. Such a situation caused diverse voices in all areas of our lives. Any particular principle or truth cannot be accepted as the principle or the truth. Rather various ideas and thoughts are accepted, springing up like mushrooms. But we must listen to the voice of unchanging truth even though there are various theological positions.

That is, we should well receive the heritage of the Reformed faith from John Calvin in the 16th century. It is because John Calvin tried to be thoroughly faithful to the Scripture, the Word of God just as he mentioned in his sermons, commentaries, letters, and articles. He tried to go to the place that the Scripture says, “go,” and to stop at the place that the Scripture says, “stop.” He firmly held the doctrine of the freely given grace. He prioritized God’s glory and sovereignty. The aspect that we need to follow the example of John Calvin is not what he has done nor how he was but his faithfulness to God’s Word. Calvin uttered with his fellow reformers “Sola Scriptura,” “Sola Fide,” and “Sola Gratia.”

It is God Himself who raised the reformers like Luther and Calvin in the dark Middle age and let people turn back to the Scripture once more. Thus, we, as Calvin scholars, must not praise the greatness of John Calvin, but praise and adore the greatness of God who used John Calvin as an instrument for His own kingdom and His own ministry. As a matter of fact, Calvin was physically so weak with a lot of diseases like headache, stomachache, asthma, and neuralgia, but God used even such a weak man for His kingdom. Furthermore, Calvin was suffered from the attack from the Roman Catholic Church, the opposition party, and fence sitters. John Calvin was also very unhappy in his family life--his wife was weaker than Calvin himself and died 9 years after their marriage and his only son was dead 2 days after his birth. Despite of all, John Calvin, by himself with nobody, even suffered from disease, loneliness, and agony, wrote his masterpiece the Institute and many other commentaries, letters, and articles which gave a huge positive influence on keeping our gospel, our Bible, and our faith. God let him do so. In this sense, we gathered here to study and research the Reformed theology, faith, and life altogether.

Before such studies and researches, I would like to think about the truth from God’s Word for today. The text is about the glorious transfiguration of Jesus Christ. Jesus took with him Peter, James and John the brother of James, and led them up a high



mountain by themselves. Astonishingly, there Jesus Christ was transfigured before them. His face shone like the sun, and his clothes became as white as the light. More astonishingly, there appeared before them Moses and Elijah, talking with Jesus Christ. Peter was so surprised and extremely excited, said to Jesus, “Lord, it is good for us to be here. If you wish, I will put up three shelters—one for you, one for Moses and one for Elijah.” And while he was still speaking this, a bright cloud covered them, and a voice from the cloud said,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Listen to him!”

Peter might want to just stay there since he was so amazed and thrilled but the message from heaven was “Listen to Him!”

Our world in these days hold too many diverse voices. There are logically evident voices of scholars and mysterious and amazing voices from various parties. But the most important is to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It is the first priority. In the dark season in the 16th century, John Calvin might listen attentively to the voice of God. If

it is true that the Reformed church must be continuously reformed, the thing that we need to do even in these days is to listen carefully and attentively to the Word of the Lord. Just as Calvin listened to the Lord in the dark season, we should do the same in these days. It is the very mission of all Calvin scholars gathered from all over the world. "Listen to Him." I believe this is the message that God has given to us who gathered together here for the 4th International Congress for Calvin Research. To research Calvin means eventually to turn back to the Word of God. It is because just as Calvin entirely depended on God's Word we also need to do the same.

Grace and Peace from the Triune God to you all who gathered here this time for the Congress. Amen.

당시 정성구 원장은 예배인도자로 강단에서 사회, 기도, 성경봉독, 설교, 찬송인도, 축도까지 맡았다. 찬송은 거룩, 거룩, 거룩(Holy, Holy, Holy)을 제창하였다.

또 이듬해인 1987년에 국제 칼빈대회 사무총장이자 뮌스터 대학 교수인 노이저(Neuser) 박사가 연구원을 방문하고 크게 격려, 위로했다. 바로 그 즈음 나는 한국교회 최초로 종교개혁 470주년을 기념해서 「요한 칼빈 16세기 자료 전시회」를 열었다. 1987년 10월 19일부터 31일까지 서울 합정동 로터리, 양화진 외국인 묘지 공원내의 한국 기독교 선교 기념관 지하를 빌려서 전시회를 열었다. 1988년 1월에 나는 일본을 방문하고 고베 개혁과 신학교를 방문하여 특별 강연을 하고 두 기관의 상호협력을 다짐했다. 같은 해 10월에 다시 일본을 방문하여 일본 칼빈학회(Japan Calvin Association)와 상호협력 관계를 체결했다. 그 해 3월에는 화란 뿌라야 대학교의 칼빈주의 철학 교수인 헝크 헤이츠마(Henk Geetsma) 박사가 연구원을 방문하고 특별강연을 했다. 그 해는 88 올림픽의 해였기에 전 세계 기자들이 서울로 몰려왔는데 그 중에서 화란의 가장 큰 일간지 트라우(Trauw)가 우리 연구원에 와서 나와 인터뷰를 하고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에 대해서 대서특필했다. 또 10월 종교개혁기념 주간에는 종로 5가 연지동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을 빌려서 칼빈주의 신학자이며, 정치가이면서 언론인이었던 아브라함 카이퍼 자료 전시회를 열었다. 이 때 세인의 관심이 칼빈주의에 대해 크게 알려졌고, 미국과 화란 등의 개혁주의 신앙에 관

심을 가진 나라에서는 축하와 축전을 많이 보내왔다. 카이퍼 전시회를 위해서 도움을 준 뿌라야 대학의 더 브라인(De Bruijn) 박사의 협력도 대단히 중요했다.

1989년에는 김은수 목사를 일본에 칼빈주의 연구원 지부장으로 발령했다. 그 해 10월에는 당시 칼빈신학교의 역사학 교수 겸 헨리 미터 칼빈연구 센터의 원장인 겐블 박사가 연구원에 초대되어 특별강의를 했다. 동시에 독일의 노이저 박사가 연구원을 방문했다. 1990년에는 일곱 교회의 재정 후원을 받아서 헝가리 선교협회(Organization of Hungary Mission)가 조직되어 매월 1000 정도를 헝가리의 부다페스터 신학대학, 데브레첸 신학대학, 짜로스 파탁 신학대학 등에 장학금 100달러를 보내고 기타 개교회에 지원했다. 현재로서는 그 액수가 미미할지 모르나 당시 공산권 아래서 막 자유화 하려던 시기였으므로 그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 해 3월에는 데브레첸 개혁과 대학교의 총장인 보톤트 갈(Botond Gaal) 박사를 초청해서 연구원에서 특별 세미나를 가졌다. 갈 박사는 오래 전부터 서로 잘 아는 친구였다. 2002년에는 갈 박사와의 오랜 친분을 계기로 추천을 받아 데브레첸 대학 역사 460여년 만에 박종화 박사와 함께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얻는 영광도 얻었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과 미국의 헨리 미터 칼빈 연구소가 정식 자매결연을 맺었다. 10월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는 헝가리의 사로스파탁 신학교(Sarospatak Theological Academy)의 교장인 리차드 홀식크(Richard Horsick) 박사를 초빙하여 특별 강연을 열었다. 또한 당시 일본 칼빈주의학회 회장이자 관서학원 대학교 철학 교수인 하루나 수미토(Haruna Sumito) 교수를 초청하여 아브라함 카이퍼의 세계관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동시에 칼빈주의 연구원은 나의 모교인 암스텔담 뿌라야 대학교의 18세기 이후 프로테스탄트 문헌 센터(Document Centrum Voor na 18 Eeuw Protestant)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1991년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는 미국 필라델피아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로버트 낫슨(Robert D. Knudsen) 박사를 초청하고 칼빈주의 세계관에 대한 강의를 했다. 종로5가 100주년 기념관을 빌려서 행한 강연에 많은 인사들이 참석했다. 1994년 10월 종교개혁 477년에는 미국 아리조나주 주립대학교의 교수인 하이코 A. 오버만(Heiko A. Oberman) 박사를 초청하여 칼빈의 신학적 영향력에 대한 특강을 했다. 오버만 박사는 미국 뿐 아니라 화란과 독일 등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진 칼빈 연구의 최고의 학자로서 명성을 날리던 분이다. 1995년에는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의 루터 포트 하우스(Rutherford House)와 자매결연을 맺었고 김경천 목사를 필리핀에 선교사로 파송하면서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필리핀 지부를 설치했다. 종교개혁 기념 주간에는 미

국 웨스턴 신학교의 교장이며 미국 개혁신교회의 총회장이던 존 헤셀 링크(I. John Hesselink) 박사를 초청해서 칼빈과 율법에 대한 특강을 들었다. 그는 일본에서 선교를 했고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칼 바르트에게 배운 학자로서 칼빈 연구의 대가였다. 그는 그 후로도 여러 번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을 방문하고 우리를 격려해 주었다.

1996년 칼빈주의 연구원이 서초동 시대를 마감하고 150여평의 단독 건물을 지어 분당으로 이전했다. 그 해 9월 10일에 미국의 펜실베이니아주의 개혁장로교(Reformed Presbyterian Church)가 세운 160년 전통의 칼빈주의적 신앙의 바탕에서 성장한 제네바 대학(Geneva College)으로부터 나는 명예 문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학위 수여식에 나는 아내와 같이 참석했다. 화이트(J.White) 총장의 축하와 함께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명예로운 학위를 받았다. 평생 한국 교회에 칼빈주의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였다. 저녁에는 대강당에서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1997년에는 미국에서 온 베리 모어헤드(Berry Morehead) 가족이 2년간 머물면서 칼빈주의를 연구했다. 그가 2년 동안 머물면서 영문 잡지 “Calvinistic Viewpoint”를 발행하고 전 세계 개혁주의 신학교와 대학에 널리 배포했다. 특히 1998년 8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 5회 국제 칼빈학회가 열리는 중에 130여명의 세계적 칼빈 석학들이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고 감탄했으며 이 일로 말미암아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은 명실공히 국제 사회로 떠오르게 되었다. 연구원 지하실의 귀중본 전시실을 「국제 칼빈 박물관」(International Calvin Museum) 으로 명명했다. 그리고 그 해 말에는 필리핀에서 온 디온(Rev. Dion) 목사와 베리 모어 형제가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의 M.A. 과정을 김장진 교수와 함께 졸업했다. 이듬해 1999년에는 필리핀에서 온 로렌스 가타와(Laurence Gatawa) 목사, 케냐에서 온 로날드 M 무나이타이아(Ronald M. Munyithya) 목사, 필리핀 칼로스(Carlos) 목사 등이 졸업했다. 또 2000년 6월에는 가나에서 온 영국 국적의 임마누엘 소수 오포리(Emmanuel Sosu Ofori) 목사가 졸업했다. 그 후에도 세계 각국의 학자들이 길게는 3개월, 짧게는 며칠을 머물면서 칼빈 연구를 하고 갔다.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은 국제 기독교 고등교육 협의회(IAPCHE)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협회는 칼빈, 카브난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뿌라야 대학, 캄펜신대 등 미국과 구라파의 개혁주의 신앙을 배경으로 가진 학교들의 연합체이다. 나는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이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널리 개방하고 있다.



1986년 데브레첸 세계 대회(왼쪽: 이종성 박사, 중앙: 한철화 박사, 오른쪽: 정성구 박사)

2. 국제 활동 관련 사진



고베신학교 특강



모스크바 교회 설교



남아프리카 공화국 신학교 졸업식 설교



생가리 일본칼빈학회 특강 후



헝가리 최초 개혁주의 교회인 첵게르 교회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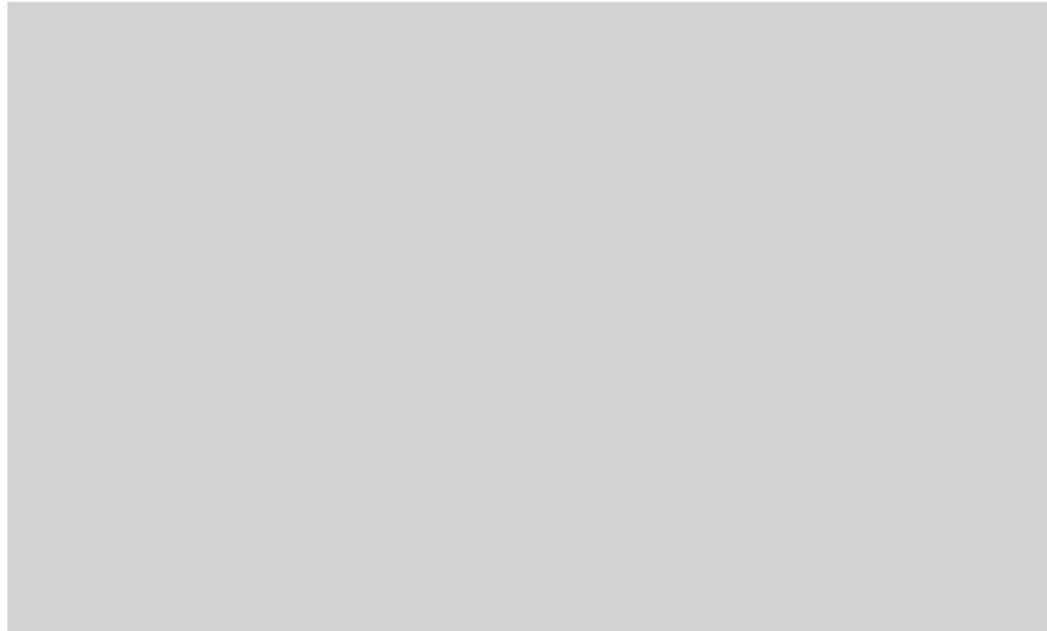
필리핀 종교개혁 기념식 인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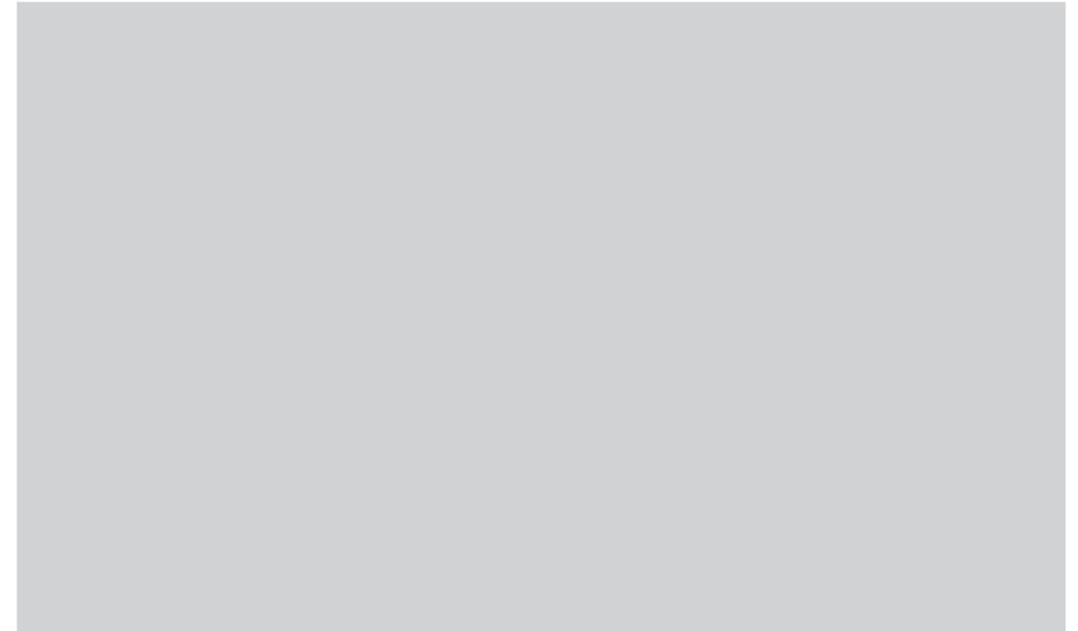
뎡그리크 박사와 제네바 대학 종교개혁 벽 앞에서



데브레첸 개혁주의 신학대학 총장 면담



칼빈학회 후 에덴베레 시장과 면담



개혁주의 교회



유럽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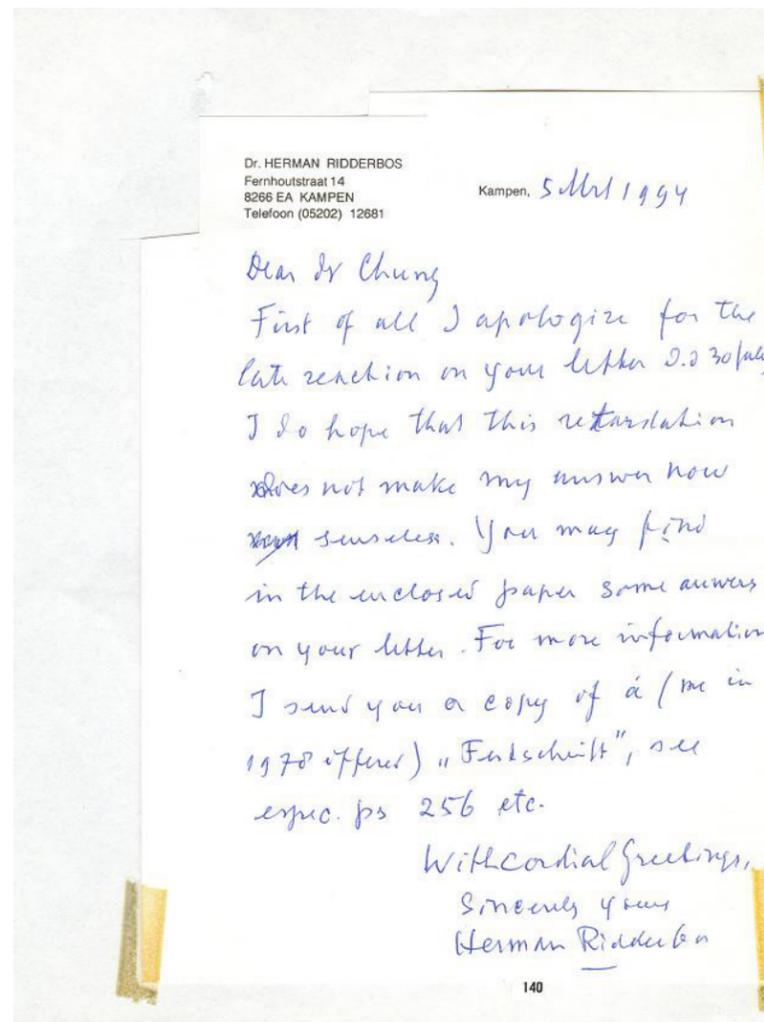
2014년 헝가리 방문

3. 개혁주의 신학자들과의 교류

헬만 리델보스(Herman Ridderbos; 19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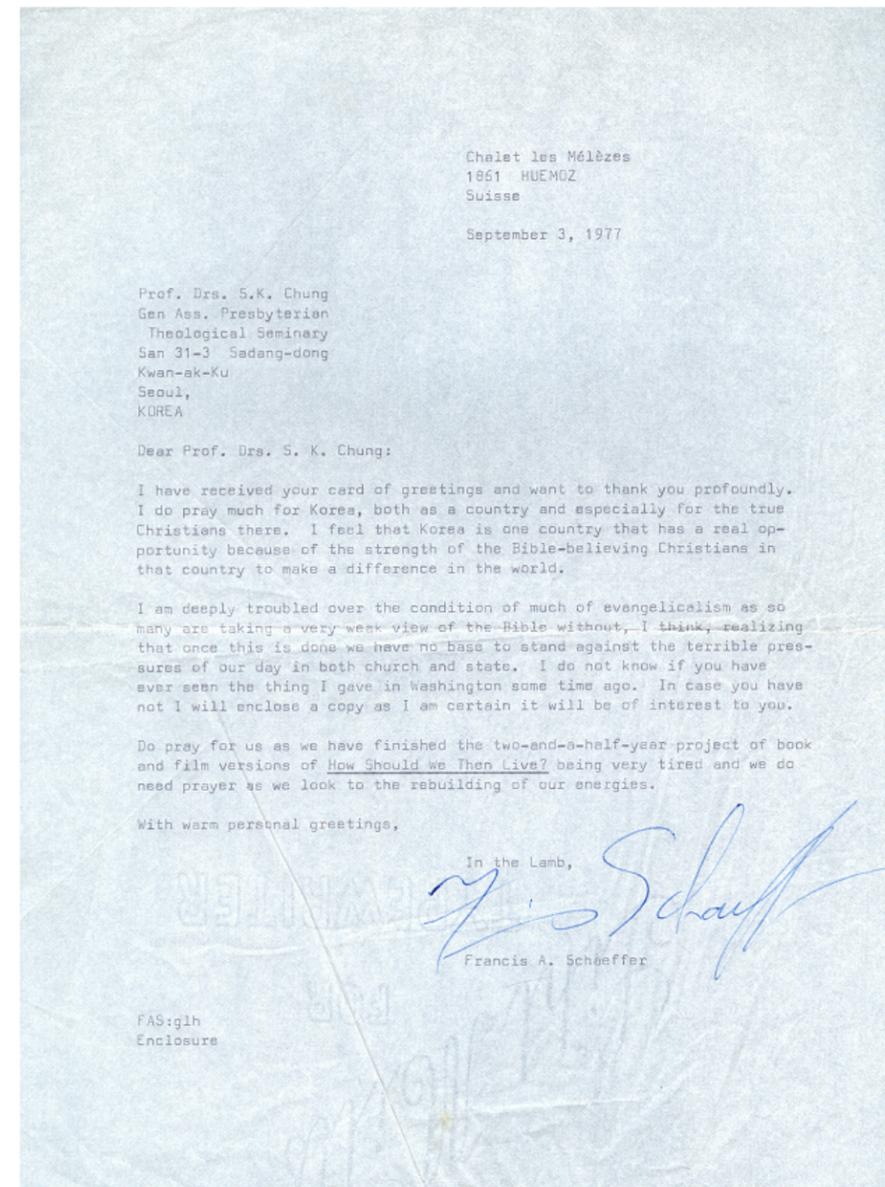
화란의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 그의 부친 J. Ridderbos는 구약학자로서 카이퍼와 바빙크 제자였다. H. 리델보스는 목회자로 또는 총회에서 그리고 개혁주의 신행협회 회원으로 평생 캄펜신학 대학의 교수로서 개혁주의 신학의 별이었다.

〈마태복음 주석〉〈왕국의 오심〉〈바울〉〈바울과 예수〉〈구속사와 신약성경〉〈때가 이르매〉〈요한복음〉〈로마서〉〈골로새서〉 주석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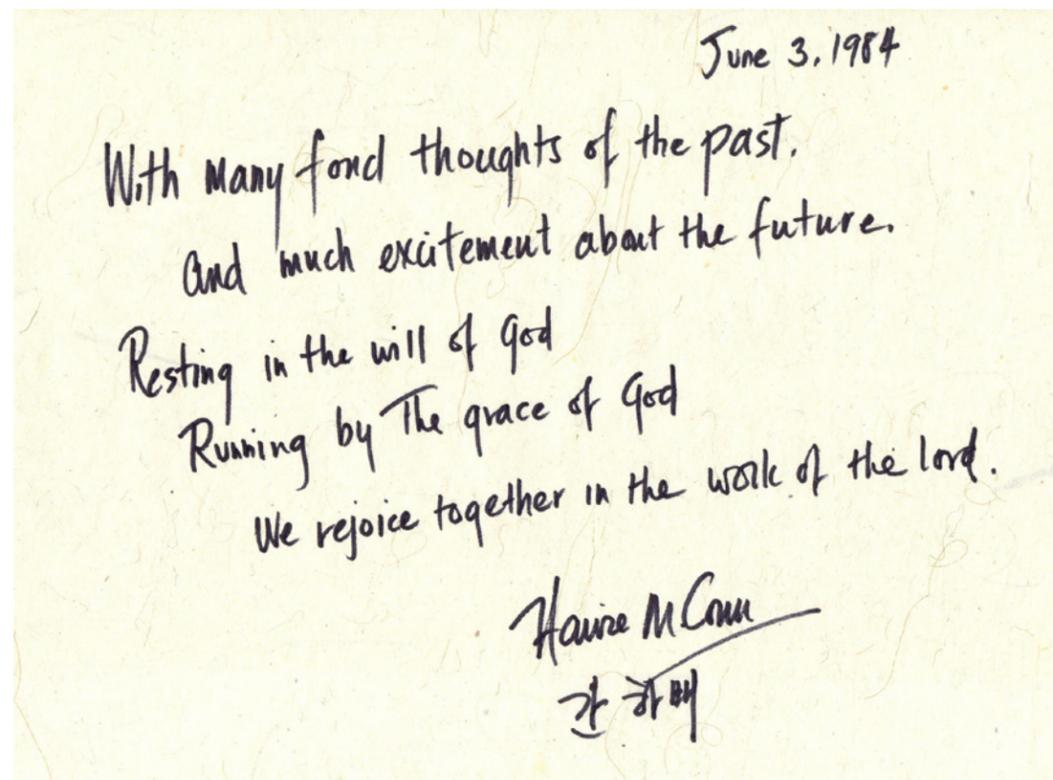
프랜시스 쉐파(Francis A. Schaeffer; 1912-1984)

20세기 기독교 지성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사상가로서 성경장로교회 목회자이며 선교사. 그리고 라브리 공동체(L'Abri Fellowship)의 창설자이다. 그는 라브리 공동체를 통해서 영적으로 피곤하고 방황하는 현대인들에게 성경적이고 칼빈주의적인 길을 제시하고자 했다. <진정한 영적 부흥> <존재하시는 하나님> <위기에 처한 복음주의> 등의 저서를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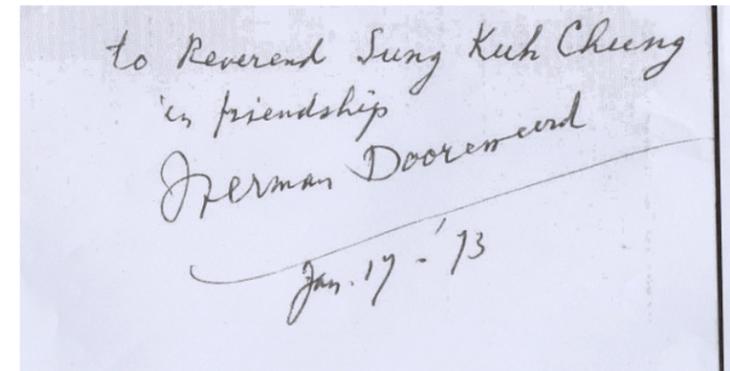
하비 칸(Harvie M. Conn; 1933-1999)

한국명 간하배. 미국 정통장로교회(O.P.C)의 한국 선교사로 총신대학교 교수로 일했고 후에 모교인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선교학 교수를 지냈다. 그는 역사적 화란 칼빈주의 신학과 철학에 심취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쁨> <다니엘서의 메시아적 예언> <신약신학서설> <현대신학해설> <영원한 말씀과 변하는 세상> <정의를 행하는 것과 은혜를 설교하는 것> <신학, 선교, 인간학 3자 회담> <도시선교의 비전> 등의 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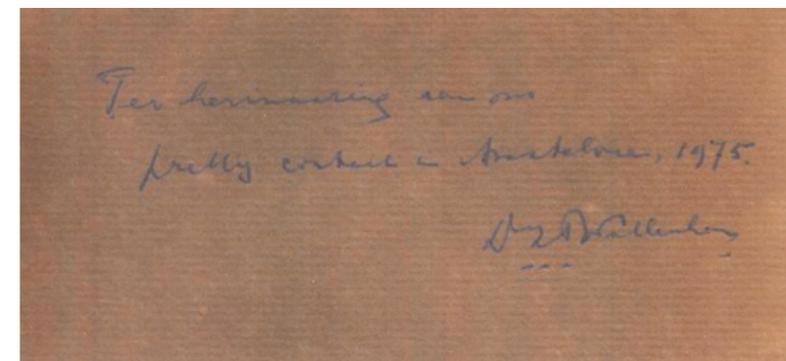
헬만 도예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

우주 법철학을 창시한 화란의 칼빈주의 철학자. 그는 아브라함 카이퍼에 의해 주도된 신 칼빈주의 분위기에 자라 자유대학의 법학부에서 공부했다. 박사학위 후에 <정치 원론으로서의 칼빈주의적 영역주권 사상>을 발표 후 그의 대저 <법 개념의 철학>을 출판하고 Vollenhoven과 함께 칼빈주의 철학회를 만들었다. 그 외에도 <철학사상의 초월적 문제> <서구사상의 황혼> <국가의 기독교적 개념> <사회제도와 기독교적 이론>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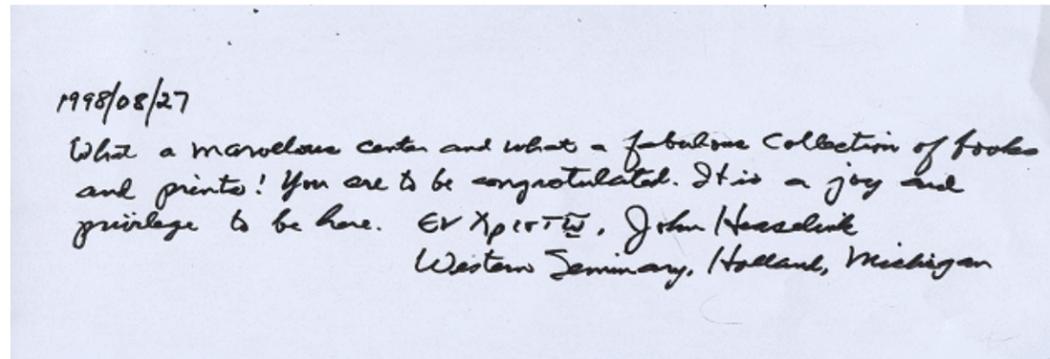
볼렌호벤(D. H. Th. Vollehoven; 1892-1977)

화란의 칼빈주의 철학자. 자유대학의 철학부 교수로서, 1935년 도예베르트와 함께 <칼빈주의 철학회>를 설립하고 30년간 회장을 지냈다. 칼빈주의 철학잡지(PHilosophia Reformata)를 공동 발간했다. 저서들로는 <칼빈주의 철학의 개혁> <기독교 논리학의 필요성>, <철학사>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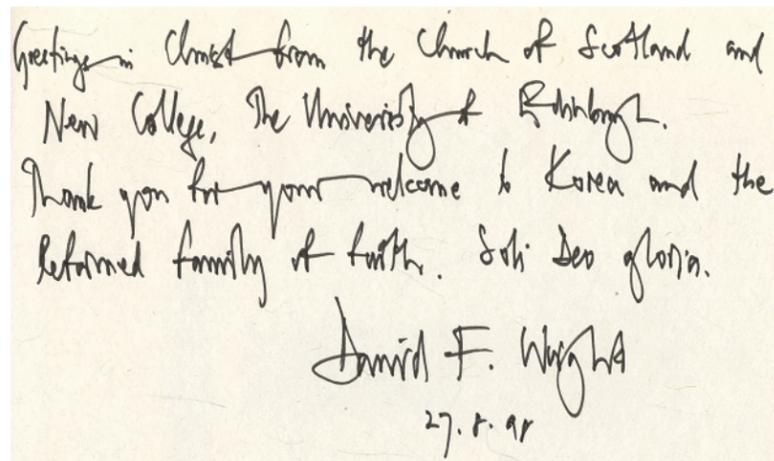
존 헤셀링크(I. John Hesselink; 1928-?)

미국 개혁교회 (R.C.A.) 목사, 선교사, 웨스턴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 학장. 바젤 대학에서 <칼빈의 율법의 개념과 용도>란 논문으로 Ph.D.를 받았다. <북미 칼빈학회 회장>으로 일했고, 1995년부터 1996년까지 R.C.A. 교단 총회장을 역임했다. <개혁주의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평안> <칼빈의 율법에 대한 개념> 등의 저서가 있고 칼빈에 대한 엄청난 논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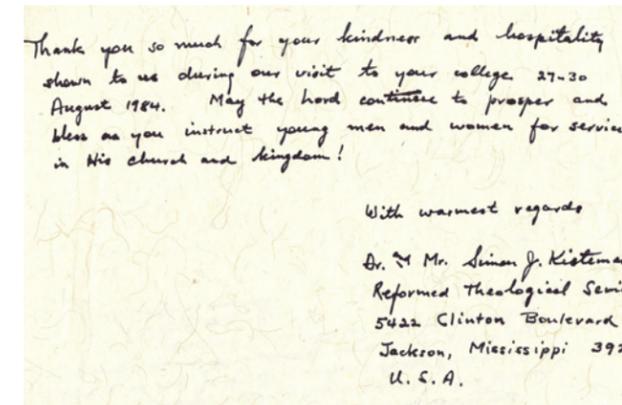
데이브드 라이트(David Wright)

스코트랜드 에딘버러 대학교 뉴칼리에서 전통적 개혁 기독교 교수로 평생을 일했다. 세계 칼빈 학회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W. Neuser와 B. Armstrong과 함께 <순정한 종교의 옹호자로서의 칼빈>을 공저했고, <하나님께 대한 칼빈의 순종> 등 많은 논문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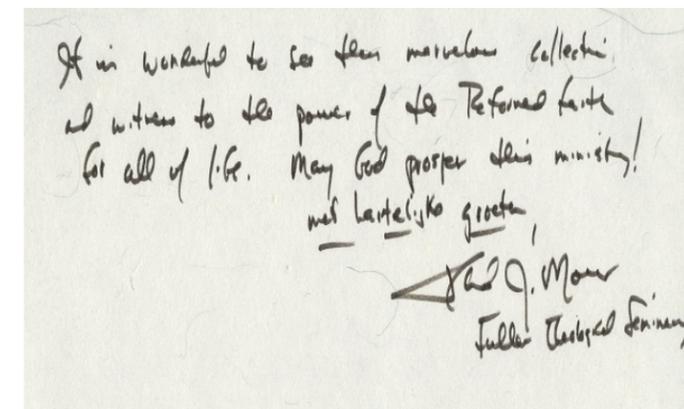
시몬 키스터메이커(Simon J. Kiestermaker; 1938-)

미국의 개혁주의 신약신학학자. 돌트 대학 교수와 리폼드 신학교 (R.T.S.) 교수를 지냈다.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개혁주의 입장에서 신약학을 강의했고, 1975년에는 『미국 복음주의 신학회』 회장으로 일했다. <사도행전 주석> <히브리서 주석> <야고보서 주석> <베드로전후서 주석> 등이 있고 <예수의 비유> <칼빈주의 연구>는 탁월한 저서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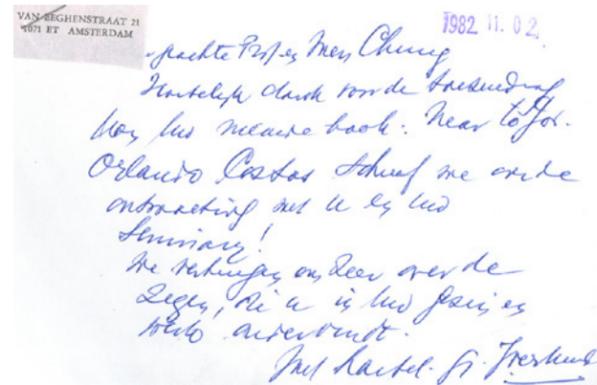
리차드 마우(Richard J. Mouw)

미국의 저명한 칼빈주의 정치 윤리학자. 칼빈대학에서 기독교 윤리학과 철학신학 교수. 현. 풀러 신학대학의 총장. 사상적으로 A. Kuyper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정치와 성경적 드라마, 1975> <정치적 복음 전도, 1974> <열방의 왕들이 행진할 때, 1983> <거룩한 세속성으로부터 부름, 1980> <왜곡된 진리, 1989> <명령하시는 하나님, 1990> 등의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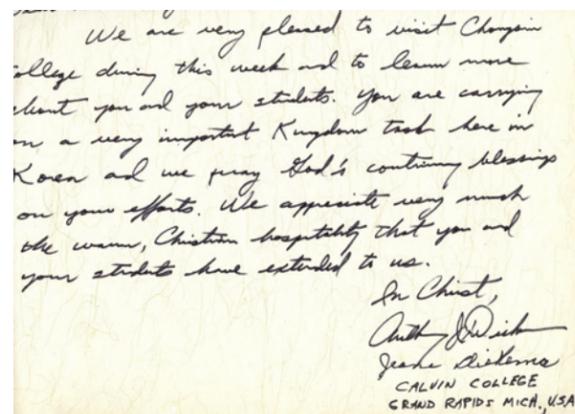
요한네스 벨카일(Johannes Verkuyl; 1908-2001)

화란의 금세기의 최고의 칼빈주의자, 선교학자. 어린시절부터 카이퍼의 칼빈주의적세계관과 인생관에 심취했다. 선교학자였던 H. Kraemer와 J. H. Bavinck와 함께 세계 3대 칼빈주의 선교학자로 꼽힌다. 그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행동하는 칼빈주의자였다. 명저 <새로운 선교신학총론> 외에 100권 이상의 저술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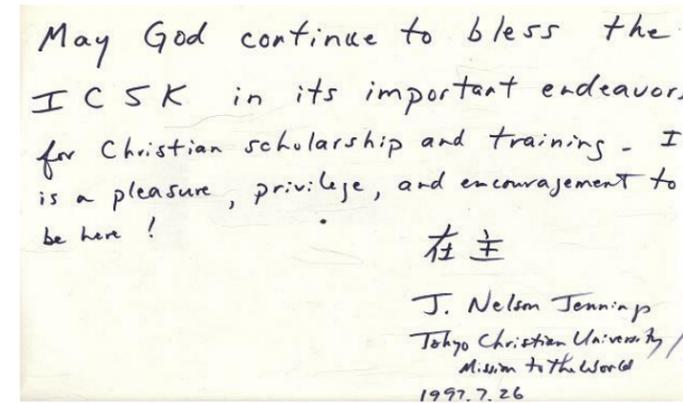
안토니 디크마(Anthony Diekma)

미국의 칼빈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다. 그는 대학에서 사회학 심리학을 공부했다.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Ph.D.를 받은 후 일리노이 대학에서 12년간 교수로 있다가 1976년부터 칼빈대학 총장으로 봉직했다. 그는 칼빈주의적 세계관과 인생관에 기초를 둔 교육에 힘쓴 전형적 칼빈주의자였다. <신앙과 지성>이란 그의 저서는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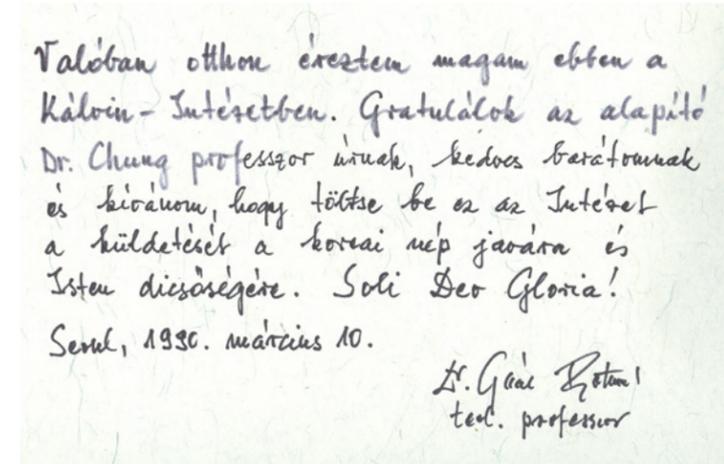
넬슨 젠닝스(J. Nelson Jennings)

현재 미국 카브난트 신학교의 선교신학교수로 있다. 젠닝스는 오래동안 일본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면서 일본어에 능통하였다. 그리고 에딘버러(Edinburgh)대학에서 Ph.D.를 받은 후 카브난트 신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은 개혁주의 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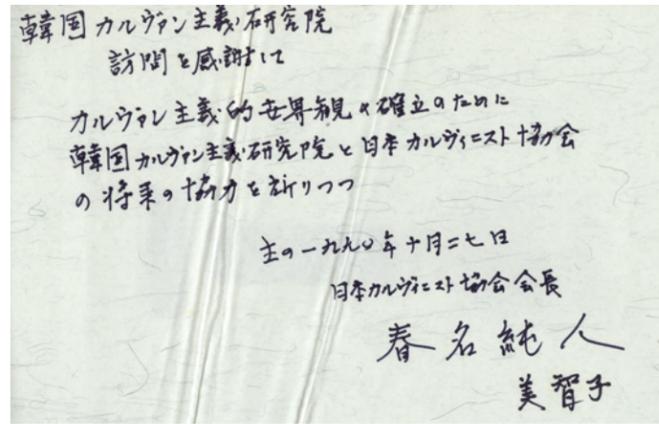
보톤드 갈(Botond Gaal)

헝가리의 개혁주의 학자, 헝가리 학술원 회원, 조직신학자로 데브레첸 개혁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다. 데브레첸 대학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데브레첸 신학대학원(1538년 창립)에서 공부하고 에든버러 대학으로 유학하였으며 데브레첸 신학대학에서 Ph.D.를 받았다. 그는 헝가리의 대표적 신학자로 국제 사회에 널리 알려졌다고 특히 신학과 과학에 대한 여러 책을 저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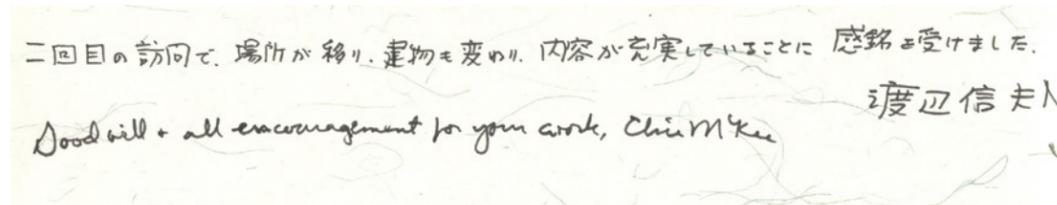
슈미토 하루나(S. Haruna, 春名純人 ;1935-)

일본의 대표적 칼빈주의 철학자이며 카이퍼 및 헬만 도예베르트 연구가로서 관서학원 대학교 철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일본 칼빈협회 회장을 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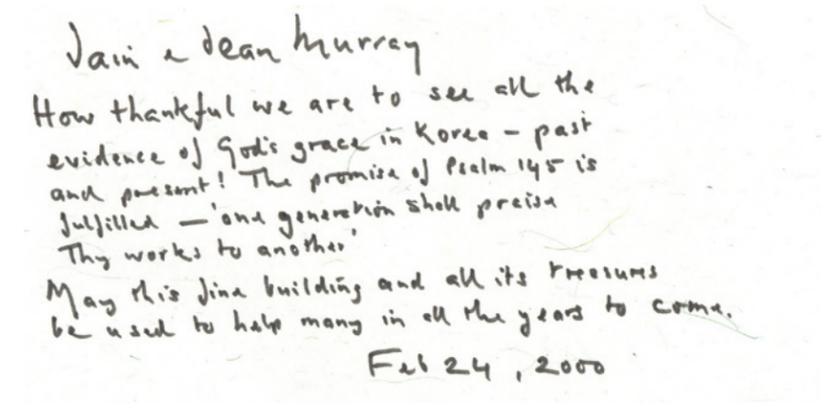
노부오 와타나베

일본의 대표적 칼빈 연구가이며 동경고백교회의 목회자. 교토대학교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박사 학위를 얻고 목사 안수. 동경여자대학교, 관서학원 대학교, 교토대학교, 일본대학교, 대만신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일본칼빈번역협회의 회원으로 일하면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 <칼빈의 로마서 주석> <칼빈의 창세기 주석>을 번역하고 <칼빈의 교회론> <전쟁의 죄책을 짊어지고> <종교개혁사> <칼빈> 등의 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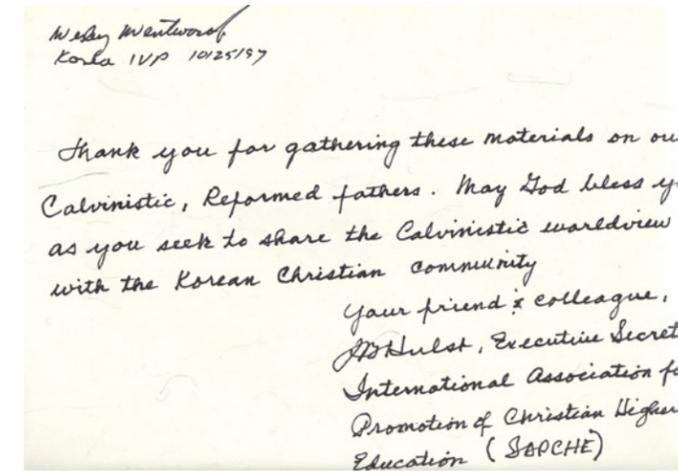
이안 머레이(Ian H. Murry; 1931-)

<진리의 깃발>(The Banner of Truth Trust)의 창설자, 편집인이며 퓨리턴 신학자의 전기 작가이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와 동역했고, 여러 곳에서 목회자로서도 크게 성공했다. <조나단 에드워드> <존 머레이> <아놀드 핑크> <로이드 존스> 등의 전기를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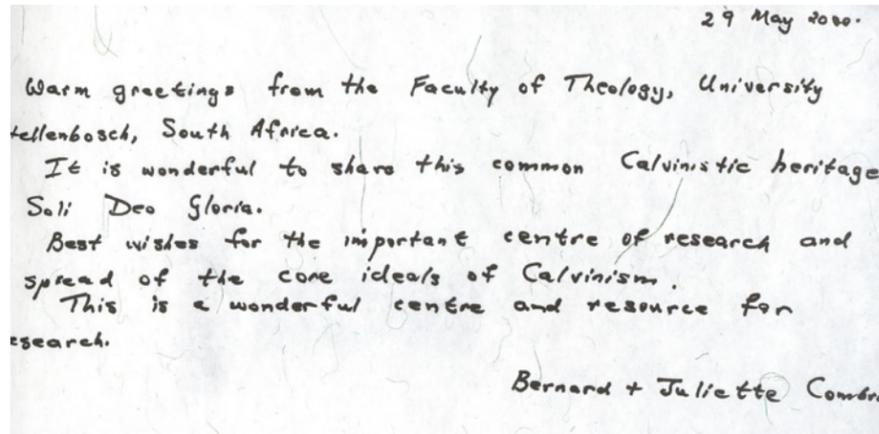
존 홀스트(John Hulst)

오랫동안 기독교 개혁교회(C. R. C)에 속한 돌트 대학(Dordt College)의 총장으로 일했다. 은퇴한 후에는 기독교 대학 연맹(IAPCHE)의 회장 또는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칼빈주의자로 대학에서 어떤 학문을 하든지 기독교 세계관 또는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고민하고, 뜻 있는 개혁교회의 동참과 조직을 격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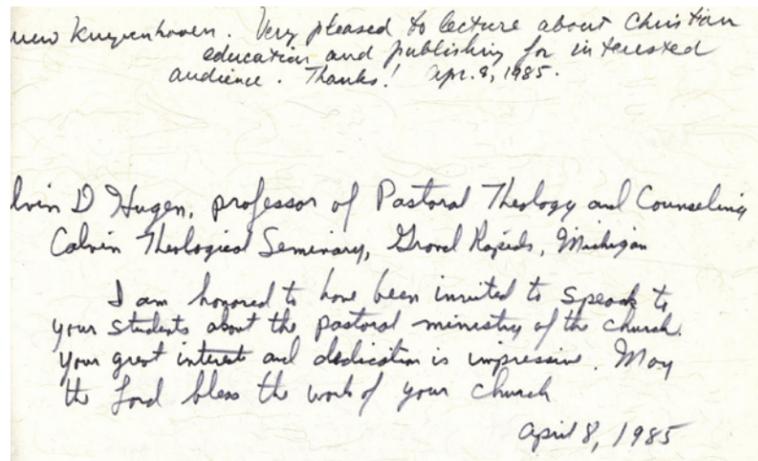
콘브링크(B. J. Conbrink)

남아공화국의 스텔렌 보쉬(Stellenbosh) 대학교의 교수로서 신학부의 학장을 역임하였으며, 개혁주의 신학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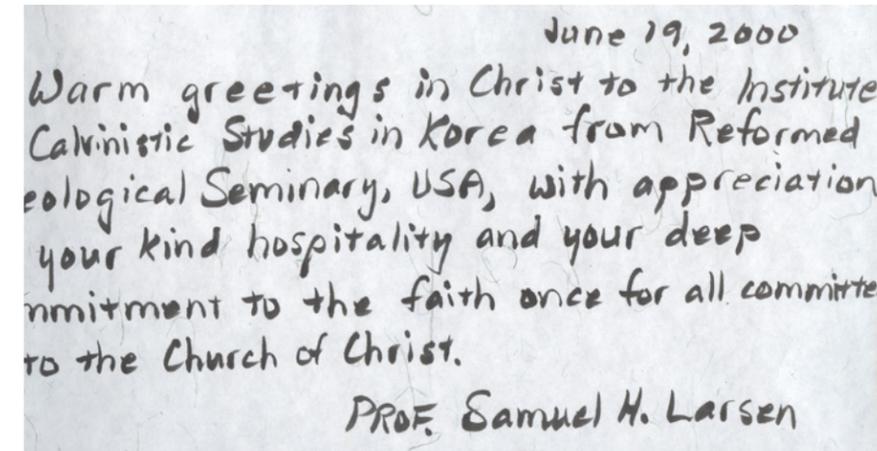
멜빈 휴겐(Melvin D. Hugen; 1931-)

미국 칼빈신학교 실천신학(목회학)교수로서 1959년 <미혼 노인들에 대한 교회의 사역>으로 자유대학교로부터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목회학 교수인 휴겐은 목회자란 심리학자가 아니라 영혼을 돌보는 자(Caregiver)로 정의했다. 성경적 양질의 신학이 효과적 목회의 근거가 된다고 했다. <언약 지키기> 등 몇 권의 저서와 다수의 논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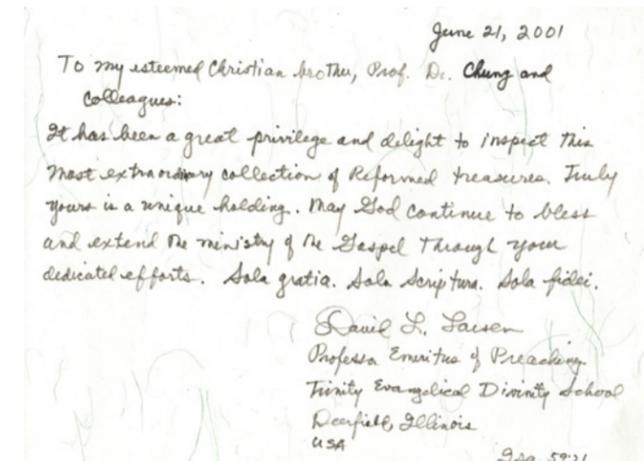
삼우엘 라센(Samuel Larsen)

미국 개혁 신학교(R.T.S)의 부총장 겸 선교학 교수로서 해군 장교를 거쳐 카브난트 신학교, 개혁 신학교에서 D.Min 그리고 트리니티 국제 대학교에서 Ph.D. 학위 받았다. 한국 등의 D. Min 프로그램에 열성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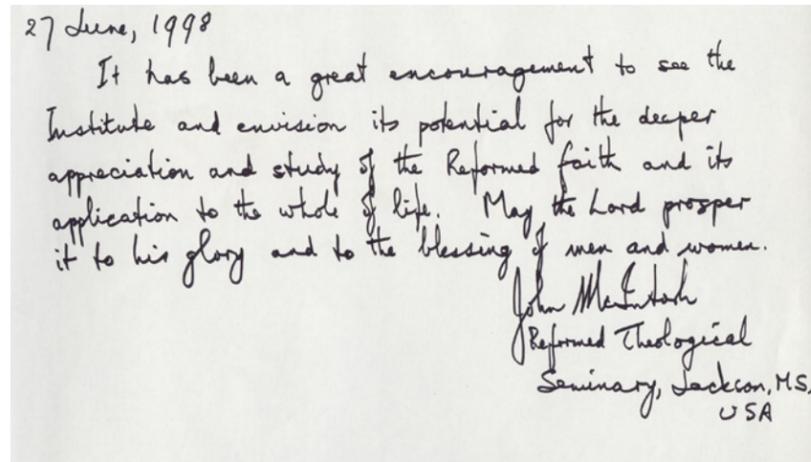
데이비드 라센(David L. Larsen)

데이비드 라센 박사는 시카고의 트리니티 복음주의 대학교에 실천신학 특히 설교학 교수를 지냈다. 스텔포드대학과 풀러신학교를 졸업하고 트리니티 대학에서 D. D. 학위를 받았다. 대표적 저서로는 <설교자들의 친구> 등 방대한 설교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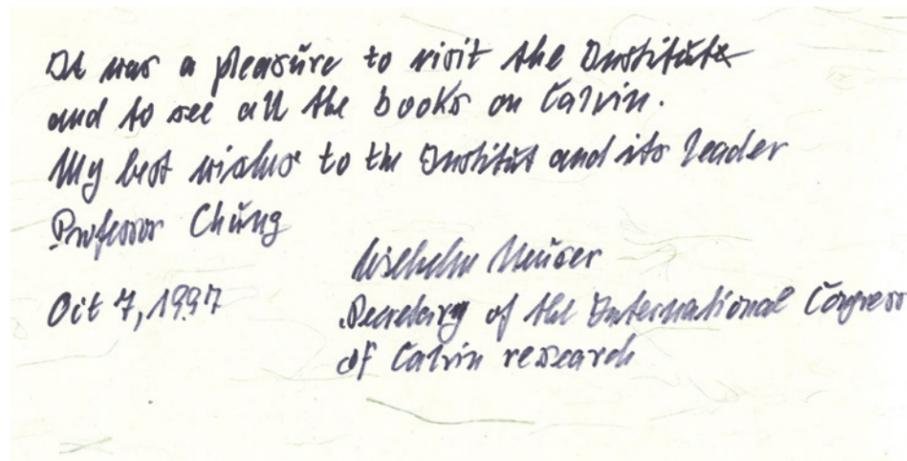
존 맥킨토쉬(John McIntosh)

미국 미시시피주 잭슨의 개혁신학교(R. T. S) 교수 역임했다. 맥킨토쉬 박사의 꿈은 개혁 신학이 삶의 전 영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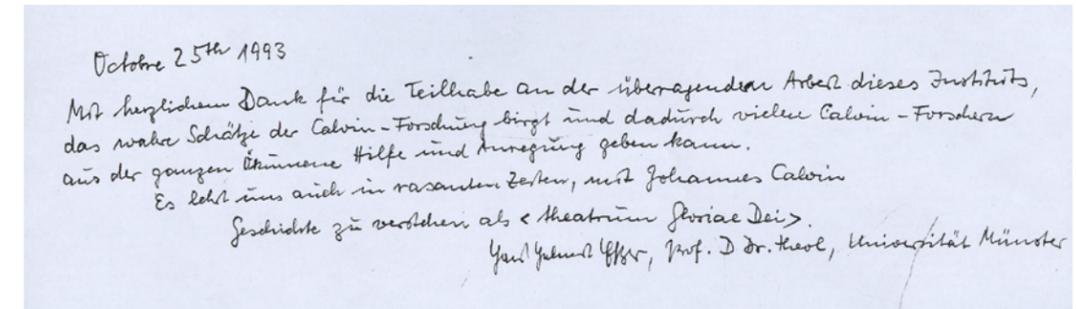
빌헬름 노이저(Wilhelm Neuser: 1926-)

세계적 칼빈연구의 대가. 1972년 「세계칼빈학회」를 조직하고 약 20여년 가까이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필립 멜랑톤 신학에 대한 평가>로 박사학위를 <멜랑톤의 성만찬 교리>로 교수자격 취득, 평생 뮌스터 대학의 교수로 일했다. <칼빈> <츠빙글리에 의한 종교 개혁의 변화> 등의 저서가 있고, A. Tholuck의 <칼빈전집>을 수정 보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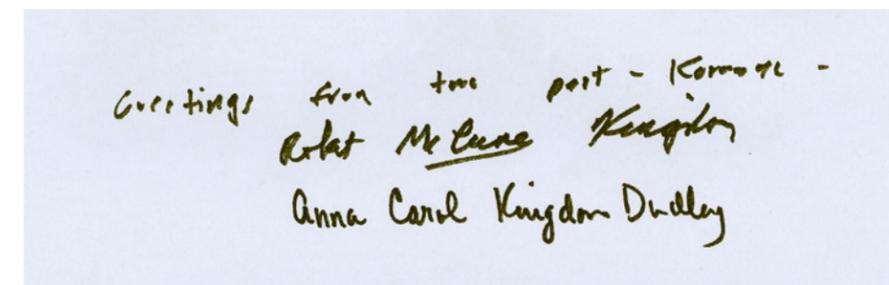
한스 H. 에셀(Hans Helmud Esser)

독일의 개혁주의 신학자. 게팅겐 대학교수. 뮌스터대학교 교수를 지냈다. 칼빈연구가로 칼빈에 대해서 200여 편의 논문이 있고, 특히 칼빈의 <Imago Dei>에 관해 많은 연구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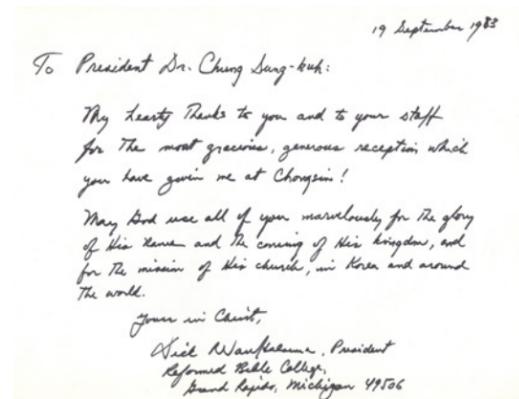
로버트 킹던(Robert M. Kingdon)

미국의 칼빈 연구가이며 역사학자로서 오벌린 대학, 제네바 대학교, 콜럼비아 대학교에서 수학했고, 스텐포드 대학, 위스콘신 대학교를 교수 역임했다. <1555년부터 1563년까지 프랑스 종교전쟁과 제네바> <칼빈의 제네바 콘시스토리> <칼빈시대의 제네바 목사회 명부> 등의 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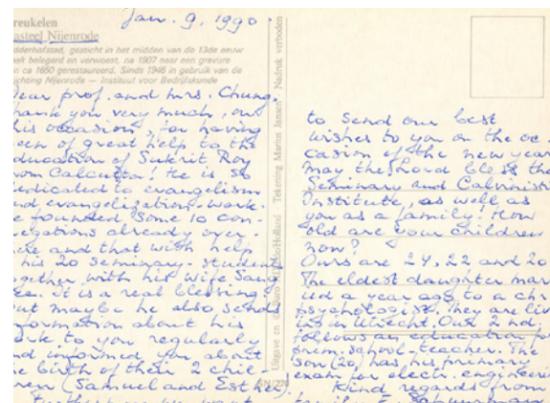
반 할세마(Van Halsema)

미국의 Reformed Bible College의 총장을 지냄. (현재는 A. Kuyper College로 명칭이 변경) 멕시코에 기독교 개혁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일했다. 프린스턴에서 선교학 Ph. D.를 받은 개혁주의 선교신학의 주역이며, 선교학 잡지인 <Mission Monthly> 편집장으로 개혁주의 선교이론과 실재를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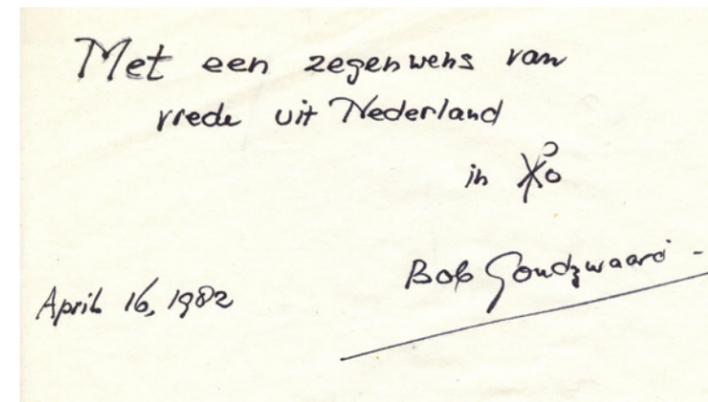
슈크르만(E. Schuurman)

화란 자유대학교 칼빈주의 철학교수이며 네덜란드 상원의원 이다. 델프트 공과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으나 델프트 공과 대학 출신으로 기독교 철학자가 된 Dr. H. Van Riessen의 제자가 되어 <기술과 문화>로 철학박사가 되고 자유대학교 철학부에서 교수로 일했다. 철저한 칼빈주의 신학과 세계관으로 미국과 유럽에 잘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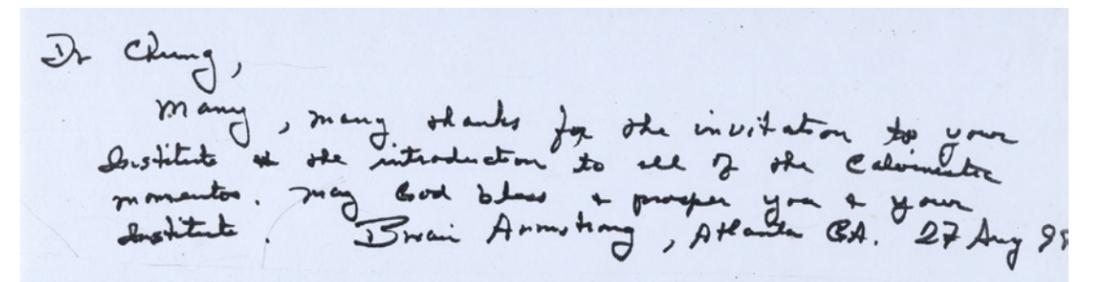
B. 하우스바르트(BoB Goudzwaard; 1934-)

네덜란드의 칼빈주의적인 경제학자이며 정치가, 로텔담 대학에서 Ph.D.를 받은 후 아브라함 카이퍼 재단 연구원, A. R. P 정당의 하원의원, 자유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임했다. <그리스도인의 정치적 선택, 1969> <자본주의와 진보사상> <현대, 이상, 이데올로기> <과도하게 발달된 서구를 위한 도움> 등의 저서가 있다. 그는 이 저서들에게 학문도 정치도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론을 전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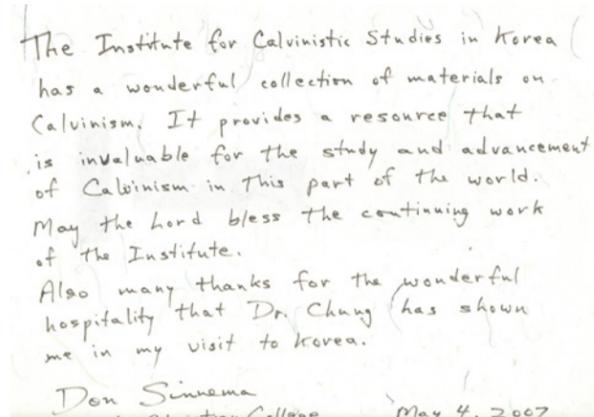
브라이언 암스트롱(Brian G. Armstrong)

미국 아틀란타의 조지아 주립대학교 역사학 교수로 세계 칼빈학회 회장. 미국 칼빈 학회 회장 등을 거치면서 <칼빈 신학에 있어서 형식, 구조, 목적에 관련한 문제> 등의 칼빈 연구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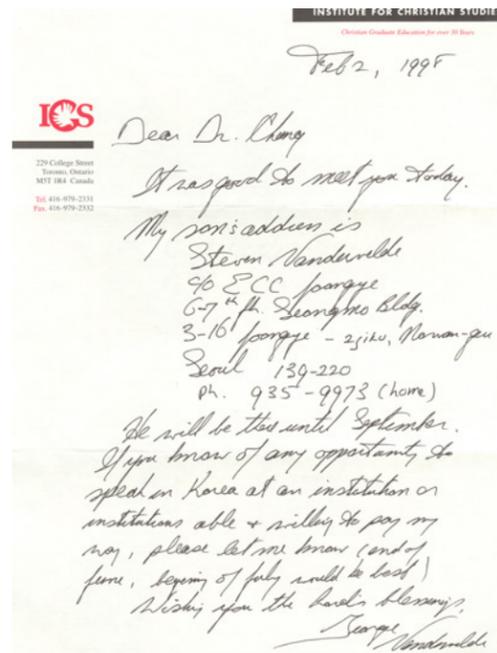
돈 신네마(Donarl W. Sinnema; 1947-)

현재 미국 시카고의 트리니티 기독교대학 신학부 교수로 있다. 기독교 세계관 연구에 탁월할 뿐 아니라, 칼빈주의 5대 교리를 결정한 돌트 총회와 돌트 신경(Dordt Synod and Dordt Cannon)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얻었다. <땅의 개간: 여호수아 연구, 1977>을 비롯해서 여러 개혁주의 신학자들과 공저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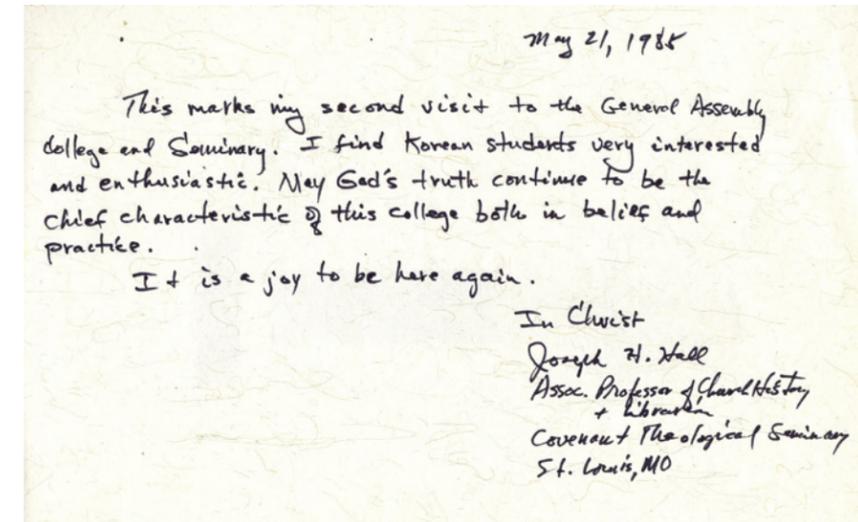
조지 반더벨더(George Van der Velt)

캐나다 토론토의 기독교 학문 연구원 교수이다. 칼빈신학교를 졸업하고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위클리프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기독교 학문 연구원의 조직신학교수로 부름 받았다. 그의 관심 분야와 전공분야는 구원론, 종말론, 성령론, 교회론이다. 대표적 저서는 <원죄: 현대 로마 가톨릭의 재해석에 있어서의 두가지 중요한 경향들>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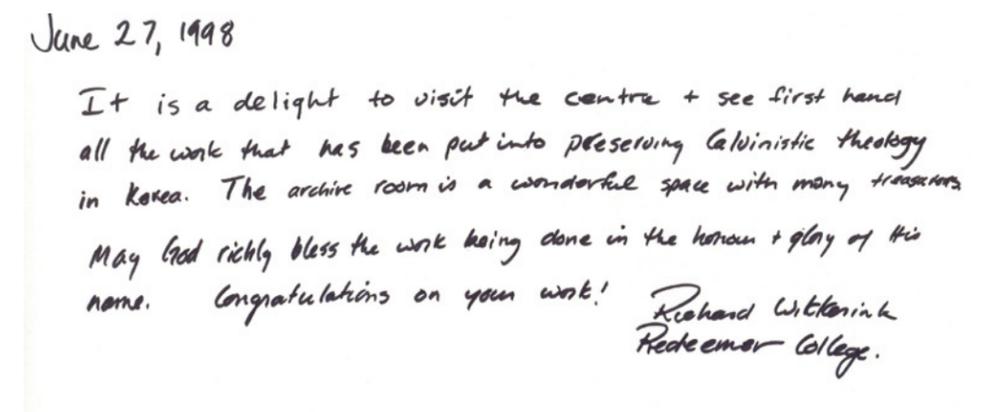
조셉 홀(Joseph H. Hall)

미국 세인트루이스에 있는 P.C.A 교회의 총회 신학교인 카브난트 신학교 (Covenant Theological Seminary)의 교수와 도서관장을 역임했다.



리처드 윙켈링크(Richard Winkkeri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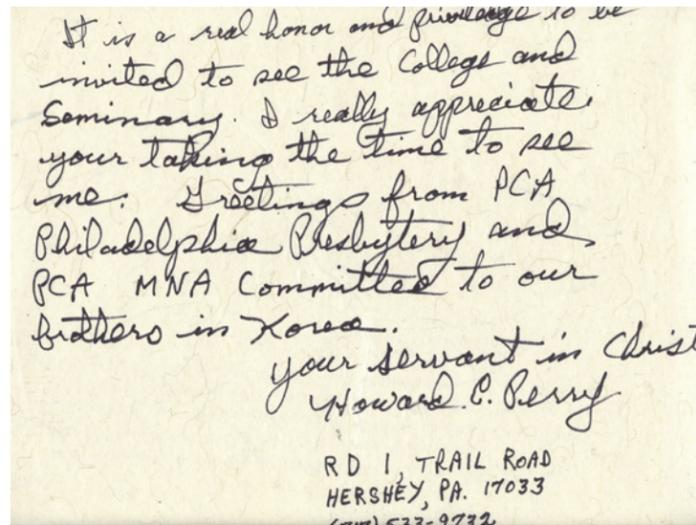
캐나다 동부에 있는 리디머 대학 (Redeemer College)의 교수처장을 역임했으며, 리디머 대학은 북미주 C.R.C 교단 소속의 학교로 철저한 칼빈주의적 세계관으로 교육하고 있다.



하우워드 페리(Howard Per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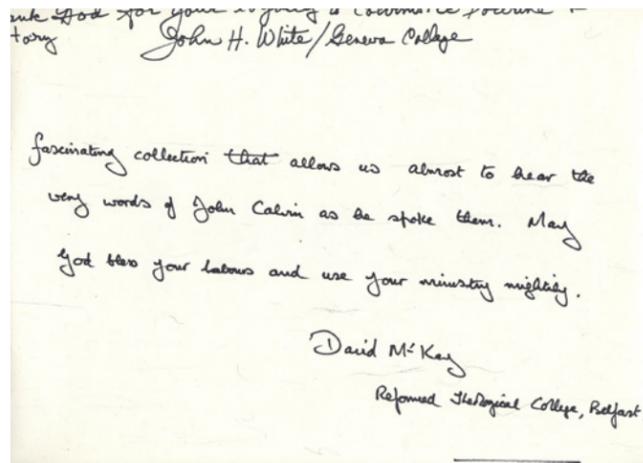
미국 장로교회 (P. C. A) 필라델피아 교회 목사이다.

※ P. C. A 교회는 보수주의적이면서 복음적 교회이다. 프란시스 웨퍼의 주도로 설립되었다. R. T. S. 와 카브난트 신학교 등이 여기 속한다.



데이비드 맥카이(David McKay)

아일랜드 벨파스트에 있는 개혁신학대학(Reformed Theological College)의 교수로서 칼빈연구가이며 세계 칼빈학회 회원이다.



피터 포트기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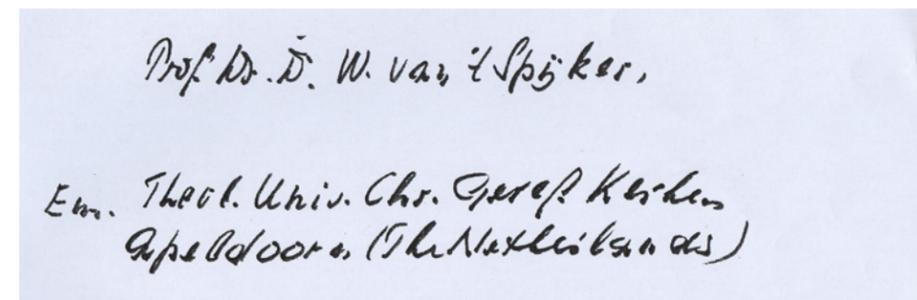
(Pieter C. Potgieter; 1940-)

프레토리아 대학교 조직신학 및 윤리학 교수 역임했으며, 오렌지 자유 주립대학교 조직신학교수로 학장을 역임하였다. 그의 관심분야는 그리스도의 통치, 정치 윤리, 국가 권위에 대한 윤리, 전쟁과 평화에 대한 섭리, 칼빈의 서신에 나타난 섭리 등이다. 교수로서 활동 외에 <남아프리카 산학 협회> <남아프리카 과학과 예술 아카데미> <국제 칼빈 연구 학술 대회>에 참여했다. <성경, 교의, 화해> <성경적 신학자 칼빈> 등 많은 저술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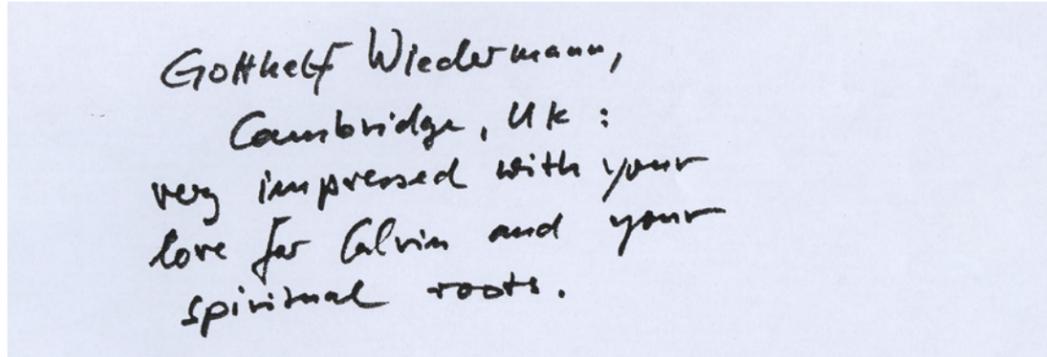
완트 스페이커(W. Van't Spijker; 1926-)

화란의 아펠돈 신학대학의 교회사 교수. 칼빈 및 종교개혁사 연구가이다. 20년간 기독교 개혁교회에 목회하였으며, 1971년 자유대학에서 <마틴 루터의 직분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 칼빈 연구원> 종신회원으로 <종교개혁과 역사> 등 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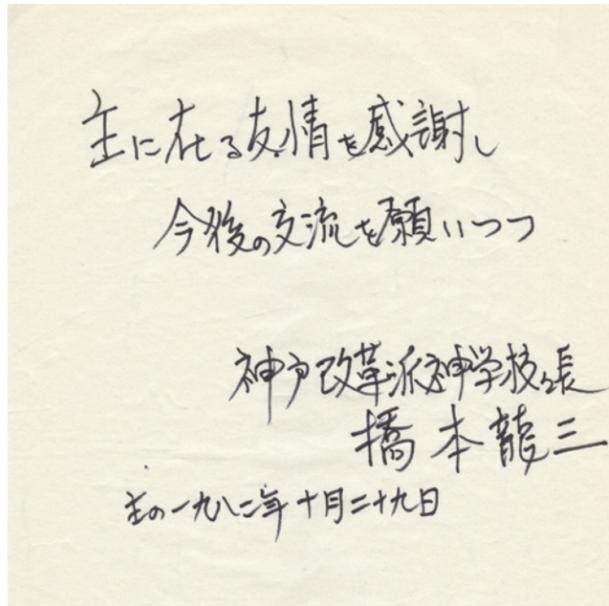
비데르만(G. Wiedermann)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이며 칼빈 및 종교개혁사 연구를 하였으며, 국제 칼빈학회 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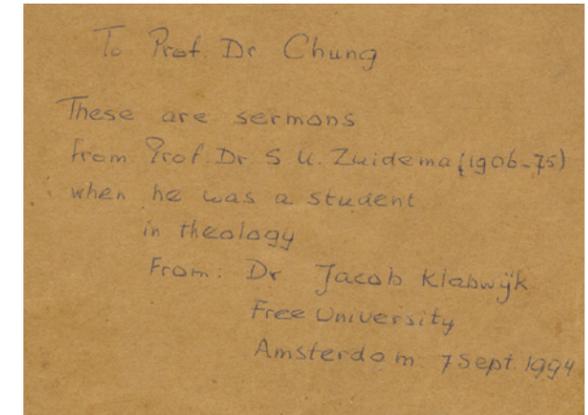
하시모도(R. Hashimodo 橋本龍三; 1929)

일본의 대표적 칼빈주의 신학자로 일본 칼빈협회 회장과 일본 고베 신학교 교장을 오래 동안 지냈다. 세계 개혁주의 교회에 잘 알려진 인물이며 한국교회를 많이 방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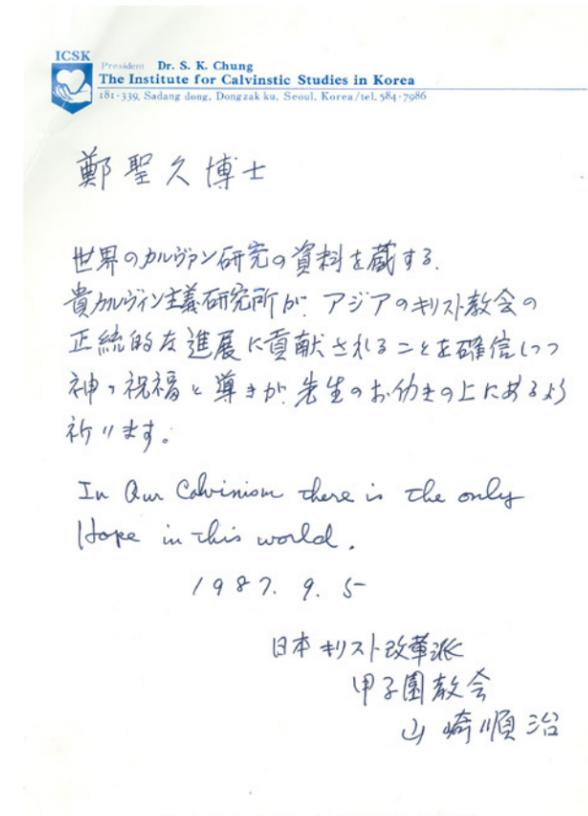
야곱 클랍베이크(J. Klapwijk; 1933-)

클랍베이크는 철저한 칼빈주의 신앙을 가진 가정에서 출생하였으며, 1960년에 자유대학 신학부를, 1970년에는 철학을 공부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실천신학교수로서 칼빈주의 사상의 전도자 역할을 했다. 특히 <토롤취의 상대주의 사상>을 비판하는 책을 썼다. 그는 학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적 신앙이 앞서야 할 것을 주장했다.



야마자키 준치(山崎順治)

일본 개혁교회 목사. 고베 신학교 실천신학교수이며 일본개혁교회의 목사로서 총회 전도국장을 지냈다.<요리문답강해>등의 저서가 있고 많은 논문들을 발표한 지한파이다.



에번 러너(H. Evan Runner; 1916-)

미국의 걸출한 칼빈주의 철학자로 칼빈 대학의 철학교수이며 휘튼대학,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자유대학에서 H. Dooyeweerd와 Vollenhoven에서 사사하고 북미에 칼빈주의 철학의 전도자가 되었다. 1956년 <개혁주의 학문 연구회>, 1967년 <기독교 학문 연구회> 설립을 주도했다. S. G. De Graaf의 <언약사>를 <약속과 구원> 이름으로 영역했고, 이 책은 또한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

December 10, 1990
Dear Dr. Chung,
How wonderful that God came in the flesh! Would love to hear from you. How is your work developing?
We spent last summer in the Netherlands again. In January I'll be 75. I praise the Lord for His goodness, His faithfulness. Greetings from Evan + Ellen Runn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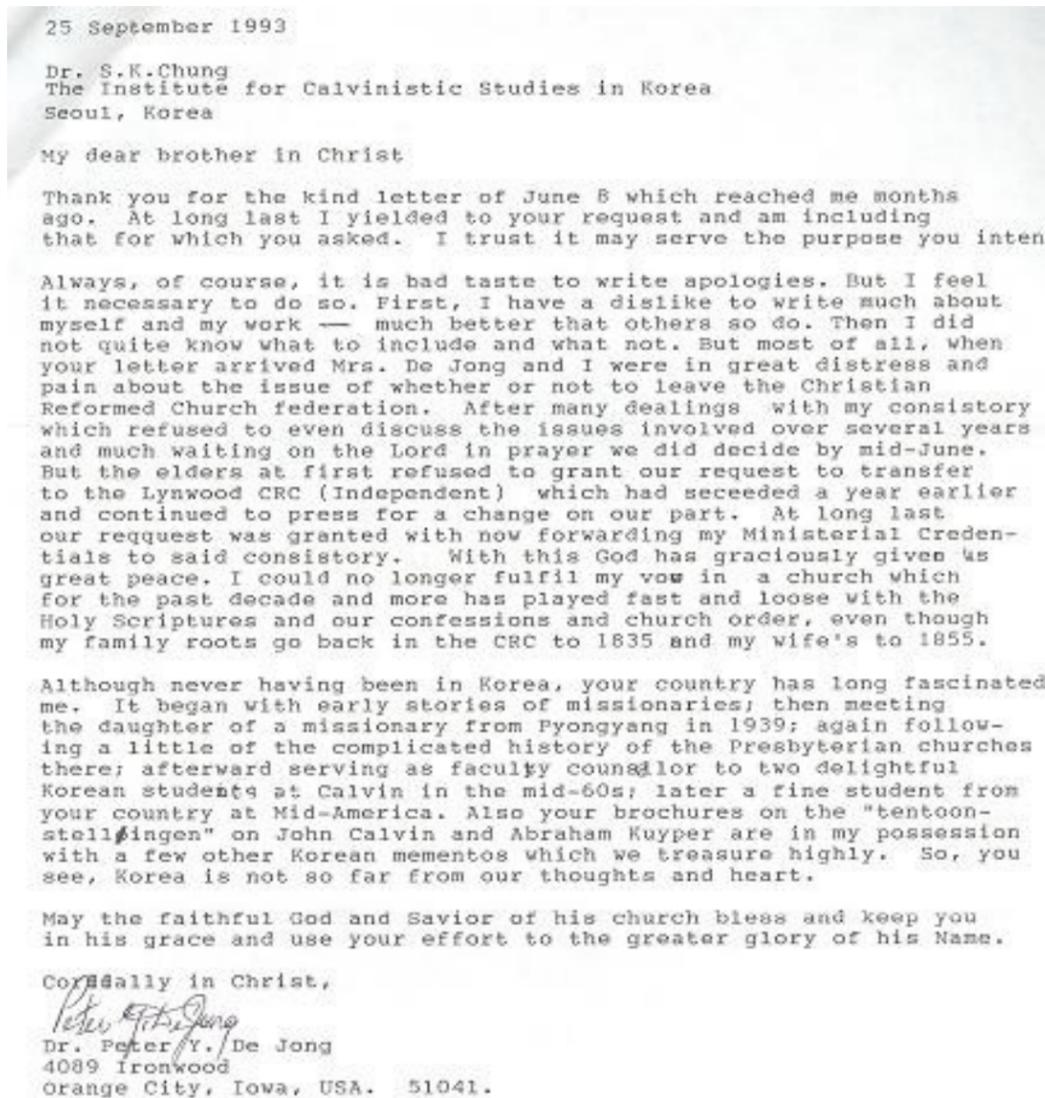
제임스 더 용(James A. De Jong; 1941-)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이며 칼빈 신학교의 역사신학 교수로서 20여 년간 칼빈 신학교의 학장을 역임한 행정가이기도 하다. 또한 트리니티 기독교대학 및 돌트 대학 교수를 거쳐서 칼빈신학교 학장으로 지냈다. 세계 칼빈학회 회원이며 세계 칼빈학회 총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정세우기> <개혁주의 예배에 대한 견해> 등의 저서가 있다.

calvin theological SEMINARY
OFFICE OF THE PRESIDENT 3233 BURTON STREET, S.E. GRAND RAPIDS, MICHIGAN 49546
616-957-6086 FAX 616-957-8551
June 27, 1990
Dr. S. K. Chung
181-339, Sadangdong, Dongzakku
Seoul, Korea
Dear Professor Chung:
The Fifth Quadrennial International Congress on Calvin Research is approaching very quickly. We at Calvin Theological Seminary eagerly anticipate hosting this event.
I write now in regard to the morning worship services which will begin each day of the Congress, inviting you deliver a brief meditation on Thursday, August 23. I am confident that the Congress will be well served by your participation and I personally look forward to your involvement.
Each of these twenty-minute services will be based on a Psalm. The given Psalm of the day will suggest the form, the music, and the meditation text for the day's service. The Psalm of the day for Thursday is 47. We ask then that you base your meditation on Psalm 47:5. We suggest that your meditation be no longer than eight minutes in length.
Upon your arrival on campus, you will be contacted by John Witvliet, Coordinator of Worship at Calvin College and a student at Calvin Seminary, whom I have asked to plan and coordinate these services. Any last minute details can be discussed at that time with him.
If for any reason you cannot accept this invitation, please let me know before July 31 so we can make alternate arrangements. Thank you for your help in making this aspect of the Congress successful.
Sincerely yours,
James A. De Jong
President
JADJ:gk
cc: Mr. John Witvli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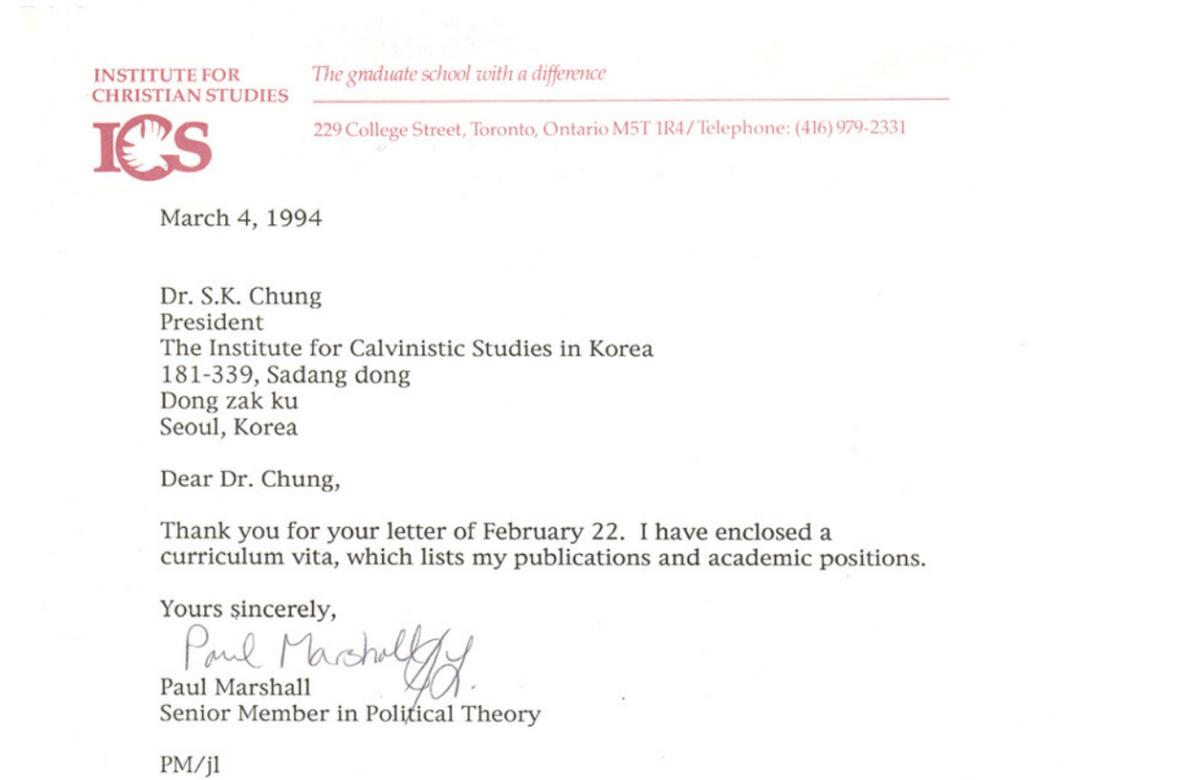
피터 더 용(Peter Ymen De Jong; 1915-2005)

미국 개혁교회의 대표적 목회자이며 신학자. 칼빈신학교의 실천신학 교수를 역임했으며 James De Jong의 아버지가 된다. 교단 총회의 중추적 역할 뿐 아니라 많은 잡지의 기고자였다. <기독교 개혁 교회> <회중에 유의하기> <기독교적 삶> <현대를 위한 자비의 목회> <대위임 명령에 대한 순종> <개혁교회의 위기> <돌트총회 기념논문> <하이델베르크 문답에 대한 설교> 등의 많은 저서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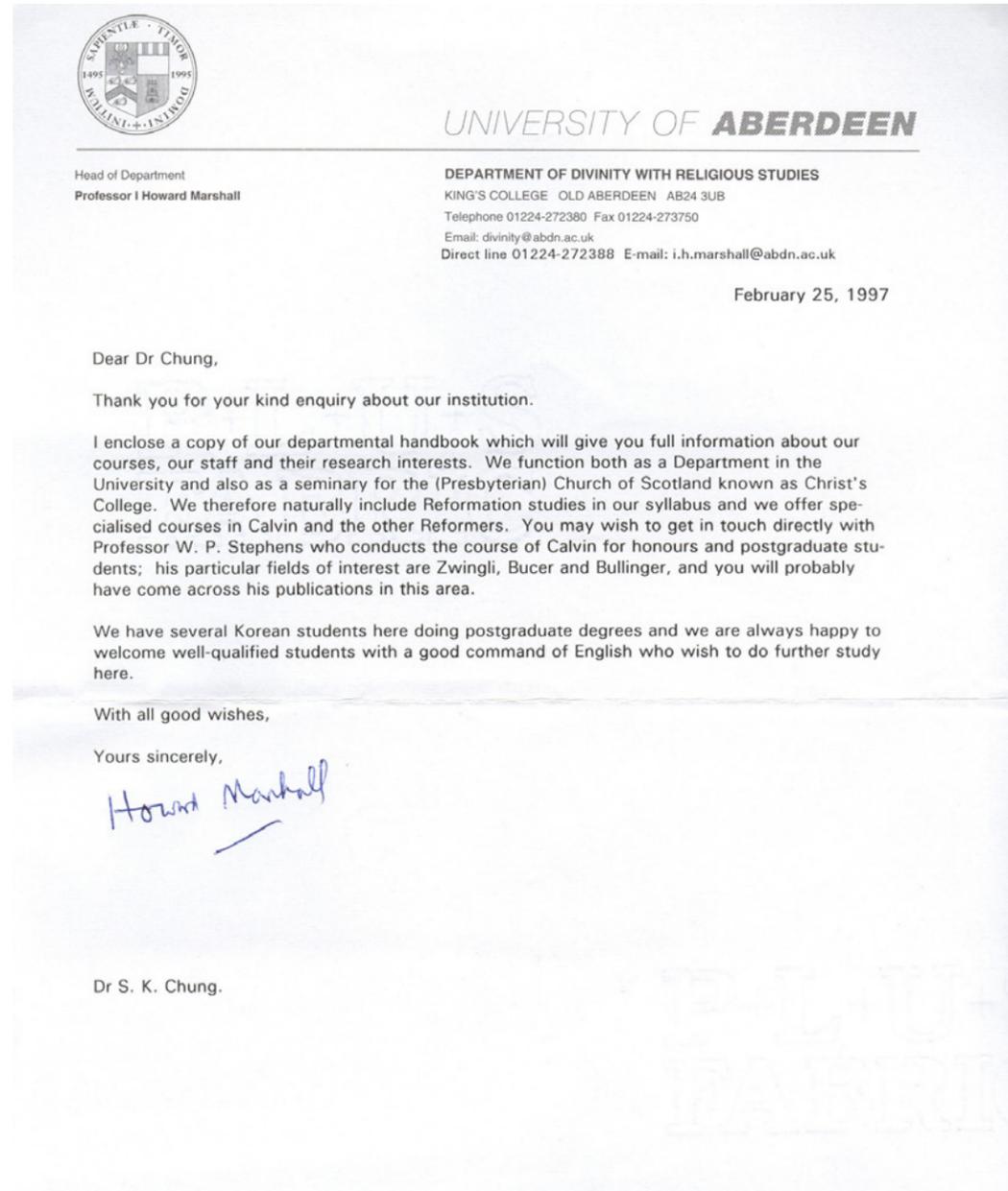
폴 마샬(Paul A. Marshall; 1948-)

세계적 칼빈주의적 정치학자. 영국 리퍼폴 출생으로 만체스터 대학을 마치고 캐나다 토론토의 육크 대학에서 Ph.D.를 했다. 그는 토론토의 기독교 학문 연구소의 교수로서 H.H.Meeter의 저서 <칼빈주의>에 22, 24, 25장을 추가했다. <사랑의 노동> <기독교 관점에서 본 인권이론> <그 나라는 너의 것이다> <선정된 평론> <칼빈주의 정치이론은 존재하는가> <천국만이 내 집이 아니다> 등 많은 저서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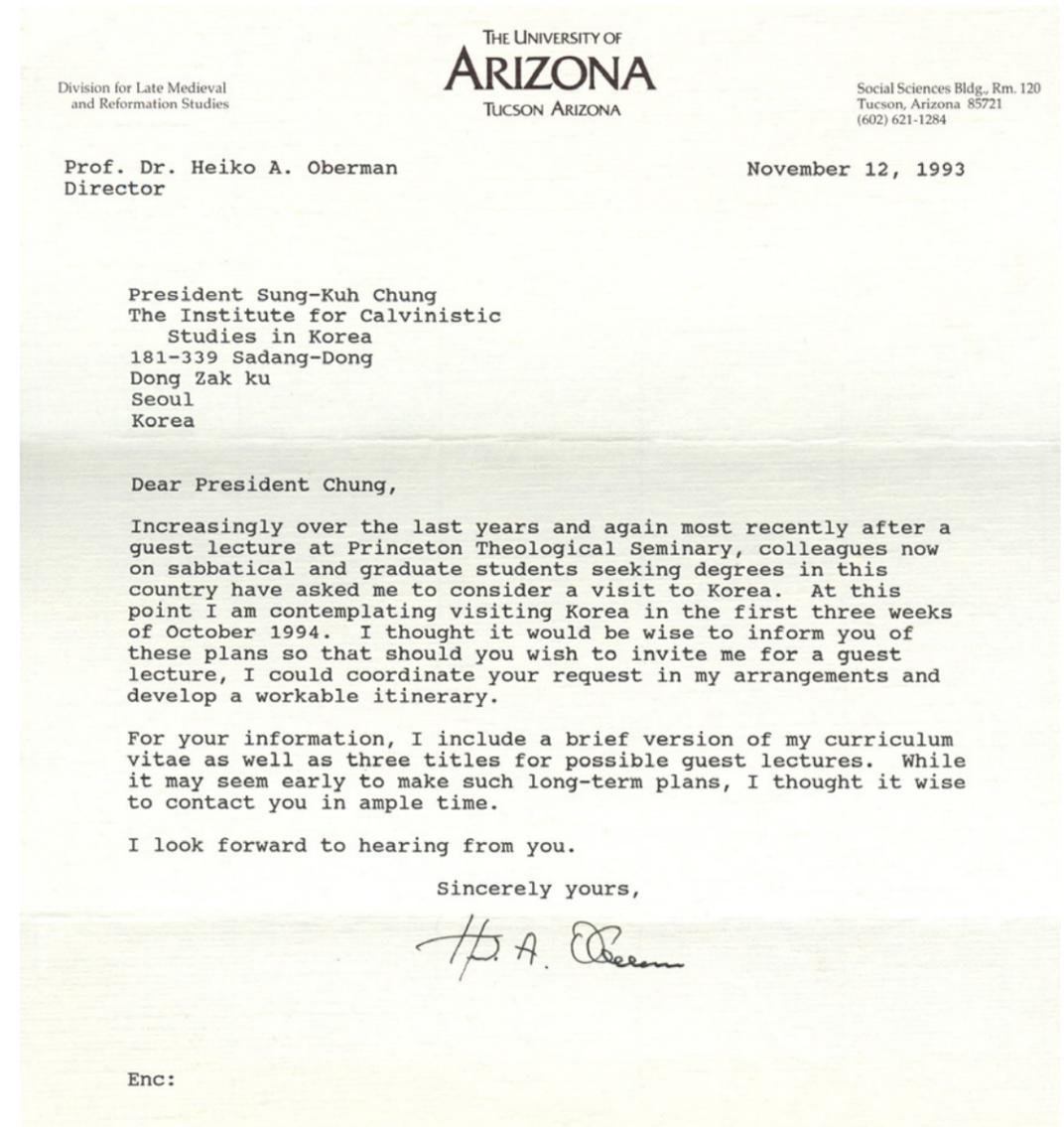
하우워드 마셜(I. Howard Marshall)

Kings College, Aberdeen University에서 신약해석학 교수로 있다. 그는 그곳에서 고전어와 신학을 공부했다. <헬라이어 누가복음(1978) 및 사도행전 영어사본(1980)에 대한 주석> <사도행전 연구> 등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대한 글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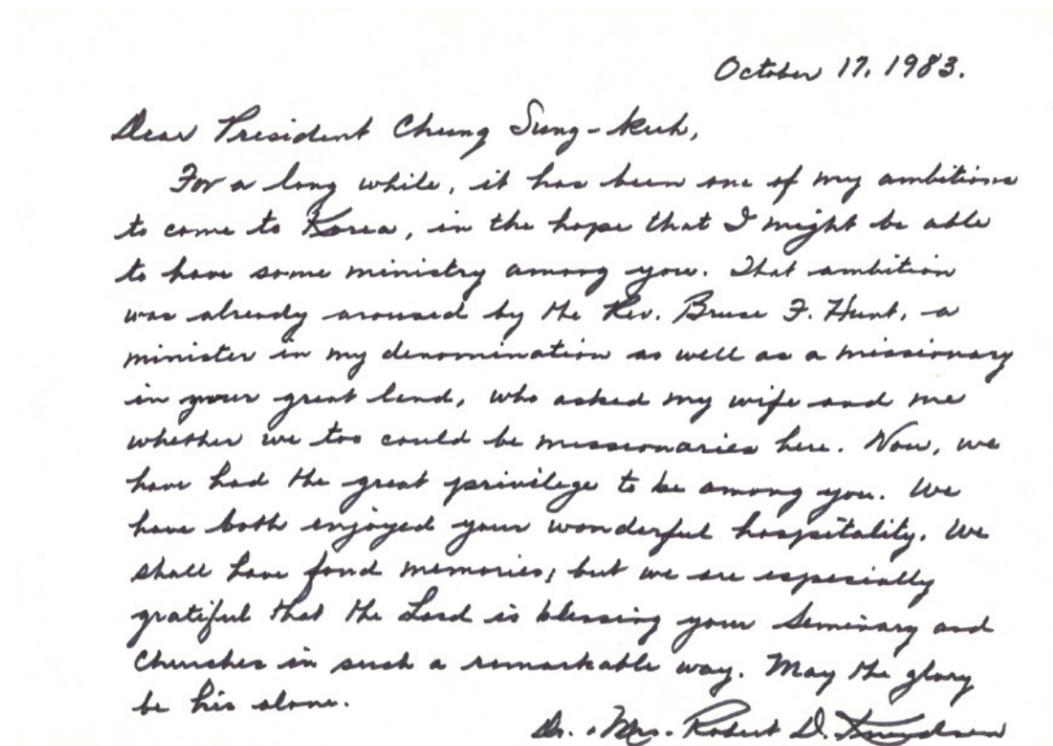
H. A. 오버만(Heiko A. Oberman; 1930-)

중세후기와 종교개혁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이다. 네덜란드의 우트레흐트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대학교, 아리조나 대학교의 교수, 쉐리히 대학교 객원 교수, 튜빙겐 대학교 교수로 <중세 말엽과 종교 개혁기 연구소> 소장을 지냈고, <종교개혁연구협회> 등에서 일했다. <기독교 사상사 연구> <종교개혁의 선구자들> <칼빈의 종교개혁의 모델> <종교개혁의 영향> 등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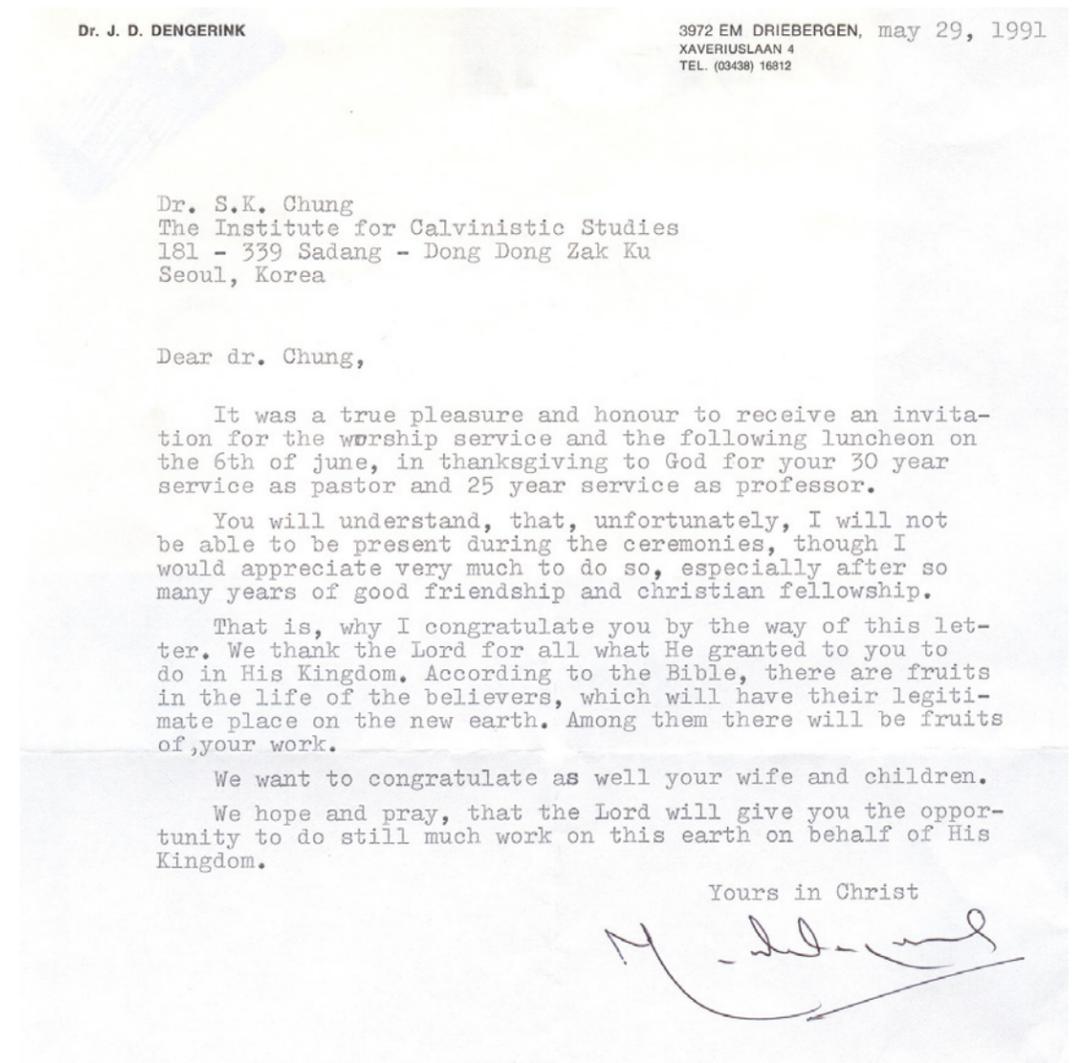
로버트 누슨(Robert D. Knudsen)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교수 역임했다. 도예베르트 아래서 박사학위를 받고 변증학 교수가 되었으나 선배인 C. Van Til박사에 가려 세계적 학자로서 면모는 못 갖추었으나 칼빈주의 세계관 정립에 평생을 바쳤다. <칼 야스퍼스의 철학에 있어서 초월의 개념> <세속적 학문과 기독교의 만남> <심리학> <기독교 신앙과 현대신학> <현대신학의 창조적 지성들> 등이 있다.



얀 덴그링크(Jan D. Dengerink)

네덜란드의 그로닝겐 대학과 우트레흐트 대학의 기독교 철학교수 역임했다. 일찍이 도예베르트 아래서 <영역주권 사상 연구>로 학위를 받았다. 1948-1972년까지 자유대학에서 이사회 총무서기로 일했으나 늦게 우트레흐트 대학에 교수로 부름 받았다. P. Marcel 박사와 함께 국제 개혁주의 신행협회를 이끌었으며 여러 번 회장을 역임했고 많은 글이 Philosophia Reformata와 Reformed Bulletin에 소개되었다.



R. 프랭크(R. Frank)

미국 칼빈대학 역사학 교수와 학장을 지냈으며, H. 헨리 미터 칼빈 연구원 설립위원회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했다. 1969년 반더빌트에서 종교개혁사와 교회사론을 연구하고 Ph.D.를 받았다. 미국 칼빈 연구회, 국제 칼빈연구 학술대회에 활동했다. <기독교 역사 고프트리드 아놀드에 대한 재평가> <종교개혁; 역사 시리즈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모든 세대에게> 외에 많은 저서와 다양한 논문이 있다.

Calvin College and Semin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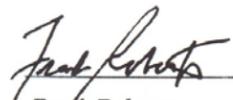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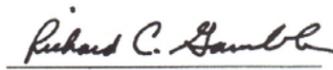
From:
The H. 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To: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With gratitude to God for the vision and initiatives of Dr. S. K. Chung, the Governing Board of the H. Henry Meeter Center for Calvin Studies, Grand Rapids, Michigan, hereby declares that it considers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established by Dr. Chung in Seoul, Korea, a sister institution and pledges to give encouragement and scholarly support to that Institute.

Approved by the Governing Board this date 9 May 1990.


Frank Roberts
President of the Governing Board


Richard C. Gamble
Director of the Meeter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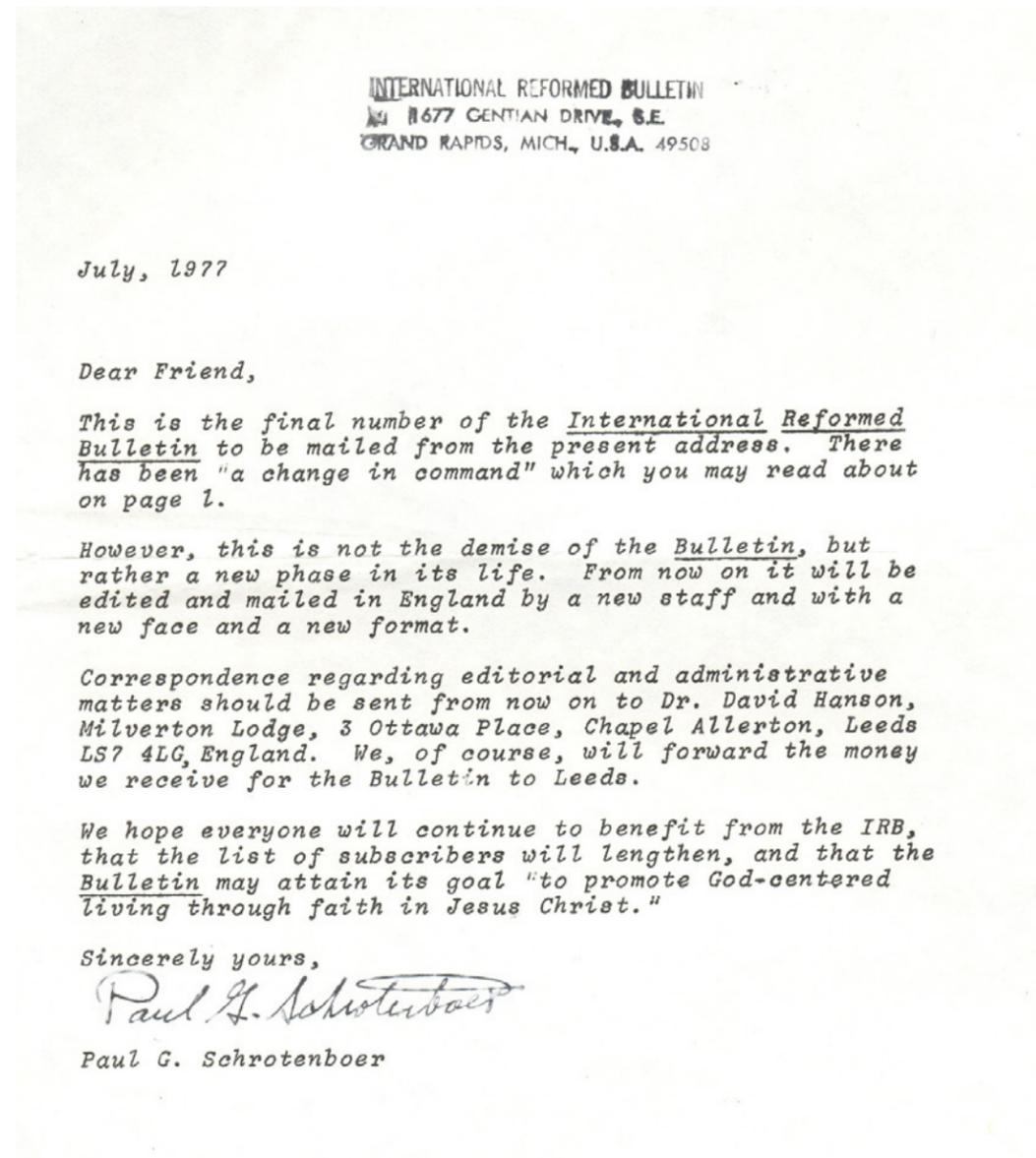
존 브라트(John H. Bratt; 1909-?)

칼빈대학의 역사신학 교수로서 칼빈과 칼빈주의 사상 발전에 평생을 보냈다. 칼빈 대학, 칼빈 신학교, 콜럼비아 신학교(Th.M.), 하버드 대학(Th.M)을 졸업하고 1955년에 <기독교 개혁교회 내에서의 선교의식의 성립과 발전>이란 제목으로 유니온 신학교에서 Ph.D.를 받았다. <신약 입문서> <최후의 회상> <칼빈주의 발전> <칼빈의 유산> 등의 저서가 있다.

Dear Dr. Chung:
Here is the information you requested:
b. Aug. 23, 1909 in Holland, Mich, USA
Education:
Calvin College A.B.
" Theol. Seminary Th.B.
Columbia Seminary Th.M.
Harvard Divinity School, STM
Union Theol. Seminary Th.D.
Career: Teacher of Bible -
Gr Rapids Christian High 1939-42
Minister of Dorr Ch. Ref. Church
Dorr, Mich. 1942-1948
Professor at Calvin College
Gr Rapids, Mich. 1948-1985
Articles: Editor of "Readers' Link" in Banner 1959-1978
Books: New Test. Guide - 1946 - Eerdmans Publ Co
The Life + Teaching of John Calvin -
Pamphlet - 1952 - Eerdmans
The Heritage of John Calvin (ed.) 1973 - Eerdmans
The Rise + Development of Calvinism (ed.) 1959, 1964
Eerdmans
Springboards for Discussion - I - 1970 - Baker Book House
II - 1974
III - 1979
Ch. 13 - "Ecumenicity in the American Setting" in
Perspectives on the Ch. Ref. Church 1983 - Baker
Ch. 13 - "Dutch Calvinism in America" in
John Calvin - by W.S. Reid 1982 - Zondervan Book Co
I would suggest Dr. Joh. Purnus at Calvin Collge, Gr. Mich.
Hope this is satisfactory. Ch. greetings,
Sincerely,
John H. Bratt

폴 슈로텐부르(Paul. Schrottenboer; 1922-1998)

개혁주의 에큐메니칼 대회(Reformed Ecumenical Synod)총무로 25년, 기독교 학문 연구원(Institute of Christian Studies)이사장. 칼빈, 웨스트민스터, 자유대학(Ph.D.)을 공부했다. <새로운 변증학> <신앙과 문제점> <종교의 성격> <에큐메니칼 운동>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갈등과 희망> <학문에의 헌신> 등 많은 저서를 남겼다.



존 반델스텔트(J. Van Der Stelt)

존 반델스텔트 박사는 화란의 자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돌트 대학에서 신학부 교수로 평생을 보냈다. G. Machen과 Van Til 연구에 대한 논문이 많고 신학과 철학에 대한 이해가 깊다. 그리고 개혁주의 대학의 모임인 국제대학연맹의 사무총장으로서 일했고 국제적으로 잘 알려진 강사로도 일했다.



게리트 푸칭거(Gerrit Puchinger; 19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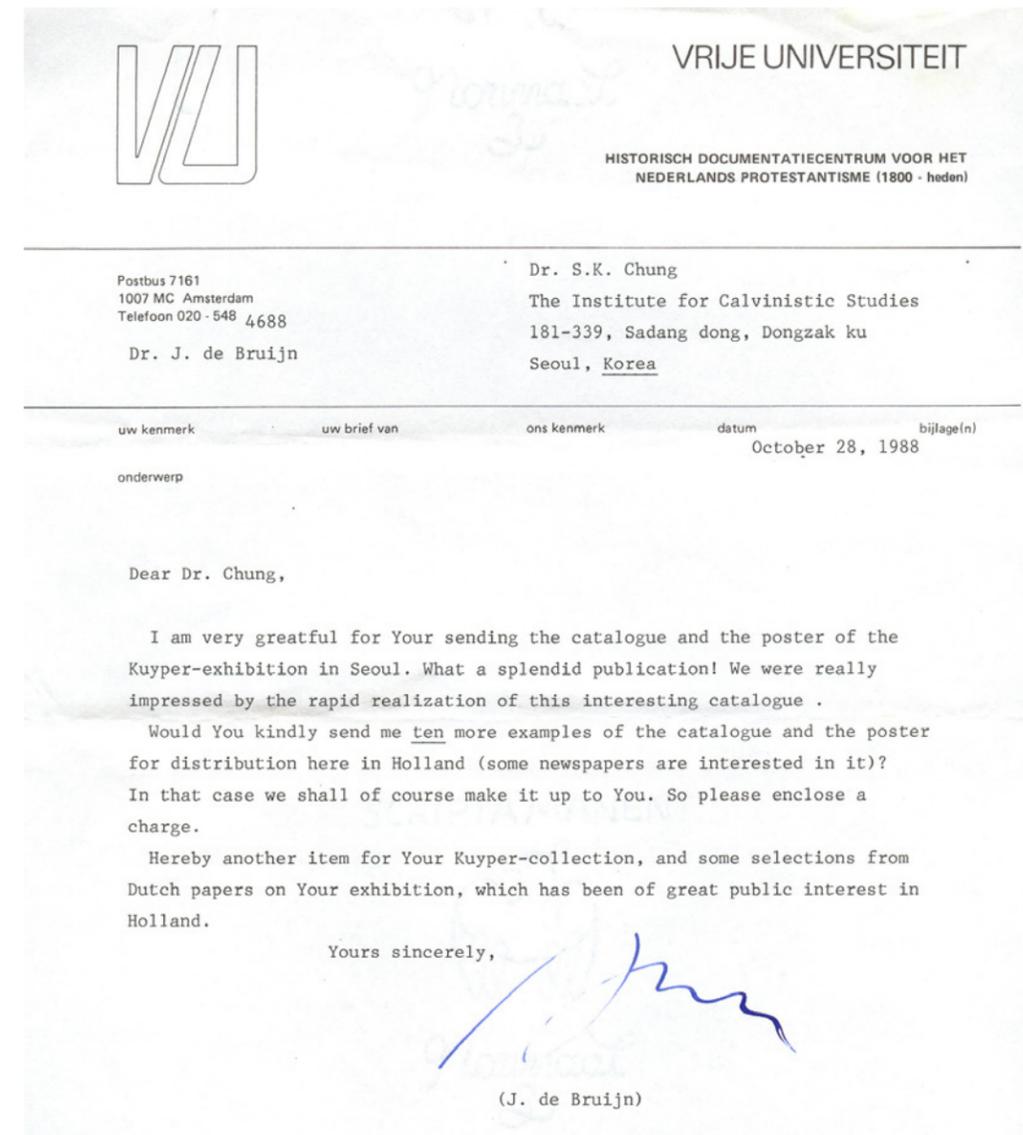
화란의 칼빈주의 역사학자. 자유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학위를 받았다.

1971-1986에는 <화란의 프로테스탄트 역사자료 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화란 왕립 아카데미의 아카데미상을 받고 1998년에는 카이퍼의 스톤강의 기념으로 프린스턴에서부터 제 1회 카이퍼상을 수상했다. <흐룬 반 프린스터> <카이퍼 콜라인, 스킬더> 등의 저서와 1300여 편의 논문과 잡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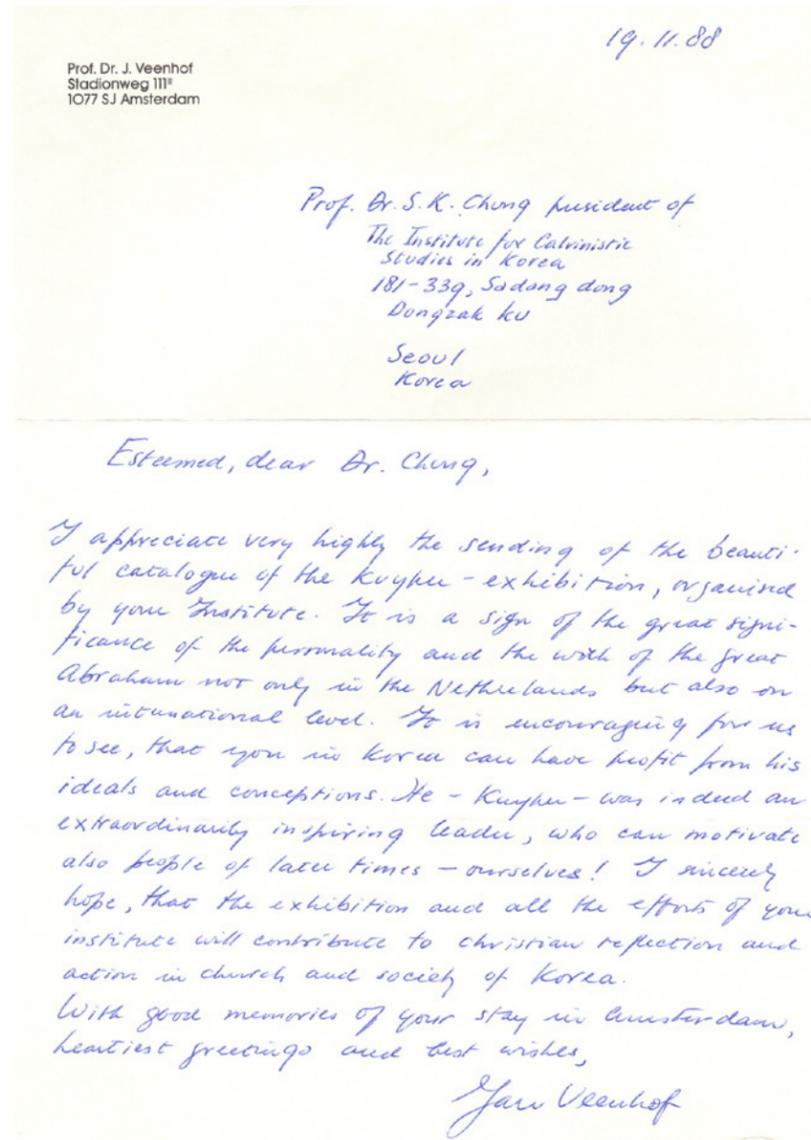
얀 더 브라인(Jan De Bruijn; 1948-)

화란의 카이퍼리안 칼빈주의자. 문학박사. 푸칭거 박사의 뒤를 이어 화란 프로테스탄트 역사 자료 센터 연구소장으로 일하고 있다. 1993년 이후로 자유대학교의 법학부의 석좌교수로서 현재 정치사를 강의하고 있다. 그의 연구대상은 주로 흐룬 반 프린스터와 아브라함 카이퍼에 주력하고 많은 논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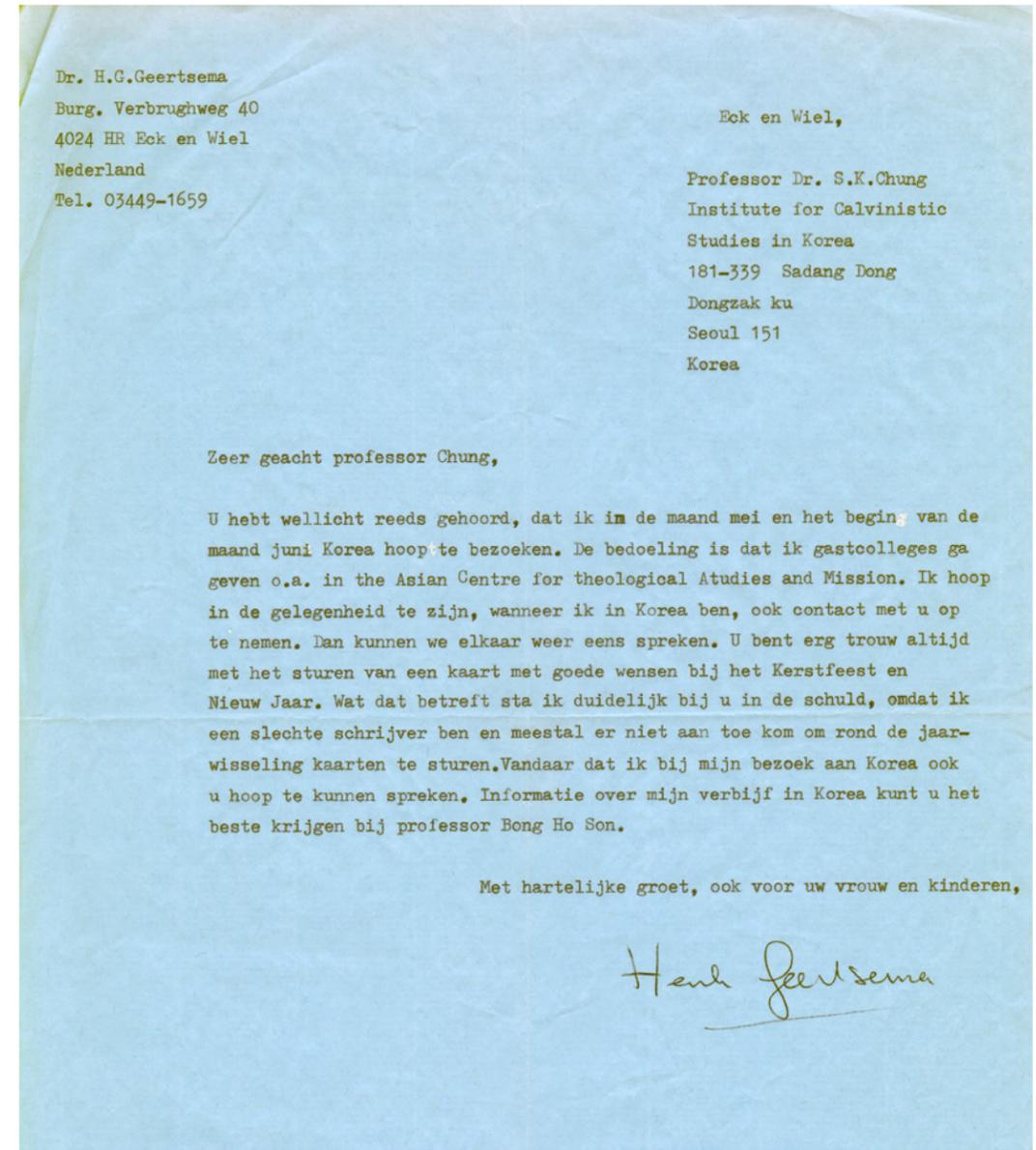
얀 베인호프(Jan Veenhof; 1934-)

스위스 개혁신교회의 목회자,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의 G. C. Berkowwer의 후계자로 조직신학교수이다. 캠펜신학대학을 졸업하고 괴팅겐 대학에서 Otto Weber아래서 <헬만 바빙크의 계시관과 성경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J. G. 불더링크의 신학> <하나님의 동역자:스킬더> <스킬더의 삶과 사역> <카이퍼와 바빙크의 신학적 영향> <보혜사> <성령과 삶> <성령의 사역> <성령과 해석> <성령과 성경> 등 수많은 저서들이 있다.



헨크 헤이쯔마(Henk Geertsema)

헤이쯔마 박사는 네덜란드의 대표적 칼빈주의 철학자이다. 신학과 기독교 철학을 공부한 헤이쯔마 박사는 1980년 Dr. Zuidma 박사 아래서 <울린켄 몰트만(U. Moltman)의 역사에 대한 신학적 사고의 문제점과 철학적 배경>이란 제목으로 D. Phil을 받고 자유대학 철학부 교수로서 현대철학과 신막스주의를 칼빈주의적 관점에서 비판했다.



토마스 토렌스(Thomas F. Torrance; 1913-?)

스코트랜드의 대표적 신학자. 교의학 및 교회사. 에딘버러 대학. 뉴칼리지 바젤 등에서 수학. 목회와 교수로서 또는 1976년에 스코트랜드 장로교회 총회장 역임.

〈에딘버러 왕립학회〉〈영국 아카데미〉〈존 칼빈 신약주석 총서〉 공동편집인.

〈왕국과 교회〉〈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신앙의 학교〉〈신학과 재구성〉〈신학과 과학〉〈존 칼빈의 해석학〉등 다양한 저서들이 있다.

Klempa, Presbyterian College, Montreal, who wrote a superb dissertation for me on Calvin's Doctrine of the Atonement, which has never been published; and also the Rev. Dr. Abd-El-Masih Istafanous, whose work on Calvin's Doctrine of Biblical Authority is due to be published (I think with the help of the American Bible Society in New York). His address is: 117 Mirghani St. Heliopolis, Cairo 1134, Egyp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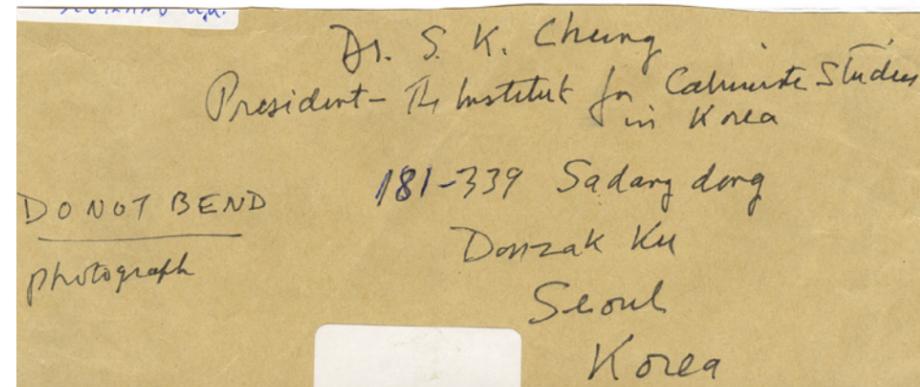
Under separate cover, I am also sending you a book by my late father, which I reissued several years ago, published by a Chinese in Chicago, called "China's First Missionaries, Ancient 'Israelites'". This was written in 1937 to help raise funds for the work of the Ch'iang Christians in Western Sichuan. All their churches (except one small formerly CIM chapel) were destroyed, and all their pastors and pastors' sons (except one, whom I knew as a boy) were shot, during Mao Tzedong's "long march" in 1935. Earlier this year three Ch'iang Christian leaders visited a friend of mine, the Rev. Dr Daniel L. Lee, of the Christian Church in Chengdu, asking if he could help them find funds for the rebuilding of their main Church in Longqi Township in Wenchuan County. He contacted me, and I am now trying to do what I can. If you know of Church sources in Korea who might like to help the Ch'iang in this way, I would be very grateful. I am now planning to return there in May and June in 1994.

I presume you know Professor and Mrs Sam Moffett of Princeton who are great friends of ours, who know about the Ch'iang. The late President James McCord of Princeton was a former student of mine. I wonder whether you studied at 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Yours sincerely,

Thomas F. Torr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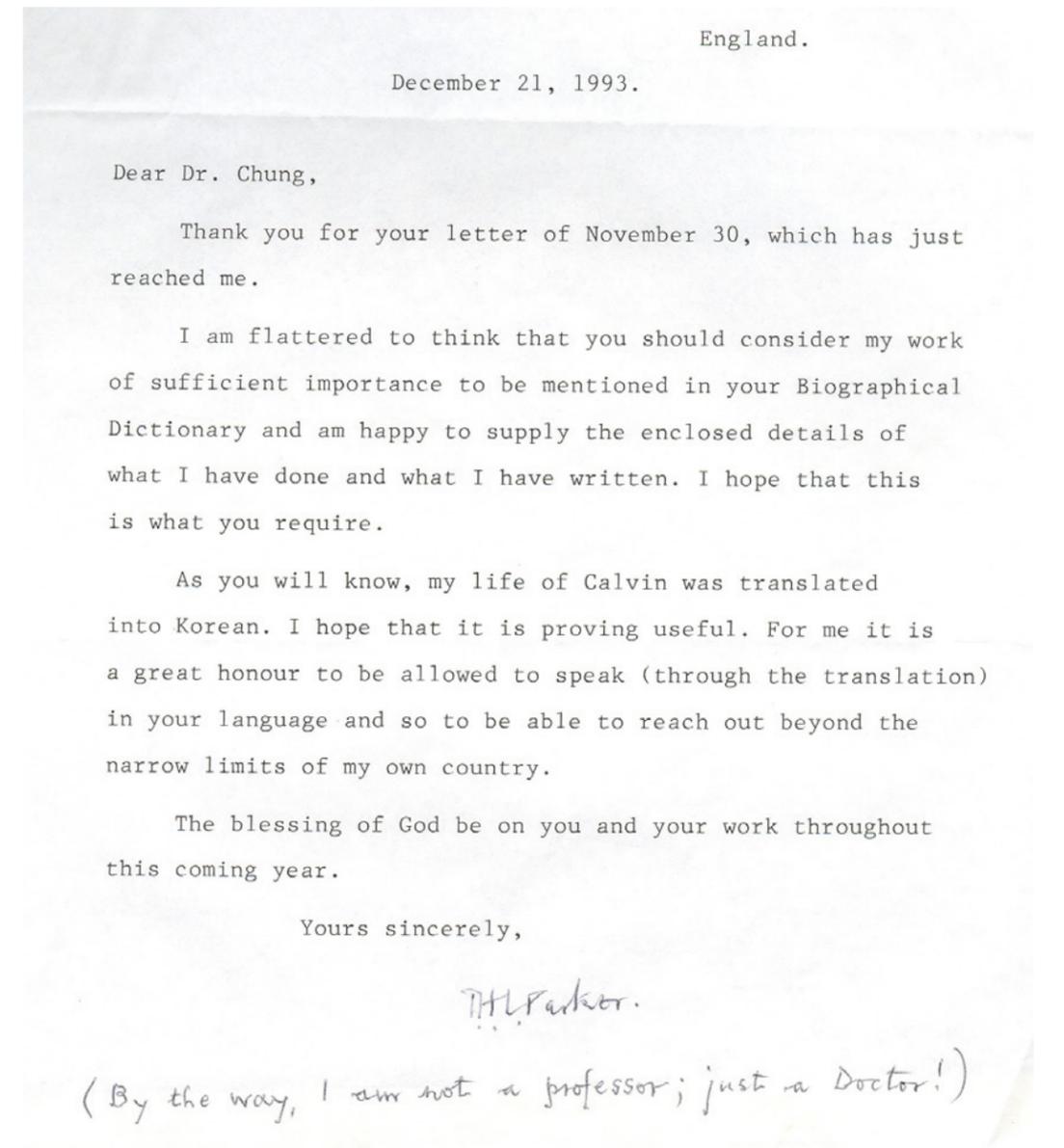
Thomas F. Torrance



루이스 파커(T. H. Louis Parker; 1916-)

파커박사는 영국의 돌함 대학교에 평생 시간강사로 있으면서 목회자로 생애를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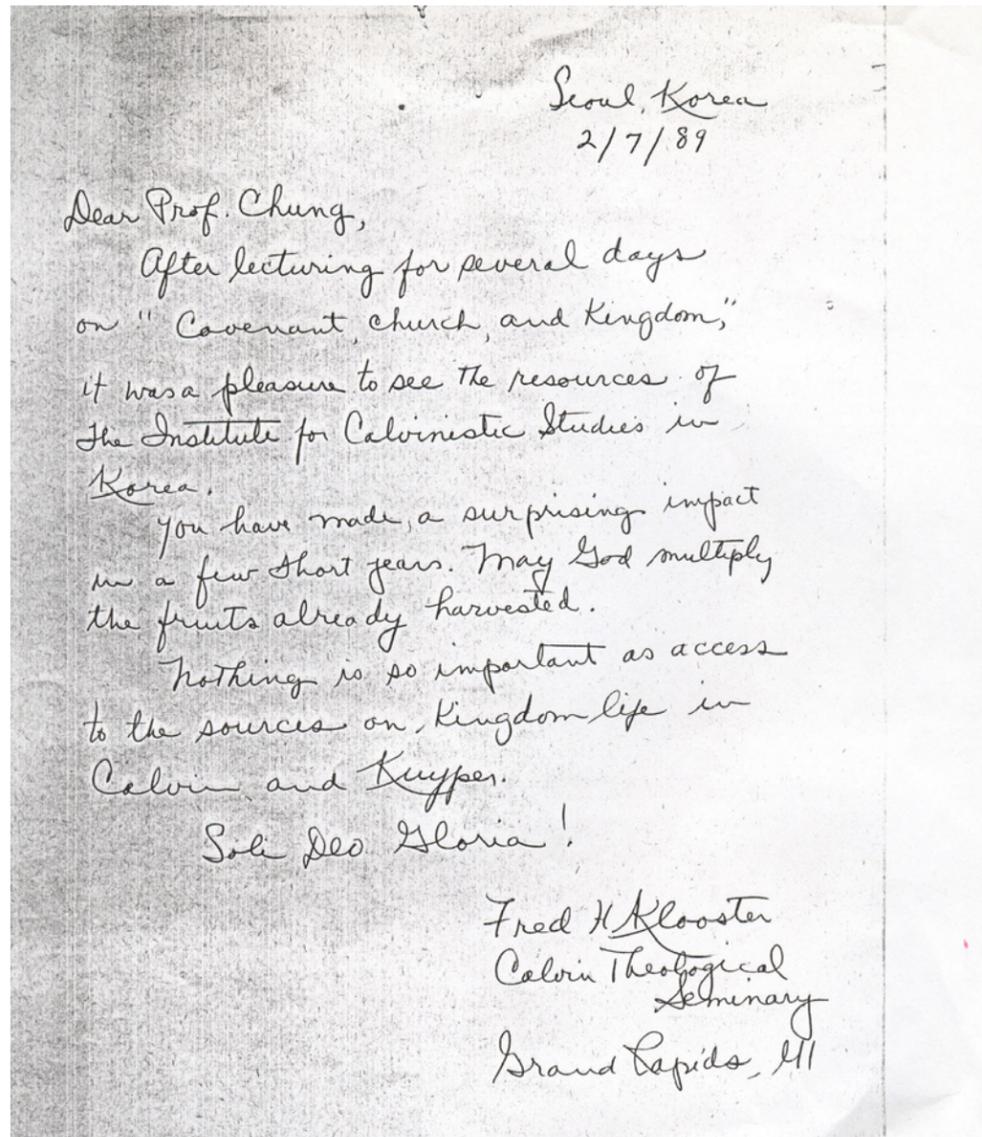
칼빈연구에 대한 세계적 권위자로서 〈하나님의 계시, 1947〉〈신지식에 대한 칼빈의 교리, 1952〉〈칼빈의 초상, 1954〉〈칼빈의 주석들, 1971〉〈존 칼빈〉〈칼빈의 구약주석들, 1986〉〈로마서 주석들, 1986〉〈칼빈의 설교, 1992〉등이 있다.



프레드 클로스터(Fred H. Klooster; 1922-?)

미국의 칼빈 연구가이자 개혁주의 교의신학자. 칼빈대, 칼빈신, 자유대학에서 1951년 <하나님의 불가해성에 대한 정통장로교에서 갈등>으로 박사학위. 칼빈신학교 교수로서 평생 칼빈과 카이퍼 연구에 바쳤다.

<하이델 교리문답><칼빈의 예정론><역사적 예수 탐구><바르트신학의 의의>등의 많은 저서가 있고 「시카고 성경 무오 성명」에 참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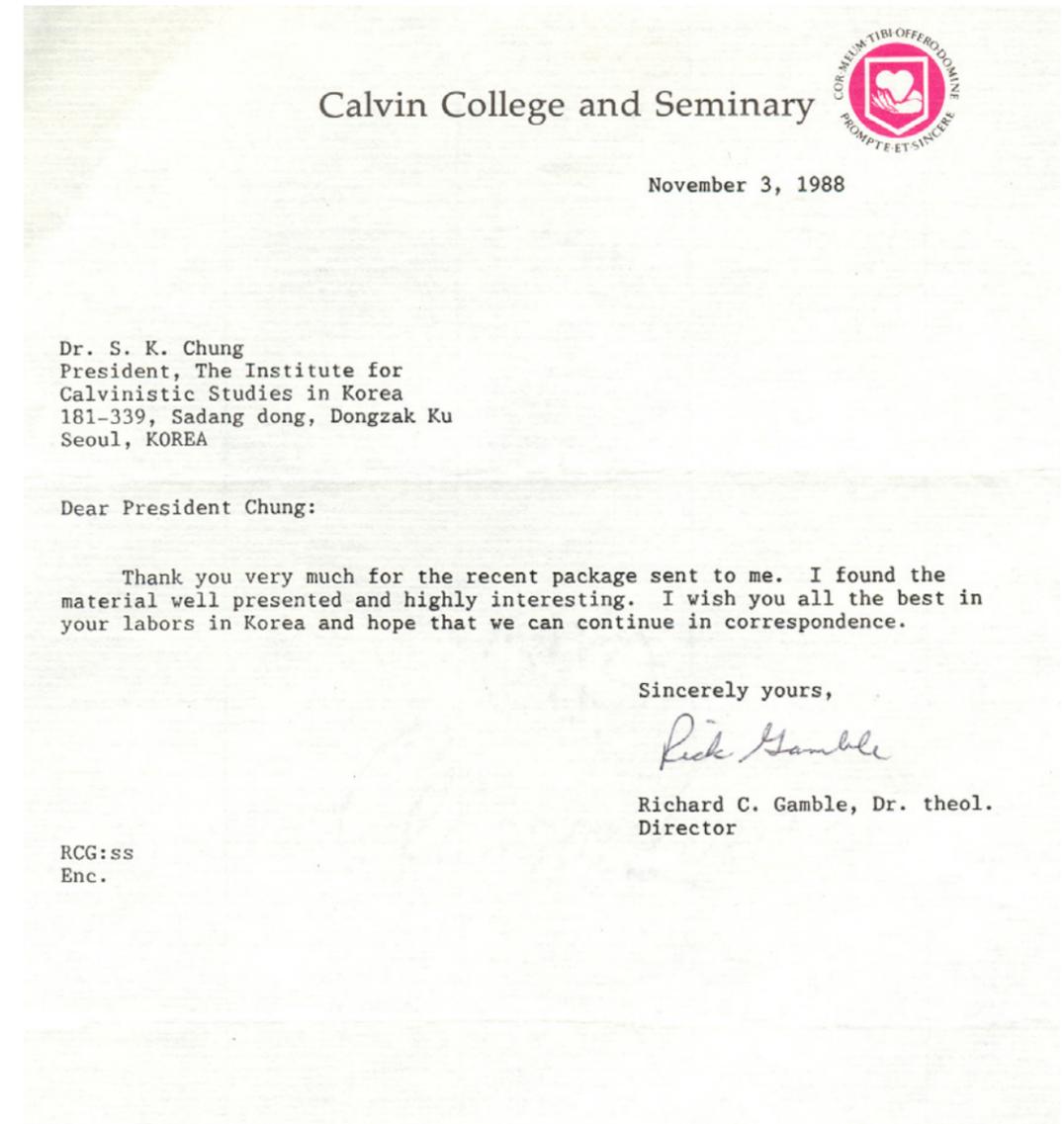


리차드 겐블(Richard C. Gamble; 1955-)

미국의 칼빈 연구가, 역사신학 및 조직신학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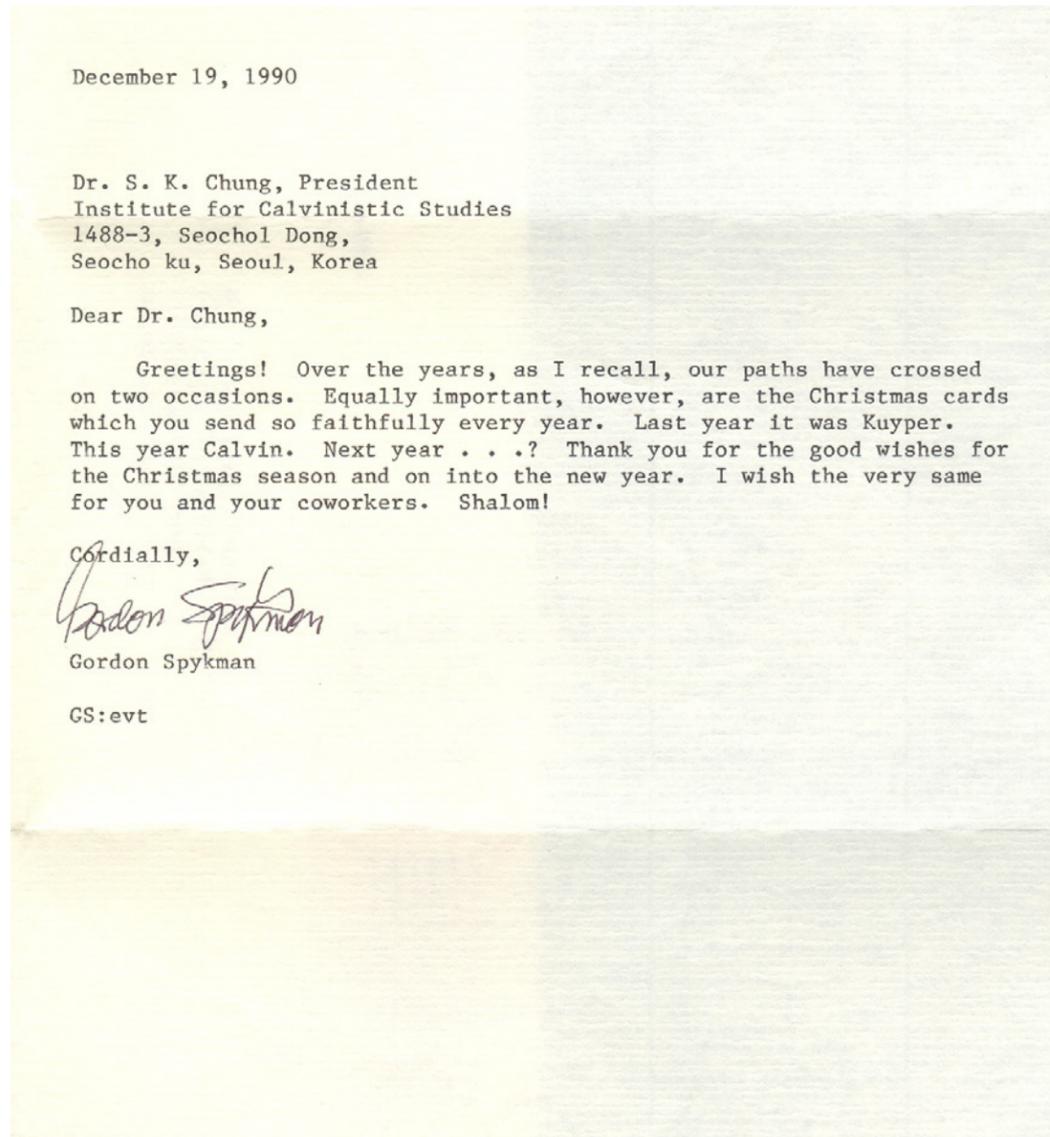
1983년 바젤대학에서 <막시무스를 반박한 어거스틴>이란 제목으로 D.Theol을 받았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 칼빈 신학교 교수. 특히 H. H. Meeter Center의 원장으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의 칼빈 연구의 대가로 발돋움했다.

미국 칼빈 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100여 편의 논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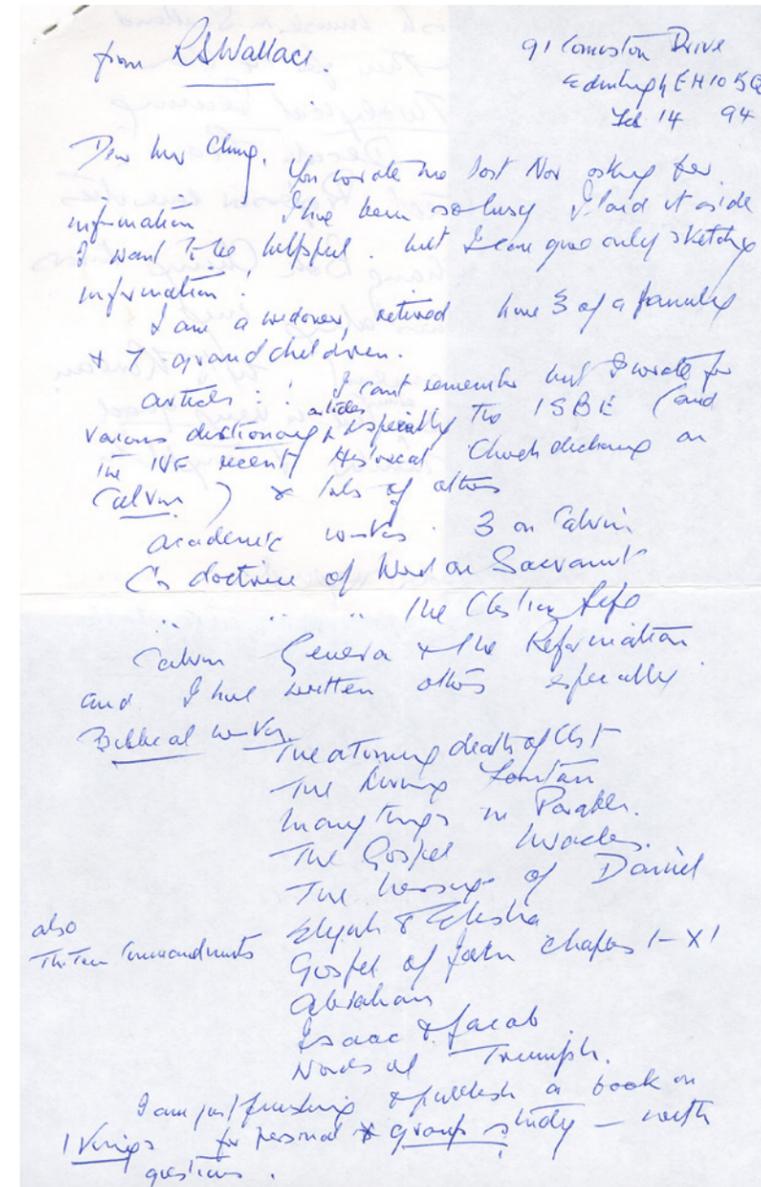
고든 스페이크만(Gordon J. Spykman; 1926-1993)

미국 기독교 개혁교회 목사. 미국의 대표적 칼빈주의 신학자. 칼빈대학의 신학 및 종교학 교수. 화란 자유대학에서 <트렌트 종교회의에서의 마찰과 반성>으로 D.Theol받음. 목회와 돌트대학. 남아공 포체스트룸 대학에 초빙교수. <기독교 학문 연구원>의 도서관장. <우리의 세계는 하나님께 속했다><개혁주의 신학><개혁자적인 설교자><사회, 국가 그리고 학교>등의 저서와 많은 논문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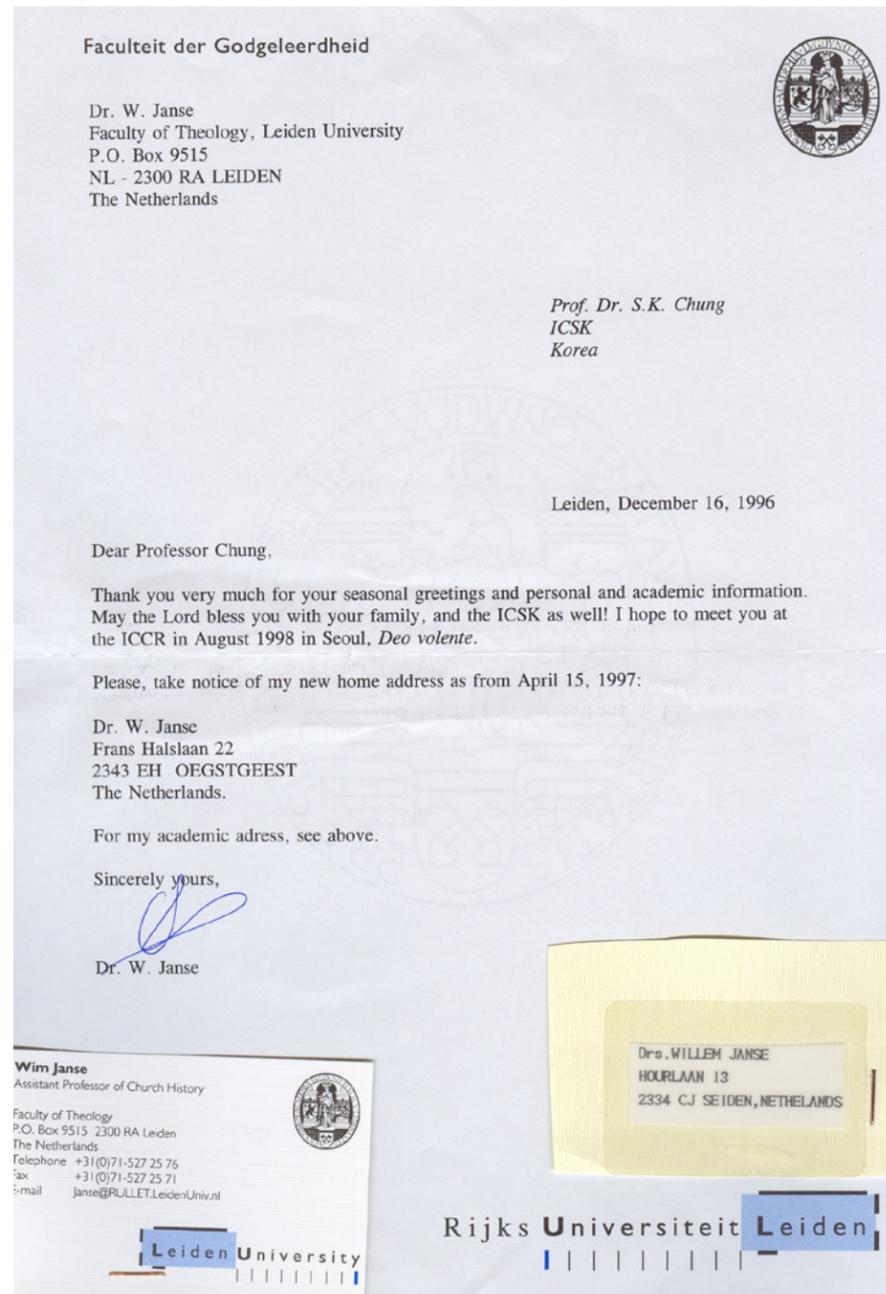
로널드 월레이스(Ronald S. Wallace)

스코트랜드 장로교회 목사로서 30년을 목회, 이 기간에 <칼빈의 말씀과 성례의 교리> <기독교적 삶의 원리> <성경 강해> 등의 저작을 냈다. 미국 콜럼비아 신학교 성경교수로 13년을 봉사했고 다시 에딘버러로 돌아와서 최근에는 <주는 왕이시다> <그리스도의 속죄적 죽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저술했다.



빔 안세(Wim Jan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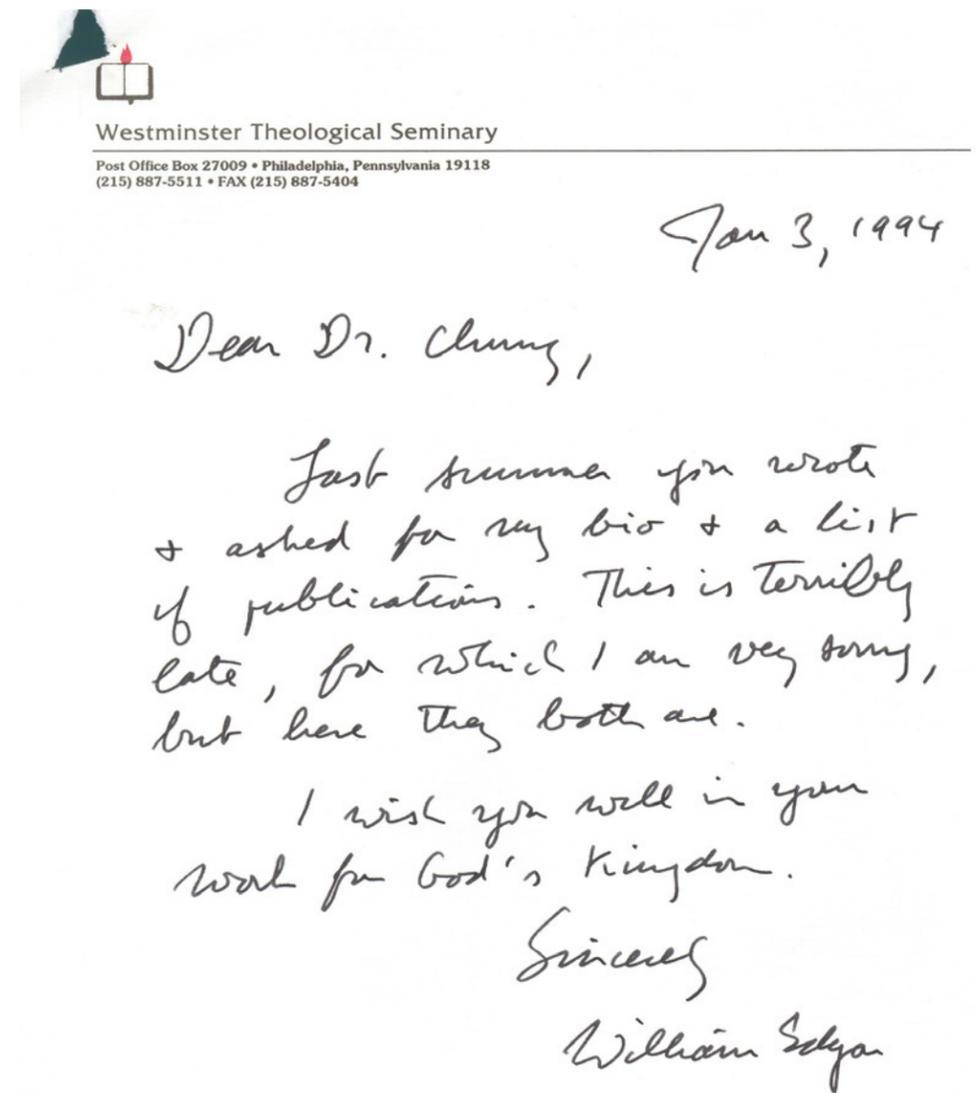
레이덴 대학 및 자유대학교 교회사 교수. 개혁주의 신학 및 칼빈 연구가.
세계 칼빈학회 회원으로 몇 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 있다.



윌리엄 에드거(William Edgar)

웨스트 민스터 신학교 변증학 교수. 1966 하버드 대학, 1969 웨스트 민스터 신학교, 1993년 스위스 제네바 대학에서 Dr. Theol을 받음. 뉴브른스위크 신학교와 불란서의 Aix-en-Provence 신학교 교수로도 일했다.

〈진리와 성령 안에서〉 〈가슴의 이성〉 〈진리의 얼굴〉 〈모든 영광 중에 진리〉 등의 저서가 있고, 많은 논문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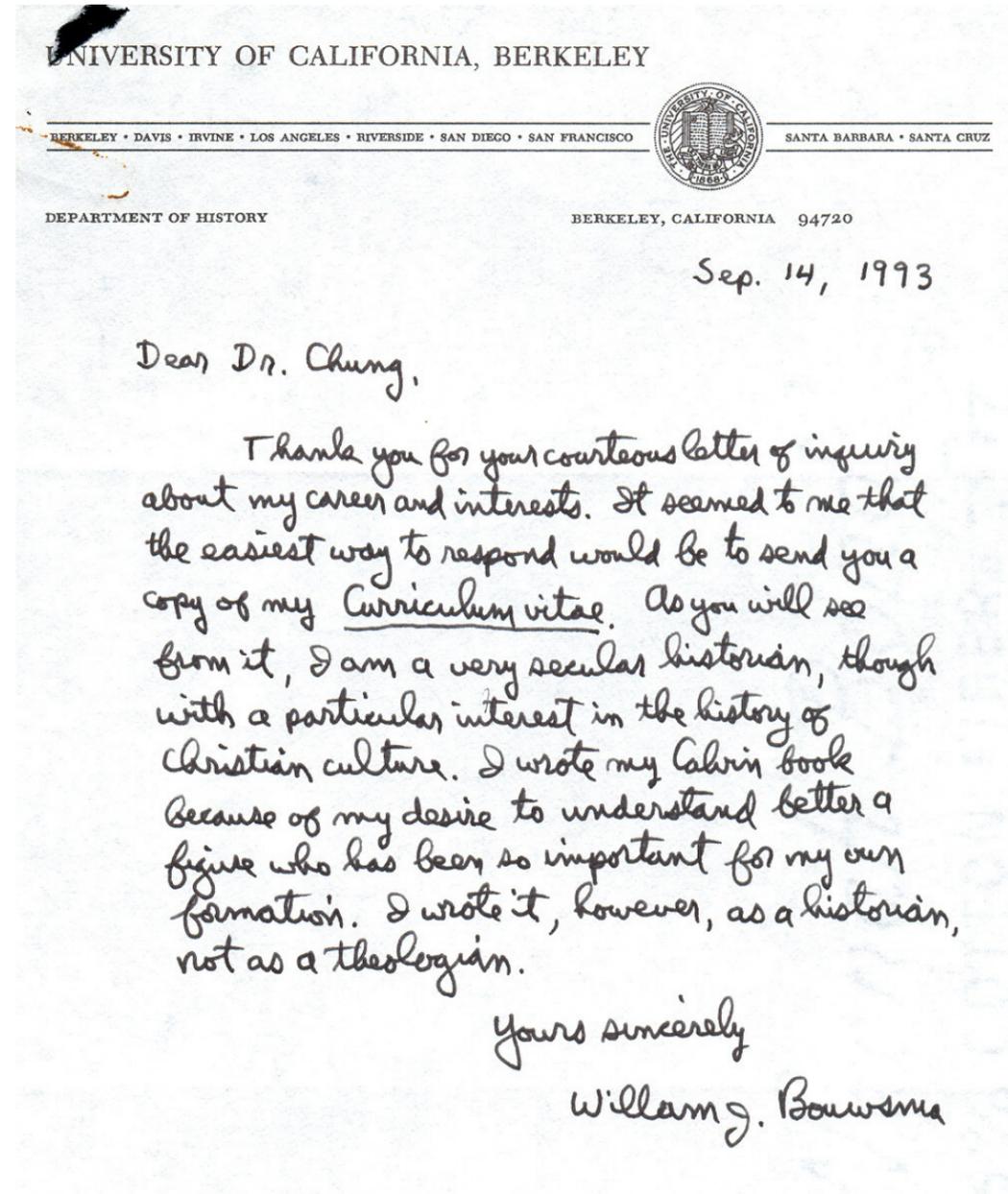


윌리엄 바우마(William Bousma)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교 역사학 교수.

하버드 대학 대학원 Ph.D. 미국 종교개혁사 연구회 회원. 헨리미터 칼빈 연구원 이사.

〈신학의 수사로서 칼빈주의〉 〈16세기의 초상 요한 칼빈〉 등 100여편의 논문이 있다.



1 9 8 5 - 2 0 1 5

한국칼빈주의
연구원 방명록

정성주 교수의 '최근의 칼빈주의' 文書運動에 감화하여
이리 왔습니다. 그리고 改革主義神學運動에
깊이 참여하여 改革主義의 功績과 功績을
나기시할 예정입니다.

루 11:36 . 김의환

1992. 8. 14.

"alóban ottkon éreztém magam ebben a
'alóin - Intézetben. Gratulálok az alapí-
r. Chung professzor úrnak, kedves barátomnak
bízatom, hogy töltse be az Intézet
hüldetését a koreai nép javára és
sten dicsőségére. Soli Deo Gloria!
Bud, 1990. március 10.

Dr. Géza Röttem!
teol. professor

2002년 새해벽두, 중근개혁주의 신심을
받으려는 Calwimer 박사의 회담에 갖는
시간가늠을 부탁드립니다.
그 후 Calwimer 주석의 초청에 힘기초하여
다들 만나서 정백사님의 수고에 영의를
드립니다. 특히 2002년 1월 9일
양성교회 강좌에 참석

"칼리워니즘은 세계의 유일한 희망"

1990. 7. 7

神戸改革派神学校
校長 牧田吉和

Dear Dr Chung,
 Thank you for inviting us
 to visit the Institute. We
 appreciate your hospitality.
 - David Ferguson, Bedford, Illinois
 USA

For and Mrs SJ Borner - Univ Pastors. South America.
 This was a honor!

Best wishes. Carry on the good work
 from Rickers, Geneva.

Mit viel Grüße
 Dr. Michael Meitzler
 Mrs. UNGAR M.

28 Aug 1998
 With greetings from
 the reformed people
 in Holland.

to F. van der Pol
 on E. Yperen our Pot. Strauch
 Hampden
 The Netherlands

Dr Chung,
 Many, many thanks for the invitation to your
 Institute & the introduction to all of the Calvinistic
 moments. May God bless & prosper you & your
 Institute.
 Brian Armstrong, Atlanta GA. 27 Aug 98

most interesting. May the Lord bless the great work that is
 being done here
 Prof Pieter Potgieter Bloemfontein South Africa.
 1998/08/27

What a marvelous center and what a fabulous collection of books
 and prints! You are to be congratulated. It is a joy and
 privilege to be here. EV Xpovtō, John Hasselink
 Western Seminary, Holland, Michigan

October 25, 1991

I am pleased to have the opportunity of writing this.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Texas. I am impressed
 by the dedication and energy with which this collection is being
 assembled. I pray for the further advance of the gospel in
 Korea, where churches God has manifestly blessed. Calvin
 himself would have been greatly pleased at this, and would
 also have been gratified at the progress of the Reformed Faith
 among your people. My experiences here serve as inspiration
 for my own labors at 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Phila-
 delphia, Pa., U.S.A. Pray for us, both as to our private concerns
 and for our labors for Christ in our churches and schools.

Robert D. Lundberg
 Professor of Apologetics

29 May 2000.

Warm greetings from the Faculty of Theology, University
 of Stellenbosch, South Africa.

It is wonderful to share this common Calvinistic heritage
 of Soli Deo Gloria.

Best wishes for the important centre of research and
 the spread of the core ideals of Calvinism.

This is a wonderful centre and resource for
 research.

Bernard + Juliette Combrink

June 19, 2000

Warm greetings in Christ to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fro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USA, with appreciation for your kind hospitality and your deep commitment to the faith once for all committed unto the Church of Christ.

PROF. Samuel H. Larsen

May God continue to bless the ICSK in its important endeavors for Christian scholarship and training. It is a pleasure, privilege, and encouragement to be here!

在 主

J. Nelson Jennings
Tokyo Christian University /
Mission to the World
1997.7.26

JUNE 27, 2000

GREETINGS IN CHRIST FROM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IN ORLANDO, FLORIDA, U.S.A. WITH DEEP APPRECIATION FOR THE INSTITUTE FOR CALVINISTIC STUDIES IN KOREA AND THE GOD-GIVEN VISION OF DR. CHUNG. WE UNITE WITH YOUR VISION FOR A NEW REFORMATION FOR BOTH THE MIND AND HEART OF THE CHURCH OF JESUS CHRIST. MAY GOD RICHLY BLESS YOUR MINISTRY FOR THE SAKE OF CHRIST AND HIS KINGDOM IN KOREA AND THROUGHOUT THE WORLD!
PROF. STEVEN L. CHILBERS

It was a pleasure to visit the Institute and to see all the books on Calvin. My best wishes to the Institute and its leader Professor Chung

Oct 4, 1997

Wolfgang Meiser
Secretary of the International Congress of Calvin research

June 21, 2001

To my esteemed Christian brother, Prof. Dr. Chung and
colleagues:

It has been a great privilege and delight to inspect this
most extraordinary collection of Reformed treasures. Truly
yours is a unique holding. May God continue to bless
and extend the ministry of the Gospel through your
dedicated efforts. *Sola gratia. Sola scriptura. Sola fidei.*

David L. Larson
Professor Emeritus of Preaching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Decatur, Illinois
USA

Isa. 59:21

Pam & Allan Gardner. (AFCL).
August 6, 1997

A great blessing to visit your new facilities. We pray
God will continue to use you in impacting many for
the cause of Christ.

Allan G.

James 3:13-18.

Jan & Dean Murray

How thankful we are to see all the
evidence of God's grace in Korea - past
and present! The promise of Psalm 145 is
fulfilled - 'one generation shall praise
Thy works to another'

May this Jina building and all its treasures
be used to help many in all the years to come.

Feb 24, 2000

Děkují za pozvání do Kalvinova Institutu v Koreji.

Velmi oceňuji soustavnou vědeckou práci a množství
materiálu. Přeji Boží požehnání pro další práci.

Thank you for your invitation into the Calvin
Institute in Korea. I appreciate very much outstanding
scholar work a many materials collected. I wish you
God's blessing for your future ministry. *Soli Deo Gloria.*

Yours in Christ Paul Cerný, Prague, Czech
Republic. President of the Evangelical
Reformed Church. September, 1997

Thank you for the most inspiring visit and explanation of the materials displayed here. We can only say, "To God be the Glory." You are indeed helping all of us to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John Calvin and his successors in guarding and guiding Christ's Church.

Dear W. Kortjman
 William Carey International University
 Pasadena, California USA
 15 August 1992

칼빈주의 正道에 献身하시는

鄭聖久 博士에게 감사음
 드립니다.

2003. 7. 7.
 大韓神學大學院 學務 教授
 趙錫萬 敬啟

칼빈 연구소의
 무궁한 발전과 하생의
 영광 더 높히리기 를
 기원 합니다

2000년 1월 29일
 미국 뉴욕 동부개혁교회
 신학교 교장 정영춘.

칼빈 研究院는 永遠하다.

2000. 1. 26.

月夜牧會 朴鍾九

칼빈주의 사상과 장로교 신학의 보고를
전확한 정성우 총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4년 3월 29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북동회관

서기 행정실
Subsang

놀랍도다 칼빈 박물관이여
성경적인 칼빈 사상이
이 세상을 날짜리 기리기 이어지기를

2000년 9월 6일

미국 뉴욕 삼일교회 당회장
목사 김인호

한국 칼빈주의 연구소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온 세계에
드러나는 역사 있기를 기원하면서...

2004년 5월 3일

이철
심사원교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온 세상에
더 넓히 들이낼수있는 개혁주의 신앙과 사상의
아름다운 복산이 될수있기를 기원하옵고
그동안의 수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은사로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신대 명예학원장

이한봉

 7.2

"하나님께 영광을"
개혁주의 신학의 신심이
되도록 인기가 높기 위하여
공신대학교

고 광 랑 박사

고 광 랑 박사

개혁주의 신학의 한국화
세계화를 위하여
'한국칼빈주의 연구회' 되게 하소서!

Soli Deo Gloria

고려대학교 (과주) 신약학 교수
허

桂

2000. 5A 18日

정신 유한 칼빈의
道學의 精神

1987. 10. 25

大韓基督長老會

總務 成甲植

하나님의 주권을 바로 인식하고 改革主義 神學의
發展을 돕고 칼빈을 研究하고 그의 文獻과 遺品들을
수집하기에 일생을 바친 鄭錫九 牧師님의 희생과 헌신에
같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韓國教會의 主流 神學은 傳統
改革主義인데 이러한 關心과 研究와 献身은 至極
當然한 일입니다. 鄭錫九 博士는 바로 이 일을
해 내었습니다. 韓國改革主義 教會가 世界教會堂
에서 最貴한 地位에 尊榮받았습니다. 그 노고에
感謝합니다.

2001. 7. 22
李載權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연구소가 되어 온세대에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1998. 3. 5

黃祐昆

27 June, 1998

It has been a great encouragement to see the Institute and envision its potential for the deeper appreciation and study of the Reformed faith and its application to the whole of life. May the Lord prosper it to his glory and to the blessing of men and women.

John MacArthur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Jackson, MS,
USA

칼빈의 하나님 사랑과
경건의 능력을 감이
배우게 하는 연구소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1999. 9. 30

改革神學研究所
교수 나용화

평생을 칼빈주의 연구에 몰입하시는
바치신 정성규 박사님의 노고와 주를

향한 열정을 높이 치하하며 온 생애를

기뻐 바친 노력들이 한국교회와 칼빈주의

부흥에 큰 기여가 있으시길 소원합니다.

2000년 7월 12일 인독 6:35

충신대학교 신약학 교수, D.M.이 원장

이 한 숙 교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鄭牧師님께
같이 感謝드립니다

2001年 6月 28日

申泰榮 長
海軍予備役少將
前韓國基督公報社長

사도복음의 진정성의
증거를 위해 주께서

사람들, 허기스킨, 루터, 칼빈.
... 개혁주신앙자와 목회자들을
들기쓰시고 특히 이 칼빈주의의
의 관행과 유지를 위해 정성
박사님을 구별하시는 그 영광
스러운 역사를 계속 전파하옵
시. 중심교회 西門康

김민주의 연구소를 방문하는
영광을 주신 鄭牧師님께 감사드리며
본 연구소의 소중한 감사를 기원합니다.
정신 개혁주의의 바른 복음을
위하여 온 기도를 잊지 않겠습니다

1997. 10. 24日

김민주 목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애를 바치신
칼빈목사님이 신학, 신앙, 삶을 한국교회에 전수
시켜주시기 위하여 정성구 목사님을 세우셔서
한국교회에 개혁주의 신앙을 더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본 연구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키워주시는 바램입니다
성령교회. 김민주 목사

Prof. Dr. Michal Bihany, Calvin J. Teol Akademia, Slovak Republic
 Prof. Wim Jansz, Leiden University, Netherlands
 Prof. Dr. D. W. van 't Spijker, Em. Theol. Univ. Chr. Gereft. Kerkem
 Apeldoorn, (The Netherlands)
 dr. F.P. van Stam,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Paul Helm, Dept. of Theology & Religious Studies, King's
 College, London.

이 같은 연구를 통해 한국 교회가 더욱 칼빈주의를 기원합니다
 1998. 8. 회(회) 121
 Prof. Dr. Eusebio Canepi, Universitat Zurich

이곳의 모든 것이 감동 감격입니다.
 한국교회와 신학의 다시 없는 자랑!
 그대로 우리의 자부심 -
 정성구 목사님의 신앙 삶 그 자체를
 느끼며 깊이 감사 드립니다.
 칼빈 사상이 한국교회 되살리는
 터전 되리라 믿습니다 1998. 9. 4.
 박애스터

偉文 할 Calvin의 神學 思想이
 한국과 온 세계에 퍼지기를!

저하에 이 글은
 총리장 김 드 빈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한국 칼빈주의 연구원 기 발전
 주 2000. 4. 26
 김 동 권 목사 진주교회
 (부흥회장)

March 18, 1999

What an impressive and helpful institute you have here with all the historical books, pictures and relics! The library is outstanding! What an excellent way to promote Calvinism as the Biblical faith here in Korea and in all of Asia and beyond. Thank you for the privilege of joining hands with you in this. God Bless You and this Institute.

Dr. Frank M. Baker, Jr.
 Briarwood Presbyterian Church,

June 27, 1998

It is a delight to visit the centre + see first hand all the work that has been put into preserving Calvinistic theology in Korea. The archive room is a wonderful space with many treasures. May God richly bless the work being done in the honour + glory of His name. Congratulations on your work!

Richard Wittenink
Redeemer College.

Particularly impressed by the re-print of the 1536 Institutio!
Irena Backus
Université de Genève

Chen Hsuei Hung
Yu-Shan Theological College
Hua-lien, TAIWAN

Minako Saito
4-34-6 Oshidate-cho
Futaba-ji Tokyo
JAPAN

P. Coetzee
Faculty of Theology
Stellenbosch
South Africa
27/6/1998

Gottkef Wiedermann,
Cambridge, UK:
Very impressed with your love for Calvin and your spiritual roots.

Shigehiro Utaga
3-37-2 Chihaya, Toshima-ku
Tokyo 171-0044 JAPAN.

Greetings

I was so pleased to view your outstanding collection. You have done a wonderful job of providing material for those who love the Reformed Faith.

Your collection of material on Abraham Kuyper excited me. I find him to be an outstanding object of your collection.

Please continue the fine work of collecting Calvinistic material and encouraging the study of Calvinism.

Allen D. Cunniff

칼빈주의 연구소의 노란색 만년필이

대개 되면 한국이 하나님주권사상을 받습시다.

이웃의 나라가 될 날이 올것을 믿습시다.

정성근목회장님의 수고에 경의를 드립니다.

2002. 5. 25

바라한국신문 발행인 송추환
.. 창간준비영감수리권리를 마치고 방불하여..

편집위원

정성구 원 장

김장진 목 사

정신애 박 사

윤상문 목 사

최종일 전도사